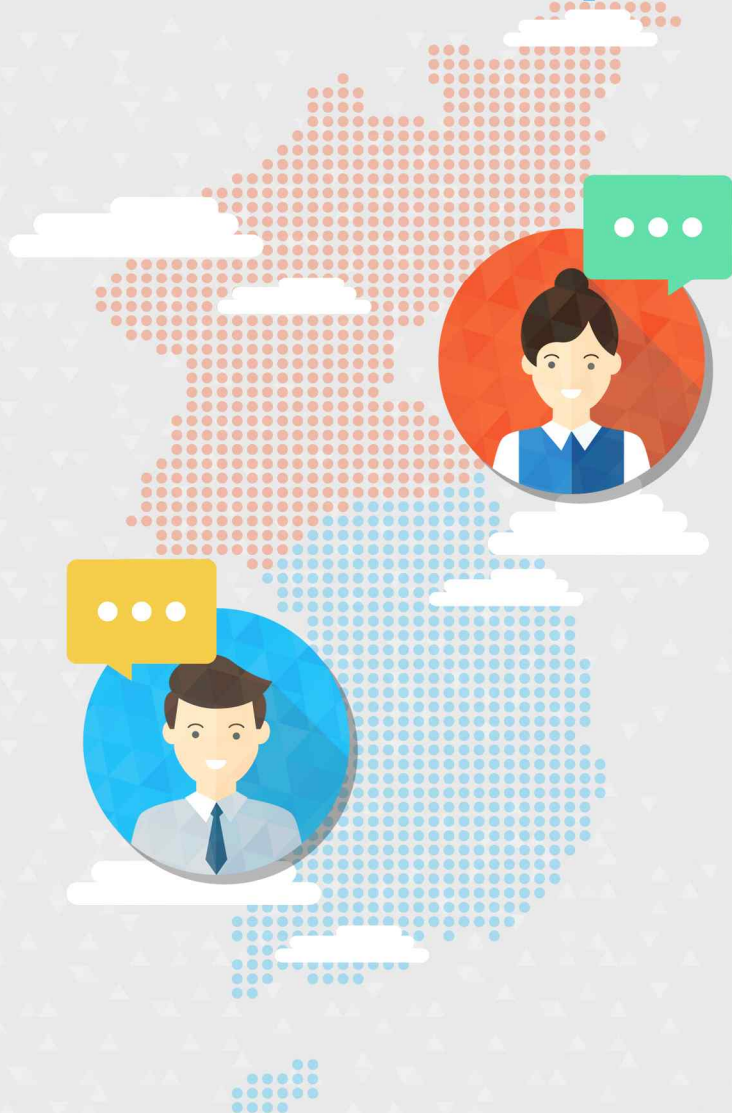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보고서

2016. 11.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보고서

2016. 11.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6년 3월 ~ 2016년 11월

2016년 11월 25일

연구책임자: 박종선(한국리서치)

연구 기관 (주)한국리서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 책임자 박종선(한국리서치 수석부장)

공동 연구원 도원영(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최호철(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경봉(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정미(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수)

이상혁(한성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강진웅(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이대성(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보조 연구원 차준경(고려대학교), 노석은(고려대학교)

최광선(한국리서치), 송한나(한국리서치)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북한 체제 불안정성에 따른 급변 사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유입 및 정착과 남북통일 당위성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현 시기 남북 언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국민 의식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리 온 통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의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통일 시기 북한 주민 대상 언어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남북 언어 통합의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 설문 문항 개발

- 통일 후 어문 규범 통합, 교육, 출판 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성 있는 설문 문항이 개발되어야 함에 따라 문항 개발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일시적인 남북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라 기본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주제와 문항을 선정

(2) 정량조사 설계의 타당성과 엄정한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 북한이탈주민 설문 조사의 경우 ‘미리 온 통일’이라는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현황 등의 자료가 아닌 실제 북한의 인구구성비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탈북시기, 학력, 직업 등을 표본 할당 변수로 추가하여 표본설계
- 북한이탈주민 접촉국민의 경우 모집단 정의와 표본추출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표본설계에 한계가 있음. 본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비확률표본추출 방식인 눈덩이 추출 방식으로 조사

(3)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제언

- 언어 정책은 그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커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 언어 통합 관련 기존의 정책과 성과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언어 및 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 언어 통합 정책 제언

주요어: 남북 언어의식, 북한이탈주민, 언어 통합, 통계

2016 Survey on Language Awareness of North and South Korea

As in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 sudden change, North Korean refugees has come and settled down in South Korea, and people's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has been chang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anguage policy for linguistic unification considering diverse inter-Korean variables at this stage through a concrete and objective survey on people's awareness. By understanding language awareness of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the survey as 'Unification in Advance', we are going to use the findings as a reference for setting language policy towards North Koreans when north and south unified in the future.

This study includes the followings.

(1) Developing a survey questionnaire to use as a basis for policy making of linguistic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Gather opinions of related experts to develop a questionnaire as the questionnaire should be detailed to be a basis for integrating language standards, education and publication policy
- Select topics and questions to grasp the fundamental awareness of people, not their emotions depending on inter-Korean relations of the time

(2) Valid quantitative survey design, and accurate sample design and sampling

- For the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design sample with considering actual population ratio of North Korea and adding when the refugees escaped, their academic backgrounds and their occupations as forcing variables, not just using the influx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to serve the survey purpose of 'Unification in Advance'
- There is a limit to the survey of people who have come in contact with North Korean refugees in that the definition of the population and the sampling frame are ambiguous. This study uses snowball sampling - one of the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 focusing on major footholds of North Korean refugees

<Abstract>

(3) Gathering of experts' opinions and making suggestions on policy direction of inter-Korean linguistic unification

- As language policy is very changeable in accordance of circumstances to propose and implement the policy and it is difficult for the current situation to be applied, check existing policies related with linguistic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and its outcomes first and based on this, gather in-depth opinions of language (North and South Korean) and policy experts to make suggestions on policy of linguistic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Keywords: language awareness of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refugees, linguistic unification, statistics

CONTENTS

목 차

제 1 장 조사 개요	1
I. 조사 배경 및 목적	3
II. 조사 내용	5
III. 조사 설계	8
IV. 응답자 특성	13
V. 남북 언어의식 조사 시 고려사항	17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21
I. 남북 언어 인식	23
1.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인지	23
2.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태도	24
3. 북한말과 남한말 사용에 대한 태도	25
4.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인지	26
II. 남북한 소통 문제	27
1. 표준어와 지역방언 사용에 대한 태도	27
2.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	28
3. 일상생활에서의 소통 문제	29
4. 사회생활에서의 소통 문제	31
5. 방송언어에 대한 소통 문제	32
6. 소통 의지	33
7.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	34
III. 통일 대비 언어 정책	35
1.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인지	35
2. 남북 언어 통합 방향	36
IV. 기타	37

CONTENTS

목 차

제 3 장 정책적 함의 및 제언	39
I. 남북 언어 인식	41
II. 남북한 소통 문제	43
III. 소통과 통합	45
IV. 정책 방향 제언	47
제 4 장 조사 결과 분석	49
I. 남북 언어 인식	51
II. 남북한 소통 문제	84
III. 통일 대비 언어 정책	136
IV. 기타	155
V. 심층 면접 조사 결과	161
제 5 장 응답자 특성별 분석	165
I. 남북 언어 인식	167
II. 남북한 소통 문제	369
III. 통일 대비 언어 정책	481
IV. 기타	526

〈표 목차〉

〈표 1-4-1〉 응답자 특성	13
〈표 1-4-2〉 응답자 특성	14
〈표 1-4-3〉 응답자 특성	15
〈표 1-4-4〉 응답자 특성	16
〈표 2-1-1〉 북한말 인지경로 (복수응답)	23
〈표 2-1-2〉 한국어 틀 안에서 ‘북한말’을 바라보는 시각	24
〈표 2-1-3〉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25
〈표 2-1-4〉 남한의 지역 방언 구별 가능 여부	25
〈표 2-1-5〉 북한말에 대한 의견	26
〈표 2-1-6〉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 (1+2+3순위)	26
〈표 2-2-1〉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의견	27
〈표 2-2-2〉 자녀의 지역 방언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견	28
〈표 2-2-3〉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28
〈표 2-2-4〉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29
〈표 2-2-5〉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남북한 사람들의 이해 정도	30
〈표 2-2-6〉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경우의 대처 방법	30
〈표 2-2-7〉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32
〈표 2-2-8〉 남한의 방송 언어 이해 정도	32
〈표 2-2-9〉 남한에서의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	33
〈표 2-2-10〉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에 대한 필요성	33
〈표 2-2-11〉 자녀의 남한말과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33
〈표 2-2-12〉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육 주관기관	34
〈표 2-2-13〉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하는 방향	34
〈표 2-3-1〉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의 시작 시기	35
〈표 2-3-2〉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35
〈표 2-3-4〉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37
〈표 2-3-5〉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위상	37
〈표 2-4-1〉 통일에 대한 생각	38
〈표 2-4-2〉 통일 가능 시점	38
〈표 4-1-1〉 북한말 연상 이미지	53
〈표 4-1-2〉 남북 단어 비교	82
〈표 4-1-3〉 남북 한글 자모 비교	83
〈표 5-1-1〉 북한말 인지경로	167
〈표 5-1-2〉 북한말 인지경로	168
〈표 5-1-3〉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접촉경로	169
〈표 5-1-4〉 북한말 연상 이미지	170
〈표 5-1-5〉 북한말 연상 이미지	172
〈표 5-1-6〉 북한에서 남한말을 접해 본 경험	173
〈표 5-1-7〉 북한에서 남한말을 접한 경로(복수응답)	174
〈표 5-1-8〉 북한말과 재중동포(조선족)의 말 차이	175
〈표 5-1-9〉 북한말과 재중동포(조선족)의 말 차이	176

〈표 5-1-10〉 북한말과 재중동포(조선족)의 말 차이	177
〈표 5-1-11〉 북한말과 재중동포(조선족) 말의 차이점	178
〈표 5-1-12〉 북한말과 재중동포(조선족) 말의 차이점	179
〈표 5-1-13〉 한국어 틀 안에서 ‘북한말’을 바라보는 시각	180
〈표 5-1-14〉 우리말에 대한 느낌 (1)정중하다	181
〈표 5-1-15〉 우리말에 대한 느낌 (1)정중하다	182
〈표 5-1-16〉 우리말에 대한 느낌 (1)정중하다	183
〈표 5-1-17〉 우리말에 대한 느낌 (1)정중하다	184
〈표 5-1-18〉 우리말에 대한 느낌 (2)차분하다	185
〈표 5-1-19〉 우리말에 대한 느낌 (2)차분하다	186
〈표 5-1-20〉 우리말에 대한 느낌 (2)차분하다	187
〈표 5-1-21〉 우리말에 대한 느낌 (2)차분하다	188
〈표 5-1-22〉 우리말에 대한 느낌 (3)세련되다	189
〈표 5-1-23〉 우리말에 대한 느낌 (3)세련되다	190
〈표 5-1-24〉 우리말에 대한 느낌 (3)세련되다	191
〈표 5-1-25〉 우리말에 대한 느낌 (3)세련되다	192
〈표 5-1-26〉 우리말에 대한 느낌 (4)부드럽다	193
〈표 5-1-27〉 우리말에 대한 느낌 (4)부드럽다	194
〈표 5-1-28〉 우리말에 대한 느낌 (4)부드럽다	195
〈표 5-1-29〉 우리말에 대한 느낌 (4)부드럽다	196
〈표 5-1-30〉 우리말에 대한 느낌 (5)듣기 좋다	197
〈표 5-1-31〉 우리말에 대한 느낌 (5)듣기 좋다	198
〈표 5-1-32〉 우리말에 대한 느낌 (5)듣기 좋다	199
〈표 5-1-33〉 우리말에 대한 느낌 (5)듣기 좋다	200
〈표 5-1-34〉 우리말에 대한 느낌 (6)순박하다	201
〈표 5-1-35〉 우리말에 대한 느낌 (6)순박하다	202
〈표 5-1-36〉 우리말에 대한 느낌 (6)순박하다	203
〈표 5-1-37〉 우리말에 대한 느낌 (6)순박하다	204
〈표 5-1-38〉 우리말에 대한 느낌 (7)강하다	205
〈표 5-1-39〉 우리말에 대한 느낌 (7)강하다	206
〈표 5-1-40〉 우리말에 대한 느낌 (7)강하다	207
〈표 5-1-41〉 우리말에 대한 느낌 (7)강하다	208
〈표 5-1-42〉 우리말에 대한 느낌 (8)느리다	209
〈표 5-1-43〉 우리말에 대한 느낌 (8)느리다	210
〈표 5-1-44〉 우리말에 대한 느낌 (8)느리다	211
〈표 5-1-45〉 우리말에 대한 느낌 (8)느리다	212
〈표 5-1-46〉 우리말에 대한 느낌 (9)가볍다	213
〈표 5-1-47〉 우리말에 대한 느낌 (9)가볍다	214
〈표 5-1-48〉 우리말에 대한 느낌 (9)가볍다	215
〈표 5-1-49〉 우리말에 대한 느낌 (9)가볍다	216
〈표 5-1-50〉 우리말에 대한 느낌 (10)낮설다	217
〈표 5-1-51〉 우리말에 대한 느낌 (10)낮설다	218
〈표 5-1-52〉 우리말에 대한 느낌 (10)낮설다	219

〈표 5-1-53〉 우리말에 대한 느낌 (10)낮설다	220
〈표 5-1-54〉 우리말에 대한 느낌 (11)품위가 없다	221
〈표 5-1-55〉 우리말에 대한 느낌 (11)품위가 없다	222
〈표 5-1-56〉 우리말에 대한 느낌 (11)품위가 없다	223
〈표 5-1-57〉 우리말에 대한 느낌 (11)품위가 없다	224
〈표 5-1-58〉 우리말에 대한 느낌 (12)장황하다	225
〈표 5-1-59〉 우리말에 대한 느낌 (12)장황하다	226
〈표 5-1-60〉 우리말에 대한 느낌 (12)장황하다	227
〈표 5-1-61〉 우리말에 대한 느낌 (12)장황하다	228
〈표 5-1-62〉 우리말에 대한 느낌 (13)불친절하다	229
〈표 5-1-63〉 우리말에 대한 느낌 (13)불친절하다	230
〈표 5-1-64〉 우리말에 대한 느낌 (13)불친절하다	231
〈표 5-1-65〉 우리말에 대한 느낌 (13)불친절하다	232
〈표 5-1-66〉 북한말에 대한 느낌 (1)정중하다	233
〈표 5-1-67〉 북한말에 대한 느낌 (1)정중하다	234
〈표 5-1-68〉 북한말에 대한 느낌 (1)정중하다	235
〈표 5-1-69〉 북한말에 대한 느낌 (1)정중하다	236
〈표 5-1-70〉 북한말에 대한 느낌 (2)차분하다	237
〈표 5-1-71〉 북한말에 대한 느낌 (2)차분하다	238
〈표 5-1-72〉 북한말에 대한 느낌 (2)차분하다	239
〈표 5-1-73〉 북한말에 대한 느낌 (2)차분하다	240
〈표 5-1-74〉 북한말에 대한 느낌 (3)세련되다	241
〈표 5-1-75〉 북한말에 대한 느낌 (3)세련되다	242
〈표 5-1-76〉 북한말에 대한 느낌 (3)세련되다	243
〈표 5-1-77〉 북한말에 대한 느낌 (3)세련되다	244
〈표 5-1-78〉 북한말에 대한 느낌 (4)부드럽다	245
〈표 5-1-79〉 북한말에 대한 느낌 (4)부드럽다	246
〈표 5-1-80〉 북한말에 대한 느낌 (4)부드럽다	247
〈표 5-1-81〉 북한말에 대한 느낌 (4)부드럽다	248
〈표 5-1-82〉 북한말에 대한 느낌 (5)듣기 좋다	249
〈표 5-1-83〉 북한말에 대한 느낌 (5)듣기 좋다	250
〈표 5-1-84〉 북한말에 대한 느낌 (5)듣기 좋다	251
〈표 5-1-85〉 북한말에 대한 느낌 (5)듣기 좋다	252
〈표 5-1-86〉 북한말에 대한 느낌 (6)순박하다	253
〈표 5-1-87〉 북한말에 대한 느낌 (6)순박하다	254
〈표 5-1-88〉 북한말에 대한 느낌 (6)순박하다	255
〈표 5-1-89〉 북한말에 대한 느낌 (6)순박하다	256
〈표 5-1-90〉 북한말에 대한 느낌 (7)강하다	257
〈표 5-1-91〉 북한말에 대한 느낌 (7)강하다	258
〈표 5-1-92〉 북한말에 대한 느낌 (7)강하다	259
〈표 5-1-93〉 북한말에 대한 느낌 (7)강하다	260
〈표 5-1-94〉 북한말에 대한 느낌 (8)느리다	261
〈표 5-1-95〉 북한말에 대한 느낌 (8)느리다	262

〈표 5-1-96〉 북한말에 대한 느낌 (8)느리다	263
〈표 5-1-97〉 북한말에 대한 느낌 (8)느리다	264
〈표 5-1-98〉 북한말에 대한 느낌 (9)가볍다	265
〈표 5-1-99〉 북한말에 대한 느낌 (9)가볍다	266
〈표 5-1-100〉 북한말에 대한 느낌 (9)가볍다	267
〈표 5-1-101〉 북한말에 대한 느낌 (9)가볍다	268
〈표 5-1-102〉 북한말에 대한 느낌 (10)낮설다	269
〈표 5-1-103〉 북한말에 대한 느낌 (10)낮설다	270
〈표 5-1-104〉 북한말에 대한 느낌 (10)낮설다	271
〈표 5-1-105〉 북한말에 대한 느낌 (10)낮설다	272
〈표 5-1-106〉 북한말에 대한 느낌 (11)품위가 없다	273
〈표 5-1-107〉 북한말에 대한 느낌 (11)품위가 없다	274
〈표 5-1-108〉 북한말에 대한 느낌 (11)품위가 없다	275
〈표 5-1-109〉 북한말에 대한 느낌 (11)품위가 없다	276
〈표 5-1-110〉 북한말에 대한 느낌 (12)장황하다	277
〈표 5-1-111〉 북한말에 대한 느낌 (12)장황하다	278
〈표 5-1-112〉 북한말에 대한 느낌 (12)장황하다	279
〈표 5-1-113〉 북한말에 대한 느낌 (12)장황하다	280
〈표 5-1-114〉 북한말에 대한 느낌 (13)불친절하다	281
〈표 5-1-115〉 북한말에 대한 느낌 (13)불친절하다	282
〈표 5-1-116〉 북한말에 대한 느낌 (13)불친절하다	283
〈표 5-1-117〉 북한말에 대한 느낌 (13)불친절하다	284
〈표 5-1-118〉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1)순우리말을 쓴다	285
〈표 5-1-119〉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1)순우리말을 쓴다	286
〈표 5-1-120〉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1)순우리말을 쓴다	287
〈표 5-1-121〉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1)순우리말을 쓴다	288
〈표 5-1-122〉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2)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289
〈표 5-1-123〉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2)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290
〈표 5-1-124〉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2)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291
〈표 5-1-125〉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2)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292
〈표 5-1-126〉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3)한자어를 많이 쓴다	293
〈표 5-1-127〉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3)한자어를 많이 쓴다	294
〈표 5-1-128〉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3)한자어를 많이 쓴다	295
〈표 5-1-129〉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3)한자어를 많이 쓴다	296
〈표 5-1-130〉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4)비속어를 많이 쓴다	297
〈표 5-1-131〉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4)비속어를 많이 쓴다	298
〈표 5-1-132〉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4)비속어를 많이 쓴다	299
〈표 5-1-133〉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4)비속어를 많이 쓴다	300
〈표 5-1-134〉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5)직설적으로 말한다	301
〈표 5-1-135〉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5)직설적으로 말한다	302
〈표 5-1-136〉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5)직설적으로 말한다	303
〈표 5-1-137〉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5)직설적으로 말한다	304
〈표 5-1-138〉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6)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305

[illegible]

〈표 5-1-182〉 북한에 있을 때의 남한말에 대한 생각	349
〈표 5-1-183〉 남한에 온 이후 남한말에 대한 느낌 변화	350
〈표 5-1-184〉 북한말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351
〈표 5-1-185〉 북한이탈주민 만나기 전후, 북한말에 대한 느낌 변화	352
〈표 5-1-186〉 남한에서 지역 방언 들어본 경험	353
〈표 5-1-187〉 남한의 지역 방언 구별 가능 여부	354
〈표 5-1-188〉 북한말에 대한 의견	355
〈표 5-1-189〉 북한말에 대한 의견	356
〈표 5-1-190〉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차이	357
〈표 5-1-191〉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점	358
〈표 5-1-192〉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1+2+3순위)	359
〈표 5-1-193〉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1+2+3순위)	360
〈표 5-1-194〉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1+2+3순위)	361
〈표 5-1-195〉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1+2+3순위)	362
〈표 5-1-196〉 남한말과 북한말의 표기법 차이	363
〈표 5-1-197〉 남북 단어 비교	364
〈표 5-1-198〉 남북 단어 비교	365
〈표 5-1-199〉 남북 단어 비교	366
〈표 5-1-200〉 남북 한글 자모 비교	367
〈표 5-1-201〉 남북 한글 자모 비교	368
〈표 5-1-202〉 남북 한글 자모 비교	368
〈표 5-2-1〉 지역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의 느낌	369
〈표 5-2-2〉 지역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의 느낌	370
〈표 5-2-3〉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역 방언 사용의 영향	371
〈표 5-2-4〉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역 방언 사용의 영향	372
〈표 5-2-5〉 말씨로 인한 무시나 차별 받은 경험	373
〈표 5-2-6〉 말씨로 인한 무시나 차별 받은 경험	374
〈표 5-2-7〉 말씨를 표준어로 바꾸는 것의 필요성	375
〈표 5-2-8〉 말씨를 표준어로 바꾸는 것의 필요성	376
〈표 5-2-9〉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의견	377
〈표 5-2-10〉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의견	378
〈표 5-2-11〉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의견	379
〈표 5-2-12〉 자녀의 지역 방언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견	380
〈표 5-2-13〉 자녀의 지역 방언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견	381
〈표 5-2-14〉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경험 및 빈도	382
〈표 5-2-15〉 북한말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383
〈표 5-2-16〉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384
〈표 5-2-17〉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385
〈표 5-2-18〉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정도	386
〈표 5-2-19〉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387
〈표 5-2-20〉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 방법	388
〈표 5-2-21〉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정도	389
〈표 5-2-22〉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390

〈표 5-2-23〉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정도	391
〈표 5-2-24〉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392
〈표 5-2-25〉 남한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 방법	393
〈표 5-2-26〉 남한말 중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의 대처 방법	394
〈표 5-2-27〉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정도	395
〈표 5-2-28〉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이해 정도	396
〈표 5-2-29〉 본인이 하는 말을 북한이탈주민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397
〈표 5-2-30〉 본인이 하는 말을 남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398
〈표 5-2-31〉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경우의 대처 방법	399
〈표 5-2-32〉 남한 사람들이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경우의 대처 방법	400
〈표 5-2-33〉 북한이탈주민과 대화 시 경험 (1) 내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였다	401
〈표 5-2-34〉 남한 사람과 대화 시 경험 (1) 내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였다	402
〈표 5-2-35〉 북한이탈주민과 대화 시 경험 (2) 나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마치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 같았다	403
〈표 5-2-36〉 남한 사람과 대화 시 경험 (2) 나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마치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 같았다	404
〈표 5-2-37〉 북한이탈주민과 대화 시 경험 (3)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직접적으로 거절했더니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불쾌해하였다	405
〈표 5-2-38〉 남한 사람과 대화 시 경험 (3)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직접적으로 거절했더니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불쾌해하였다	406
〈표 5-2-39〉 북한이탈주민과 대화 시 경험 (4)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다	407
〈표 5-2-40〉 남한 사람과 대화 시 경험 (4)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다	408
〈표 5-2-41〉 북한이탈주민과 대화 시 경험 (5) 사과를 직접적으로 바로 했더니 상대방이 당황해하였다	409
〈표 5-2-42〉 남한 사람과 대화 시 경험 (5) 사과를 직접적으로 바로 했더니 상대방이 당황해하였다	410
〈표 5-2-43〉 북한이탈주민과 대화 시 경험 (6) 상대방이 칭찬을 했는데 내가 칭찬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411
〈표 5-2-44〉 남한 사람과 대화 시 경험 (6) 상대방이 칭찬을 했는데 내가 칭찬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412
〈표 5-2-45〉 북한이탈주민과 대화 시 경험 (7) 상대방과 약속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약속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413
〈표 5-2-46〉 남한 사람과 대화 시 경험 (7) 상대방과 약속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약속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414
〈표 5-2-47〉 북한이탈주민과 대화 시 경험 (8)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415
〈표 5-2-48〉 남한 사람과 대화 시 경험 (8)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416
〈표 5-2-49〉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말의 어려움	417
〈표 5-2-50〉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	418
〈표 5-2-51〉 학교나 직장에서 쓰는 말의 어려움	419
〈표 5-2-52〉 학교나 직장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	420
〈표 5-2-53〉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한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의 차이	421
〈표 5-2-54〉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한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북한주민이 쓰는 말의 차이	422
〈표 5-2-55〉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한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의 차이	423
〈표 5-2-56〉 방송에서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점	424
〈표 5-2-57〉 방송에서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점	425
〈표 5-2-58〉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426
〈표 5-2-59〉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427
〈표 5-2-60〉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428
〈표 5-2-61〉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429
〈표 5-2-62〉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제재 필요성	430

〈표 5-2-63〉 남한의 방송 언어 이해 정도 (1) 보도(뉴스)	431
〈표 5-2-64〉 남한의 방송 언어 이해 정도 (2) 시사·교양	432
〈표 5-2-65〉 남한의 방송 언어 이해 정도 (3) 드라마	433
〈표 5-2-66〉 남한의 방송 언어 이해 정도 (4) 예능	434
〈표 5-2-67〉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1) 보도(뉴스)	435
〈표 5-2-68〉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1) 보도(뉴스)	436
〈표 5-2-69〉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1) 보도(뉴스)	437
〈표 5-2-70〉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1) 보도(뉴스)	438
〈표 5-2-71〉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2) 시사·교양	439
〈표 5-2-72〉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2) 시사·교양	440
〈표 5-2-73〉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2) 시사·교양	441
〈표 5-2-74〉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2) 시사·교양	442
〈표 5-2-75〉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3) 드라마	443
〈표 5-2-76〉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3) 드라마	444
〈표 5-2-77〉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3) 드라마	445
〈표 5-2-78〉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3) 드라마	446
〈표 5-2-79〉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4) 예능	447
〈표 5-2-80〉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4) 예능	448
〈표 5-2-81〉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4) 예능	449
〈표 5-2-82〉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4) 예능	450
〈표 5-2-83〉 대화 시 어려움 경험 빈도 (1) 새롭게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	451
〈표 5-2-84〉 대화 시 어려움 경험 빈도 (2) 줄여 쓰는 말	452
〈표 5-2-85〉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453
〈표 5-2-86〉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454
〈표 5-2-87〉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455
〈표 5-2-88〉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456
〈표 5-2-89〉 남한에서의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	457
〈표 5-2-90〉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	458
〈표 5-2-91〉 북한 말씨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	459
〈표 5-2-92〉 북한 말씨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과 다른 방언 화자에게 미치는 영향 비교	460
〈표 5-2-93〉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461
〈표 5-2-94〉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462
〈표 5-2-95〉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경험	463
〈표 5-2-96〉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에 대한 필요성	464
〈표 5-2-97〉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한 노력	465
〈표 5-2-98〉 자녀의 남한말과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466
〈표 5-2-99〉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의 필요성	467
〈표 5-2-100〉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의 필요성	468
〈표 5-2-101〉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의 필요성	469
〈표 5-2-102〉 남한말 교육의 필요성	470
〈표 5-2-10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	471
〈표 5-2-104〉 북한이탈주민이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	472
〈표 5-2-105〉 북한이탈주민이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	473

〈표 5-2-106〉 북한이탈주민이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	474
〈표 5-2-107〉 북한이탈주민이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	475
〈표 5-2-108〉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476
〈표 5-2-109〉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육 주관기관	477
〈표 5-2-110〉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478
〈표 5-2-111〉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하는 방향	479
〈표 5-2-112〉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480
〈표 5-3-1〉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	481
〈표 5-3-2〉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	482
〈표 5-3-3〉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	483
〈표 5-3-4〉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	484
〈표 5-3-5〉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	485
〈표 5-3-6〉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	486
〈표 5-3-7〉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	487
〈표 5-3-8〉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	488
〈표 5-3-9〉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의 필요성	489
〈표 5-3-10〉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의 필요성	490
〈표 5-3-11〉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의 필요성	491
〈표 5-3-12〉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의 필요성	492
〈표 5-3-13〉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의 시작 시기	493
〈표 5-3-14〉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의 시작 시기	494
〈표 5-3-15〉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의 시작 시기	495
〈표 5-3-16〉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의 시작 시기	496
〈표 5-3-17〉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497
〈표 5-3-18〉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498
〈표 5-3-19〉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499
〈표 5-3-20〉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500
〈표 5-3-21〉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501
〈표 5-3-22〉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502
〈표 5-3-23〉 통일부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 인지 여부	503
〈표 5-3-24〉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	504
〈표 5-3-25〉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	505
〈표 5-3-26〉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	506
〈표 5-3-27〉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	507
〈표 5-3-28〉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1+2+3순위)	508
〈표 5-3-29〉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1+2+3순위)	509
〈표 5-3-30〉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1+2+3순위)	510
〈표 5-3-31〉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1+2+3순위)	511
〈표 5-3-32〉 추가적으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512
〈표 5-3-33〉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513
〈표 5-3-34〉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514
〈표 5-3-35〉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515
〈표 5-3-36〉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	516

〈표 5-3-37〉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	517
〈표 5-3-38〉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	518
〈표 5-3-39〉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519
〈표 5-3-40〉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520
〈표 5-3-41〉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521
〈표 5-3-42〉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522
〈표 5-3-43〉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필요성	523
〈표 5-3-44〉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위상	524
〈표 5-3-45〉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525
〈표 5-4-1〉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	526
〈표 5-4-2〉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	527
〈표 5-4-3〉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	528
〈표 5-4-4〉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	529
〈표 5-4-5〉 국민들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의견	530
〈표 5-4-6〉 국민들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의견	531
〈표 5-4-7〉 국민들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의견	532
〈표 5-4-8〉 국민들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의견	533
〈표 5-4-9〉 국민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	534
〈표 5-4-10〉 국민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	535
〈표 5-4-11〉 국민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	536
〈표 5-4-12〉 국민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	537
〈표 5-4-13〉 남한생활 만족도	538
〈표 5-4-14〉 남한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539
〈표 5-4-15〉 통일에 대한 생각	540
〈표 5-4-16〉 통일에 대한 생각	541
〈표 5-4-17〉 통일에 대한 생각	542
〈표 5-4-18〉 통일에 대한 생각	543
〈표 5-4-19〉 통일 가능 시점	544
〈표 5-4-20〉 통일 가능 시점	545
〈표 5-4-21〉 통일 가능 시점	546
〈표 5-4-22〉 통일 가능 시점	547

〈그림 목차〉

〈그림 2-1-1〉 우리말과 북한말에 대한 느낌	24
〈그림 2-2-1〉 각 상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 간의 대화 시 경험 빈도	31
〈그림 4-1-1〉 북한말 인지경로 (복수응답)	51
〈그림 4-1-2〉 남한말 인지도	54
〈그림 4-1-3〉 남한말 인지경로 (복수응답)	55
〈그림 4-1-4〉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 차이 정도	56
〈그림 4-1-5〉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이 차이점	57
〈그림 4-1-6〉 한국어 틀 안에서 ‘북한말’을 바라보는 시각	58
〈그림 4-1-7〉 우리말에 대한 느낌	60
〈그림 4-1-8〉 북한말에 대한 느낌	62
〈그림 4-1-9〉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63
〈그림 4-1-10〉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64
〈그림 4-1-11〉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65
〈그림 4-1-12〉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66
〈그림 4-1-13〉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5) 직설적으로 말한다	67
〈그림 4-1-14〉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68
〈그림 4-1-15〉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69
〈그림 4-1-16〉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70
〈그림 4-1-17〉 북한에 있을 때 남한말에 대한 생각	71
〈그림 4-1-18〉 남한에 온 이후 남한말에 대한 생각	72
〈그림 4-1-19〉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73
〈그림 4-1-20〉 북한이탈주민 만나기 전 후, 북한말에 대한 느낌 변화	74
〈그림 4-1-21〉 남한에서 지역 방언 들어본 경험	75
〈그림 4-1-22〉 남한의 지역 방언 구별 가능 여부	76
〈그림 4-1-23〉 북한말에 대한 의견	77
〈그림 4-1-24〉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차이	78
〈그림 4-1-25〉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점	79
〈그림 4-1-26〉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 (1+2+3순위)	80
〈그림 4-1-27〉 남한말과 북한말의 표기법 차이 인지	81
〈그림 4-2-1〉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의 느낌	85
〈그림 4-2-2〉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역 방언 사용의 영향	86
〈그림 4-2-3〉 말씨로 인한 무시나 차별 받은 경험	87
〈그림 4-2-4〉 말씨를 표준어로 바꾸는 것의 필요성	88
〈그림 4-2-5〉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의견	89
〈그림 4-2-6〉 자녀의 지역 방언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견	90
〈그림 4-2-7〉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91
〈그림 4-2-8〉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경험 및 빈도	92
〈그림 4-2-9〉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정도	93
〈그림 4-2-10〉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94
〈그림 4-2-11〉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 방법	95
〈그림 4-2-1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 시 언어의 중요성	96

〈그림 4-2-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97
〈그림 4-2-14〉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정도	98
〈그림 4-2-15〉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99
〈그림 4-2-16〉 남한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 방법	100
〈그림 4-2-17〉 남한말 중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의 대처 방법	101
〈그림 4-2-18〉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남북한 사람들의 이해 정도	102
〈그림 4-2-19〉 본인이 하는 말을 북한이탈주민/남한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103
〈그림 4-2-20〉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경우의 대처 방법	104
〈그림 4-2-21〉 각 상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 간의 대화 시 경험 빈도	105
〈그림 4-2-22〉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말의 어려움	106
〈그림 4-2-23〉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	107
〈그림 4-2-24〉 학교나 직장에서 쓰는 말의 어려움	108
〈그림 4-2-25〉 학교나 직장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	109
〈그림 4-2-26〉 대화 시 어려움 경험 빈도	110
〈그림 4-2-27〉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한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의 차이 ·	112
〈그림 4-2-28〉 방송에서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점	113
〈그림 4-2-29〉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115
〈그림 4-2-30〉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제재 필요성	116
〈그림 4-2-31〉 남한의 방송 언어 이해 정도	117
〈그림 4-2-32〉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118
〈그림 4-2-33〉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119
〈그림 4-2-34〉 남한에서의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	120
〈그림 4-2-35〉 북한 말씨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	121
〈그림 4-2-36〉 북한 말씨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과 다른 방언 화자에게 미치는 영향 비교	122
〈그림 4-2-37〉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123
〈그림 4-2-38〉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경험	124
〈그림 4-2-39〉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에 대한 필요성	125
〈그림 4-2-40〉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한 노력	126
〈그림 4-2-41〉 자녀의 남한말과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127
〈그림 4-2-42〉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의 필요성	128
〈그림 4-2-43〉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이 필요한 분야	129
〈그림 4-2-4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	130
〈그림 4-2-45〉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131
〈그림 4-2-46〉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육 주관기관	132
〈그림 4-2-47〉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133
〈그림 4-2-48〉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하는 방향	134
〈그림 4-2-49〉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135
〈그림 4-3-1〉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	136
〈그림 4-3-2〉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	137
〈그림 4-3-3〉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의 필요성	139
〈그림 4-3-4〉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의 시작 시기	140
〈그림 4-3-5〉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141
〈그림 4-3-6〉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142

〈그림 4-3-7〉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143
〈그림 4-3-8〉 통일부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 인지 여부	144
〈그림 4-3-9〉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	146
〈그림 4-3-10〉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1+2+3순위)	147
〈그림 4-3-11〉 추가적으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48
〈그림 4-3-12〉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149
〈그림 4-3-13〉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	150
〈그림 4-3-14〉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151
〈그림 4-3-15〉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필요성	152
〈그림 4-3-16〉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위상	153
〈그림 4-3-17〉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154
〈그림 4-4-1〉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	155
〈그림 4-4-2〉 국민들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의견	156
〈그림 4-4-3〉 국민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	157
〈그림 4-4-4〉 남한생활 만족도	158
〈그림 4-4-5〉 통일에 대한 생각	159
〈그림 4-4-6〉 통일 가능 시점	160



1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유입 및 정착, 북한 체제 불안정성에 따른 급변 사태 가능성 고조, 이른바 ‘통일 대박’에 대한 기대감 상승, 남북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 등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제기되고 있음.
- ✓ 본 조사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현 시기 남북 언어 통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남북 언어 통합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 ‘미리 온 통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통합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여, 향후 통일 시기 북한 주민 대상 언어 통합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따른 급변하는 사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누적된 결과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많은 사회적 현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남한으로의 유입과 정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그 차이에서 오는 언어적 소외감도 크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터전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되면서 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체제 우월성에 기반을 두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재교육 하는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소망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변화의 추이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조사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현 시기 남북 언어 통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남북 언어 통합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미리 온 통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통합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여, 향후 통일 시기 북한 주민 대상 언어 통합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Key Research Objectives

1 남북 언어 현실에 대한 인식 파악

-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인지
-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태도 및 그 사용에 대한 태도
-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인지

2 북한이탈주민 등과의 소통 문제와 소통 의지 파악

- 표준어와 지역방언 사용에 대한 태도
-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소통 문제
- 남한 주민과의 소통 의지
- 북한이탈 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

3 남북 언어 통합의 필요성과 통일 대비 언어정책 방향 파악

- 현 시기 남북 언어 통합 노력에 대한 인지
- 통일 후 남북 언어 통합 방향

본 조사는 크게 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조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남북 언어 현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다. 남한말과 북한말에 대한 인지 정도, 그리고 두 말에 대한 태도와 그 사용에 대한 태도, 아울러 두 말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는 정도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둘째로 남북한 구성원들의 상호간 소통 문제와 소통 의지 파악에 있다. 표준어와 각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태도, 남한 및 북한이탈주민 간의 소통의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주민과의 소통 의지의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의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를 병행하였다.

셋째로 남북 언어 통합의 필요성 및 통일 대비 언어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현 시기 남북 언어 통합 노력에 대한 인지, 통일 후 남북 언어 통합의 방향에 대한 조사가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을 둔 조사 내용은 크게 네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 설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설계를 통해 설정한 응답자는 일반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접촉국민, 전문가 집단이다. 각 집단은 남북 언어의식 조사에서 서로 상이한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그룹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집단은 각 집단별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혼인 유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균질하게 모집하여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의 직업, 입국 시기, 제3국에 거주한 기간 등도 고려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접촉 국민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한 장소에 대한 내용도 고려하였다.

II. 조사 내용

차원		내용	일반인	접촉 국민	이탈 주민	전문가
남북 언어 인식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인지	북한말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		○
		북한말 연상 이미지	○	○		
		북한에서 남한말 접해 본 경험 및 경로			○	
		북한말과 재중동포(조선족)의 말 차이	○	○	○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태도	한국어 틀 안에서 ‘북한말’을 바라보는 시각				○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느낌	○	○	○	○
		북한 및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	○	○	○
	북한말과 남한말 사용에 대한 태도	남한에 오기 전과 후, 남한말에 대한 느낌 변화			○	
		북한말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		
		북한이탈주민 만나기 전과 후, 북한말에 대한 느낌 변화		○		
		남한에서 지역 방언 들어본 경험 및 구별 가능 여부			○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인지	북한말에 대한 의견	○	○		
		방언과 북한말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차이			○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	○	○	○	○
		남한말과 북한말의 표기법 차이 인지			○	
		남북 단어 비교	○	○	○	
		남북 한글 자모 비교	○	○	○	
남북한 소통 문제	표준어와 지역방언 사용에 대한 태도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의 느낌	○	○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역 방언 사용의 영향	○	○		
		말씨로 인한 무시나 차별 받은 경험	○	○		
		말씨를 표준어로 바꾸는 것의 필요성	○	○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의견	○	○		○
		자녀의 지역 방언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견	○	○		
	북한이탈 주민과의 소통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경험 및 빈도				○
		북한말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	○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정도		○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및 대처 방법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 시 언어의 중요성				○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

차원		내용	일반인	접촉 국민	이탈 주민	전문가
남북한 소통 문제	일상생활 에서의 소통 문제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정도			○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및 대처 방법			○	
		남한말 중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의 대처 방법			○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정도		○	○	
		본인이 하는 말을 북한이탈주민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및 대처 방법		○	○	
		북한이탈주민과 대화 시 경험 빈도		○	○	
	사회생활 에서의 소통 문제	공공 기관,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말의 어려움과 그 이유			○	
		학교나 직장 등에서 쓰는 말의 어려움과 그 이유			○	
	방송언어에 대한 소통 문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한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의 차이		○	○	○
		방송에서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점			○	○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	○	○	○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제재 필요성				○
		남한의 방송 언어 이해 정도			○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	○	○	○
		대화 시 어려움 경험 빈도			○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	○	○	○
	소통 의지	남한에서의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			○	○
		북한 말씨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과 다른 방언 화자에게 미치는 영향 비교				○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	○	○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에 대한 필요성			○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한 노력			○	
		자녀의 남한말과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	
		남한말 교육의 필요성	○	○	○	○
	북한이탈 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				○
		북한이탈주민이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	○	○	○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 주관 기관				○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하는 방향				○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차원		내용	일반인	접촉 국민	이탈 주민	전문가
통일 대비 언어정책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인지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	○	○	○	○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	○	○	○	○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의 필요성	○	○	○	○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의 시작 시기	○	○	○	○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	○	○	○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
		통일부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인지 여부				○
	남북 언어 통합 방향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	○	○	○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	○	○	○
		추가적으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	○	○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	○	○	○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필요성				○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위상				○
기타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	○	○	○	○
		국민들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의견	○	○	○	○
		남한생활 만족도			○	
		통일에 대한 생각	○	○	○	○
		통일 가능 시점	○	○	○	○

III. 조사 설계

1. 일반인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크기	2,021명
표본 추출	지역별 다단계층화추출 후, 2016년 2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함.
표집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pm 2.2\%p$
조사 방법	대면면접 조사 (PI: Personal Interview)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및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서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해 분석함.
조사 기간	2016년 8월 8일 ~ 2016년 9월 19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2. 북한이탈주민 접촉국민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
표본 크기	200명
표집틀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만날 수 있는 주요 거점을 선정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국민을 선별함. * 주요 거점: 이웃 및 주변 지인, 종교시설, 학교나 직장, 단체 등
표본 추출	눈덩이 표집(Snow ball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되, 거점 유형별 일정 표본을 균등하게 할당함.
조사 방법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에 의한 대면 면접 조사 (PI : Personal Interview)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및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서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해 분석함.
조사 기간	2016년 8월 8일 ~ 2016년 9월 20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3. 북한이탈주민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2016년 2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표본 크기	305명
표집틀	2008년 UN인구활동기금(UNFPA)의 후원 아래 북한이 중앙통계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추출	북한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한 지역별, 성별 인구 및 국내 거주 기간에 따른 표본 선정
조사 방법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 의한 대면 면접 조사 (PI : Personal Interview)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및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서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해 분석함.
조사 기간	2016년 8월 8일 ~ 2016년 9월 9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4. 전문가 조사 설계 (1)

구 분	내 용
모집단	남북 언어 통합 관련 전문가 * 남북 언어 통합 정책, 남북한 언어, 북한 사회 및 문화 등 관련 분야 전체
표본 크기	50명
표본 추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네트워크 풀을 통한 선정
조사 방법	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는 응답자 리스트 DB, 설문 구성과 설문 발송, 설문 응답 등의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검증 등과 관련한 전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 방법임.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oring) 및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서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해 분석함.
조사 기간	2016년 9월 1일 ~ 2016년 9월 28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5. 전문가 조사 설계 (2)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남북 언어 통합 관련 전문가 * 남북 언어 통합 정책, 남북한 언어, 북한 사회 및 문화 등 관련 분야 전체
조사 인원	10명
대상 선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네트워크 풀을 통한 선정
조사 방법	1:1 심층 인터뷰(1시간 내외)
조사 기간	1차 2016년 6월 9일 ~ 2016년 6월 15일 2차 2016년 11월 7일 ~ 2016년 11월 17일
응답자	1차: 김성경(북학대학원대학교), 조태린(연세대학교), 조한범(통일연구원), 차재은(경기대학교), 한용운(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차: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김귀옥(한성대학교), 전우택(연세대학교), 홍윤표(전 연세대학교), 김석향(이화여자대학교)
조사 기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IV. 응답자 특성

1. 일반인

〈표 1-4-1〉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2,021)	100.0
성별	남 자	(1,007)	49.8
	여 자	(1,014)	50.2
연령	19 - 29 세	(355)	17.6
	30 - 39 세	(366)	18.1
	40 - 49 세	(416)	20.6
	50 - 59 세	(413)	20.4
	60세 이 상	(471)	23.3
거주 지역	서 울	(401)	19.8
	인 천 / 경 기	(597)	29.5
	대전/충청/세종	(211)	10.4
	광 주 / 전 라	(200)	9.9
	대 구 / 경 북	(205)	10.1
	부산/울산/경남	(322)	15.9
	강 원 / 제 주	(85)	4.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81)	9.0
	중 학 교 졸 업	(167)	8.3
	고등학교 졸 업	(760)	37.6
	대 학 졸 업	(857)	42.4
	대학원 재학 이상	(56)	2.8
혼인 상태	미 혼	(505)	25.0
	기 혼	(1,414)	70.0
	이 혼 / 사 별	(102)	5.0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182)	9.0
	100-200만 원 미만	(261)	12.9
	200-300만 원 미만	(450)	22.3
	300-400만 원 미만	(506)	25.0
	400-500만 원 미만	(343)	17.0
	500만 원 이상	(279)	13.8

2. 북한이탈주민 접촉국민

〈표 1-4-2〉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200)	100.0
성별	남 자	(91)	45.5
	여 자	(109)	54.5
연령	19 - 29 세	(58)	29.0
	30 - 39 세	(47)	23.5
	40 - 49 세	(43)	21.5
	50 - 59 세	(39)	19.5
	60세 이 상	(13)	6.5
거주 지역	서 울	(93)	46.5
	인 천 / 경 기	(65)	32.5
	대전/충청/세종	(11)	5.5
	광 주 / 전 라	(19)	9.5
	부산/울산/경남	(11)	5.5
	강 원 / 제 주	(1)	0.5
북한이탈 주민 접촉 장소	이웃 및 주변 지인	(50)	25.0
	교회 등 종교시설	(46)	23.0
	학 교 / 직 장	(56)	28.0
	사회봉사/시민단체	(44)	22.0
	배 우 자	(4)	2.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1.0
	중 학 교 졸 업	(4)	2.0
	고등학교 졸 업	(37)	18.6
	대 학 졸 업	(117)	58.8
	대학원 재학 이상	(39)	19.6
혼인 상태	미 혼	(87)	43.5
	기 혼	(103)	51.5
	이 혼 / 사 별	(10)	5.0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28)	14.0
	100-200만 원 미만	(61)	30.5
	200-300만 원 미만	(48)	24.0
	300-400만 원 미만	(22)	11.0
	400-500만 원 미만	(18)	9.0
	500만 원 이상	(23)	11.5

3. 북한이탈주민

〈표 1-4-3〉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305)	100.0
성별	남 자	(147)	48.2
	여 자	(158)	51.8
연령	19 - 29 세	(33)	10.8
	30 - 39 세	(52)	17.0
	40 - 49 세	(82)	26.9
	50 - 59 세	(89)	29.2
	60세 이 상	(49)	16.1
출신 지역	함경 남·북도	(68)	22.3
	양강도/자강도	(27)	8.9
	평안 남·북도	(90)	29.5
	평 양	(43)	14.1
	황해남·북도/강원도	(77)	25.2
재북 학력	인 민 학 교	(14)	4.6
	고 등 중 학 교	(198)	64.9
	기 능 공 학 교	(16)	5.2
	전문 학교 이상	(77)	25.2
혼인 상태	미 혼	(43)	14.1
	기 혼	(126)	41.3
	이 혼 / 사 별	(136)	44.6
북한에서의 직업	농 / 어 업	(33)	10.8
	광산/기업소 노동자	(92)	30.2
	사무/관리/전문직	(54)	17.7
	연구/기술/봉사원	(14)	4.6
	군인 / 정치인	(17)	5.6
	장사/ 외화벌이	(38)	12.5
	주 부	(22)	7.2
	학 생	(32)	10.5
입국시기	은퇴/무직/기타	(3)	1.0
	1 년 미 만	(2)	0.7
	1-3 년 미 만	(43)	14.1
	3-5 년 미 만	(36)	11.8
	5-10 년 미 만	(134)	43.9
제3국 거주한 기간	10 년 이 상	(90)	29.5
	직 행	(97)	31.8
	6개월 미 만	(65)	21.3
	6개월-1년 미만	(39)	12.8
	1-3년 미 만	(30)	9.8
	3-5년 미 만	(36)	11.8
	5-7년 미 만	(20)	6.6
	7-10년 미 만	(17)	5.6
	10년 이 상	(1)	0.3

4. 전문가

〈표 1-4-4〉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0)	100.0
성별	남 자	(39)	78.0
	여 자	(11)	22.0
연령	30 대	(2)	4.0
	40 대	(12)	24.0
	50 대	(27)	54.0
	60대 이상	(9)	18.0
소속 구분	대 학 교	(34)	68.0
	연 구 원	(6)	12.0
	기 타	(10)	20.0
전공	국어학 전공자	(18)	36.0
	비국어학 전공자	(32)	64.0

V. 남북 언어의식 조사 시 고려 사항

1. 조사 설계 주요 고려 사항

- 정량 조사 설계 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하여 표본 설계를 함.
- 일반국민 조사의 경우 전체 수용자 단위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서도 지역보다는 학력, 직업, 연령 등 지역 이외의 변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가정함.
 - 성·연령·지역 모집단별로 표본이 구성되도록 지역 기준 단순 비례 배분을 기본으로 고려하고, 학력과 직업이 전체 모집단을 대변할 수 있도록 표본을 지역별로 소프트 쿼터 할당함.
- 남북 언어의식 조사이지만 북한 주민을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바 ‘미리 온 통일’을 가정하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조사함.
 - 조사의 경우 북한 인구의 성·연령·지역 등 인구 구성비에 맞게 표본 할당을 함. 특히 탈북 시기, 탈북 후 국내 거주 기간, 학력, 직업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북한어의 일상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력과 구사력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함.
 - 탈북 시기(탈북 후 해외 거주 기간, 한국 입국 시기 고려)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나 언어적 측면을 관찰하고자 할 때는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표본 할당 시 탈북 시기보다는 국내 거주 기간을 할당 변수로 정함.
- 북한이탈주민 접촉 국민 조사의 경우 모집단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접촉’에 대한 기준과 ‘조사 지점’ 기준을 고려하여 눈덩이 표집(Snow ball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되, 거점 유형별 일정 표본을 균등하게 할당함.
 -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만날 수 있는 주요 거점을 선정하여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일반국민을 선별하였는데, 조사 지점을 학교나 직장, 종교시설, 이웃 및 주변 지인,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별로 균등 할당함.

2. 문항 설계 주요 고려사항

- 남북 언어 통합이라는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설문 문항이 개발되어야 하고, 통일 후 어문 규범 통합, 교육, 출판 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성 있는 설문 문항이 개발되어야 함에 따라 문항 개발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을 개발함.

- 국어(북한어, 발음, 어휘, 문장), 언어문화(북한 언어문화) 등 분야별로 다수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고려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함.
- 최근 남북 관계 악화에 따라 남북 언어 통일의 필요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문항 설계 시 고려해야 함에 따라 조사 시점의 남북 관계에 대한 ‘감성적 태도·동의’가 아닌 남북 언어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의식·인식·수용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을 고려함.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반국민과 비교해 문항 이해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설문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조사 전문가의 감수와 사전 조사를 통해 ‘읽기, 지시문, 항목의 명확성(이해), 가정, 지식/기억, 민감도/편향, 응답 범주’ 등을 점검하여 북한이탈주민 설문지를 확정함.
- 북한이탈주민 접촉국민이 조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남북 언어 통일의 필요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문항을 추가함.

3. 북한이탈주민 표본 설계 및 자료 수집 시 고려 사항

1) 표본 설계

- 국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주민 일반 또는 국내 북한이탈주민 일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 기존 조사들 대부분이 실제 북한 인구의 23.0%를 차지하는 함경도 출신인 것은 물론 탈북 시점 기준 30대 여성들이 중심이 된다는 한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실태나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는 입국자 현황을 참고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타당하나 ‘미리 온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연구의 경우 북한의 실제 ① ‘지역별’ 그리고 ② ‘성별’ 인구의 수에 따른 표본을 선정하는(sampling) 것이 중요함.
- 북한의 인구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UN인구활동기금(UNFPA)의 후원 아래 북한이 중앙통계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결과임. 여기에 다양한 ① ‘연령대’ · ② ‘학력’ · ③ ‘직업군’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2) 표본 선정

-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함경도 출신 탈북 시점 기준 30대 여성들이 과다 대표된다는 일반적인 문제 이외에도 세 가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함.
- 첫째, 허위 정보로 금전적 대가만을 기대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출신 지역은 물론 나이 · 직업 · 학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음. 따라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확인된 정보가 정보원 간에 서로 다른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둘째, 조사 참여자들이 특정 단체 소속으로 집중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 회원을 다수 보유한 특정 단체에 의존하여 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 대상의 다양성을 제약하게 됨. 조사의 편의를 위해 많은 수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배포 후 수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북한이탈주민 조사 진행 사실이 전파되면 금전적 대가만을 기대하고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자처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모집을 자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접하게 됨. 따라서 조사 진행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며 직업적인 조사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보상(사례비) 수준을 적절하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함.

3) 북한이탈주민 자료 수집

-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허브, 북한이탈주민 연구자(또는 전문 조사원)가 조사원으로 공동 참여할 때 적절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음. 이들 네트워크 허브는 북한이탈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모임·교육·상담·지원·생활에 중심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임.
-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정보를 밝히기 꺼림.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명을 사용하는 이유임. 따라서 평소 신뢰와 친분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연구자가 공동으로 조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거짓 응답을 억제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솔직한 응답에도 큰 도움이 됨. 실제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조사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과는 무관하게 설문이 원하는 또는 조사원이 원하는 정답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찾아 답하려 하거나 또는 좋아할 만한 답을 찾으려는 성향이 있음.
-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에서의 조사는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여러 명이 참석하는 모임에서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조사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따라서 일대일 또는 10명 이하의 모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한 후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일 러 두 기

- 본 보고서의 데이터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응답 사례 수가 작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 보고서의 내용 중 정성적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설문지 응답 항목의 순서와 별도로 빈도가 높은 항목 위주로 정렬하여 편집하였음.



2장 조사 결과 요약

I. 남북 언어 인식

1.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인지

☑ 일반인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촉국민은 ‘이웃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 북한말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말 인지경로를 질문한 결과, 북한말의 주 인지경로는 ‘방송 매체’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은 ‘드라마나 영화’ (64.4%) >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 (59.5%) >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57.9%) 순

▶ 접촉국민은 ‘이웃이나 주변 지인’ (69.0%) > ‘드라마나 영화’ (64.5%) >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60.0%) >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 (57.5%) 순

○ 전문가 조사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어의 인지경로는 ‘기관, 단체, 기타모임’과 ‘연구 조사 대상’이 3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간접 대면’ (22.0%) 등의 순임.

〈표 2-1-1〉 북한말 인지경로 (복수응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드라마나 영화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이웃이나 주변 지인	식당 등 상점	학교나 직장	기타	북한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일반인	(2,021)	64.4	59.5	57.9	5.5	4.8	1.8	1.6	0.6
접촉국민	(200)	64.5	57.5	60.0	69.0	6.5	48.5	6.5	0.0

문) 북한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보셨습니까? 해당되는 경로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 북한말에 대해 가장 많이 연상되는 이미지는 ‘강하거나 세다’

○ 일반인과 접촉국민은 북한말의 연상 이미지로 ‘강하거나 세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외에 ‘낯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는 등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에서 남한말을 접해 본 적이 있으며, 주 인지경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남한말을 접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9.2%는 ‘접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지경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62.1%) > ‘TV, 라디오, 신문, 잡지’ (41.7%) > ‘한국산 상품’ (26.5%)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함.

○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발음이나 억양’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응답함.

2.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태도

- ☑ 전문가 10명 중 5명은 한국어의 틀 안에서 북한말에 대해 ‘북한 내의 규범어(문화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표 2-1-2〉 한국어 틀 안에서 ‘북한말’을 바라보는 시각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북한 내의 규범어(문화어) 로 본다	‘남한어’에 대비되는 ‘북한어’라는 개념으로 본다	방언의 일종으로 본다	이질화의 심화로 ‘남한어’와 전혀 다른 외국어가 되었다고 본다	계
전문가	(50)	48.0	30.0	18.0	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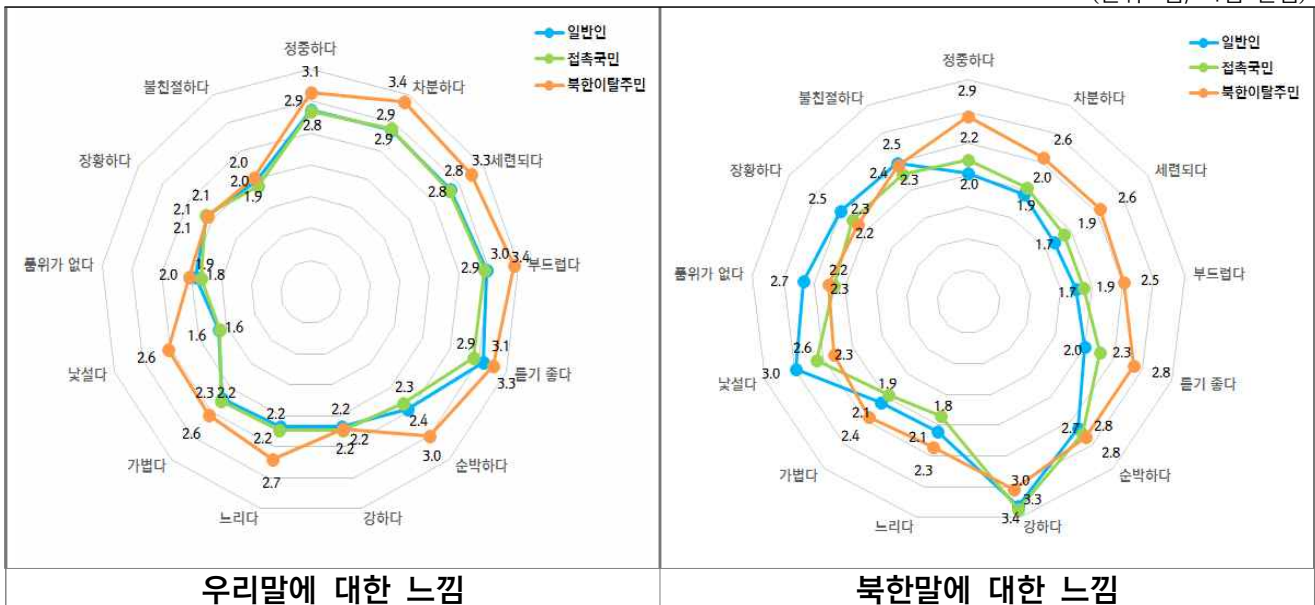
문] 한국어의 틀 안에서 ‘북한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말과 북한말의 느낌 비교

- 우리말은 차분하고 부드러우며 듣기 좋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 반면, 북한말은 강하고 낯설며 순박하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1〉 우리말과 북한말에 대한 느낌

(단위: 점/ 4점 만점)



☑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비교

-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느끼고 있음.
-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한다’,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고 느끼고 있음.

3. 북한말과 남한말 사용에 대한 태도

☑ **북한이탈주민의 68.2%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말이 북한말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69.5%는 남한에 온 이후 남한말이 친근해졌다고 응답함.**

○ 일반인의 61.8%는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불편하고 낯설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접촉국민의 44.5%는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편하고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접촉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후 북한말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3〉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편하고 낯설다	어느 정도 불편하고 낯설다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	계
일반인	(2,021)	8.6	53.1	12.9	0.6	24.7	100.0
접촉국민	(200)	5.5	32.5	40.0	4.5	17.5	100.0

문]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남한에서 지역 방언을 들어본 경험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에서 지역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8.5%이고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11.5%임.

○ 북한이탈주민의 45.9%는 남한의 지역 방언을 들었을 때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정도를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함.

○ 남한에서 지역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의 지역 방언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정도만 구별할 수 있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느 지역 방언인지 구별할 수 있다’ (28.9%), ‘들어도 구별할 수 없다’ (24.8%)의 순임.

〈표 2-1-4〉 남한의 지역 방언 구별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어느 지역 방언인지 구별할 수 있다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정도만 구별할 수 있다	들어도 구별할 수 없다	모름/무응답	계
북한이탈주민	(270)	28.9	45.9	24.8	0.4	100.0

문] 그렇다면 남한의 지역 방언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4.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인지

- ☑ 일반인의 75.8%, 접촉국민의 64.5%는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함.

〈표 2-1-5〉 북한말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본질적으로 우리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나 일본어처럼 외국어로 생각한다	계
일반인	(2,021)	20.7	75.8	3.5	100.0
접촉국민	(200)	32.5	64.5	3.0	100.0

문] 북한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 ☑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함.
- ☑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외국에서 온 이주민처럼 대한다’ (35.6%), ‘북한말을 쓰는 사람과의 대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는 ‘발음이나 억양’이라고 응답함.

○ 전문가 조사에서도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가 8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유어(순우리말)를 많이 쓴다’ (58.0%),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쓴다’ (52.0%) 등의 순임.

〈표 2-1-6〉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 (1+2+3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	맞춤법 등 표기법이 다르다	고유어 (순우리말) 를 많이 쓴다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쓴다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기타	모름 /무응답
일반인	(2,021)	94.9	64.4	55.5	44.6	21.4	18.1	0.1	0.0
접촉국민	(200)	95.0	35.0	60.0	47.0	20.5	39.5	1.0	0.5
북한이탈주민	(305)	93.8	45.9	40.0	38.4	42.0	38.7	1.3	0.0

문] 남한말과 비교할 때 북한말이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남한말과 북한말이 맞춤법 등 표기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I. 남북한 소통 문제

1. 표준어와 지역방언 사용에 대한 태도

- ☑ 일반인 10명 중 4명, 접촉국민 10명 중 5명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편하고 친근하다’고 생각함.
- ☑ 일반인의 93.5%, 접촉국민의 90.0%는 말씨로 인한 무시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일반인과 접촉국민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일반인의 50.5%, 접촉국민의 42.0%는 말씨를 표준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일반인과 접촉국민 10명 중 5명은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4.0%) 등의 순임.

〈표 2-2-1〉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계
일반인	(2,021)	45.6	32.3	22.1	0.0	100.0
접촉국민	(200)	45.5	41.0	13.0	0.5	100.0

문]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자녀의 지역 방언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견에서 일반인과 접촉국민 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길 바라는지를 질문한 결과, 일반인은 자녀가 표준어만 사용하거나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거의 유사하였으나, 접촉국민은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의 두 배 가까이 높음.

〈표 2-2-2〉 자녀의 지역 방언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	지역 방언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기타	계
일반인	(2,021)	49.0	47.0	3.6	0.4	100.0
접촉국민	(200)	31.5	61.5	4.0	3.0	100.0

문] 자녀가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길 바라십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해 주십시오.

2.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

- ✓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경험이 있음.
-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자주 만나 대화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몇 번 대화한 적 있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정기적으로’ (28.0%), ‘대화 경험이 없음’ (18.0%), 거의 매일 (12.0%) 등의 순임.
- ✓ 일반인과 접촉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북한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표 2-2-3〉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북한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어든 북한말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북한말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계
일반인	(2,021)	40.3	31.2	28.3	0.2	100.0
접촉국민	(200)	43.0	34.0	22.0	1.0	100.0

문]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접촉국민의 77.5%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22.5%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라고 응답함.
- ✓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51.5%)하거나 문맥 혹은 정황으로 대강 파악하고 넘어가는(26.5%) 등의 방식을 통해 대처한다고 응답함.

- ✓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 시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 용어 중심 대화를 할 때’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 병원,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서 업무를 볼 때’ (32.0%),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을 보거나 들을 때’ (12.0%), ‘가족, 친구, 지인과 일상 대화를 나눌 때’ (10.0%)의 순임.

〈표 2-2-4〉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 용어 중심 대화를 할 때	은행, 병원,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서 업무를 볼 때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을 보거나 들을 때	가족, 친구, 지인과 일상 대화를 나눌 때	계
전문가	(50)	46.0	32.0	12.0	10.0	100.0

문] 다음 중 어떤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3. 일상생활에서의 소통 문제

-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고 생각함.
- ✓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북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는 응답이 6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16.2%),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10.3%)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 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59.9%)하거나 문맥 혹은 정황으로 대강 파악하고 넘어가는(19.8%) 등의 방식을 통해 대처한다고 응답함.
 - 남한말 중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 주변 남한 사람이나 먼저 온 이탈주민에게 물어 보거나(54.4%), 인터넷이나 사전을 검색해서 뜻을 알아보는(25.6%) 등의 방식을 통해 대처한다고 응답함.
 - 대다수의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한다고 생각함.
 - 본인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접촉국민의 66.7%, 북한이탈주민의 51.0%는 ‘북한 또는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 라고 응답함.

〈표 2-2-5〉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남북한 사람들의 이해 정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접촉국민	(200)	0.5	17.5	72.5	9.5	100.0
북한이탈주민	(305)	2.0	30.8	58.7	8.5	100.0

문] 북한이탈주민들이 귀하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접촉국민)

문] 남한 사람들이 귀하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

- ☑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경우 내용 파악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되물어 보거나 상대방이 되물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6〉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경우의 대처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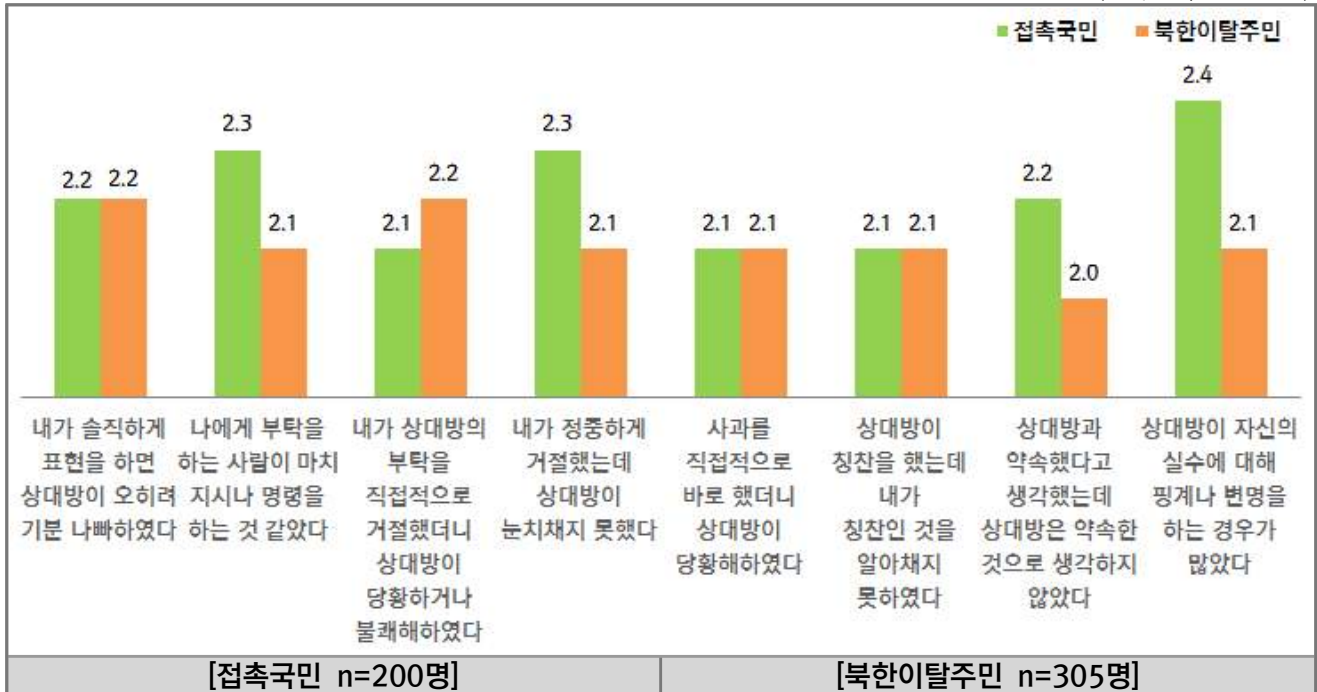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내용 파악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되물어 보는 편이다	상대방이 되물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되물어 보면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이해 못하는 것은 상대방 본인의 문제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기타	모름/무응답	계
접촉국민	(200)	46.0	23.5	20.5	1.5	3.5	5.0	100.0
북한이탈주민	(305)	43.6	30.8	19.3	5.9	0.0	0.3	100.0

문] 북한이탈주민/남한 사람들이 귀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 간의 대화 시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서로 대화할 때 느끼는 상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접촉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표현을 솔직하게 하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1〉 각 상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 간의 대화 시 경험 빈도

(단위: 점/ 4점 만점)



문]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접촉국민)

문] 남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

4. 사회생활에서의 소통 문제

☑ 북한이탈주민의 74.4%는 관공서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다고 느낌

-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외래어, 한자 등 어려운 말이 많고(50.7%),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48.0%)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의 71.1%는 학교 수업이나 직장 업무 중에 쓰는 용어가 어렵다고 느낌
- 학교 수업이나 직장 업무 중에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외래어, 한자 등 어려운 말이 많고(63.6%),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34.1%)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함.

5. 방송언어에 대한 소통 문제

- ☑️ **접촉국민의 85.0%, 북한이탈주민의 79.3%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방송인이 흥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함.**
-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방송에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난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남한 방송에서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나는 점으로 ‘발음과 억양’ (72.7%)을 꼽음.**

○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해 일반인의 43.0%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를, 접촉국민의 48.0%와 북한이탈주민의 39.0%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응답함.

〈표 2-2-7〉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방송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타	계
일반인	(2,021)	43.0	39.6	16.8	0.5	100.0
접촉국민	(200)	44.5	48.0	5.0	2.5	100.0
북한이탈주민	(305)	25.6	39.0	34.8	0.7	100.0

문]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가의 84.0%는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방송 언어 이해도는 ‘드라마 > 보도(뉴스) > 예능 > 시사·교양’ 순임.

〈표 2-2-8〉 남한의 방송 언어 이해 정도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사례수 (명)	보도(뉴스)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북한이탈주민	(305)	3.1	2.9	3.2	2.9

문] 남한의 방송언어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방송에서 사용되는 북한말은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함.**
- 일반인의 48.2%, 접촉국민의 37.0%, 북한이탈주민의 45.2%는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한다고 생각함.
- ☑️ **북한이탈주민의 85.2%는 새롭게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 때문에, 80.3%는 줄여 쓰는 말 때문에 대화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응답함.**

6. 소통 의지

-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함.

〈표 2-2-9〉 남한에서의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계
북한이탈주민	(305)	14.1	55.7	7.2	6.6	16.4	100.0

문]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히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질문한 결과, ‘구직 시 또는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이 44.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연애, 결혼, 이웃과의 교류 등에서 불이익이나 차별’(38.8%),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이나 열등감’(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95.9%는 우리 사회의 다른 방언 화자보다 북한 말씨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심하다’고 평가함.
- 일반인 10명 중 5명, 접촉국민 10명 중 8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함.
-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4명은 말씨 때문에 남한에서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의 86.2%는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북한이탈주민의 81.3%는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함.

〈표 2-2-10〉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에 대한 필요성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북한이탈주민	(305)	1.6	12.1	32.1	54.1	100.0

문]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87.5%는 자녀가 남한말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응답함.

〈표 2-2-11〉 자녀의 남한말과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남한말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북한말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남한말과 북한말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	계
북한이탈주민	(305)	87.5	0.7	11.8	100.0

문] 자녀가 남한말과 북한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길 바라십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해 주십시오.

7.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

-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10명 중 8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 ☑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교육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은 ‘발음과 억양’을, 접촉국민은 ‘단어와 표현’ 이라고 응답함.
-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1.3%), ‘언어 적응보다 자긍심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19.1%)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3명은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4~5년’, 10명 중 2명은 ‘10년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함.
- ☑ 전문가 10명 중 5명은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표 2-2-12〉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육 주관기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하나센터	국립국어원	전문 교육 기관 신설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실	대학교	기타	계
전문가	(47)	51.1	21.3	17.0	6.4	2.1	2.1	100.0

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 ☑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친다면 ‘남북 언어 차이를 알리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함.

〈표 2-2-13〉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하는 방향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남북 언어 차이를 알리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북한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통일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타	계
전문가	(32)	46.9	34.4	6.3	6.3	3.1	3.1	100.0

문]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고’, ‘필요한 사람만 북한말을 배우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Ⅲ. 통일 대비 언어 정책

1.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인지

☒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지 않는 분야는 ‘언어’

- 일반인의 경우 ‘정치’ (45.2%) > ‘경제’ (32.7%) > ‘문화’ (19.5%) > ‘언어’ (2.6%) 순임.
- 접촉국민의 경우 ‘정치’ (36.0%) > ‘문화’ (30.5%) > ‘경제’ (30.0%) > ‘언어’ (3.5%) 순임.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치’ (50.2%) > ‘경제’ (35.7%) > ‘문화’ (10.8%) > ‘언어’ (3.3%) 순임.
- 전문가의 경우 ‘정치’ (58.0%) > ‘문화’ (22.0%) > ‘경제’ (18.0%) > ‘언어’ (2.0%) 순임.
-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렵지 않은 분야는 ‘언어’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

☒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은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함.

〈표 2-3-1〉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의 시작 시기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통일 전후 어느 때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통일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모름/무응답	계
일반인	(1,768)	44.6	32.9	22.5	0.0	100.0
접촉국민	(184)	72.8	21.7	4.9	0.5	100.0
북한이탈주민	(277)	66.4	14.8	18.8	0.0	100.0

문] 그렇다면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인과 접촉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표 2-3-2〉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매우 노력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계
일반인	(2,021)	15.1	55.4	27.2	2.3	0.0	100.0
접촉국민	(200)	13.5	51.0	31.5	3.5	0.5	100.0
북한이탈주민	(305)	5.6	30.5	53.1	10.5	0.3	100.0

문]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 중 개선 또는 추가 수행되어야 할 사업은 ‘남북한 생활 언어 비교 연구’

-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최근까지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 중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남북한 생활언어 비교 연구’가 5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북 방송언어 사용 연구’와 ‘남북 언어 문화 비교 연구’ (각 11.5%), ‘외국 언어 통합 사례 비교 연구’ (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의 74.0%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함.

2. 남북 언어 통합 방향

✓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발음이나 억양’과 ‘단어 사용이나 표현’

- 전문가 조사에서 남북통일 대비 언어 규범에서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점은 ‘맞춤법 등의 언어 규범 문제’ (56.0%),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언어 교육 문제’ (22.0%) 등의 순임.

〈표 2-3-3〉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발음이나 억양	단어 사용이나 표현	맞춤법 등의 표기법	높임법이나 화법 등의 언어예절	전문용어나 공공언어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일반인	(2,021)	41.7	32.6	11.9	7.4	6.2	0.3	0.0	100.0
접촉국민	(200)	16.5	47.0	8.5	11.5	13.0	3.0	0.5	100.0
북한이탈주민	(305)	46.2	16.7	8.5	5.9	22.6	0.0	0.0	100.0

문]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남북한의 일상용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집 제작’과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할 사전 편찬’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이외에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매체를 활용하여 북한(말) 이해 교육을 강화하거나, 남북 언어 전문가 교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은 찬반 의견이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접촉국민은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함.

✓ 특히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에 따른 별다른 불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 남북 언어 통합 기준은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봄

〈표 2-3-4〉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통합한다	북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모름/무응답	계
일반인	(2,021)	78.2	21.0	0.7	0.0	100.0
접촉국민	(200)	50.0	45.5	2.5	2.0	100.0
북한이탈주민	(305)	65.9	31.8	2.0	0.3	100.0

문] 남한말과 북한말을 통합한다면 통합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통일에 대비해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위상은 현재의 ‘국립국어원의 역할 강화’해야 한다고 봄.

〈표 2-3-5〉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위상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현재의 국립국어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언어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 각부에서 독립되어 언어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언어 정책을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 (국어원과 별도)	계
전문가	(43)	44.2	25.6	16.3	14.0	100.0

문]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위상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반면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본적으로 언어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가 7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존의 기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14.3%) 등의 순임.

IV. 기타

- ☑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는 ‘북한이탈주민 > 접촉국민 > 일반인’ 순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5명은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비속어와 외래어,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함

- ☑ 북한이탈주민의 76.1%는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반면, 2.0%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인과 접촉국민에 비해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 일반인과 접촉국민 10명 중 5명은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표 2-4-1〉 통일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계
일반인	(2,021)	53.7	22.3	15.2	8.8	100.0
접촉국민	(200)	53.0	38.5	5.5	3.0	100.0
북한이탈주민	(305)	14.1	83.0	1.0	2.0	100.0

문]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24.8%, 접촉국민의 31.0%는 11년~20년 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34.8%는 5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표 2-4-2〉 통일 가능 시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5년 이내	6년~10년	11년~20년	21년~30년	31년 이상	불가능하다	계
일반인	(2,021)	6.0	14.4	24.8	18.1	13.2	23.5	100.0
접촉국민	(200)	16.0	29.5	31.0	14.0	5.0	4.5	100.0
북한이탈주민	(305)	34.8	32.8	9.8	3.0	0.7	19.0	100.0

문]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장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 남북 언어 의식

1.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인지

- 일반인들의 북한말 인지경로는 ‘드라마나 영화’,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의 순서임.
- 이는 북한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왜곡되거나 편향적일 수 있는 환경임을 말해 줌.
- 따라서 일상적인 북한말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가령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북한 드라마나 영화를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과 변화

- 일반인 중 61.8%는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불편하고 낯설다’는 느낌을 받고, 13.5%는 ‘편하고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함. 반면 접촉국민의 경우 38%는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불편하고 낯설다’는 느낌을 받고, 44.5%는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편하고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함. 특히 접촉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후 북한말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설문 결과는 북한말 사용자와의 접촉 빈도를 높임으로써 북한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음을 말해 줌. 북한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반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언어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인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남북 언어 차이가 나타나는 요소에 대한 인지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이 모두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는 ‘발음이나 억양’이라고 응답함. 그런데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인지로서 주목할 점은 일반인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이 의미·화용적 측면에서 남북 언어 차이를 크게 느낀다는 사실임. 북한이탈주민은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상 차이(42%)나 사과, 칭찬, 거절, 요청 등의 표현상 차이(38.7%)를 일반인(21.4%,

18.1%)에 비해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화용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줌.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에서 의미·화용적 측면에 대한 교육 방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소통 문제와 관련한 2부의 설문 결과를 보면 ‘발음이나 억양’을 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는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4. 남북 언어 차이에 따른 차별적 상황에 대한 인지

-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일반인과 접촉 국민 중 97% 가량이 남북의 언어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방언 정도로 생각한다는 응답과 비교해 볼 때, 남북 언어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의 불편함’보다 ‘차별의 심화’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한다면, 현재 지역 방언의 가치와 역할을 교육하는 것처럼 북한말이 지닌 방언으로서의 가치 또는 국어 순화 차원에서의 북한말의 역할 등을 교육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I. 남북한 소통 문제

1. 언어의식

- 언어의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언어 자체에 대한 인식과 그 언어를 쓰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결부됨. 따라서 사회적 소통과 인식이 언어 및 언어의식의 문제와 긴밀히 관련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40.7%가 말씨로 인해 차별,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고 일반인의 53.2%, 접촉국민의 75.5%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함. 특히 전문가들의 95.9%가 북한 말씨 사용이 우리 사회의 다른 방언 사용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함.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비호감의 어투 - 직설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함에서 비롯된 비호감의 어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 북한이탈주민도 같은 이유로 본인들의 언어가 동화·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따라서 언어 이질화 극복은 타자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려는 사회적 인식 제고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언어 정책 또한 북한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시작되어야 함. 북한어투에 대한 비호감이 북한 사람, 북한 지역에 대한 비호감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회 인식을 바로 설정하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40.7%가 말씨로 인해 차별,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고 일반인의 53.2%, 접촉국민의 75.5%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함. 특히 전문가들의 95.9%가 북한 말씨 사용이 우리 사회의 다른 방언 사용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려하면 유사한 수준의 방언 혹은 지역어로 범주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말에 대한 차별이 강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언어의식이 사회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반증함.
- 이와 연동하여 북한이탈주민의 86.2%가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에 동의한 결과를 보면 한국사회에 적응, 동화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역시 언어의식과 사회의식의 높은 연관성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언어 이질화 극복은 물론 언어 통합을 위해 타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함.
- 우리 국민들도 북한말, 북한사람, 북한사회를 이해하려는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언어와 사회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함. 따라서 단순한 언어 혹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언어의 문제를 사회차별을 제고하고 차이를 통합해 가는 사회적 관점과 연계시켜 관련 정책을 모색해야 함.

2. 소통과 통합

- 남북한 사람들의 언어 사용 및 소통의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반인의 94.9%, 접촉국민의 95.0%, 북한이탈주민의 93.8%가 남한말과 북한말이 다른 측면에 대해 ‘발음이나 억양의 차이’를 주요인으로 꼽았지만, 실제 소통에서 장애물이 된 주요인은 절반 이상의 남북한 사람들이 남한 또는 북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쓰는 것 때문이라고 평가한 것임. 형식적인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평가와 달리 실제 소통의 부분에서는 발음이나 억양이 아니라 어휘의 차이가 더 부각된 것임.
- 북한이탈주민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 용어 중심으로 대화를 할 때, 은행, 병원,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서 업무를 볼 때 외래어, 한자어, 줄임말 등이 어려워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언어 문제와 결부된 사회적인 차별을 극복하면서 남북한 사람들이 실제 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단어, 어휘의 사용에서 합리적인 통합 체계를 구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함.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 남북한 체계 비교에서 언어의 이질성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98.0%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라고 평가한 것은 매우 역설적임. 이것은 동질적으로 보이면서 심각하게 부각되지 못한 언어의 영역이 중요한 사회영역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 주며 언어 그 자체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서 언어에 관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정책이 제고되어야 함.
- 형식적인 대면 접촉에서 발음/억양의 차이, 실질적인 소통에서 단어/어휘의 차이는 물론 언어규범과 화법 및 사회문화적 지식의 차이 등은 모두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의식과 소통에서 느끼는 문제이자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임.
- 따라서 언어 통합의 문제는 단순한 언어만의 문제도, 획일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언어 통합의 방향 역시 형식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합리적인 통합의 측면을 부각해 나가야 함.

Ⅲ. 통일 대비 언어 정책

1.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인지

-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는 정치이지만, 가장 덜 차이가 나는 분야가 “언어 분야”로 선택한 부분을 주목한다면,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그 필요성이 절실함.
- 일반인 등이 일면 정치, 경제, 문화에 비해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남북 차이가 심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목적과 목표가 명확한 언어 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는 ‘정치’와 ‘문화’라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언어’는 일반 문화의 개념과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
- 세 계층이 모두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이질성에 주목하지만, 결국은 민족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수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 결국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기획해서 수립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임.
- 단, 남북 언어 통합 노력과 관련하여 지식 정도가 높은 계층과 통일에 대한 시기가 빠른 것이라고 보는 계층의 의식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남북 언어 통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언어 정책’에 대한 인위적 관점, 혹은 규범적 관점에 방점을 둔 입장이 아닌 것이므로 굳이 고려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과 같은 민족어 사전의 편찬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비록 이 사전이 철저한 언어 정책에 입각한 규범 사전의 성격을 띤 것은 아니지만, 남북 언어 규범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자모 명칭은 ‘기읍, 디읍, 시읏’으로 합의하여 북쪽 견해를 수용한 점, 자모 배열은 ‘ㅇ’을 ‘ㅅ’ 다음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남쪽 견해를 수용한 점 등 현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이미 통일을 대비한 남북 언어 통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다 일반인과 접촉국민이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결과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국립국어원이나 유관 단체(학교 등의 교육 기관, 사회 기관) 등이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로 판단됨.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에 대한 갈망보다 그 관심과 열의가 부족한 점도 대비하여 강조해야 함.

2. 남북 통합의 방향

- 대학원 재학 이상의 일반인에서 ‘전문 용어’에 대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는 점은 ‘발음, 억양, 단어 사용이나 표현’만을 통합 노력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각 계층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그 방향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함.
-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할 사전 편찬’에 대한 중요성은 〈겨레말큰사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상호주의’라는 관점을 통합의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최근 다문화 관련 한국어 교육 쪽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 노동자, 이민자 등의 나라에 대한 언어 교육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이것을 일률적으로 남북 언어 통합에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우리말 교육과 함께 우리 교육 현장에서 왜곡된 북한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교육**이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남북 언어 통합 기준은 ‘남한말’ 중심이겠지만, 북한 지역어를 말 그대로 우리 남쪽 방언과 마찬가지로 **북쪽 방언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 혹은 Korean의 디아스포라, 한국어, 조선어, 연변 지역어, 재일교포의 언어, 재미교포의 언어, 고려말 등의 살아 있는 언어가 마치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캐나다 영어, 호주 영어, 싱가포르 영어, 인도 영어, 필리핀 영어의 디아스포라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통일에 대비하는 언어 정책 총괄 기구에 대한 답변이 ‘국립국어원 > 대통령 직속의 언어통합위원회 > 행정 각부의 언어 정책 총괄 기관 > 문체부 산하 언어 정책 기구’ 순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국립국어원**’의 역할과 기능이 언어 통합을 위해서 현재는 실질적인 ‘기관’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IV. 정책 방향 제언

앞에서 우리는 남북 언어 인식, 남북 소통 문제 그리고 통일 대비 언어 정책에 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본 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기술하였다. 이 중 국어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큰 부분을 구체화하여 미디어 정책, 교육 정책, 연구 및 교류 정책, 기구 및 법제 부문으로 나누어 제언하고자 한다.

1. 미디어 정책

남북 간 차이를 좁히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로 보인다. 언어 접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이해와 편견을 줄이는 측면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상호 이해의 측면에서는 남북 언어문화의 이질성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되 남북 언어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데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편견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북한인과 북한말을 사실에 입각하여 묘사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과 북한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축적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언어문화 융합 프로그램 제작

매체에 등장하는 북한인과 북한말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2. 교육 정책

향후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초중등 교과 과정에서 북한의 언어문화와 관련한 교과목별 교육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을 위해서는 시민학교, 대중 강좌 등을 통해 북한말과 북한의 언어문화의 접촉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학교 교육의 북한말 이해 교육 강화

시민학교의 북한말 바로알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관 지원

북한이탈주민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

3. 연구 및 교류

남북 언어 통합과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즉 통일 대비 언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결과물은 통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통합과 소통을 위한 자료집 제작, 교육을 위한 교과 내용 개발 정책의 수립, 남북의 학술 단체와 연구자의 학술 교류 지원 등이 제안된 바 있다.

남북한 언어 관련 기초 연구

북한말 관련 교과 내용 개선안 연구

언어문화 관련 학술 교류 지원 확대

남북 공동 언어 연구 프로젝트 지원

4. 기구 및 법제

남북의 정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통합과 통일을 준비하는 언어 정책 기구와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앞서 언급한 미디어, 교육, 학술 연구와 교류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의 실행을 책임질 수 있는 언어 정책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본 조사의 결과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국립국어원이 현재의 역할에 더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언어 정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직제에서 국립국어원의 위상을 조정함으로써 유관 기관과의 중층적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 관련 연구와 교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제 개편 역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역할 확대

정부 직제에서 국립국어원의 위상 조정

남북 관련 연구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4장 조사 결과 분석

1. 남북 언어 인식

1. 북한말 인지도 및 인지 경로

이 설문 문항은 상대 언어를 인지하게 된 경로를 통해 남북 언어 접촉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북한말의 주 인지경로는 '방송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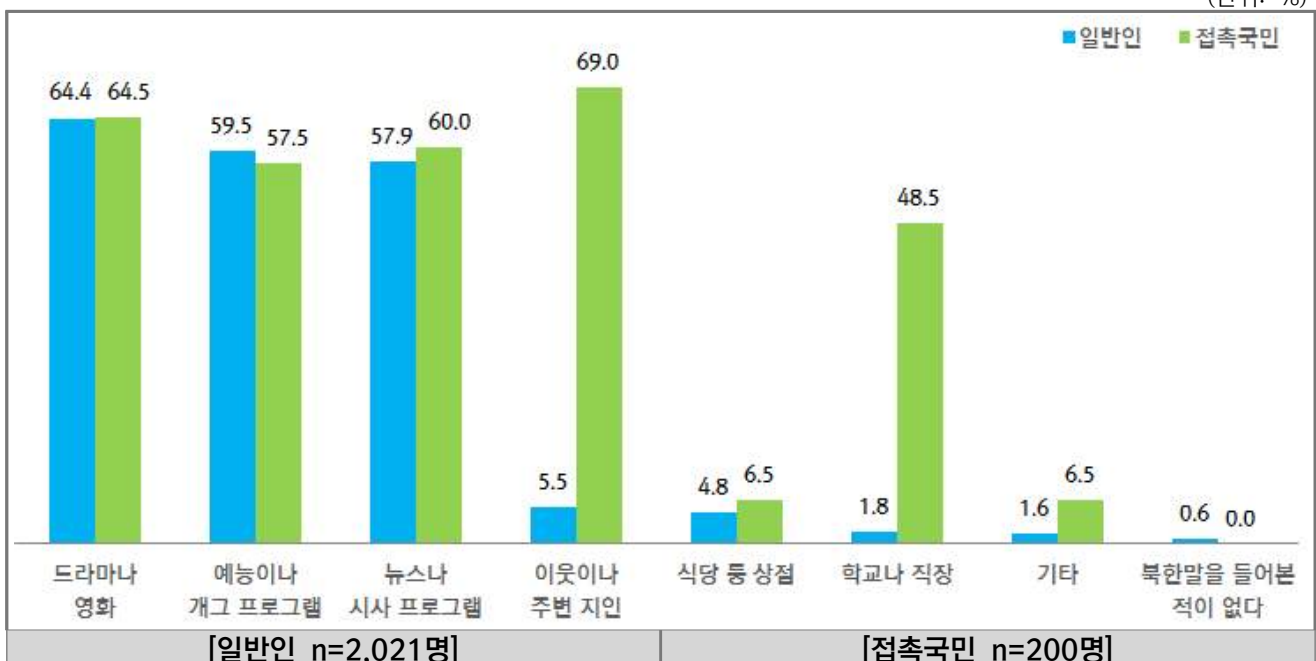
일반인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촉국민은 '이웃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 북한말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보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가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 (59.5%),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5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접촉국민의 경우 '이웃이나 주변 지인'이 69.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드라마나 영화' (64.5%),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60.0%),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 (5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어의 인지경로는 '기관, 단체, 기타모임'과 '연구 조사 대상'이 3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간접 대면' (22.0%) 등의 순임.

〈그림 4-1-1〉 북한말 인지경로 (복수응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드라마나 영화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이웃이나 주변 지인	식당 등 상점	학교나 직장	기타	북한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일반인	(2,021)	64.4	59.5	57.9	5.5	4.8	1.8	1.6	0.6
접촉국민	(200)	64.5	57.5	60.0	69.0	6.5	48.5	6.5	0.0

문] 북한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보셨습니까? 해당되는 경로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2. 북한말 연상 이미지

이 설문 문항은 일반인과 접촉국민이 북한말에 대한 지니고 있는 언어 감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북한말에 대해 가장 많이 연상되는 이미지는 ‘강하거나 세다’

일반인의 30.1%, 접촉국민의 43.9%는 북한말의 연상 이미지로 ‘강하거나 세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외에 ‘낮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는 등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말’에 대한 느낌, 이미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강하거나 세다’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낮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17.9%), ‘딱딱하다’ (11.1%),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 (7.1%) 등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강하거나 세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 (10.4%), ‘낮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9.1%), ‘재미있거나 신기하다’ (7.9%) 등의 순임.

〈표 4-1-1〉 북한말 연상 이미지

(단위: %)

순위	일반인 [n=1,978명]		북한이탈주민 접촉국민 [n=164명]	
1	강하거나 세다	30.1	강하거나 세다	43.9
2	낮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17.9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	10.4
3	딱딱하다	11.1	낮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9.1
4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	7.1	재미있거나 신기하다	7.9
5	세련되지 않거나 촌스럽다	4.8	딱딱하다	7.3
6	재미있거나 신기하다	4.2	친근하거나 정겹다	5.5
7	강압적이거나 공격적이다	3.5	순박하다	5.5
8	친근하거나 정겹다	3.4	순우리말	5.5
9	투박하다	3.0	우리말과 차이가 있거나 다른 나라 언어 같다	5.5
10	특정 단어 또는 인물이 떠오른다	2.8	투박하다	4.9
11	순박하다	2.8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3.0
12	향토적이거나 토속적이다	2.2	세련되지 않거나 촌스럽다	3.0
13	우리말과 차이가 있거나 다른 나라 언어 같다	2.1	향토적이거나 토속적이다	2.4
14	별다른 느낌이 없다	1.9	강압적이거나 공격적이다	1.8
15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1.7	특정 단어 또는 인물이 떠오른다	1.8
16	순우리말	1.2	별다른 느낌이 없다	1.8
17	우리말과 큰 차이가 없다	1.0	기타	4.3
18	기타	6.2		

문] 평소 ‘북한말’에 대해 어떤 느낌,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떠오르는 단어, 느낌 등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말’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라도 북한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느낌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남한말 인지도 및 인지 경로

이 설문 문항은 상대 언어를 인지하게 된 경로를 통해 남북 언어 접촉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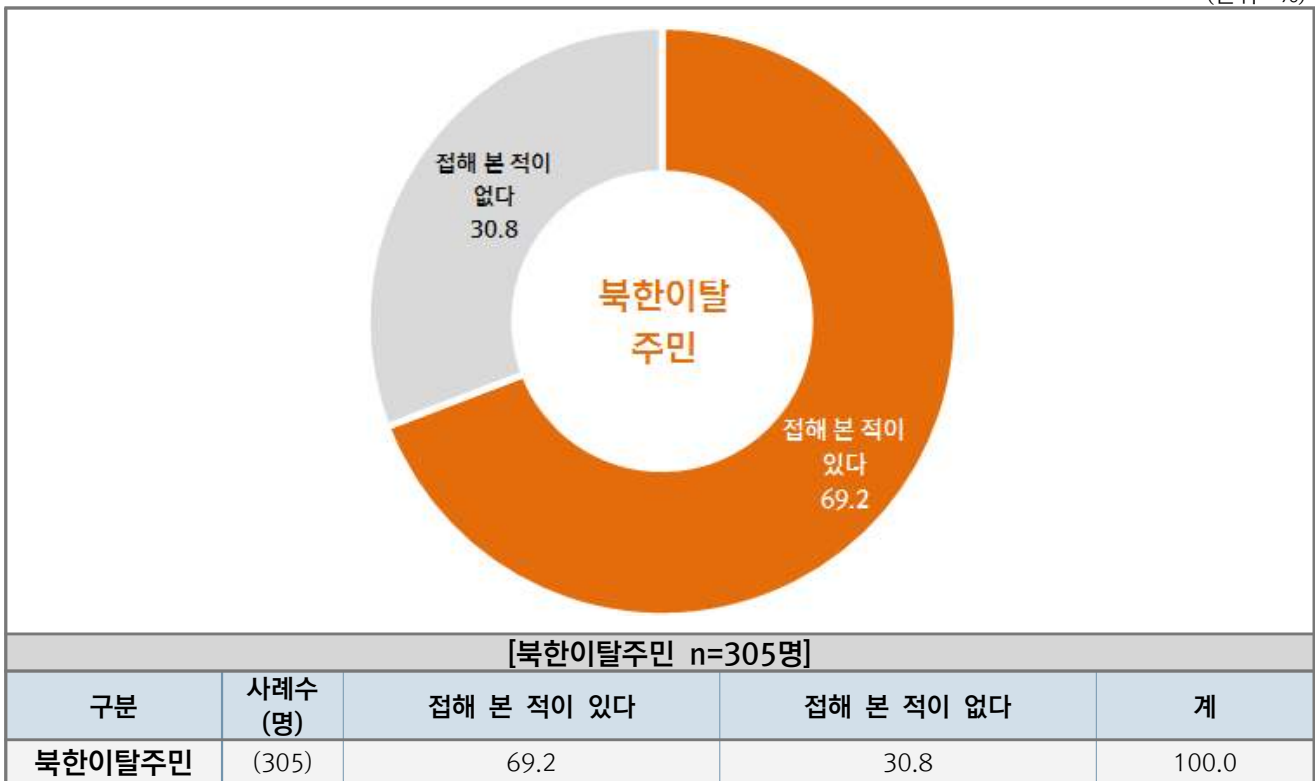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에서 남한말을 접해 본 적이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69.2%는 북한에서 남한말을 ‘접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남한말을 접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 ‘접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69.2%이고, ‘접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30.8%임.

〈그림 4-1-2〉 남한말 인지도

(단위: %)



문] 북한에서 남한말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북한에서의 남한말의 주 인지경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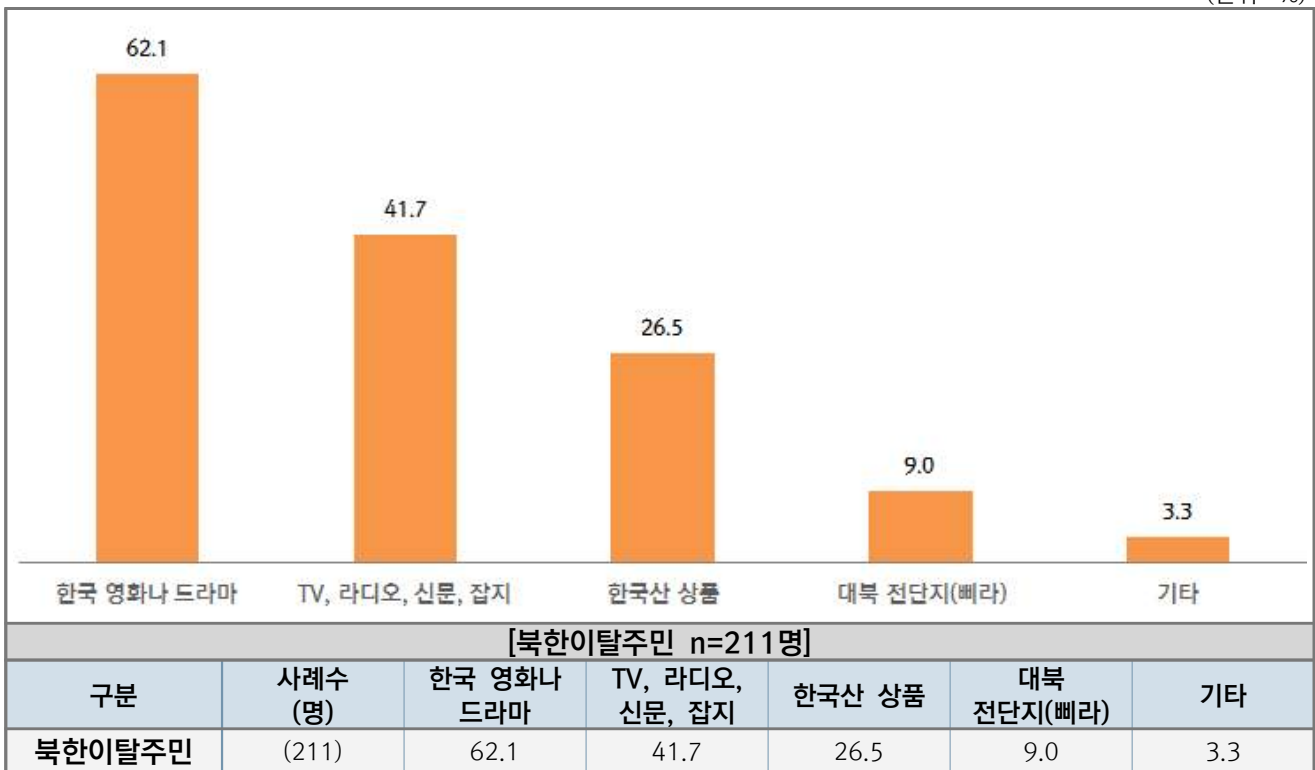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남한말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에서 남한말을 접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접했는지 질문한 결과,

▶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6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41.7%), ‘한국산 상품’ (2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3〉 남한말 인지경로 (복수응답)

(단위: %)



문] 북한에서 남한말을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경로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4.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 차이

북한말과 재중 동포의 언어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북한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경향을 판단할 수 있음.

☑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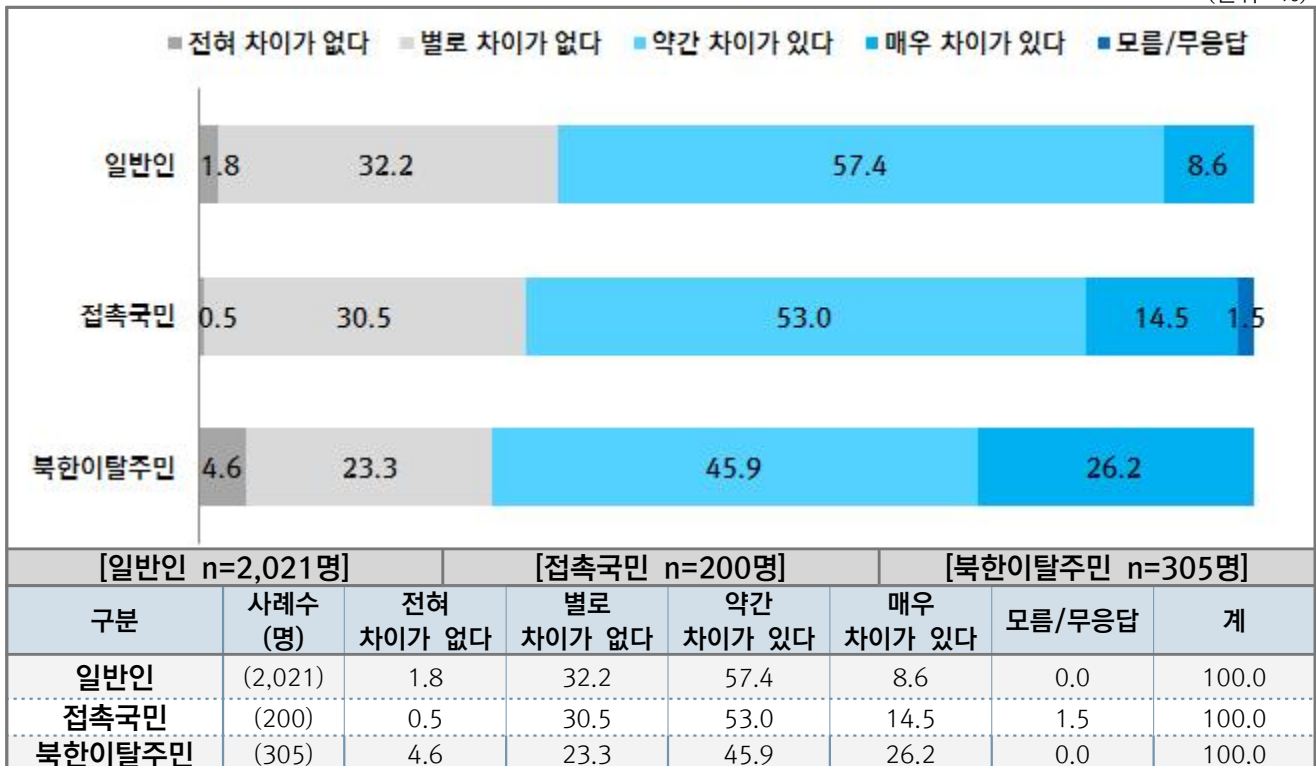
일반인의 57.4%, 접촉국민의 53.0%, 북한이탈주민의 45.9%는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응답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차이가 있다’ (매우 8.6% + 약간 57.4%)는 응답은 66.0%이며, ‘차이가 없다’ (전혀 1.8% + 별로 32.2%)는 응답은 34.0%임.
- ▶ 접촉국민의 경우 ‘차이가 있다’ (매우 14.5% + 약간 53.0%)는 응답은 67.5%이며, ‘차이가 없다’ (전혀 0.5% + 별로 30.5%)는 응답은 31.0%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차이가 있다’ (매우 26.2% + 약간 45.9%)는 응답은 72.1%이며, ‘차이가 없다’ (전혀 4.6 + 별로 23.3%)는 응답은 27.9%임.

〈그림 4-1-4〉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 차이 정도

(단위: %)



문]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 말은 ‘발음이나 억양’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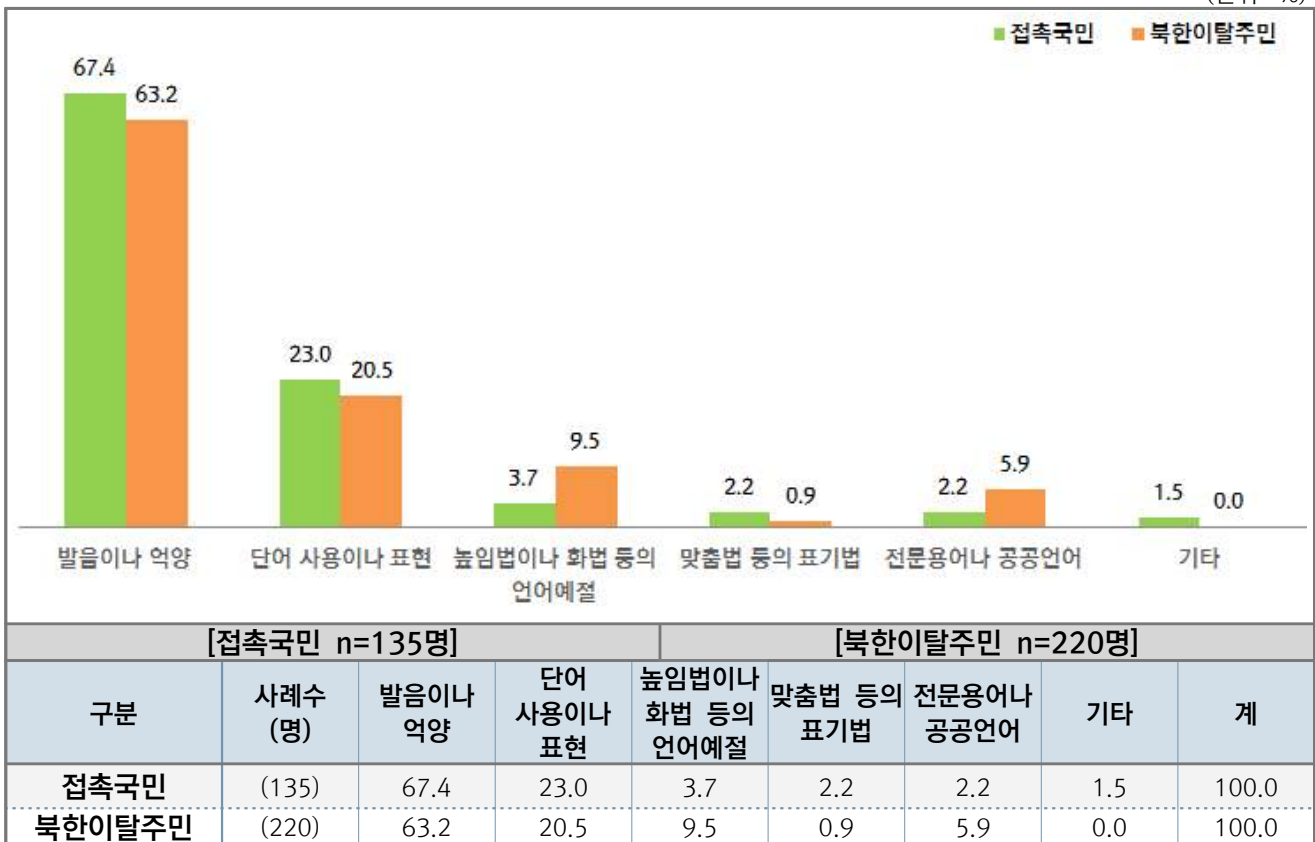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발음이나 억양’에서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응답함.

○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 ▶ 접촉국민의 경우 ‘발음이나 억양’이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단어 사용이나 표현’ (23.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발음이나 억양’이라는 응답이 6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단어 사용이나 표현’ (20.5%), ‘높임법이나 화법 등의 언어예절’ (9.5%)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4-1-5〉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이 차이점

(단위: %)



문]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한국어 틀 안에서 ‘북한말’을 바라보는 시각

이 설문 문항은 북한말의 위상 또는 개념 규정과 관련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 전문가 10명 중 5명은 한국어의 틀 안에서 북한말을 ‘북한 내의 규범어(문화어)’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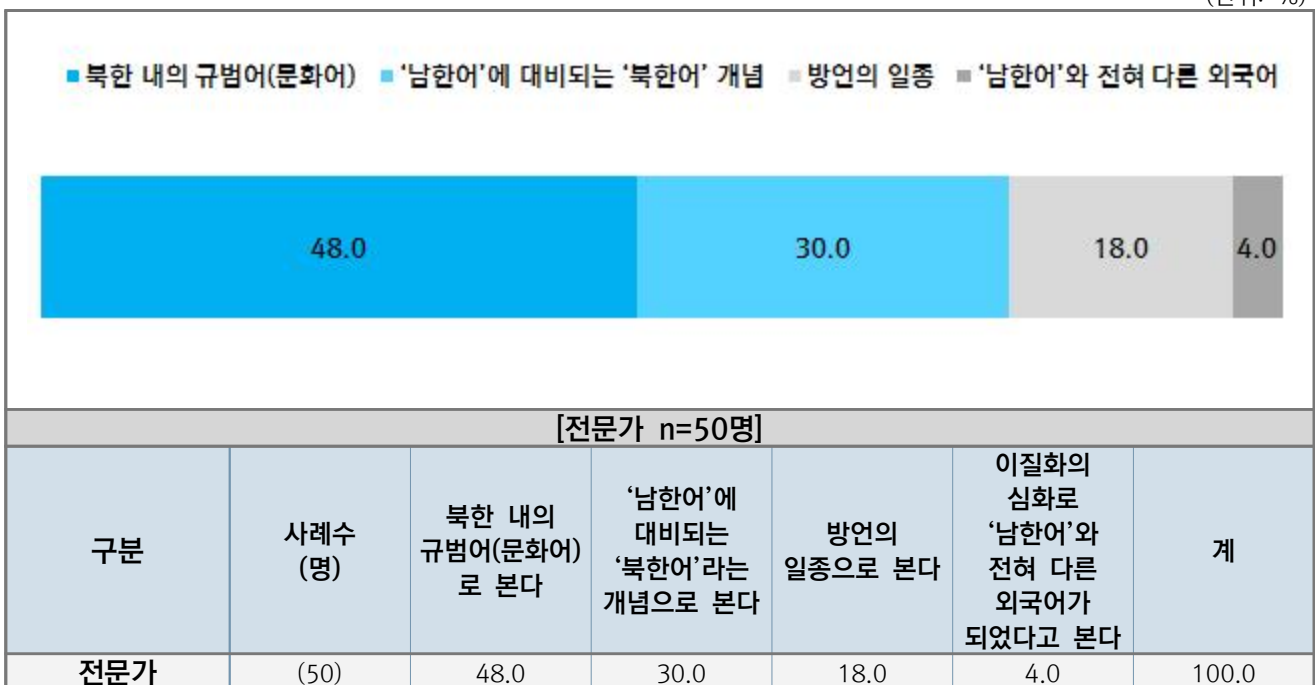
전문가의 48.0%는 한국어의 틀 안에서 북한말에 대해 ‘북한 내의 규범어(문화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틀 안에서 ‘북한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북한 내의 규범어(문화어)로 본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남한어’에 대비되는 ‘북한어’라는 개념으로 본다 (30.0%), ‘방언의 일종으로 본다’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6〉 한국어 틀 안에서 ‘북한말’을 바라보는 시각

(단위: %)



문] 한국어의 틀 안에서 ‘북한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우리말에 대한 느낌

이 설문 문항은 남한말과 북한말의 언어 특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느낌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우리말은 ‘차분하다’, ‘부드럽다’, ‘듣기 좋다’

우리말에 대해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차분하고 부드러우며 듣기 좋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평소 우리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각 느낌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듣기 좋다’가 3.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드럽다’ (3.0점), ‘정중하다’, ‘차분하다’ (2.9점) 등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차분하다’, ‘부드럽다’, ‘듣기 좋다’가 각 2.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중하다’, ‘세련되다’ (2.8점)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차분하다’, ‘부드럽다’가 3.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련되다’, ‘듣기 좋다’ (3.3점)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부드럽다’와 ‘듣기 좋다’가 2.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중하다’, ‘세련되다’ (2.7점) 등의 순임.

〈그림 4-1-7〉 우리말에 대한 느낌

(단위: 점/ 4점 만점)



문] 평소 우리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중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7. 북한말에 대한 느낌

이 설문 문항은 남한말과 북한말의 언어 특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느낌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북한말은 ‘강하다’, ‘낮설다’, ‘순박하다’

북한말에 대해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강하고 낮설며 순박하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평소 북한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각 느낌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강하다’가 3.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낮설다’ (3.0점), ‘품위가 없다’, ‘순박하다’ (2.7점) 등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강하다’가 3.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순박하다’ (2.8점), ‘낮설다’ (2.6점)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강하다’가 3.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중하다’ (2.9점), ‘듣기 좋다’, ‘순박하다’ (2.8점)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강하다’가 3.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순박하다’ (2.9점), ‘낮설다’ (2.7점) 등의 순임.

〈그림 4-1-8〉 북한말에 대한 느낌

(단위: 점/ 4점 만점)



문] 평소 북한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중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8.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이 설문 문항은 남한말과 북한말의 언어 특성을 구체화하여 그와 관련한 느낌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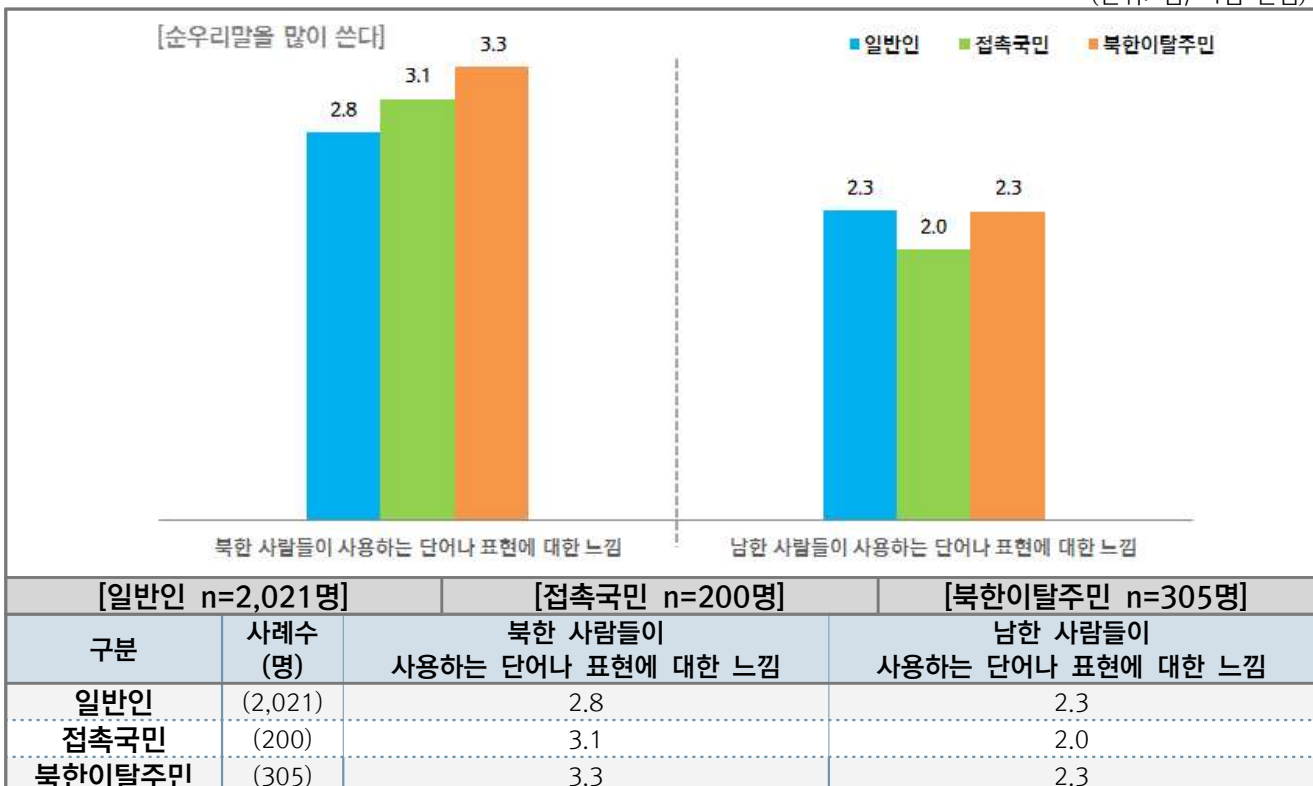
☑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중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는 응답은 2.8점, ‘남한 사람들이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는 2.3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0.5점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는 응답은 3.1점, ‘남한 사람들이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는 2.0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1.1점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는 응답은 3.3점, ‘남한 사람들이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는 2.3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1.0점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는 응답은 3.2점, ‘남한 사람들이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는 1.8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1.4점 높게 나타남.

〈그림 4-1-9〉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단위: 점/ 4점 만점)



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문]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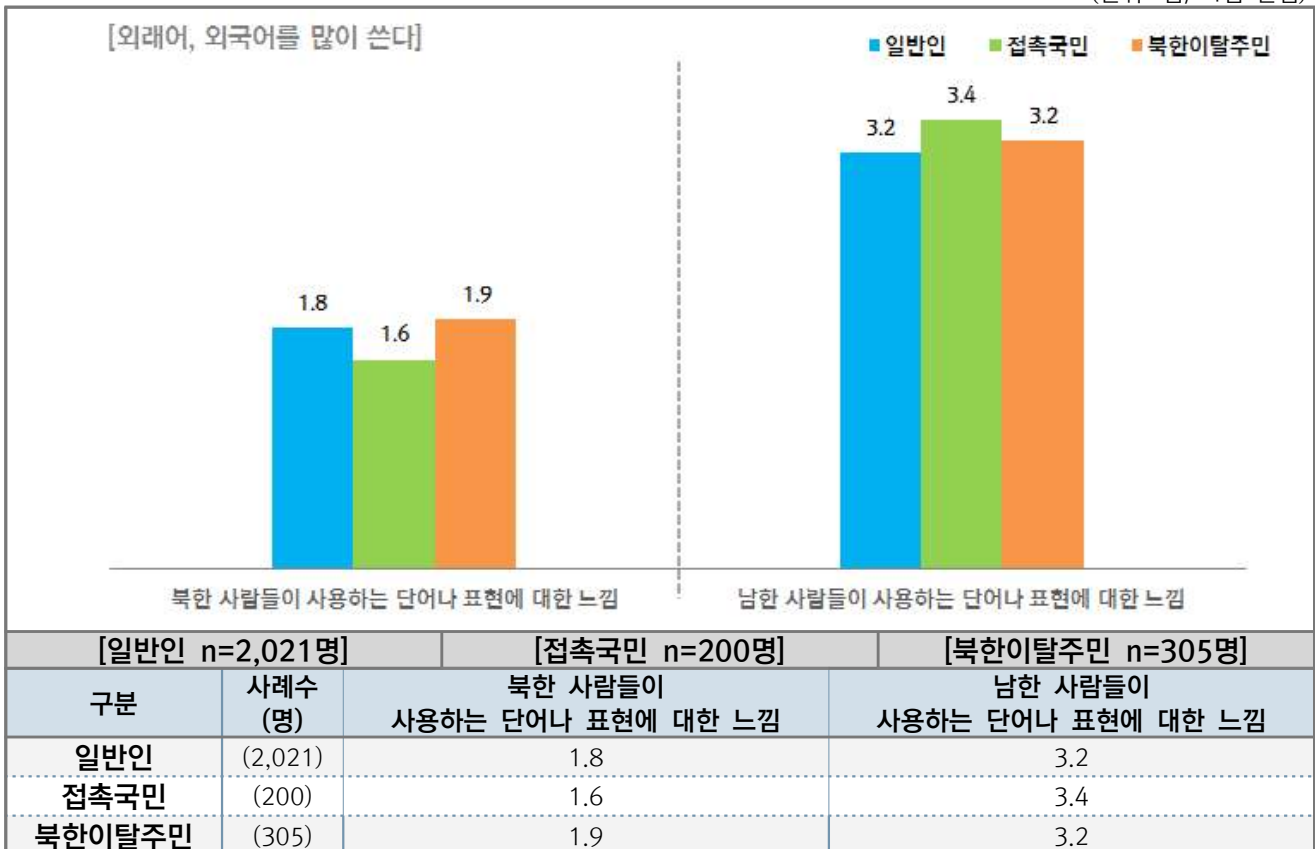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중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1.8점, ‘남한 사람들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3.2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1.4점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1.6점, ‘남한 사람들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3.4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1.8점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1.9점, ‘남한 사람들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3.2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1.3점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1.6점, ‘남한 사람들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는 3.4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1.8점 높게 나타남.

〈그림 4-1-10〉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단위: 점/ 4점 만점)



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문]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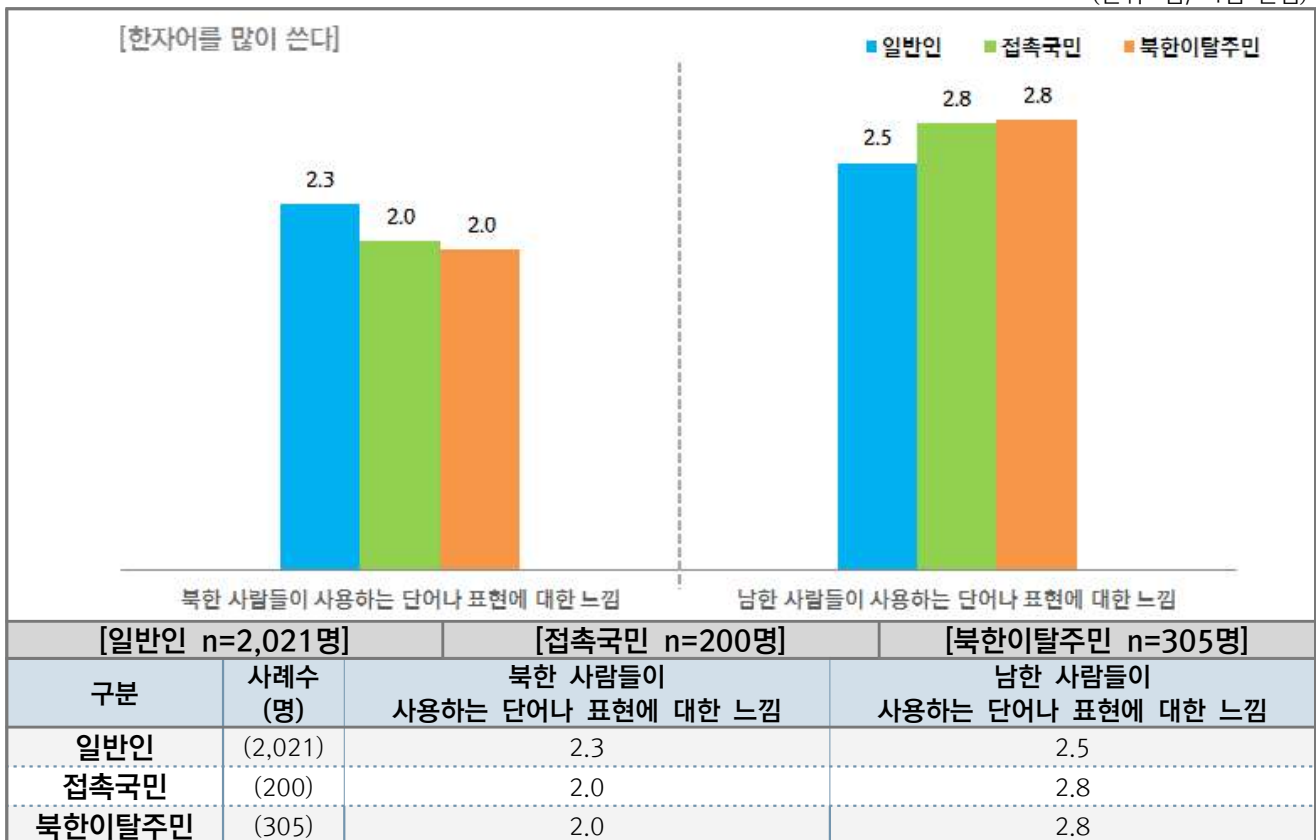
☑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한자어를 많이 쓴다’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중 ‘한자어를 많이 쓴다’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2.3점, ‘남한 사람들이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2.5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2점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2.0점, ‘남한 사람들이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2.8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8점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2.0점, ‘남한 사람들이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2.8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8점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2.0점, ‘남한 사람들이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2.8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8점 높게 나타남.

〈그림 4-1-11〉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단위: 점/ 4점 만점)



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문]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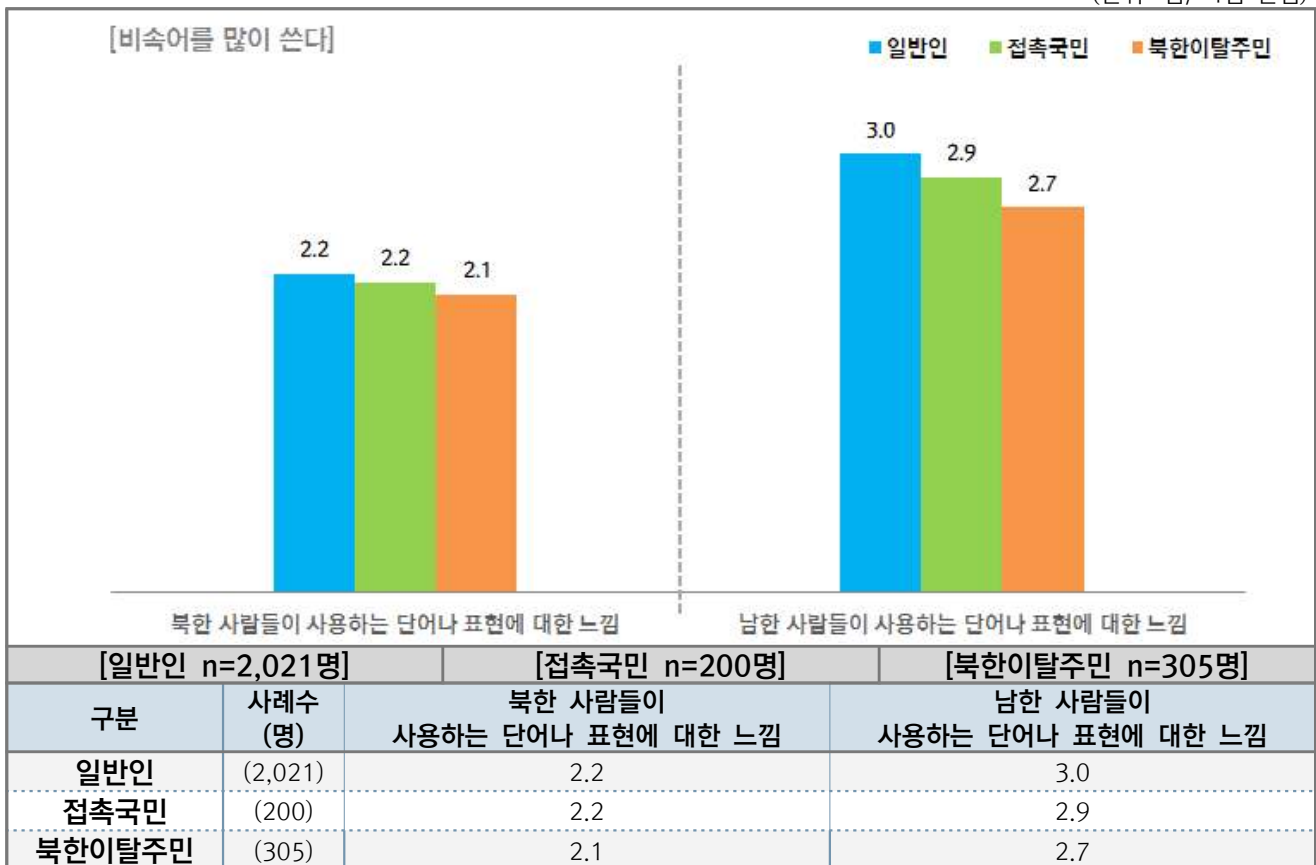
☑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비속어를 많이 쓴다’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중 ‘비속어를 많이 쓴다’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2.2점, ‘남한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3.0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8점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2.2점, ‘남한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2.9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7점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2.1점, ‘남한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2.7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6점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응답은 2.3점, ‘남한 사람들이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2.5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2점 높게 나타남.

〈그림 4-1-12〉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단위: 점/ 4점 만점)



- 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 문]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직설적으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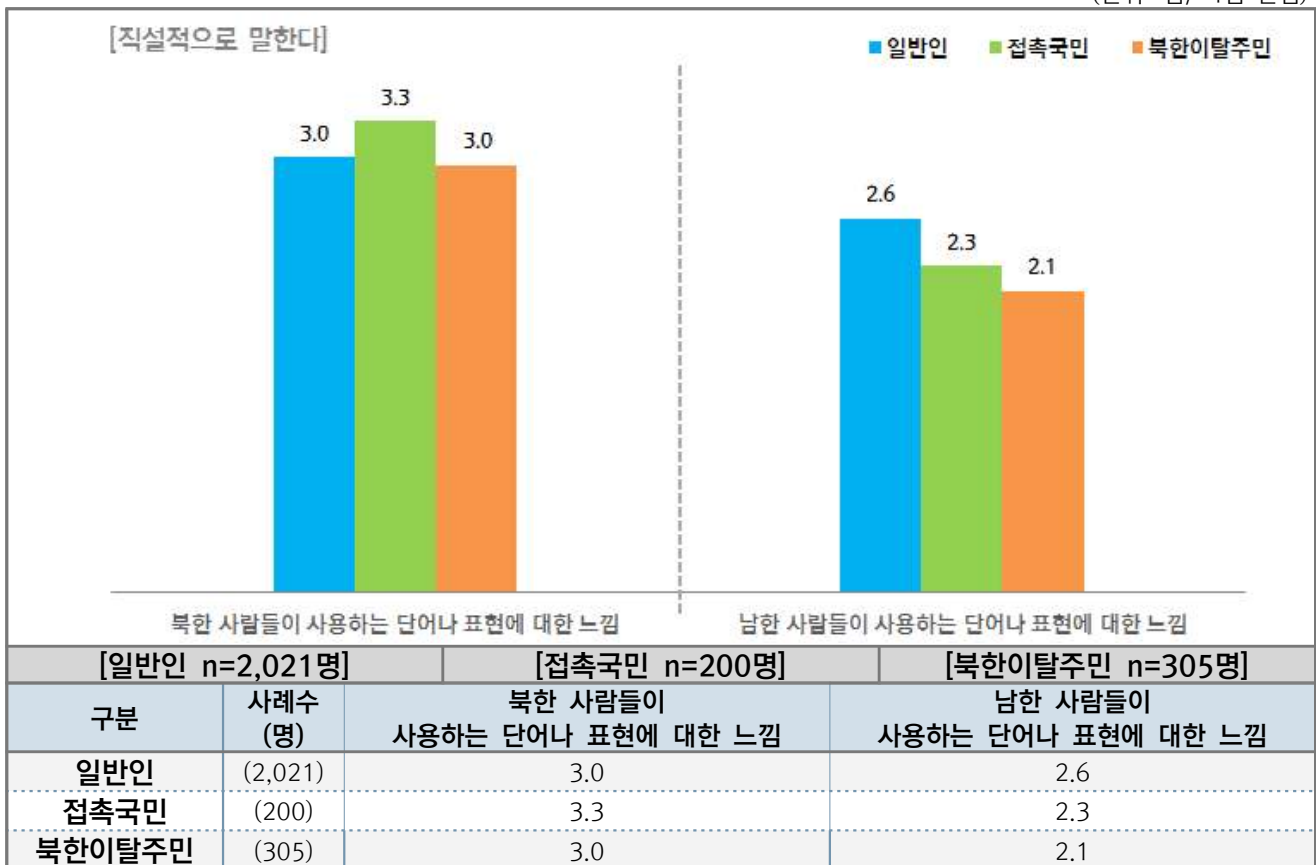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중 ‘직설적으로 말한다’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은 3.0점, ‘남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2.6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0.4점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은 3.3점, ‘남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2.3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1.0점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은 3.0점, ‘남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2.1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0.9점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응답은 3.1점, ‘남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2.5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0.6점 높게 나타남.

〈그림 4-1-13〉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5) 직설적으로 말한다

(단위: 점/ 4점 만점)



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5) 직설적으로 말한다

문]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5) 직설적으로 말한다

☑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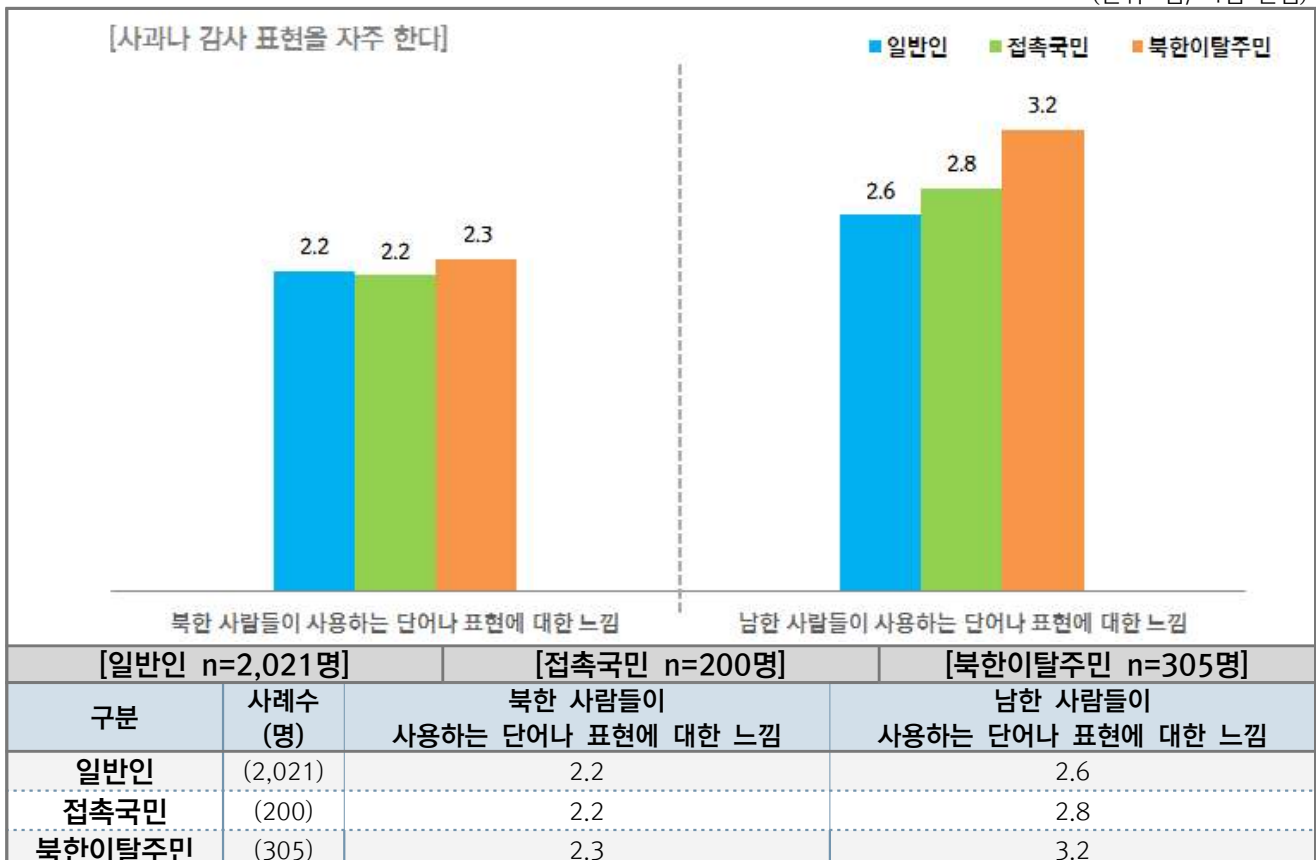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중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는 응답은 2.2점, ‘남한 사람들이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는 2.6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4점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는 응답은 2.2점, ‘남한 사람들이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는 2.8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6점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는 응답은 2.3점, ‘남한 사람들이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는 3.2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9점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는 응답은 2.0점, ‘남한 사람들이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는 2.5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5점 높게 나타남.

〈그림 4-1-14〉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단위: 점/ 4점 만점)



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문]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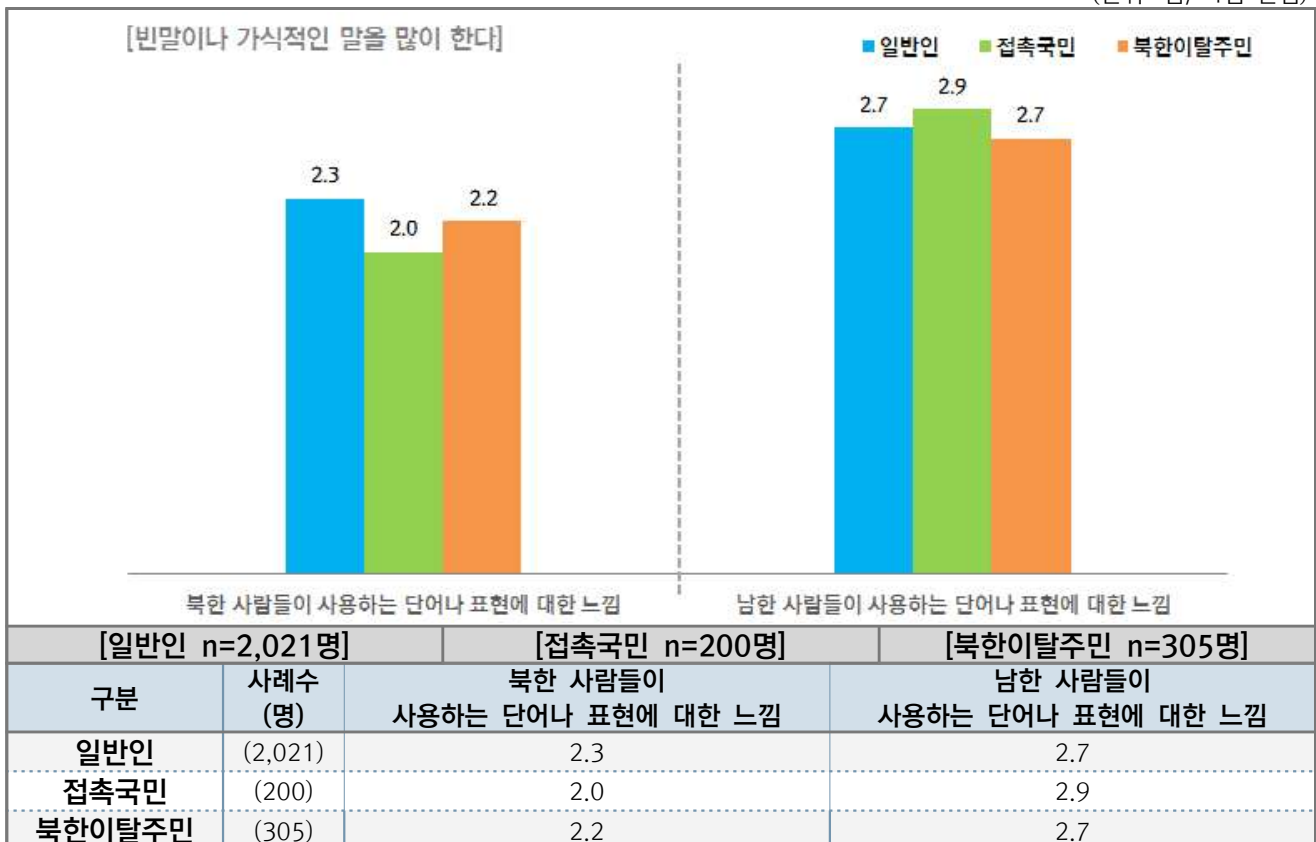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중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응답은 2.3점, ‘남한 사람들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2.7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4점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응답은 2.0점, ‘남한 사람들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2.9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9점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응답은 2.2점, ‘남한 사람들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2.7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5점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응답은 2.1점, ‘남한 사람들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2.8점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0.7점 높게 나타남.

〈그림 4-1-15〉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단위: 점/ 4점 만점)



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문]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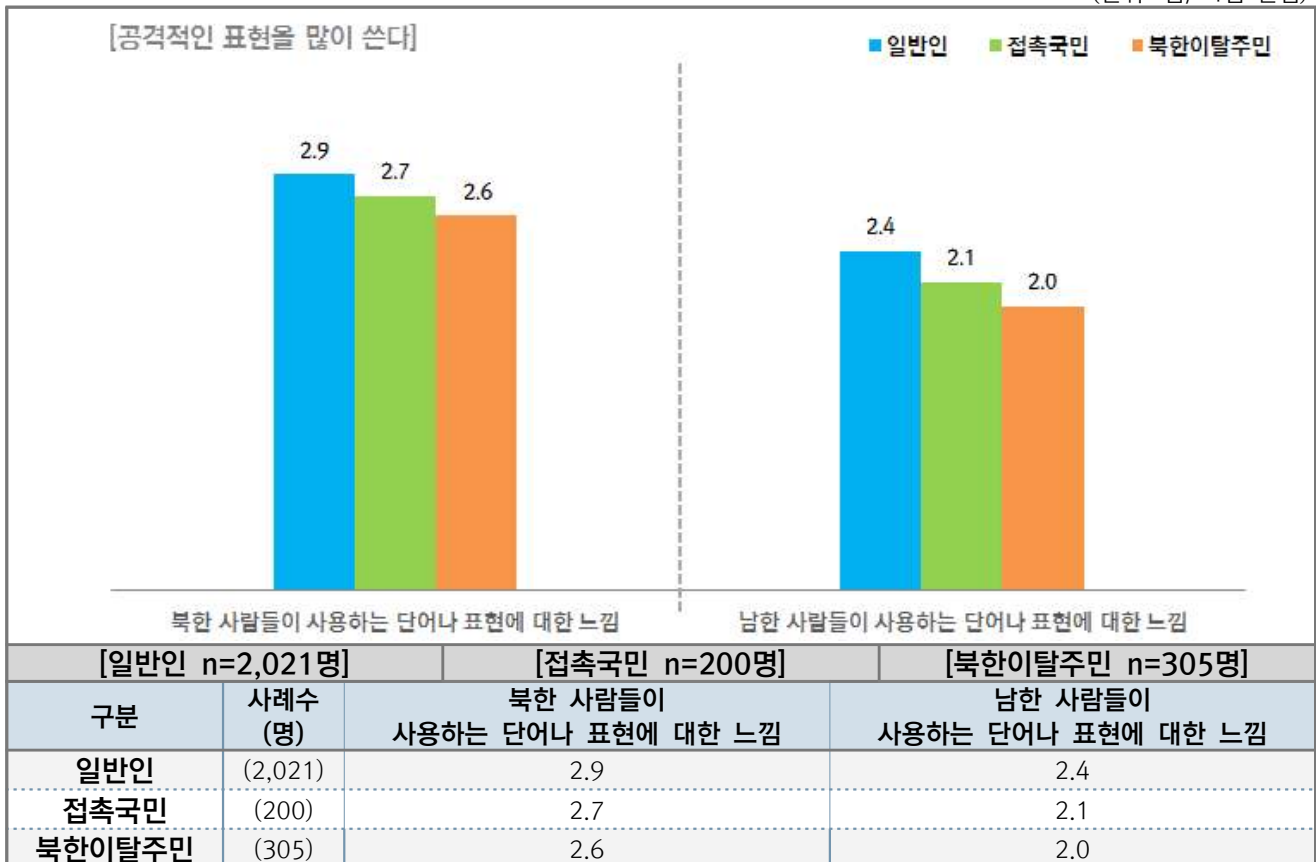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중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응답은 2.9점, ‘남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2.4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0.5점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응답은 2.7점, ‘남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2.1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0.6점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응답은 2.6점, ‘남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2.0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0.6점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응답은 2.9점, ‘남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2.3점으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0.6점 높게 나타남.

〈그림 4-1-16〉 남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단위: 점/ 4점 만점)



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문]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9. 북한에 있을 때와 남한에 온 이후 남한말에 대한 생각

이 설문 문항은 남북 언어 접촉을 통해 언어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에 있을 때 남한말이 북한말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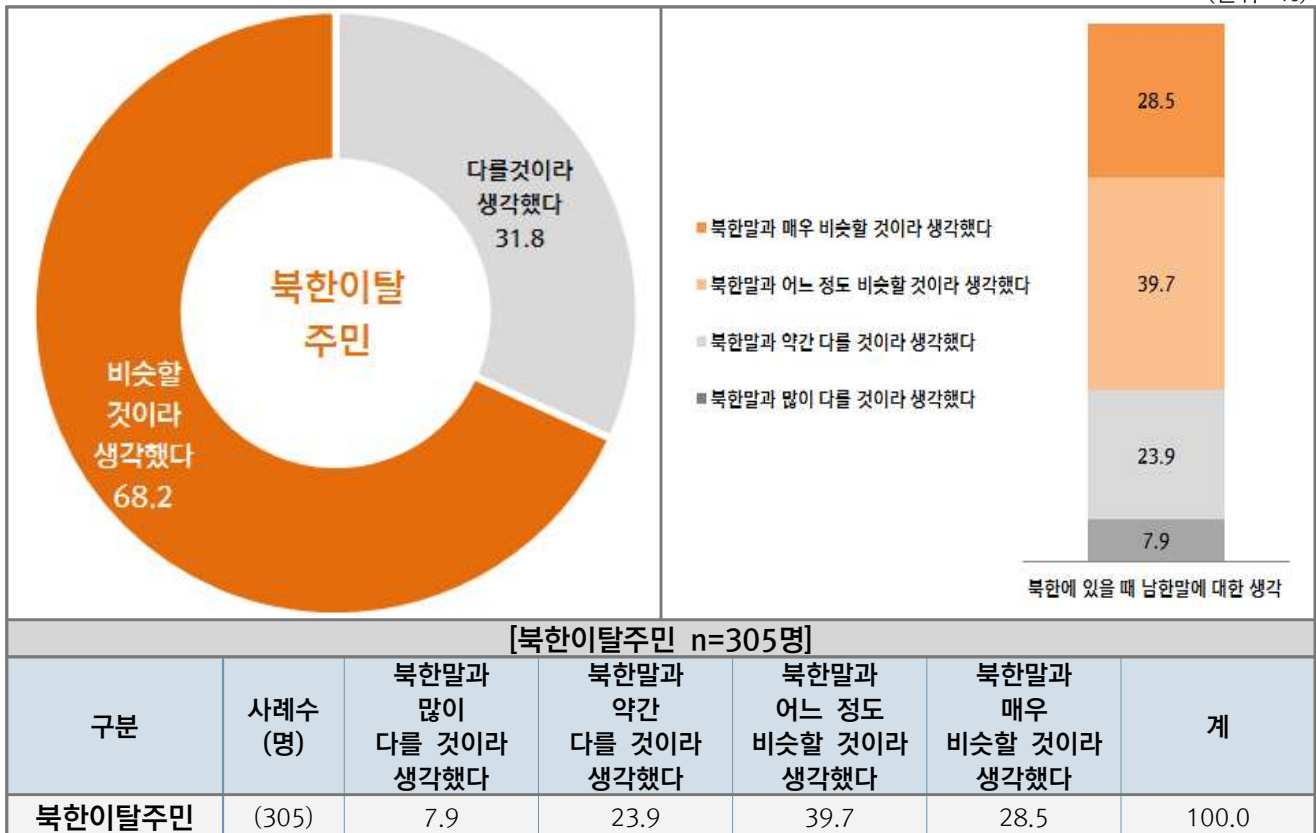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68.2%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말과 북한말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있을 때 남한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북한말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다’ (매우 28.5% + 어느 정도 39.7%)는 응답은 68.2%이며,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많이 7.9% + 약간 23.9%)는 응답은 31.8%임.

〈그림 4-1-17〉 북한에 있을 때 남한말에 대한 생각

(단위: %)



문] 북한에 계실 때 남한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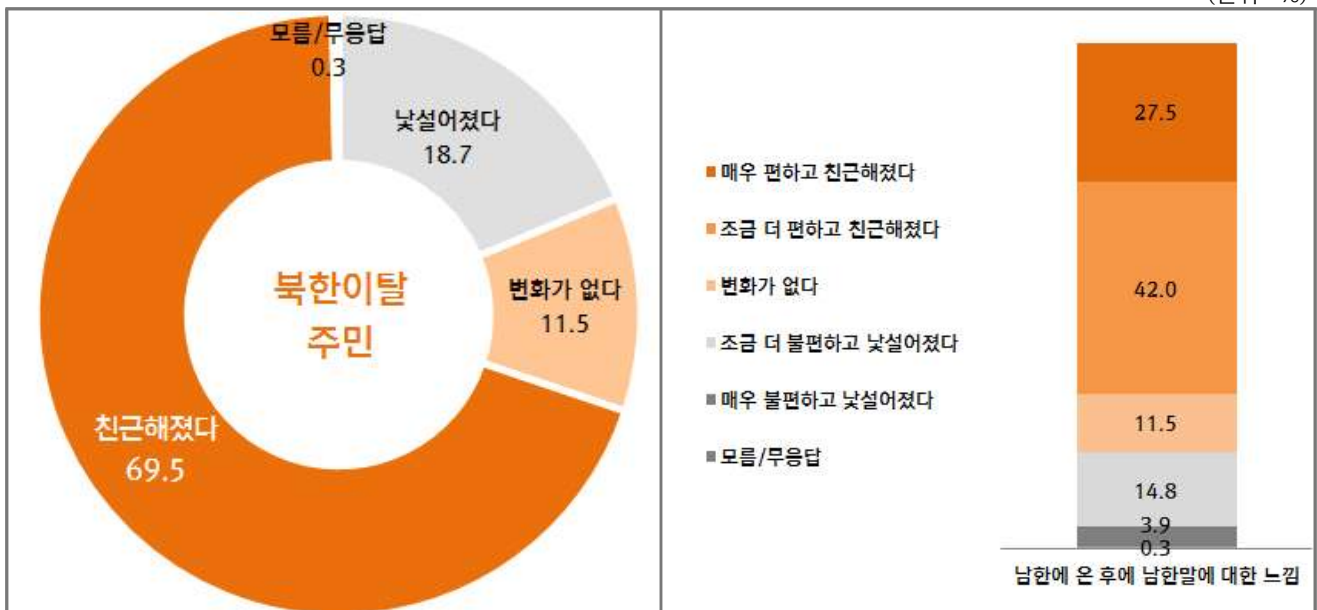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의 69.5%는 남한에 온 이후 남한말이 친근해졌다고 응답함.**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남한에 온 이후 남한말에 대한 느낌이 친근해진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에 온 후에 남한말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남한말이 ‘친근해졌다’ (매우 27.5% + 조금 42.0%)는 응답은 69.5%이며, ‘낯설어졌다’ (매우 3.9% + 조금 14.8%)는 응답은 18.7%,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1.5%임.

〈그림 4-1-18〉 남한에 온 이후 남한말에 대한 생각

(단위: %)



[북한이탈주민 n=305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편하고 낯설어졌다	조금 더 불편하고 낯설어졌다	변화가 없다	조금 더 편하고 친근해졌다	매우 편하고 친근해졌다	모름/무응답	계
북한이탈주민	(305)	3.9	14.8	11.5	42.0	27.5	0.3	100.0

문] 남한에 온 후에 남한말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0. 북한말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과 변화

이 설문 문항은 남북 언어 접촉을 통해 언어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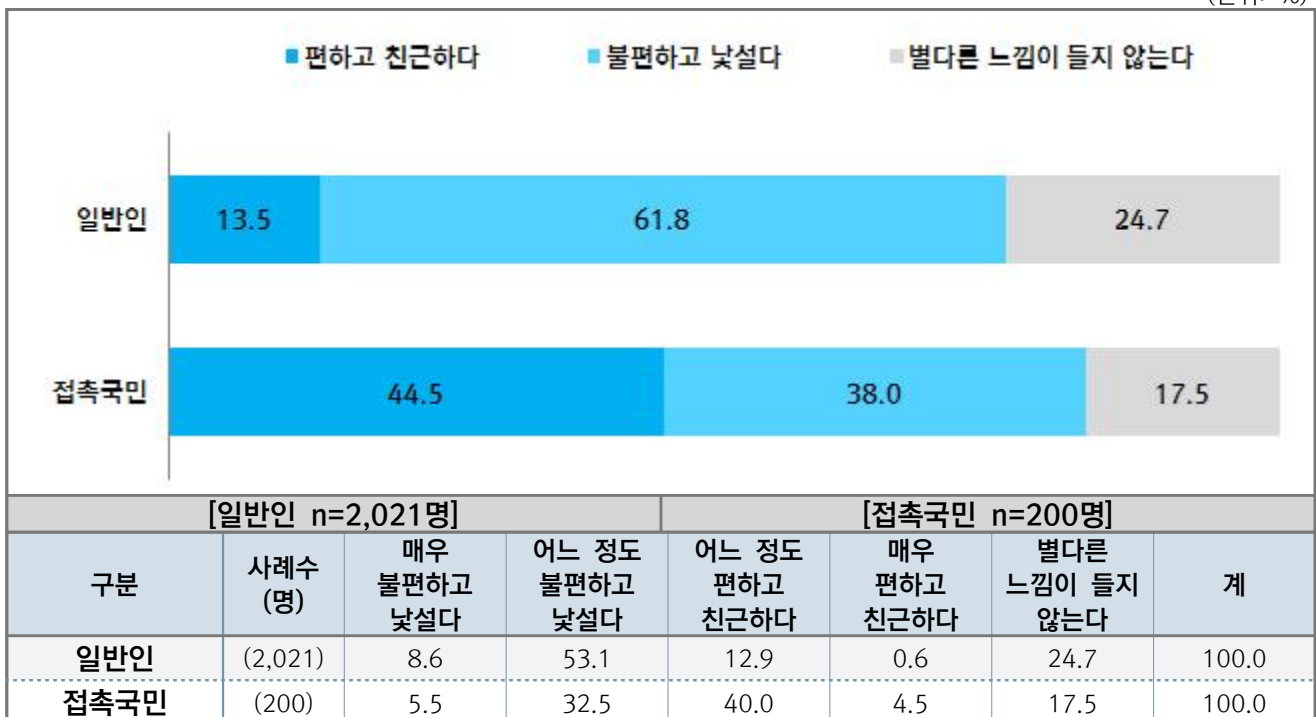
- ✓ 접촉국민은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편하고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는 반면, 일반인은 ‘불편하고 낯설다’는 느낌을 받음.

일반인의 61.8%는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불편하고 낯설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접촉국민의 44.5%는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편하고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불편하고 낯설다’ (매우 8.6% + 어느 정도 53.1%)는 응답은 61.8%,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 (24.7%),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0.6% + 어느 정도 12.9%)는 13.5%임.
 - ▶ 접촉국민의 경우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4.5% + 어느 정도 40.0%)는 응답은 44.5%이며, ‘불편하고 낯설다’ (매우 5.5% + 어느 정도 32.5%)는 응답은 38.0%,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은 17.5%임

〈그림 4-1-19〉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단위: %)



문]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 **접촉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후 북한말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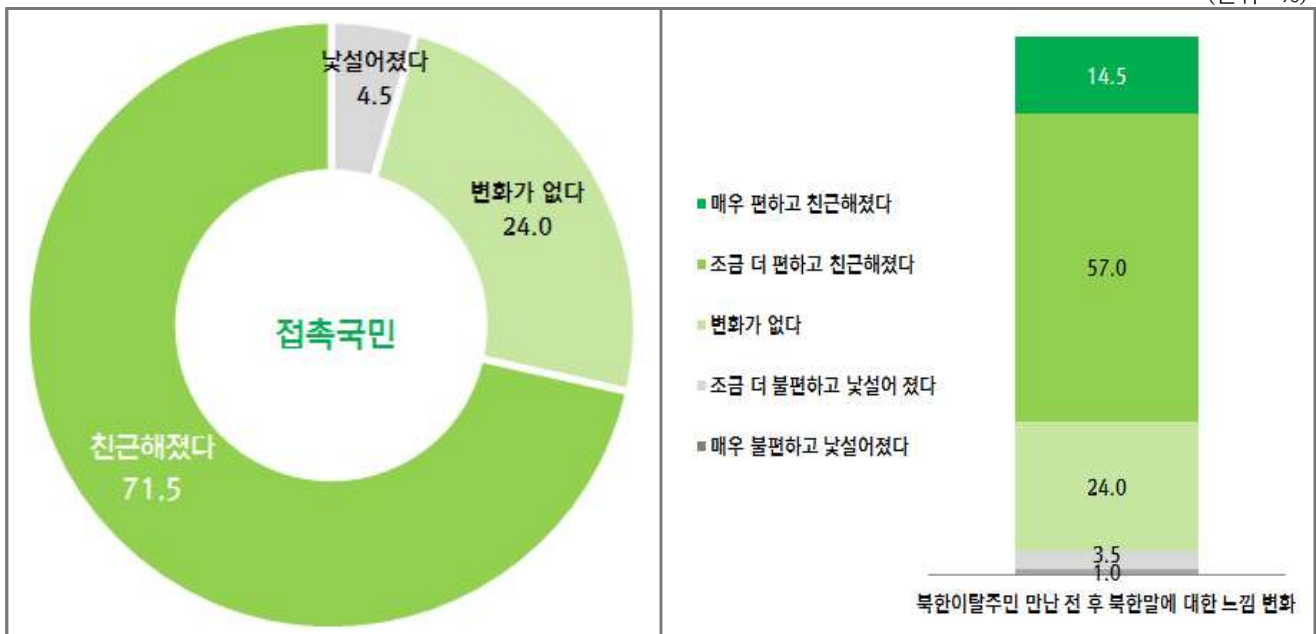
접촉국민 중 71.5%가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후 북한말이 ‘친근해졌다’ 라고 응답함.

○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기 전과 후에 북한말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북한말이 ‘편하고 친근해졌다’ (매우 14.5% + 조금 57.0%)는 응답은 71.5%이며, ‘불편하고 낯설어졌다’ (매우 1.0% + 조금 3.5%)는 응답은 4.5%,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4.0%임.

〈그림 4-1-20〉 북한이탈주민 만나기 전 후, 북한말에 대한 느낌 변화

(단위: %)



[접촉국민 n=200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편하고 낯설어졌다	조금 더 불편하고 낯설어졌다	변화가 없다	조금 더 편하고 친근해졌다	매우 편하고 친근해졌다	계
접촉국민	(200)	1.0	3.5	24.0	57.0	14.5	100.0

문]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기 전과 후에 북한말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 남한에서 지역 방언 들어본 경험

이 설문 문항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말의 다양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남한에서 지역 방언을 들어본 경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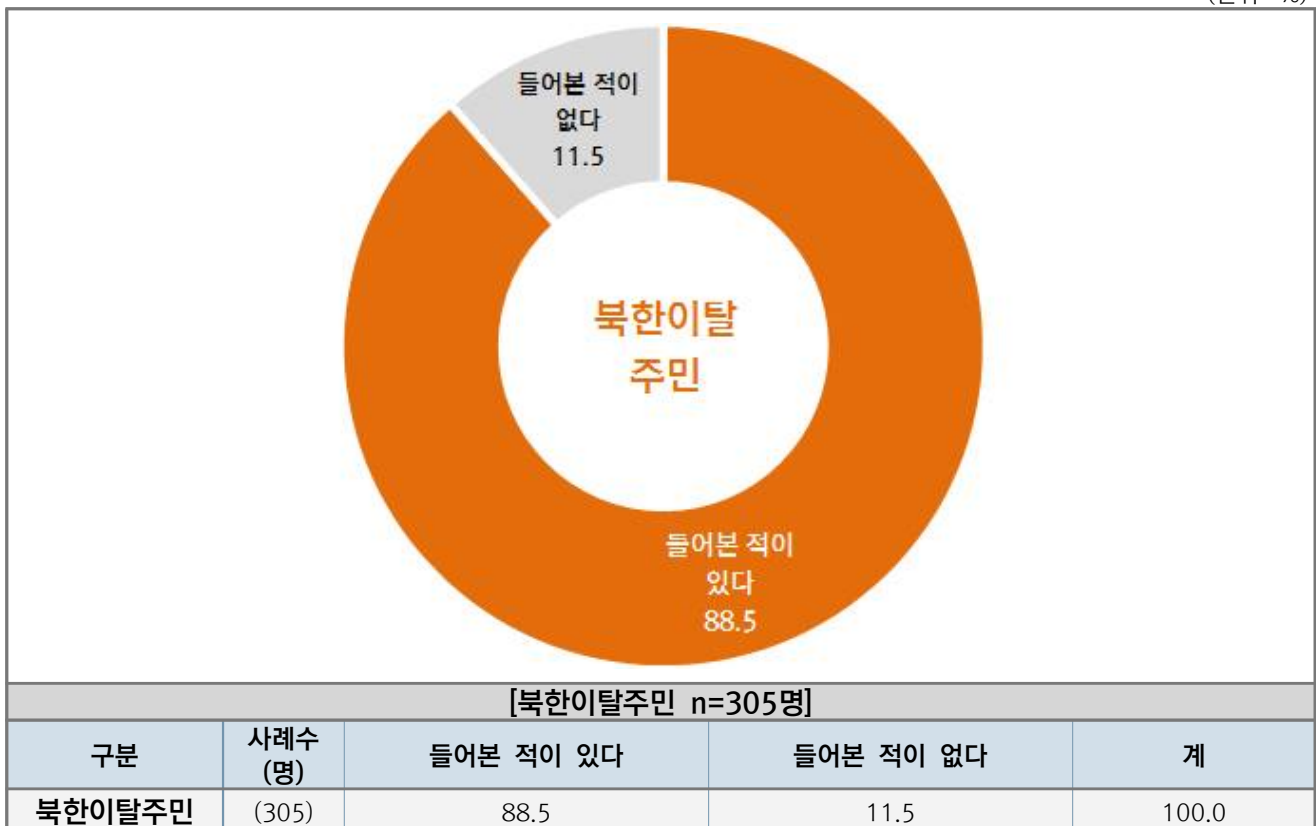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88.5%는 남한에서 지역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에서 지역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8.5%이고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11.5%임.

〈그림 4-1-21〉 남한에서 지역 방언 들어본 경험

(단위: %)



문] 남한에서 지역 방언(사투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정도는 남한의 표준어와 방언 여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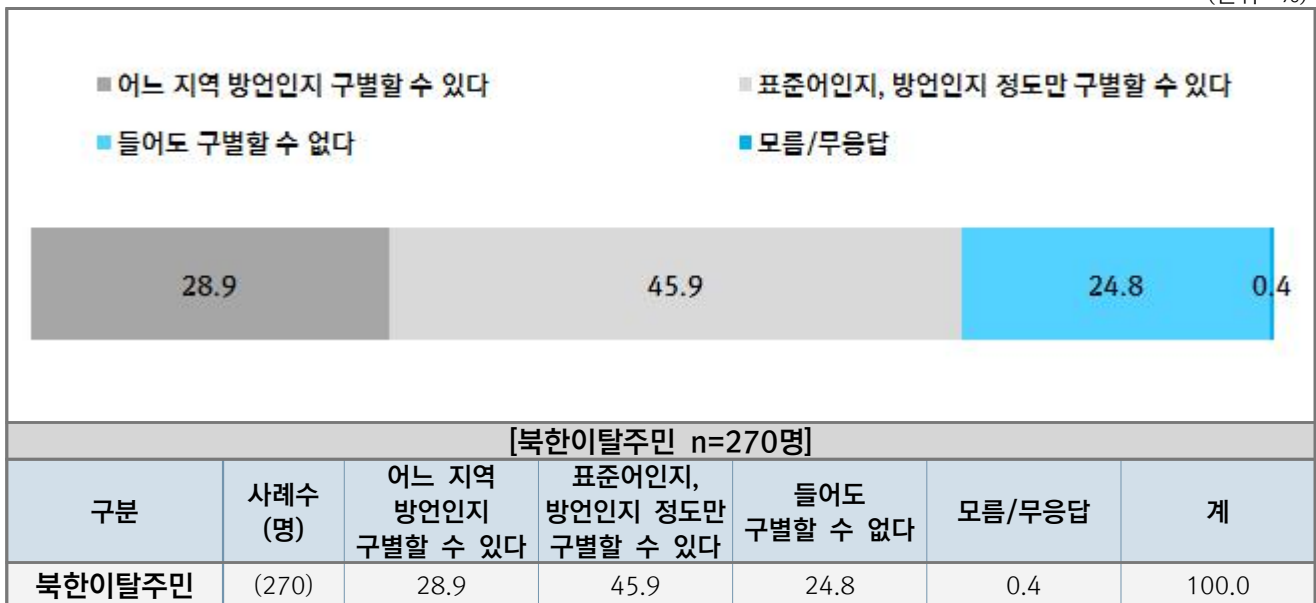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45.9%는 남한의 지역 방언을 들었을 때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정도를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함.

○ 남한에서 지역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의 지역 방언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 ▶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정도만 구별할 수 있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느 지역 방언인지 구별할 수 있다’ (28.9%), ‘들어도 구별할 수 없다’ (24.8%)의 순임.

〈그림 4-1-22〉 남한의 지역 방언 구별 가능 여부

(단위: %)



문] 그렇다면 남한의 지역 방언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12. 북한말에 대한 의견

이 설문 문항은 북한말의 위상 또는 개념 규정과 관련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일반인의 75.8%, 접촉국민의 64.5%는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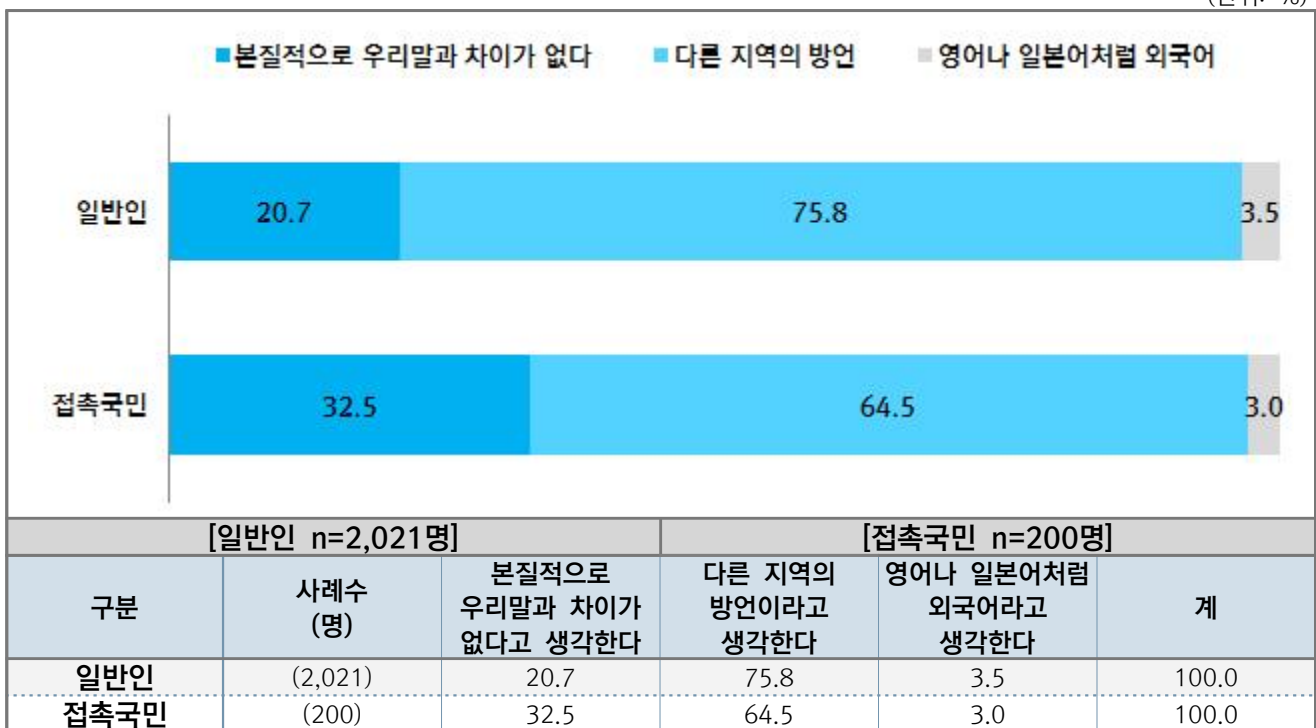
일반인과 접촉국민 모두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0.7%, ‘영어나 일본어처럼 외국어라고 생각한다’는 3.5%임.
- ▶ 접촉국민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2.5%, ‘영어나 일본어처럼 외국어라고 생각한다’는 3.0%임.

〈그림 4-1-23〉 북한말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북한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13.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차이

이 설문 문항은 전문가를 위한 문항으로 우리 사회의 언어 차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우리 사회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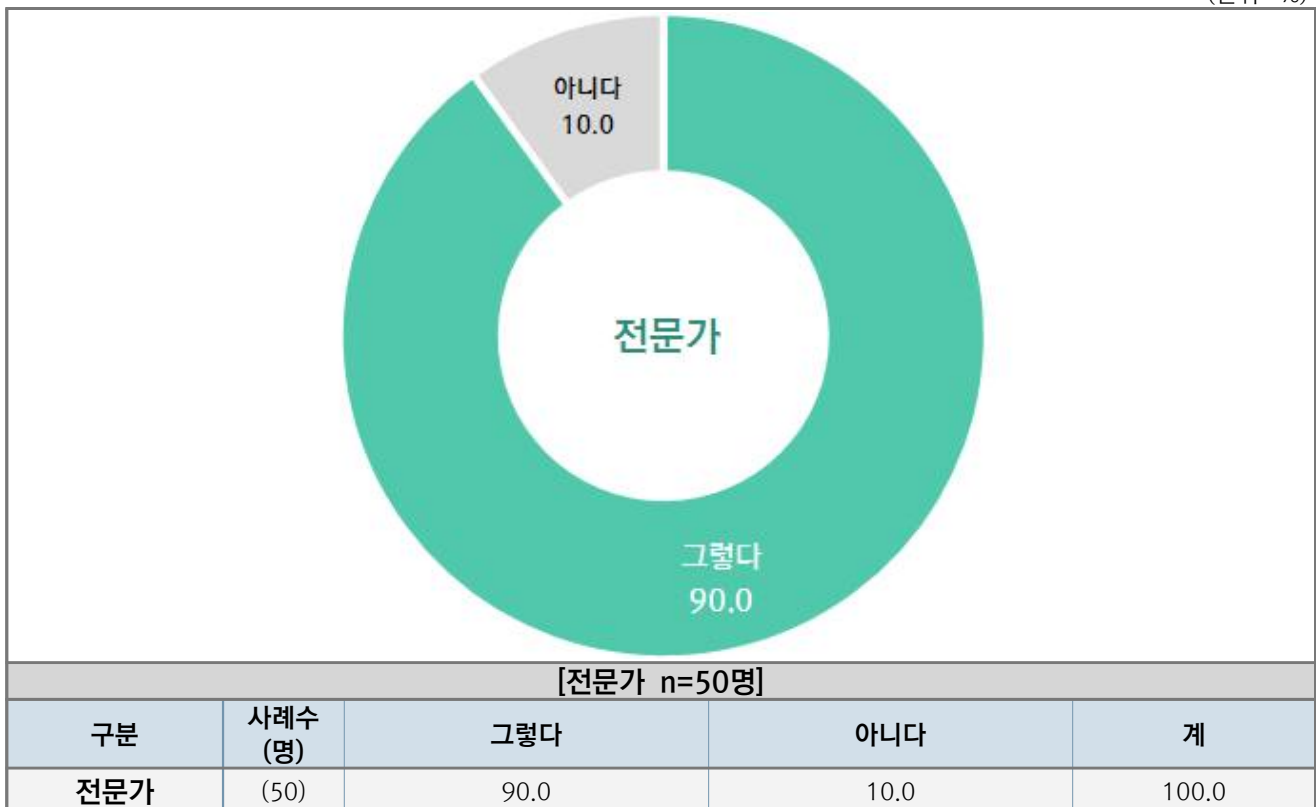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응답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 ‘그렇다’는 응답은 90.0%이고, ‘아니다’는 응답은 10.0%임.

〈그림 4-1-24〉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차이

(단위: %)



문] 우리 사회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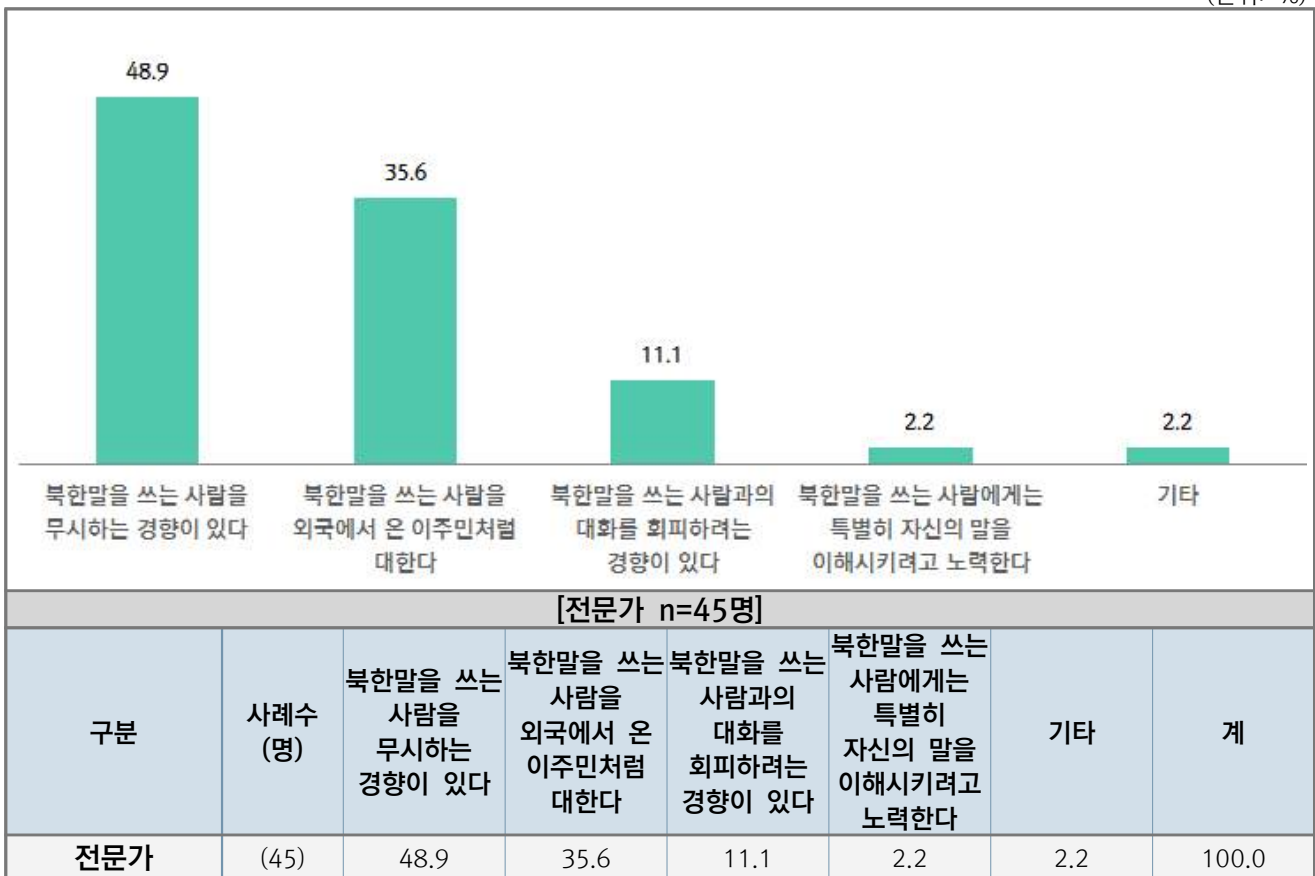
전문가의 48.9%는 우리 사회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외국에서 온 이주민처럼 대한다’ (35.6%), ‘북한말을 쓰는 사람과의 대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25〉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점

(단위: %)



문] 어떤 점에서 그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4.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

이 설문 문항은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인식 양상과 소통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는 ‘발음이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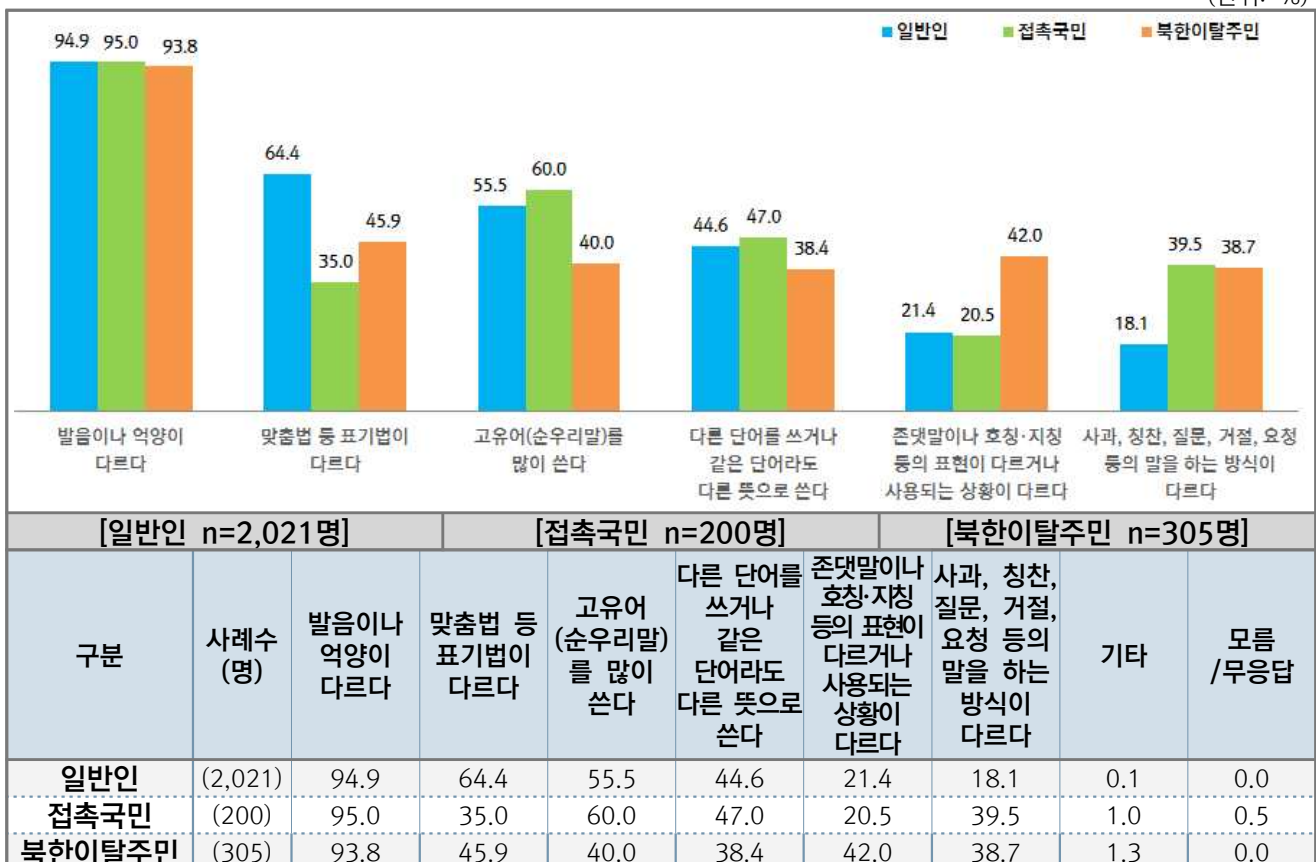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한말과 북한말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발음이나 억양’이라고 응답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말과 비교할 때 북한말이 다른 점(1+2+3순위)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가 9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맞춤법 등 표기법이 다르다’ (64.4%), ‘고유어(순우리말)를 많이 쓴다’ (55.5%) 등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가 9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유어(순우리말)를 많이 쓴다’ (60.0%),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쓴다’ (47.0%)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가 9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맞춤법 등 표기법이 다르다’ (45.9%),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 (42.0%)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가 8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유어(순우리말)를 많이 쓴다’ (58.0%),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쓴다’ (52.0%) 등의 순임.

〈그림 4-1-26〉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 (1+2+3순위)

(단위: %)



문) 남한말과 비교할 때 북한말이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5. 남한말과 북한말의 표기법 차이

이 설문 문항은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인식 양상과 소통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남한말과 북한말의 표기법 차이를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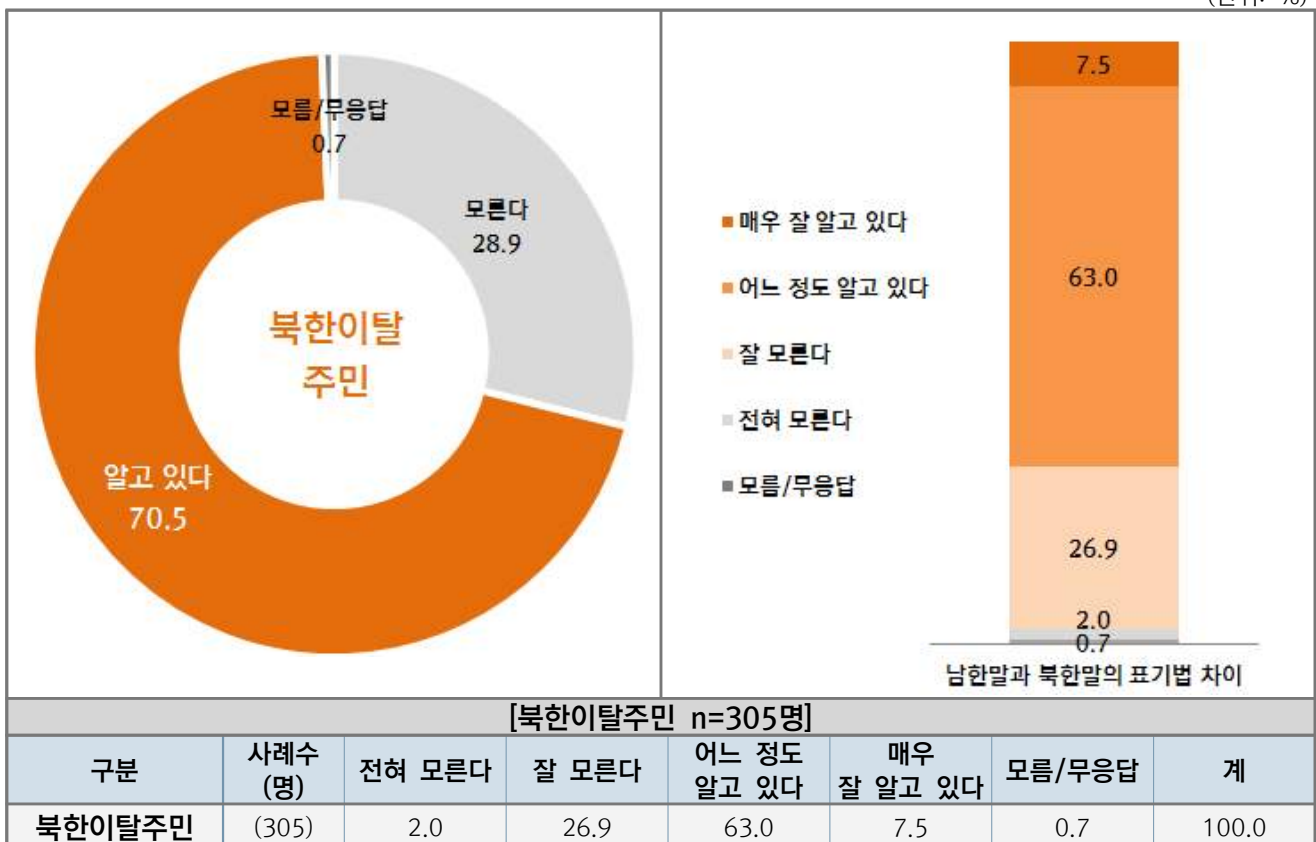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70.5%는 남한말과 북한말이 맞춤법 등 표기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말과 북한말은 맞춤법 등 표기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 ‘알고 있다’ (매우 7.5% + 어느 정도 63.0%)는 응답은 70.5%이며, ‘모른다’ (전혀 2.0% + 잘 모름 26.9%)는 응답은 28.9%임.

〈그림 4-1-27〉 남한말과 북한말의 표기법 차이 인지

(단위: %)



문] 남한말과 북한말은 맞춤법 등 표기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6. 남북 단어 및 한글 자모 비교

이 설문 문항은 남북 현행 규범의 수용성을 판단하고 남북 언어 규범의 통일 문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임.

☑ 남북 단어 비교

○ 다음 법칙, 사이시옷 표기, 외래어 표기, 어미 등 문법 요소의 표기, 학습 용어 등 어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여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두 개 단어 중 현재의 어문 규범에 상관없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1-2〉 남북 단어 비교

(단위: %)

일반인 [n=2,021명]					접촉국민 [n=200명]					북한이탈주민 [n=305명]				
단어 A		단어 B		모름/ 무응답	단어 A		단어 B		모름/ 무응답	단어 A		단어 B		모름/ 무응답
이발소	97.2	리발소	2.8	0.0	이발소	97.0	리발소	2.0	1.0	이발소	52.8	리발소	46.9	0.3
백분률	35.2	백분율	64.8	0.0	백분률	25.0	백분율	74.0	1.0	백분률	63.3	백분율	36.4	0.3
연말연시	84.5	년말년시	15.5	0.0	연말연시	92.5	년말년시	7.5	0.0	연말연시	45.2	년말년시	54.4	0.3
나무잎	31.0	나뭇잎	69.0	0.0	나무잎	23.5	나뭇잎	76.5	0.0	나무잎	91.5	나뭇잎	8.5	0.0
귀가길	65.6	귀갓길	34.4	0.0	귀가길	65.0	귀갓길	35.0	0.0	귀가길	90.5	귀갓길	9.2	0.3
최소값	89.9	최솟값	10.1	0.0	최소값	80.5	최솟값	19.5	0.0	최소값	97.7	최솟값	2.0	0.3
커튼	87.9	카텐	12.1	0.0	커튼	89.0	카텐	11.0	0.0	커튼	57.7	카텐	42.3	0.0
쇼파	76.8	소파	23.2	0.0	쇼파	65.0	소파	35.0	0.0	쇼파	63.9	소파	35.7	0.3
로봇	74.2	로보트	25.8	0.0	로봇	88.5	로보트	11.5	0.0	로봇	46.9	로보트	52.8	0.3
파리 (Paris)	83.5	빠리 (Paris)	16.5	0.0	파리 (Paris)	86.0	빠리 (Paris)	13.5	0.5	파리 (Paris)	50.5	빠리 (Paris)	49.2	0.3
레스링	26.2	레슬링	73.8	0.0	레스링	25.0	레슬링	75.0	0.0	레스링	70.5	레슬링	28.9	0.7
고마워요	91.7	고마와요	8.3	0.0	고마워요	91.5	고마와요	8.5	0.0	고마워요	82.3	고마와요	17.7	0.0
먹을가요	28.3	먹을까요	71.7	0.0	먹을가요	15.0	먹을까요	85.0	0.0	먹을가요	56.7	먹을까요	43.0	0.3
(배우가) 되었습니다	92.1	(배우가) 되었습니다	7.9	0.0	(배우가) 되었습니다	92.0	(배우가) 되었습니다	7.5	0.5	(배우가) 되었습니다	52.5	(배우가) 되었습니다	47.2	0.3
폐쇄	33.1	폐쇄	66.9	0.0	폐쇄	27.5	폐쇄	72.0	0.5	폐쇄	70.2	폐쇄	29.5	0.3
부력	89.5	뜰힘	10.5	0.0	부력	83.0	뜰힘	16.5	0.5	부력	38.7	뜰힘	61.0	0.3
광합성	92.9	빛합성	7.1	0.0	광합성	83.5	빛합성	16.5	0.0	광합성	46.6	빛합성	53.1	0.3
야구 장갑	46.8	야구 글러브	53.2	0.0	야구 장갑	47.0	야구 글러브	53.0	0.0	야구 장갑	89.5	야구 글러브	10.5	0.0

문] 아래에 제시된 단어 A와 단어 B 가운데 현재의 어문 규범에 상관없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 사이시옷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될 만함. 사이시옷이 포함된 단어 ‘나뭇잎, 귀갓길, 최솟값’의 경우 일반인은 ‘나뭇잎(69%)’, 귀갓길(34.4%), 최솟값(10.1%) 등과 같은 선호도를 보이고 접촉국민의 경우도 비슷한 선호도를 보임. 이는 익숙한 단어형을 제외하고는 사이시옷 규정이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사이시옷이 포함되지 않은 단어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이를 북한이탈주민이 두음 법칙 규정과 관련한 단어형을 선호하는 양상과 비교해 보면 사이시옷이 포함된 단어형에 대한 선호도가 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외래어 표기의 경우 특기할 사실은 남한 규범형인 ‘소파’가 일반인(23.2%), 접촉국민(35%)의 선호도를 보인다는 사실임. 이는 외래어 단어의 경우 관습적인 단어형태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줌. 비규범형인 ‘쇼파’가 일반인(76.8%), 접촉국민(65%), 북한이탈주민(63.9%)의 선호도를 보인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순화어의 경우 일반인과 접촉국민의 선호도가 낮은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 남북 한글 자모 비교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북한에서 다르게 쓰는 한글 자모 중 현재의 어문 규범에 상관없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1-3〉 남북 한글 자모 비교

(단위: %)

일반인 [n=2,021명]				접촉국민 [n=200명]				북한이탈주민 [n=305명]			
단어 A		단어 B		단어 A		단어 B		단어 A		단어 B	
기역	91.7	기읍	8.3	기역	88.0	기읍	12.0	기역	53.8	기읍	46.2
시옷	28.1	시읏	71.9	시읏	25.0	시읏	75.0	시읏	78.0	시읏	22.0
디읏	17.9	디글	82.1	디읏	17.5	디글	82.5	디읏	64.9	디글	35.1
쌍비읍	92.0	된비읍	8.0	쌍비읍	95.0	된비읍	5.0	쌍비읍	71.5	된비읍	28.5

문] 한글 자모의 이름입니다. 현재의 어문 규범에 상관없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II. 남북한 소통 문제

[1~4]는 남북한 사람들의 언어의식과 소통의 문제를 표준어와 지역 방언 간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임. 남북한의 언어와 소통은 기본적으로 남북 언어의 이질성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지만 표준어와 지역 방언 간 관계를 포괄함. 따라서 표준어-방언의 관계와 남북한 언어의 소통 관계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언어 인식과 소통의 문제를 평가해 볼 수 있음.

1.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의 느낌

- ☑ 일반인 10명 중 4명, 접촉국민 10명 중 5명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편하고 친근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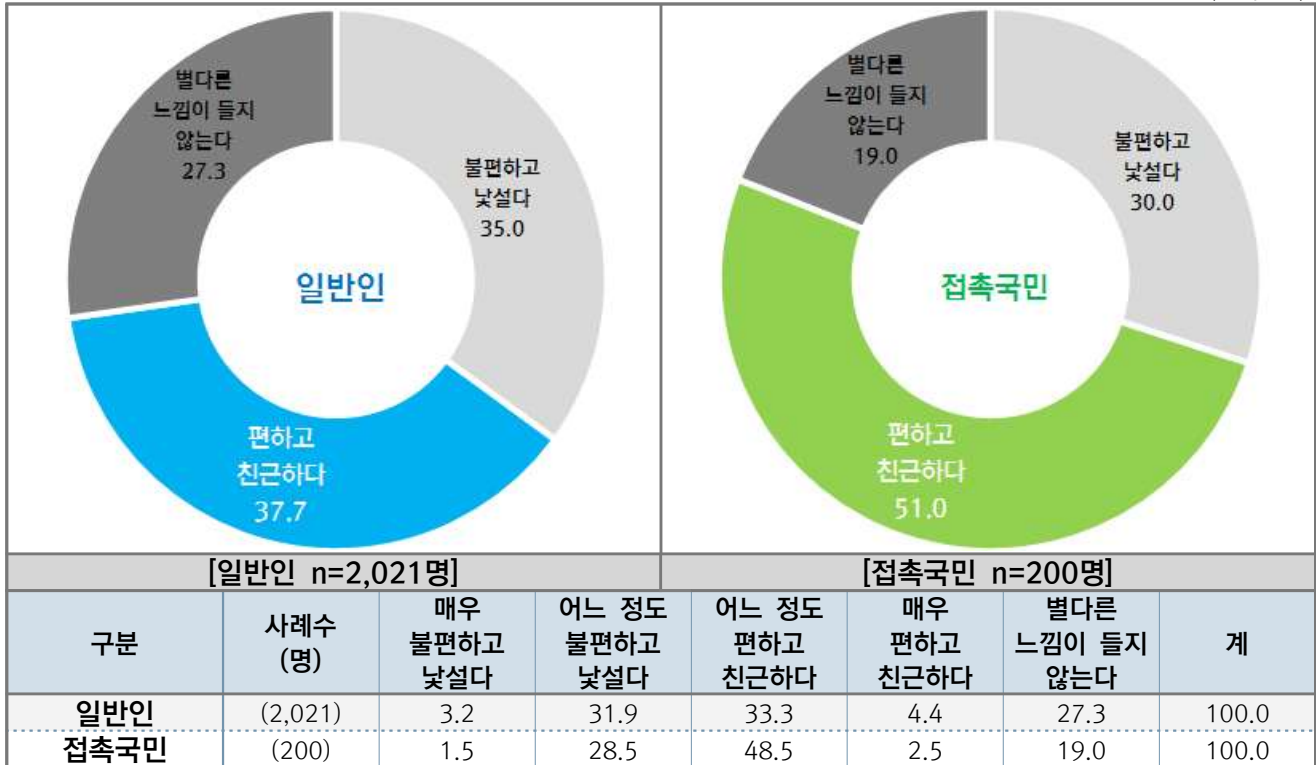
일반인의 37.7%, 접촉국민의 51.0%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편하고 친근하다고 응답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불편하고 낯설다’ (매우 3.2% + 어느 정도 31.9%)는 응답은 35.0%이며,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4.4% + 어느 정도 33.3%)는 응답은 37.7%,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은 27.3%임.
- ▶ 접촉국민의 경우 ‘불편하고 낯설다’ (매우 1.5% + 어느 정도 28.5%)는 응답은 30.0%이며,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2.5% + 어느 정도 48.5%)는 응답은 51.0%,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은 19.0%임.

〈그림 4-2-1〉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의 느낌

(단위: %)



문] 다른 지역 방언(사투리)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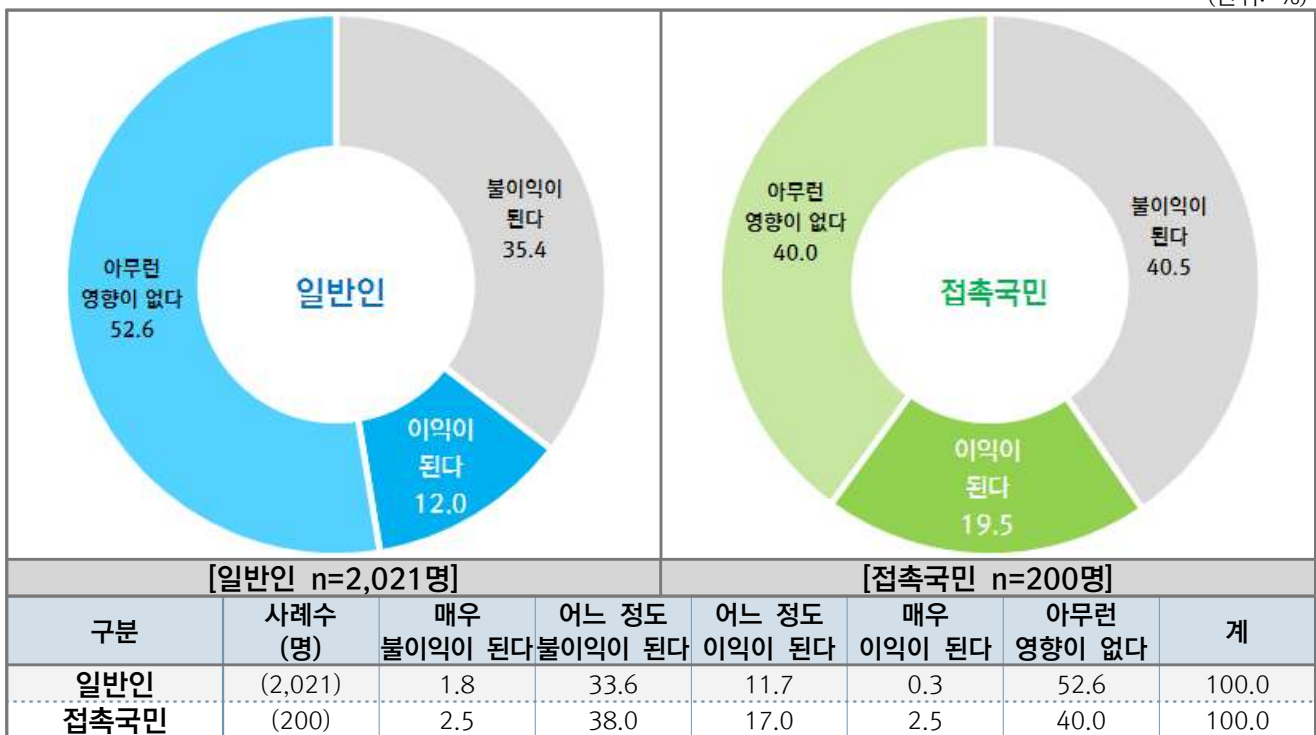
평소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20% 미만에 불과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불이익이 된다’ (매우 1.8% + 어느 정도 33.6%)는 응답은 35.4%이며, ‘이익이 된다’ (매우 0.3% + 어느 정도 11.7%)는 응답은 12.0%,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52.6%임.
- ▶ 접촉국민의 경우 ‘불이익이 된다’ (매우 2.5% + 어느 정도 38.0%)는 응답은 40.5%이며, ‘이익이 된다’ (매우 2.5% + 어느 정도 17.0%)는 응답은 19.5%,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0.0%임.

〈그림 4-2-2〉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역 방언 사용의 영향

(단위: %)



문) 평소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말씨로 인한 무시나 차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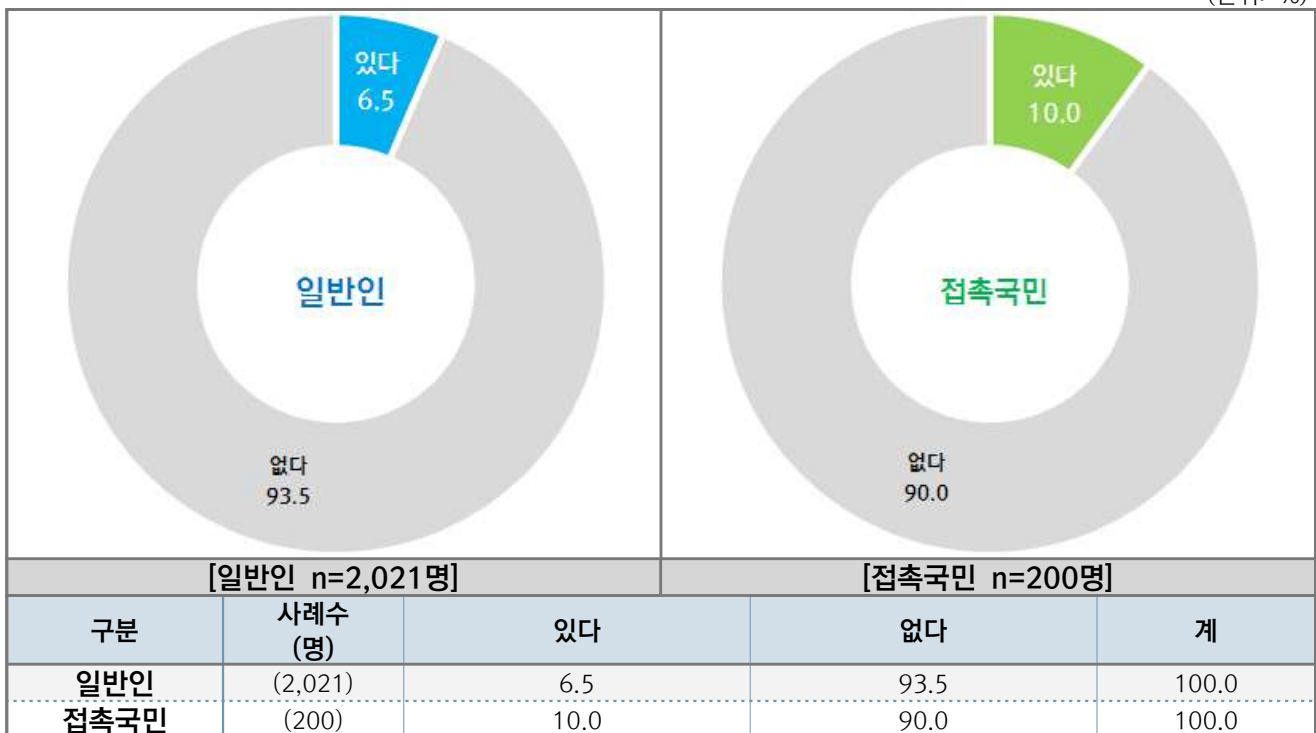
- ☑ 대다수의 일반인과 접촉국민은 말씨로 인한 무시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인의 93.5%, 접촉국민의 90.0%는 말씨로 인한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평소 말씨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없다’는 응답은 93.5%이며, ‘있다’는 응답은 6.5%임.
 - ▶ 접촉국민의 경우 ‘없다’는 응답은 90.0%이며, ‘있다’는 응답은 10.0%임.

〈그림 4-2-3〉 말씨로 인한 무시나 차별 받은 경험

(단위: %)



문] 평소 말씨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일반인의 50.5%, 접촉국민의 42.0%는 말씨를 표준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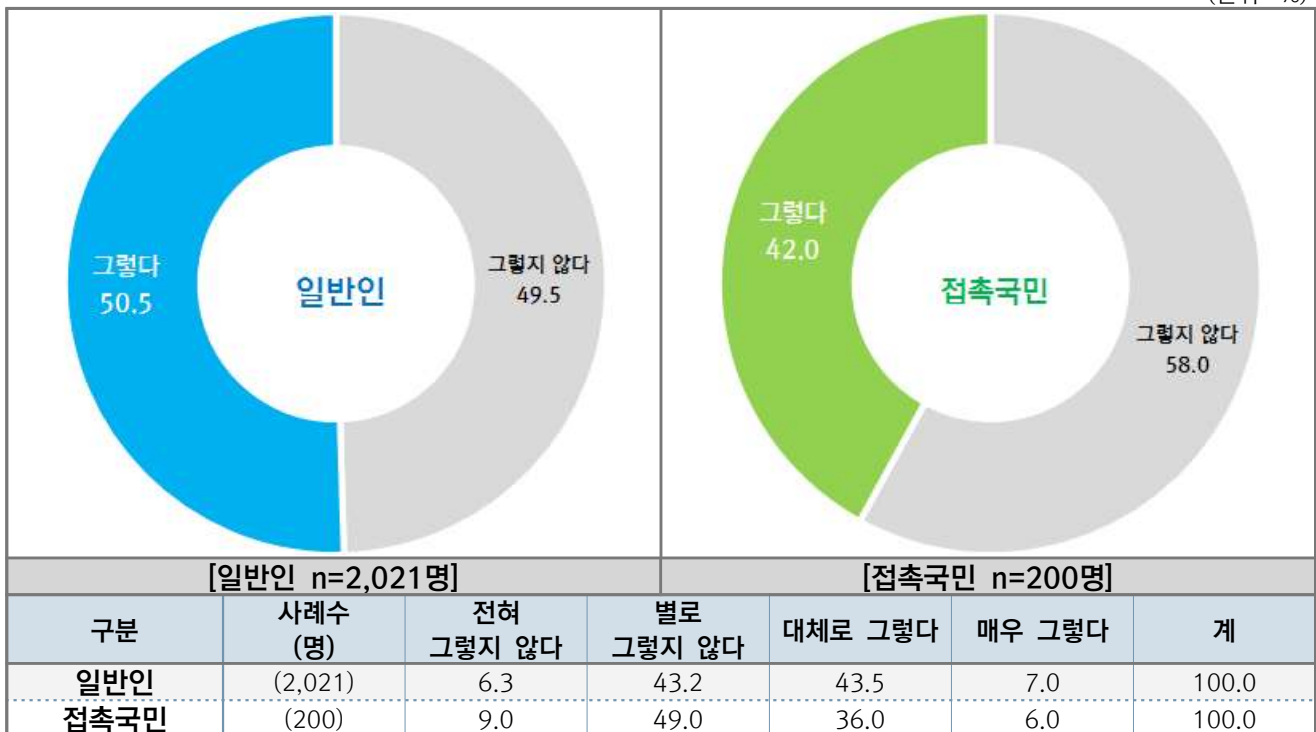
일반인 10명 중 5명, 접촉국민 10명 중 4명은 표준어로 말씨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표준어로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그렇다’ (매우 7.0% + 대체로 43.5%)는 응답은 50.5%이며, ‘그렇지 않다’ (전혀 6.3% + 별로 43.2%)는 응답은 49.5%임.
- ▶ 접촉국민의 경우 ‘그렇다’ (매우 6.0% + 대체로 36.0%)는 응답은 42.0%이며, ‘그렇지 않다’ (전혀 9.0% + 별로 49.0%)는 응답은 58.0%임.

〈그림 4-2-4〉 말씨를 표준어로 바꾸는 것의 필요성

(단위: %)



문] 표준어로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의견

☑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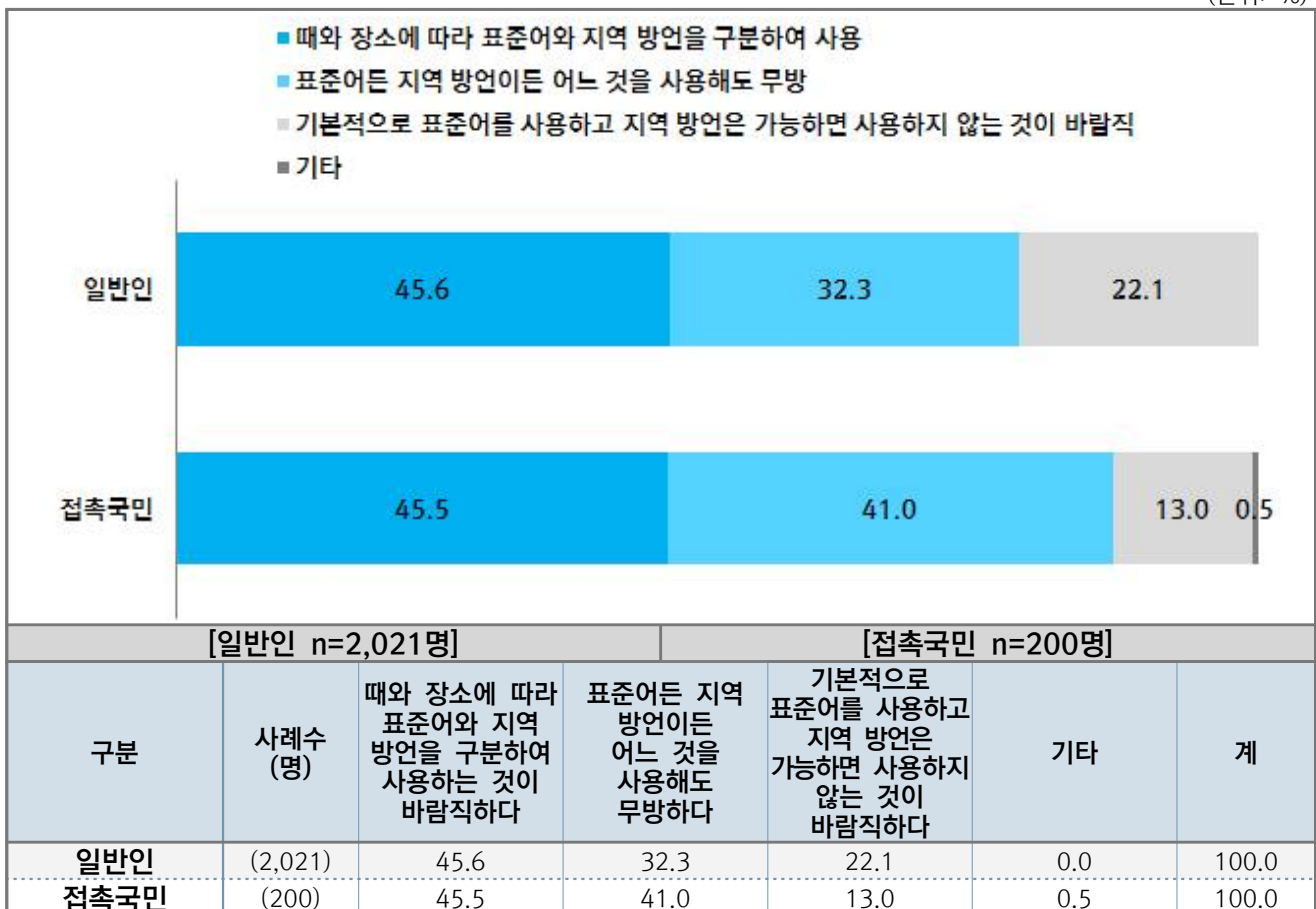
일반인과 접촉국민 10명 중 5명은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32.3%),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2.1%)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41.0%),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3.0%)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4.0%) 등의 순임.

〈그림 4-2-5〉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의 지역 방언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견에서 일반인과 접촉국민 간의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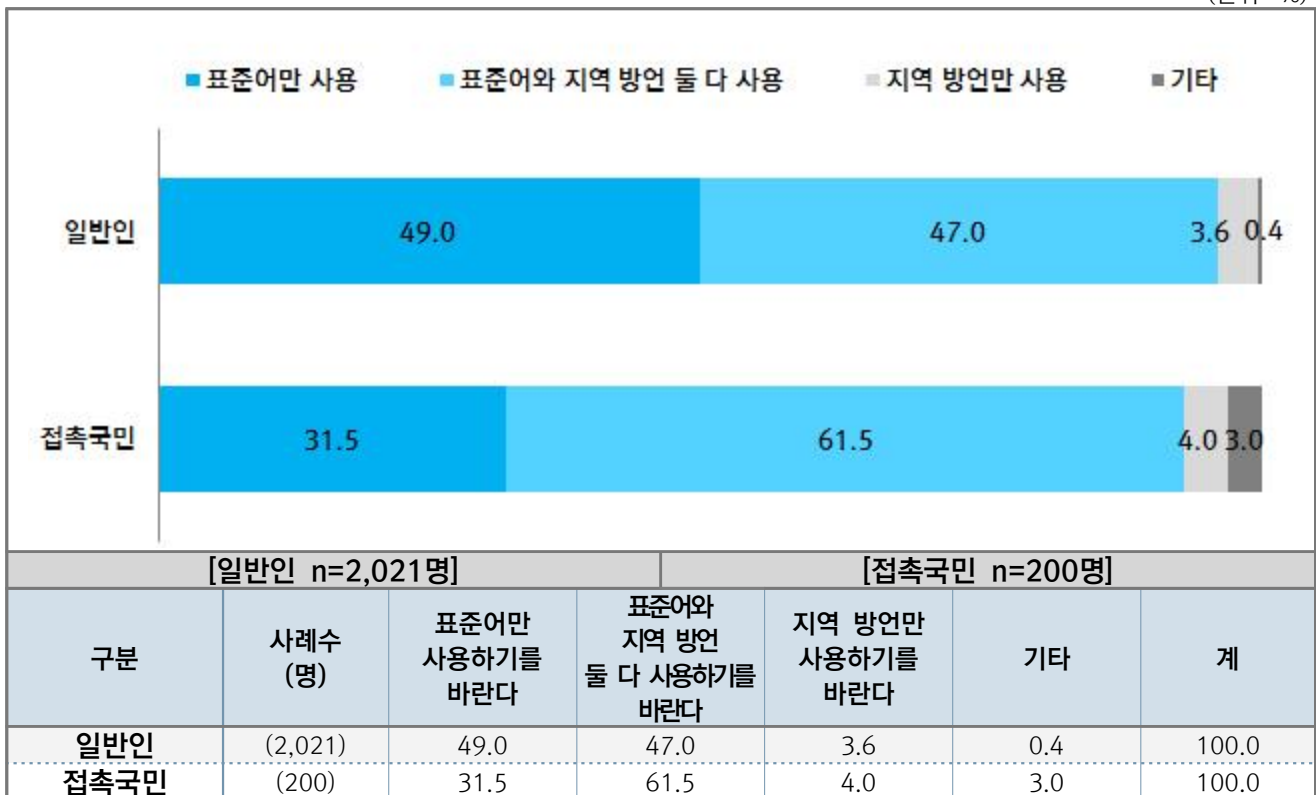
일반인은 자녀가 표준어만 사용하거나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거의 유사하였으나, 접촉국민은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의 두 배 가까이 높음.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길 바라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 (47.0%), ‘지역 방언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3.6%) 등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31.5%), ‘지역 방언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4.0%) 등의 순임.

〈그림 4-2-6〉 자녀의 지역 방언과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자녀가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길 바라십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해 주십시오.

4.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북한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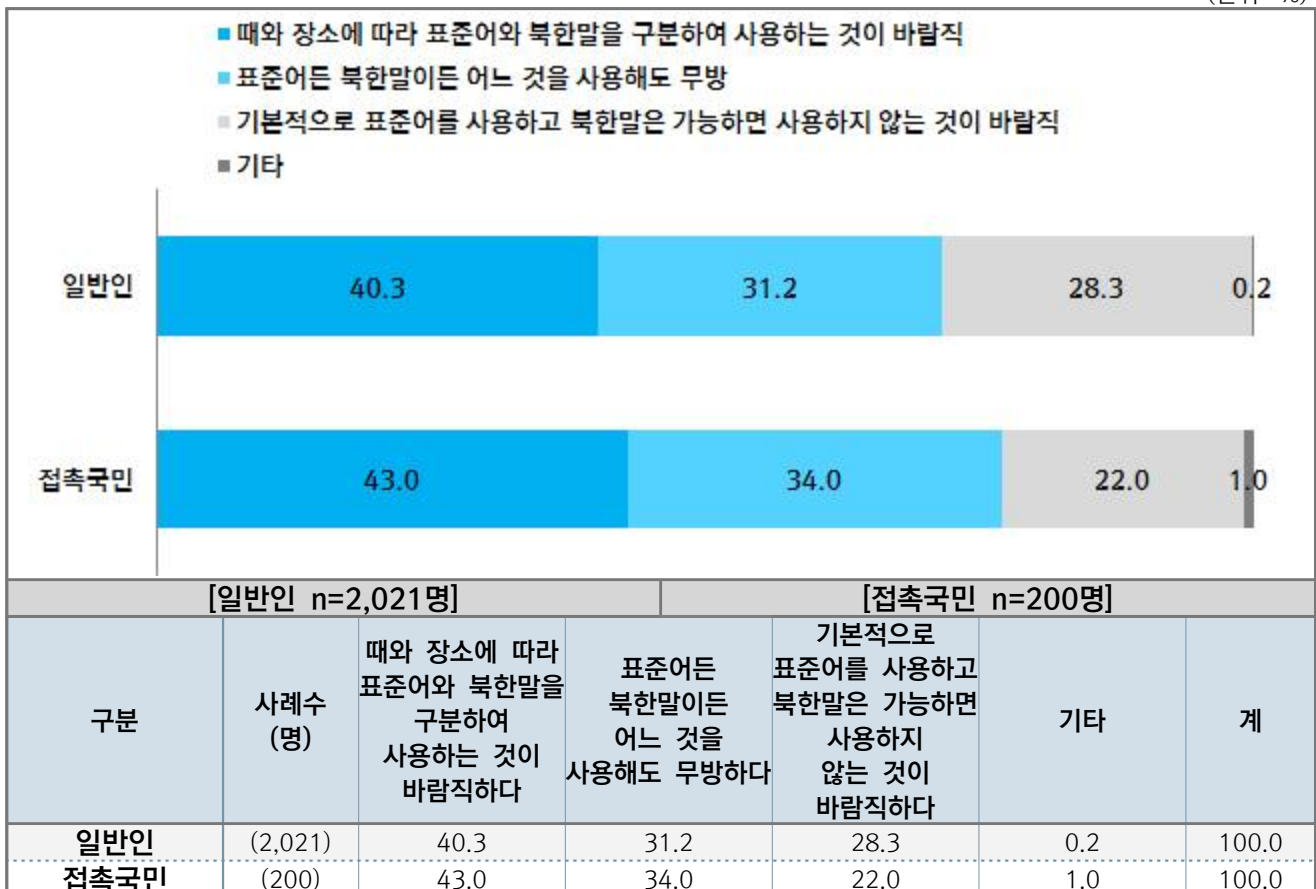
일반인과 접촉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북한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응답함.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북한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표준어든 북한말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31.2%),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북한말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8.3%) 등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북한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표준어든 북한말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34.0%),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북한말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2.0%) 등의 순임.

〈그림 4-2-7〉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0]은 남북한 사람들이 실제 소통한 경험과 정도를 평가하고 상대방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정도를 분석하고자 함. 쌍방 간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정도 및 실제 소통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봄.

5.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경험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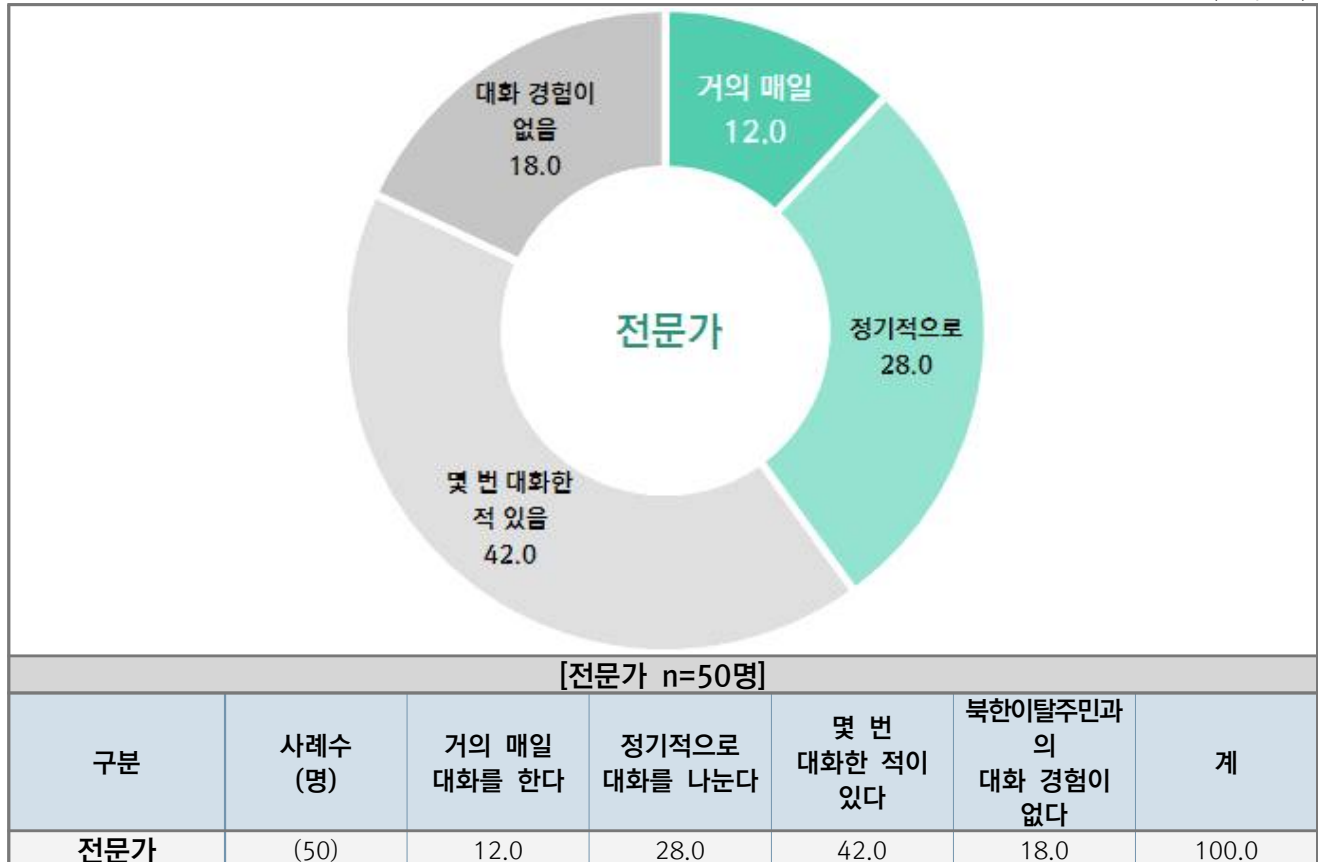
☑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경험이 있음.

전문가의 82.0%는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자주 만나 대화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몇 번 대화한 적 있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정기적으로’ (28.0%), ‘대화 경험이 없음’ (18.0%), 거의 매일 (12.0%) 등의 순임.

〈그림 4-2-8〉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경험 및 빈도

(단위: %)



문]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만나 대화를 하십니까?

6.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 접촉국민 10명 중 8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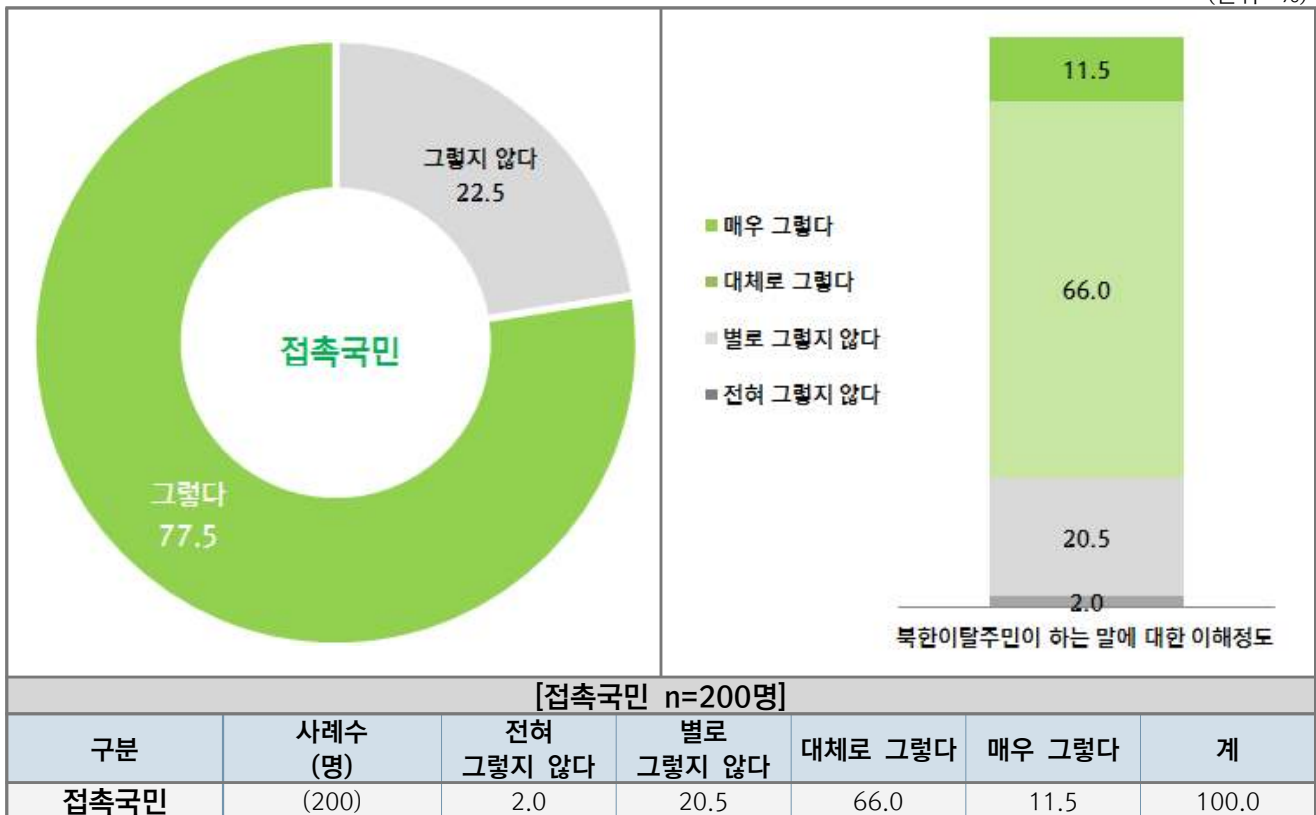
접촉국민의 77.5%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편인지를 질문한 결과,

▶ ‘그렇다’ (매우 11.5% + 대체로 66.0%)는 응답은 77.5%, ‘그렇지 않다’ (전혀 2.0% + 별로 20.5%)는 22.5%임.

〈그림 4-2-9〉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정도

(단위: %)



문) 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편입니까?

- ☑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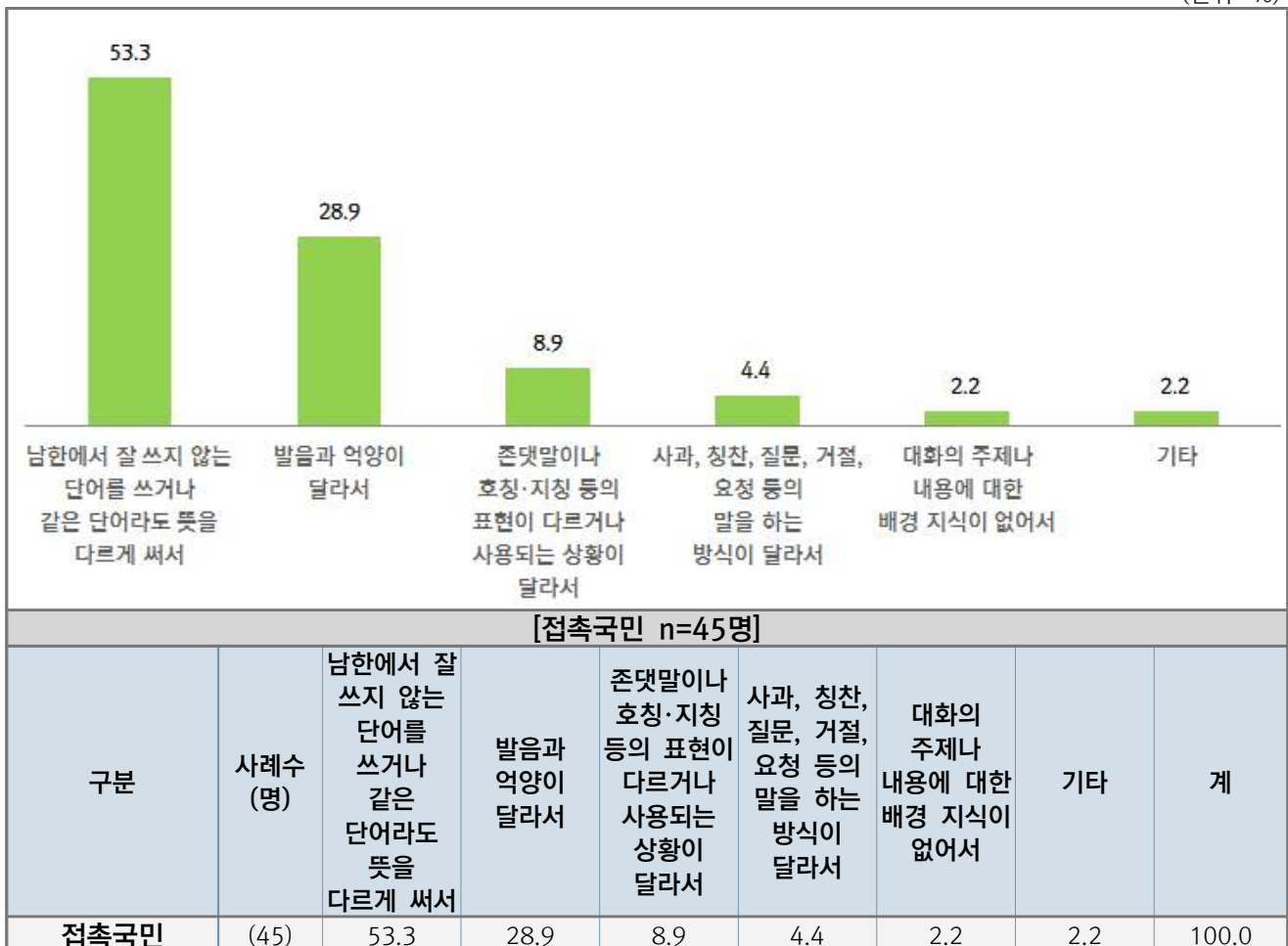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를 꼽음.

○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질문한 결과,

- ▶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가 5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28.9%),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서’(8.9%)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10〉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문]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골라 주십시오.

- ☑ 접촉국민의 51.5%는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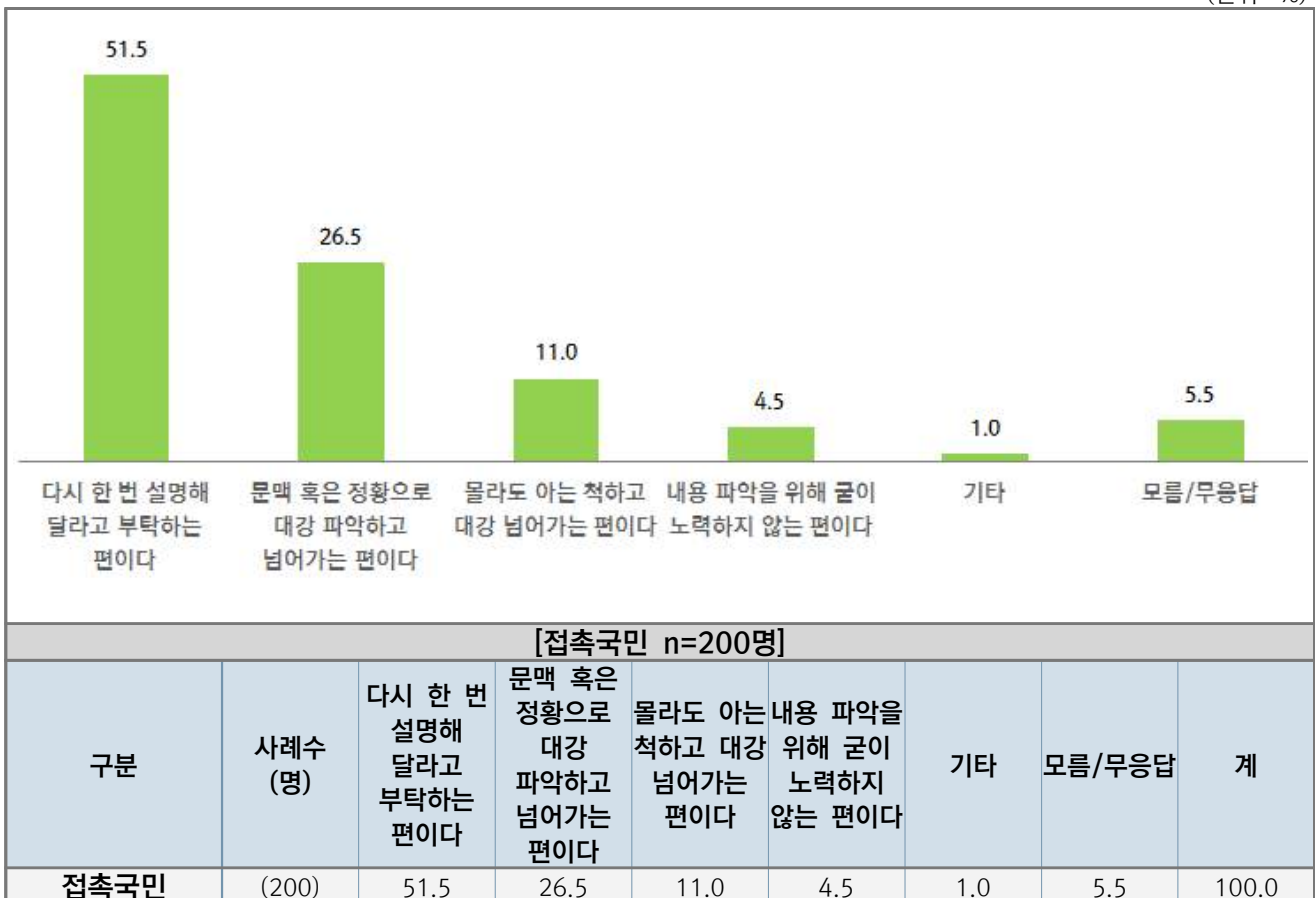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문맥 혹은 정황으로 대강 파악하고 넘어가는 등의 방식을 통해 대처한다고 응답함.

○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문맥 혹은 정황으로 대강 파악하고 넘어가는 편이다’ (26.5%), ‘몰라도 아는 척하고 대강 넘어가는 편이다’ (11.0%) 등의 순임.

〈그림 4-2-11〉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 방법

(단위: %)



문]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7.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시 언어의 중요성

☑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 시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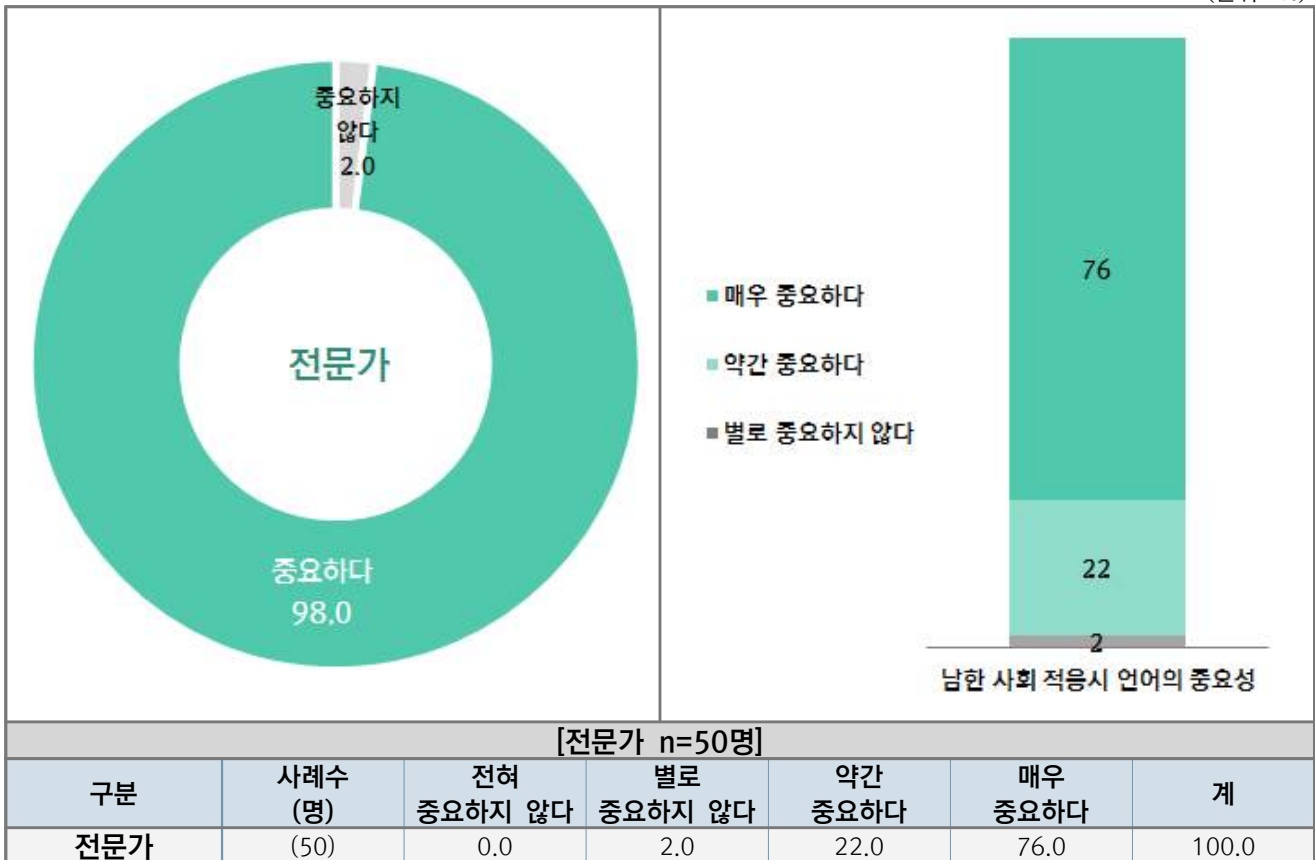
전문가의 98.0%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때 언어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중요하다’ (매우 76.0% + 약간 22.0%)는 응답은 98.0%이고, ‘중요하지 않다’ (전혀 0.0% + 별로 2.0%)는 2.0%임.

〈그림 4-2-1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 시 언어의 중요성

(단위: %)



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 용어 중심 대화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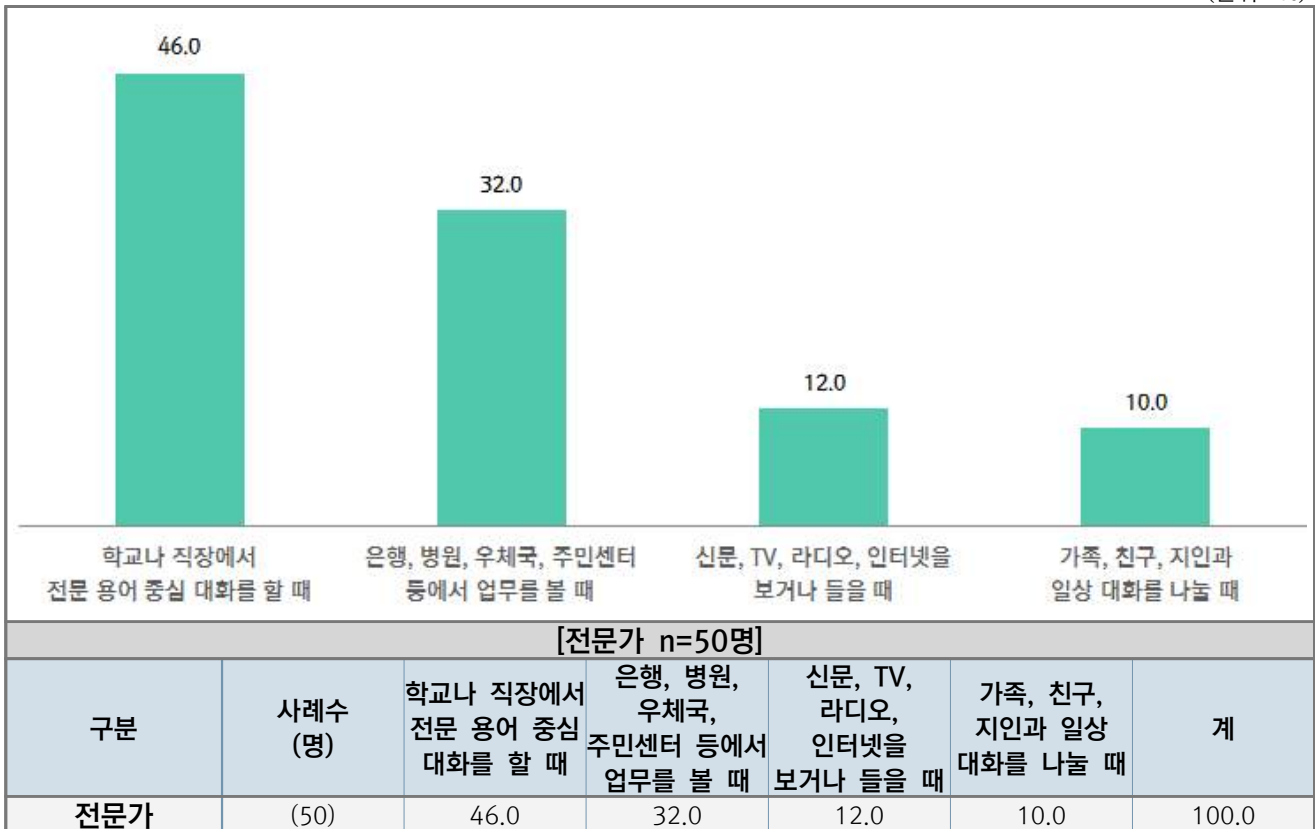
전문가의 46.0%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가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 용어 중심 대화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 용어 중심 대화를 할 때’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 병원,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서 업무를 볼 때’ (32.0%),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을 보거나 들을 때’ (12.0%), ‘가족, 친구, 지인과 일상 대화를 나눌 때’ (10.0%)의 순임.

〈그림 4-2-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단위: %)



문] 다음 중 어떤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8.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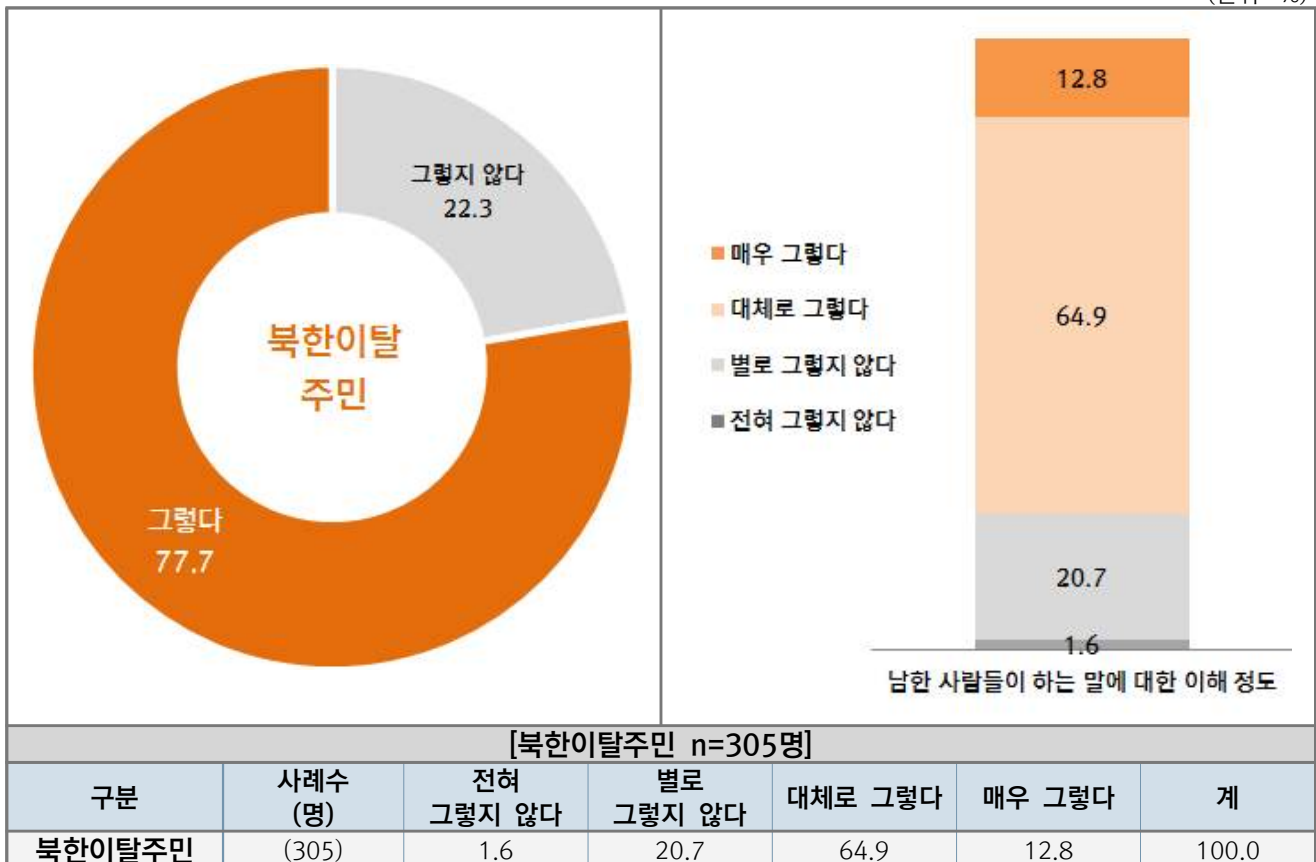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77.7%는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편인지를 질문한 결과,

▶ ‘그렇다’ (매우 12.8% + 대체로 64.9%)는 응답은 77.7%이고, ‘그렇지 않다’ (전혀 1.6% + 별로 20.7%)는 22.3%임.

〈그림 4-2-14〉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정도

(단위: %)



문) 귀하는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편입니까?

-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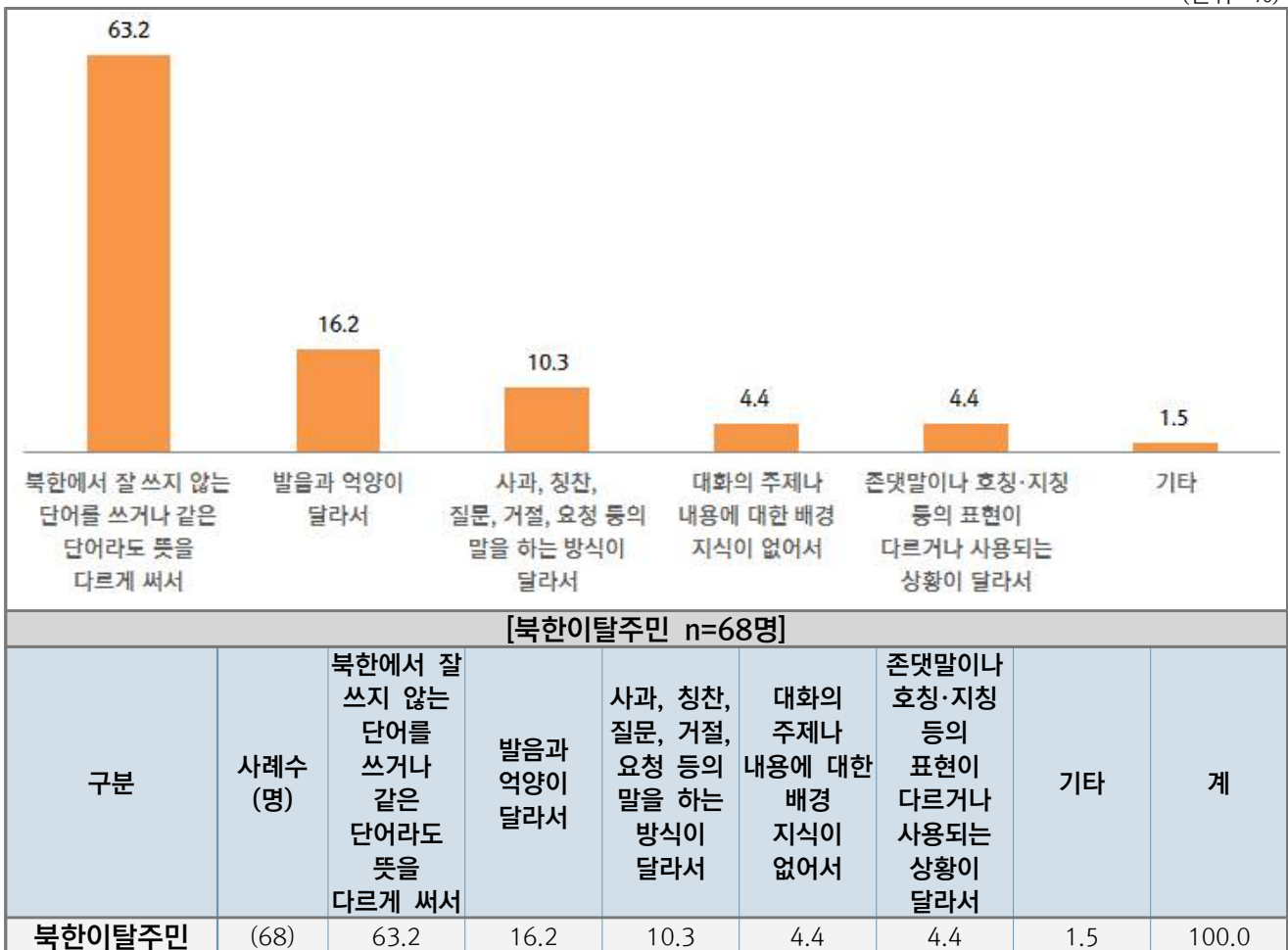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북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 ▶ ‘북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는 응답이 6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16.2%),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10.3%)등의 순임.

〈그림 4-2-15〉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문]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골라 주십시오.

-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6명은 남한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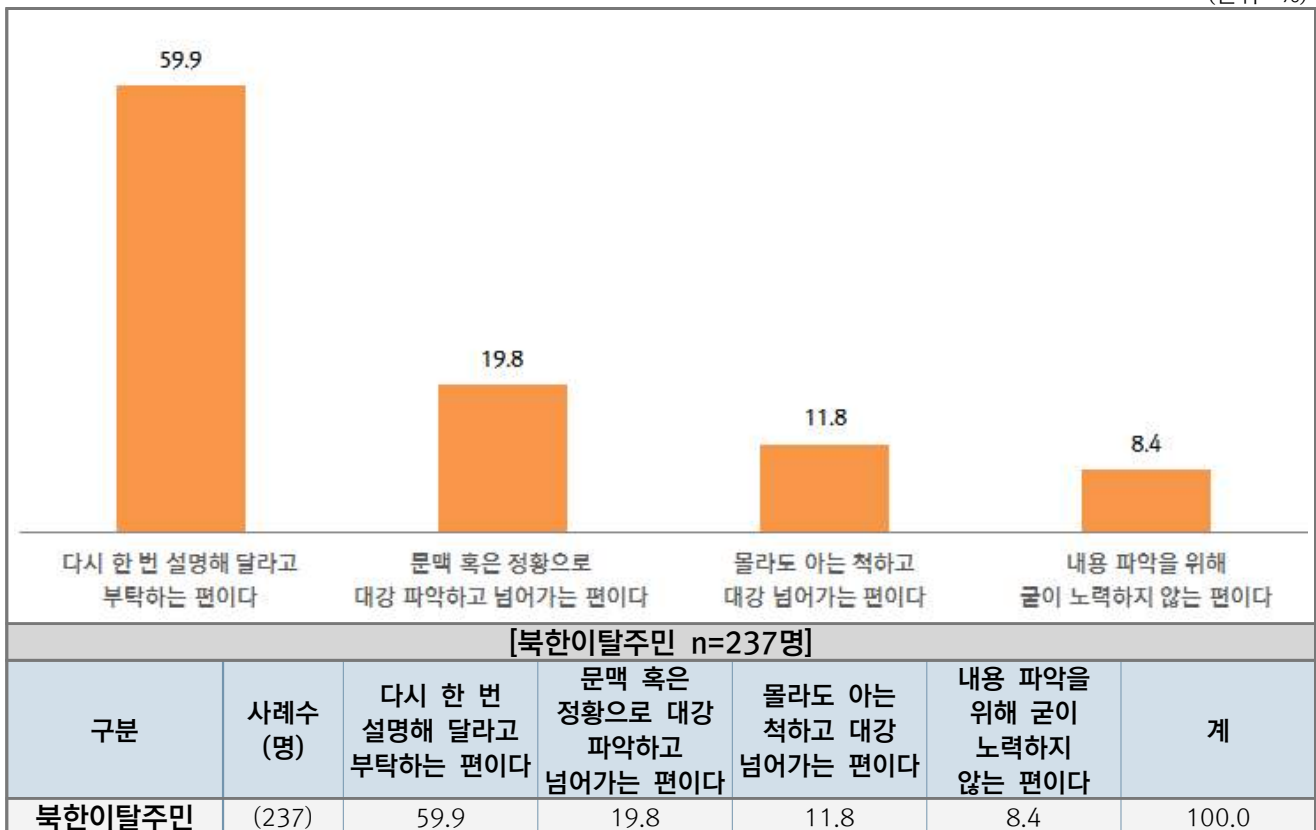
남한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문맥 혹은 정황으로 대강 파악하고 넘어가는 등의 방식을 통해 대처한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 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문맥 혹은 정황으로 대강 파악하고 넘어가는 편이다’ (19.8%), ‘몰라도 아는 척하고 대강 넘어가는 편이다’ (11.8%), ‘내용 파악을 위해 굳이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8.4%)의 순임.

〈그림 4-2-16〉 남한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 방법

(단위: %)



문] 남한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 ☑ 북한이탈주민의 54.4%는 남한말 중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 주변 남한 사람이나 먼저 온 이탈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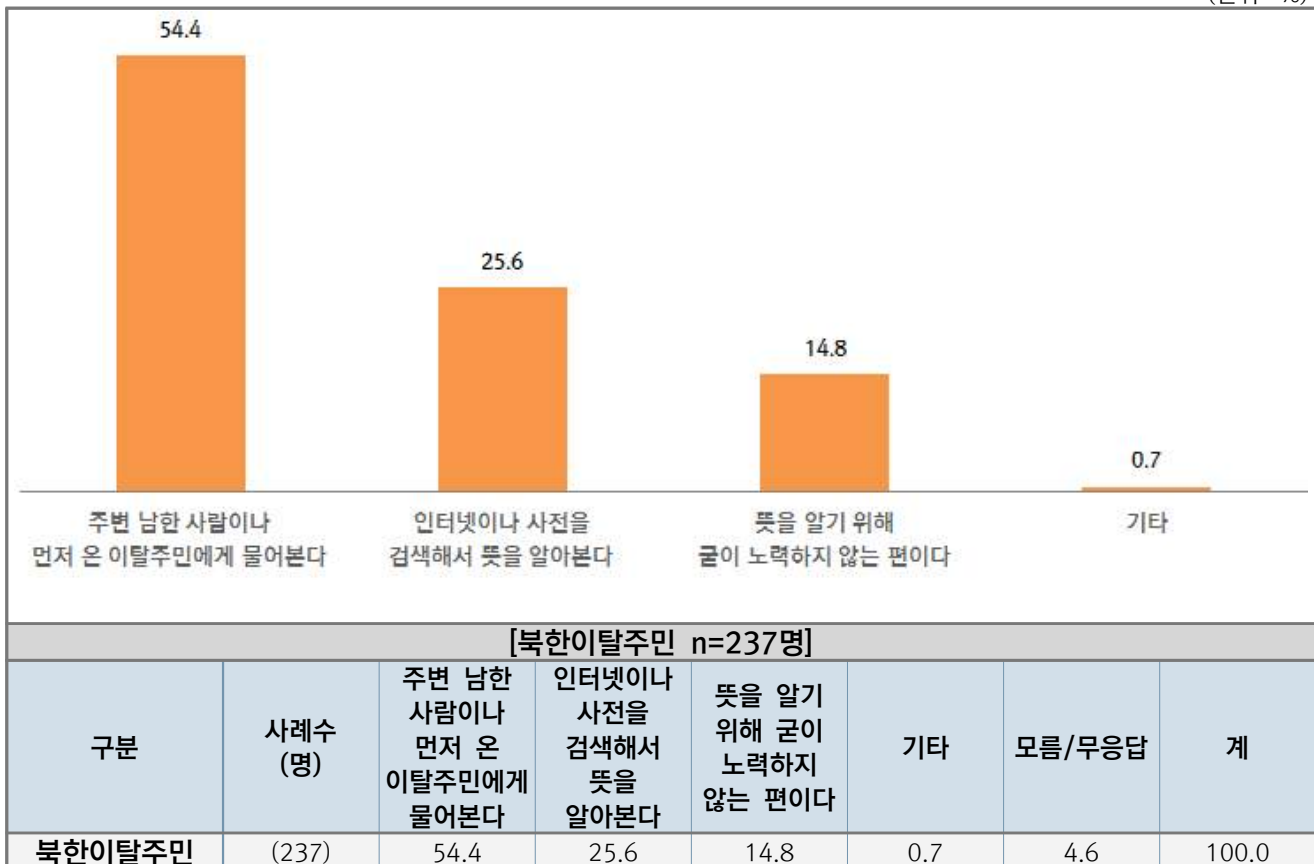
남한말 중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 주변 남한 사람이나 먼저 온 이탈주민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이나 사전을 검색해서 뜻을 알아보는 등의 방식을 통해 대처한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말 중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주변 남한 사람이나 먼저 온 이탈주민에게 물어본다’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이나 사전을 검색해서 뜻을 알아본다’ (25.6%), ‘뜻을 알기 위해 굳이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14.8%) 등의 순임.

〈그림 4-2-17〉 남한말 중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의 대처 방법

(단위: %)



문] 남한말 중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9.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남북한 사람들의 이해 정도

☑ 대다수의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한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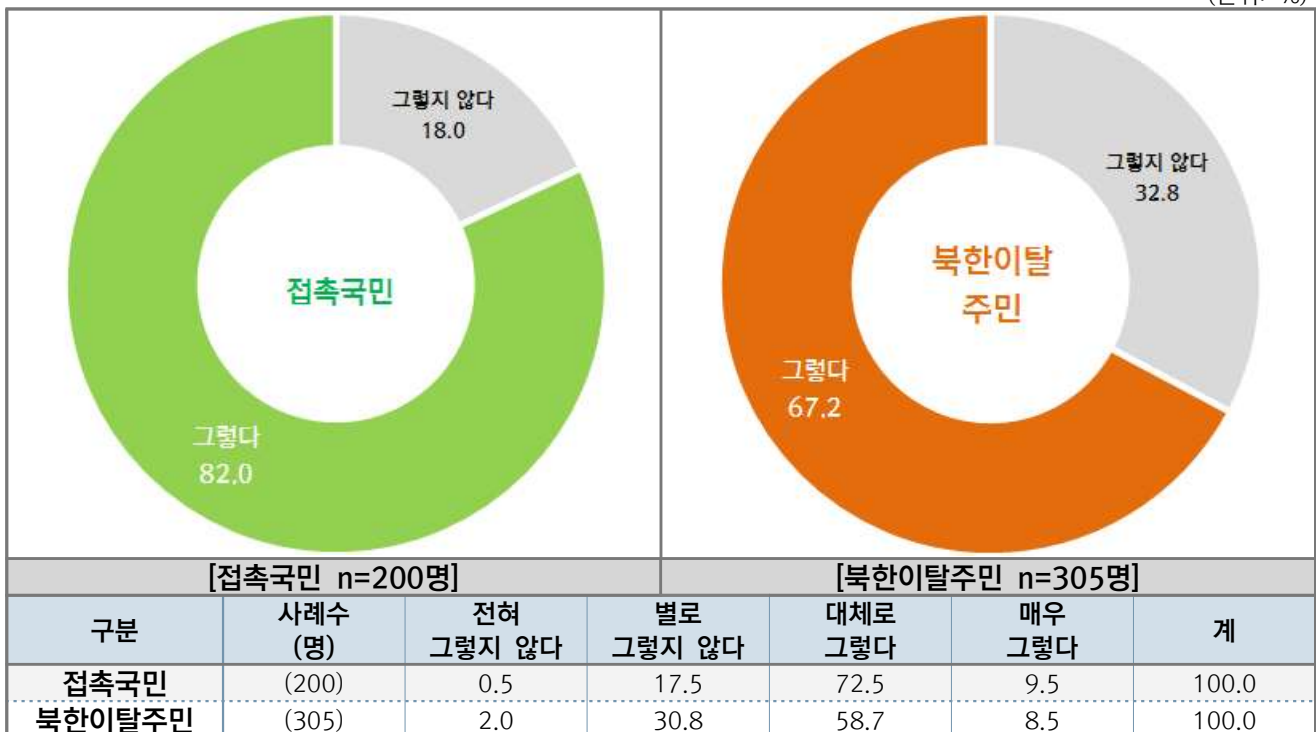
접촉국민의 82.0%는 본인이 하는 말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67.2%는 본인이 하는 말을 남한 사람들이 잘 이해한다고 응답함.

○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접촉국민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은 82.0%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0%임.
-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사람들이 본인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은 67.2%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2.8%임.

〈그림 4-2-18〉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남북한 사람들의 이해 정도

(단위: %)



문] 북한이탈주민들이 귀하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접촉국민)

문] 남한 사람들이 귀하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

- ☑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본인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북한 또는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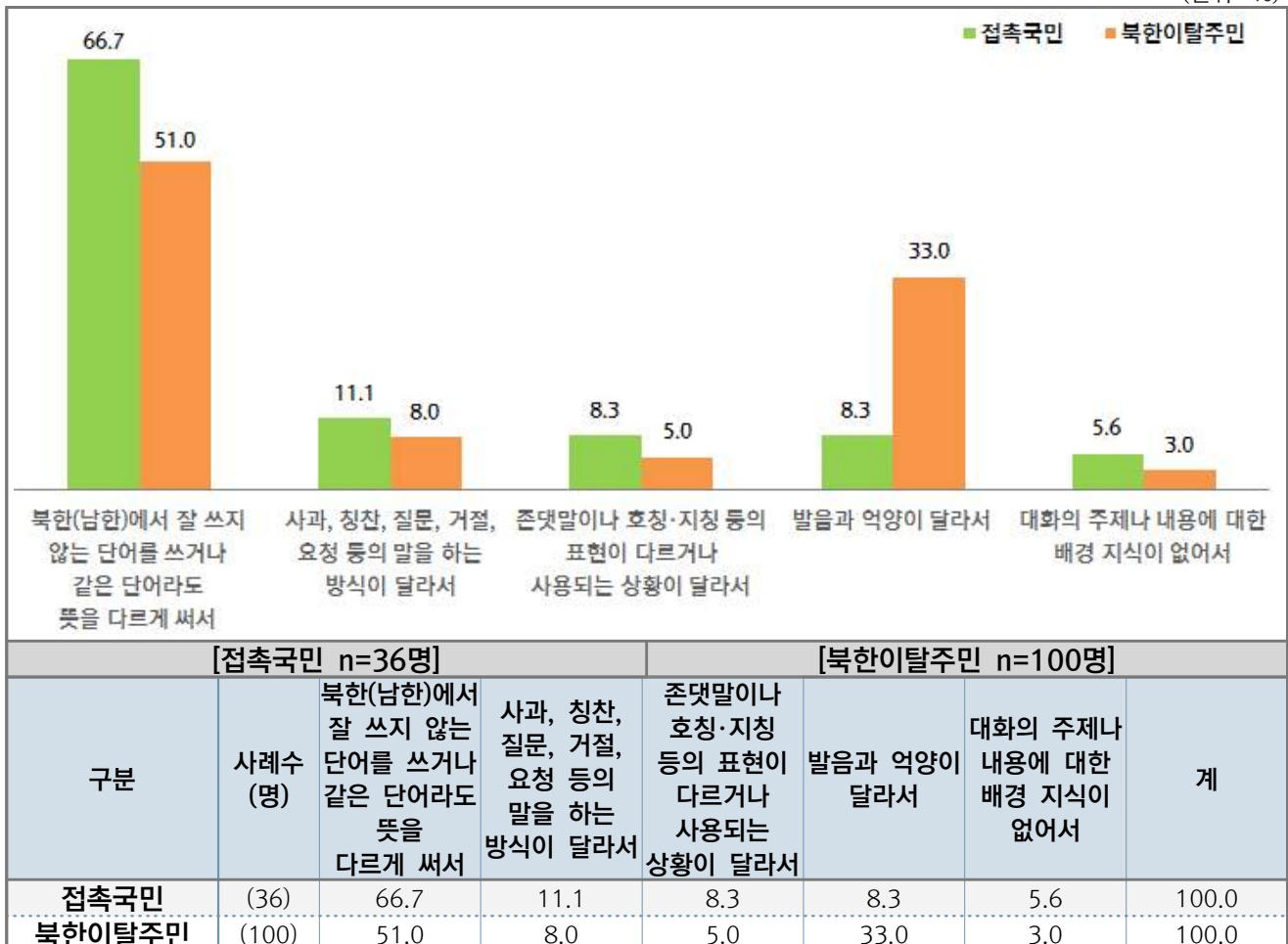
본인이 하는 말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한 또는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를 꼽음.

○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상대방이 본인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질문한 결과,

- ▶ 접촉국민의 경우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11.1%)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33.0%) 등의 순임.

〈그림 4-2-19〉 본인이 하는 말을 북한이탈주민/남한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문]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골라 주십시오.

- ☑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경우 내용 파악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되물어 보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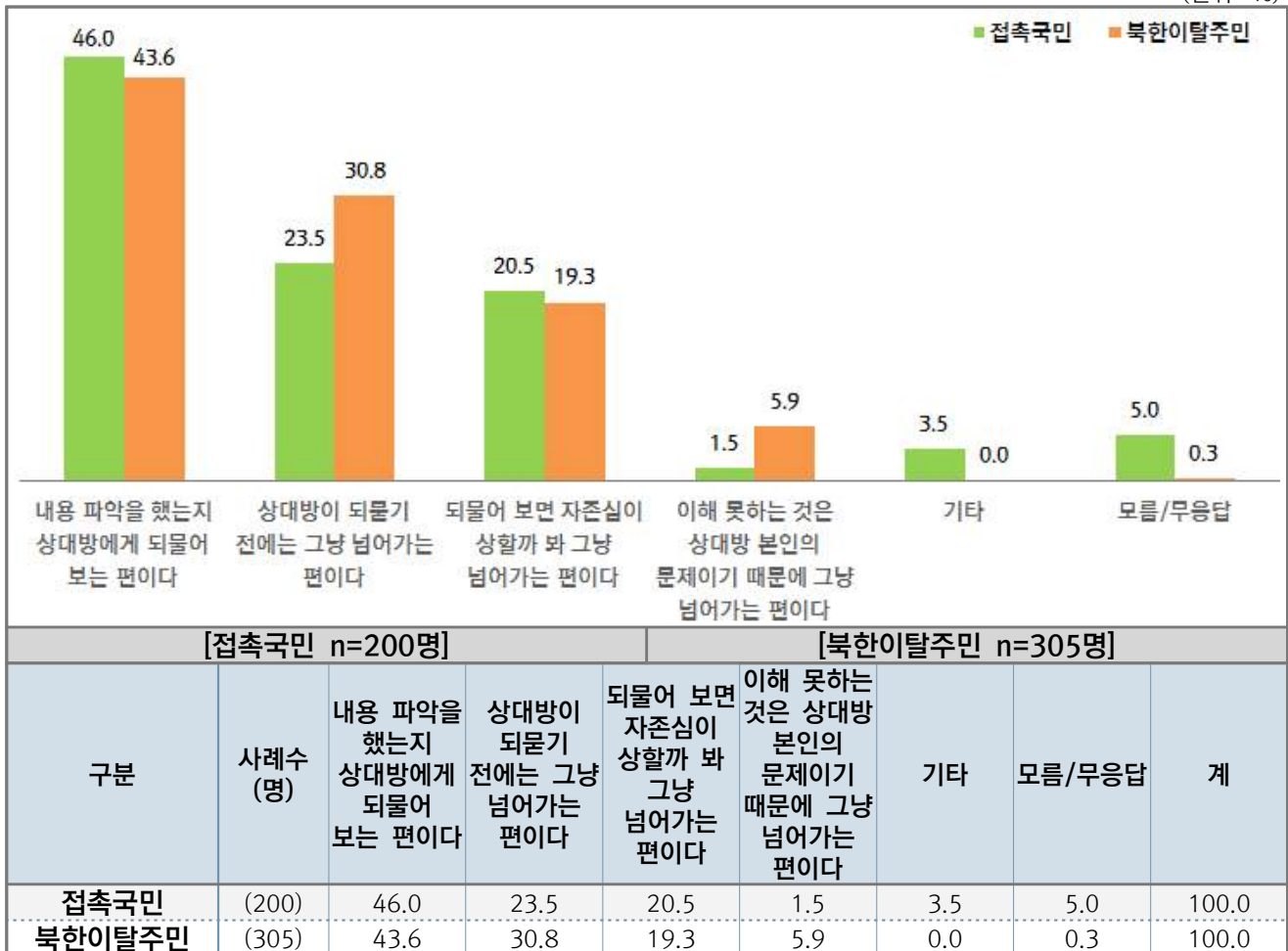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경우 내용 파악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되물어 보거나 상대방이 되물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상대방이 본인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질문한 결과,

- ▶ 접촉국민의 경우 ‘내용 파악을 했는지 상대방에서 되물어 보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되물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23.5%)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내용 파악을 했는지 상대방에서 되물어 보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되물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30.8%) 등의 순임.

〈그림 4-2-20〉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경우의 대처 방법

(단위: %)



문] 북한이탈주민이 귀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접촉국민)
 문] 남한 사람들이 귀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

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 간의 대화 시 경험 빈도

✓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서로 대화할 때 느끼는 상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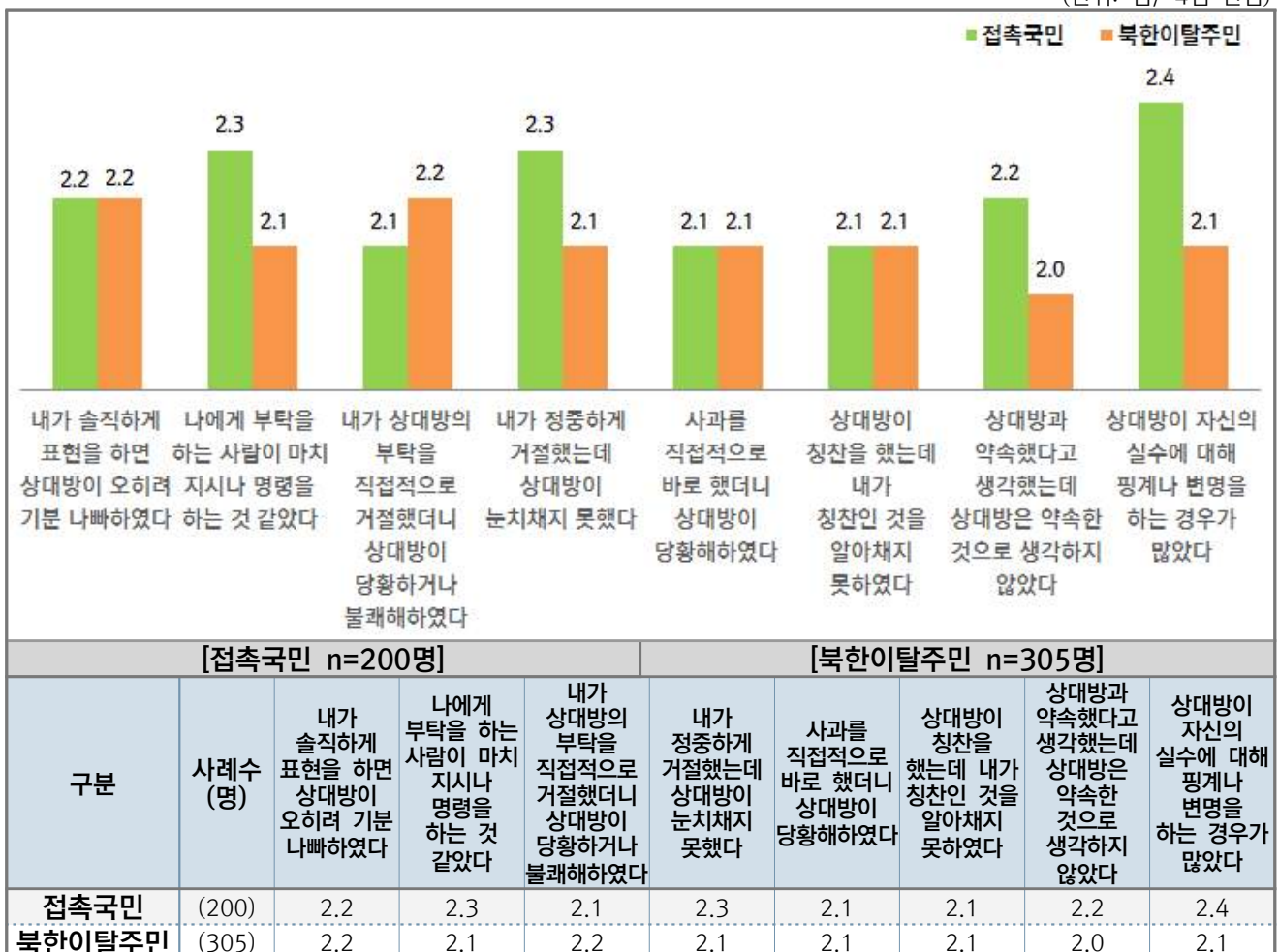
접촉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표현을 솔직하게 하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하다가 해당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접촉국민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가 2.4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나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마치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 같았다’ (2.3점),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했다’ (2.3점) 순으로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해당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내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였다’와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직접적으로 거절했더니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불쾌해하였다’가 2.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2-21〉 각 상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 간의 대화 시 경험 빈도

(단위: 점/ 4점 만점)



문]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접촉국민)

문] 남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

[11~13]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소통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대상으로 실제 느꼈던 어려움의 정도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평가함. 또한 일상에서 외래어나 줄여 쓰는 말에서 소통의 장애를 겪는 정도를 파악함.

11.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말의 어려움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관공서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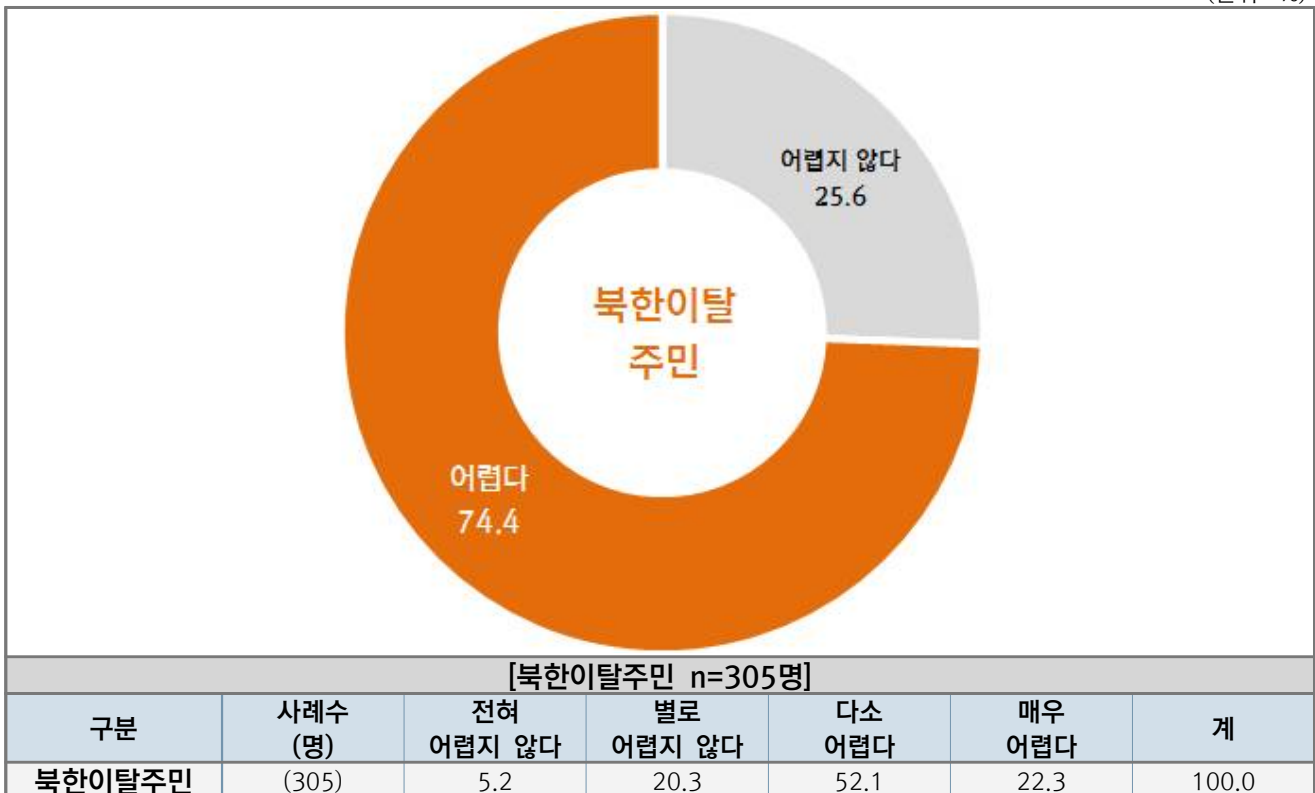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74.4%는 관공서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다고 느낌.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관공서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질문한 결과,

▶ ‘어렵다’ (매우 22.3% + 다소 52.1%)는 응답은 74.4%이고, ‘어렵지 않다’ (전혀 5.2% + 별로 20.3%)는 25.6%임.

〈그림 4-2-22〉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말의 어려움

(단위: %)



문] 관공서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 ☑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외래어, 한자 등 어려운 말’이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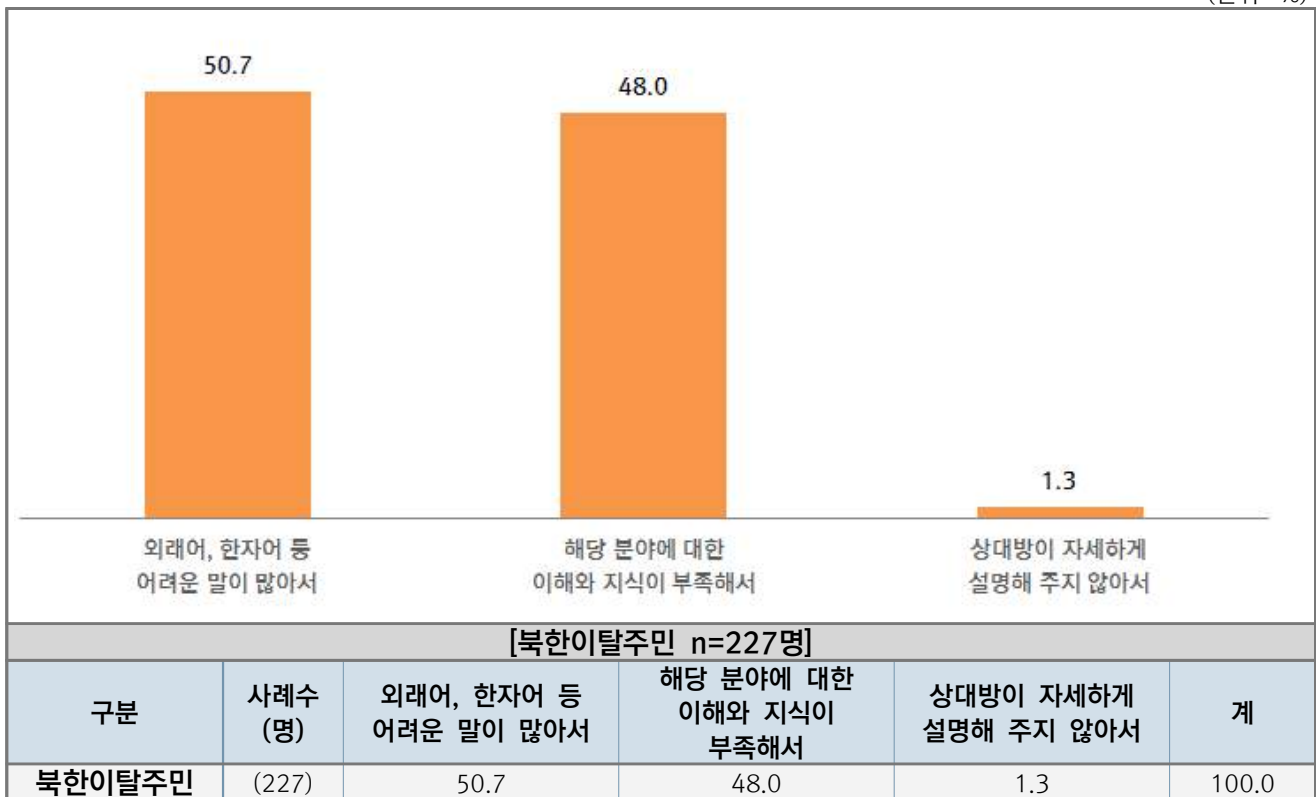
관공서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외래어, 한자 등 어려운 말이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관공서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다면 무엇 때문인지를 질문한 결과,

- ▶ ‘외래어, 한자어 등 어려운 말이 많아서’가 5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서’ (48.0%), ‘상대방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1.3%)의 순임.

〈그림 4-2-23〉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

(단위: %)



문] 관공서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12. 학교나 직장에서 쓰는 말의 어려움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학교 수업이나 직장 업무 중에 쓰는 용어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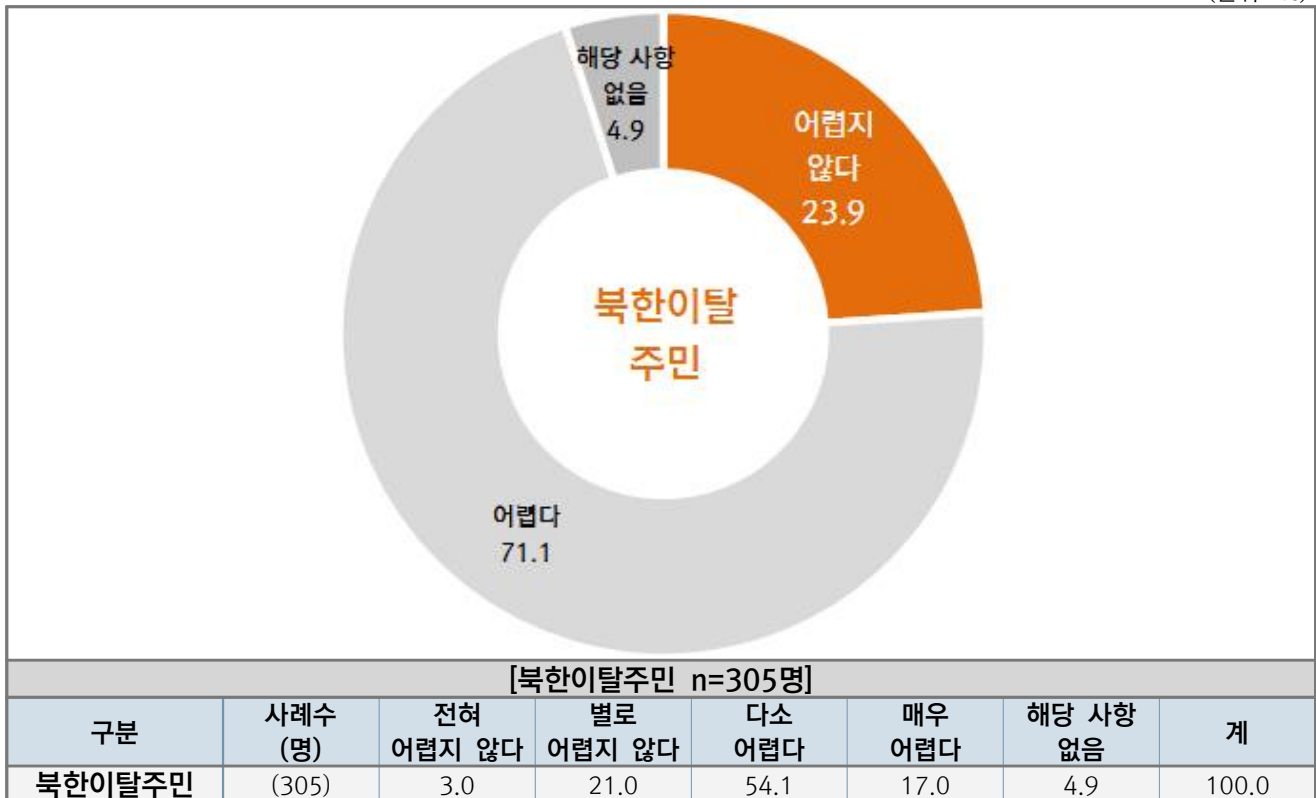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71.1%는 학교 수업이나 직장 업무 중에 쓰는 용어가 어렵다고 느낌.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이나 직장 업무 중에 쓰는 용어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질문한 결과,

▶ ‘어렵다’ (매우 17.0% + 다소 54.1%)는 응답은 71.1%이고, ‘어렵지 않다’ (전혀 3.0% + 별로 21.0%)는 23.9%임.

〈그림 4-2-24〉 학교나 직장에서 쓰는 말의 어려움

(단위: %)



문] 학교 수업이나 직장 업무 중에 쓰는 용어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 ☑ 학교 수업이나 직장 업무 중에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외래어, 한자 등 어려운 말’이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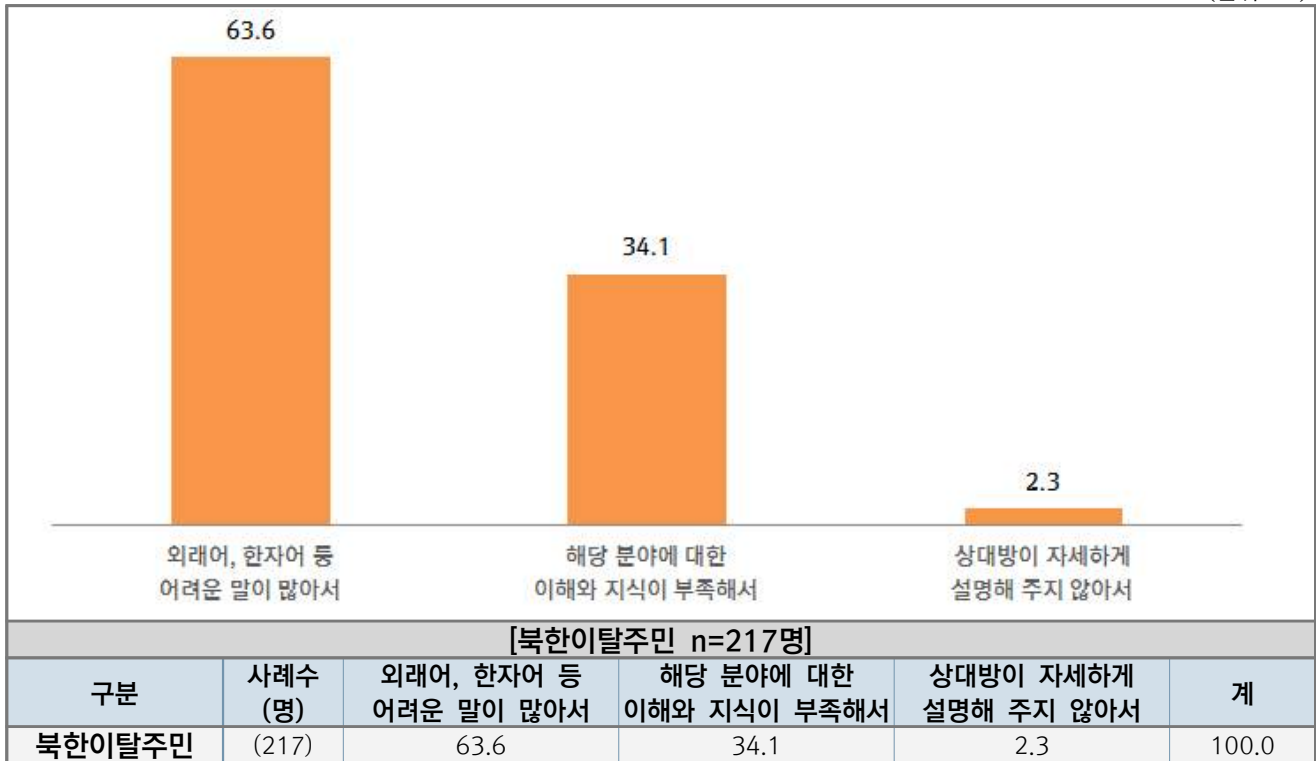
학교 수업이나 직장 업무 중에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외래어, 한자 등 어려운 말이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이나 직장 업무 중에 쓰는 용어가 어렵다면 무엇 때문인지를 질문한 결과,

- ▶ ‘외래어, 한자어 등 어려운 말이 많아서’가 6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서’ (34.1%), ‘상대방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2.3%)의 순임.

〈그림 4-2-25〉 학교나 직장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

(단위: %)



문] 학교 수업이나 직장 업무 중에 쓰는 용어가 어렵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13. 대화 시 어려움 경험 빈도

- ☑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롭게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 줄여 쓰는 말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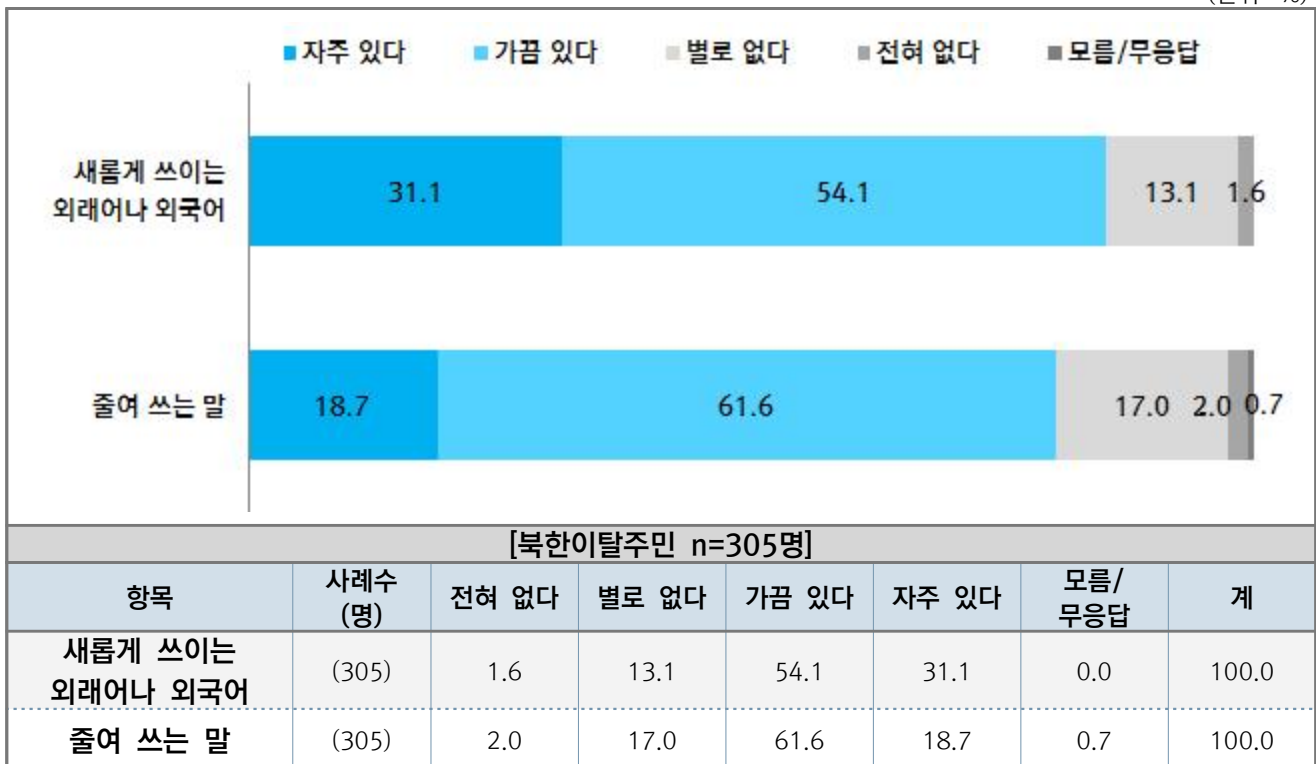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85.2%는 새롭게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 때문에, 80.3%는 줄여 쓰는 말 때문에 대화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새롭게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 또는 줄여 쓰는 말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새롭게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 (자주 31.1% + 가끔 54.1%)는 응답은 85.2%, ‘없다’ (전혀 1.6% + 별로 13.1%)는 응답은 14.8%로 나타남.
- ▶ 줄여 쓰는 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 (자주 18.7% + 가끔 61.6%)는 응답은 80.3%, ‘없다’ (전혀 2.0% + 별로 17.0%)는 응답은 19.0%로 나타남.

〈그림 4-2-26〉 대화 시 어려움 경험 빈도

(단위: %)



문] 다음의 말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14~19]는 남북한 사람들이 상대방 언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 매체를 대상으로 남북한 언어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방송 매체에서 드러난 북한말과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의 차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평가,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와 제재의 필요성, 방송에서 나타난 북한말의 영향 및 북한이탈주민의 방송 언어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함.

14.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한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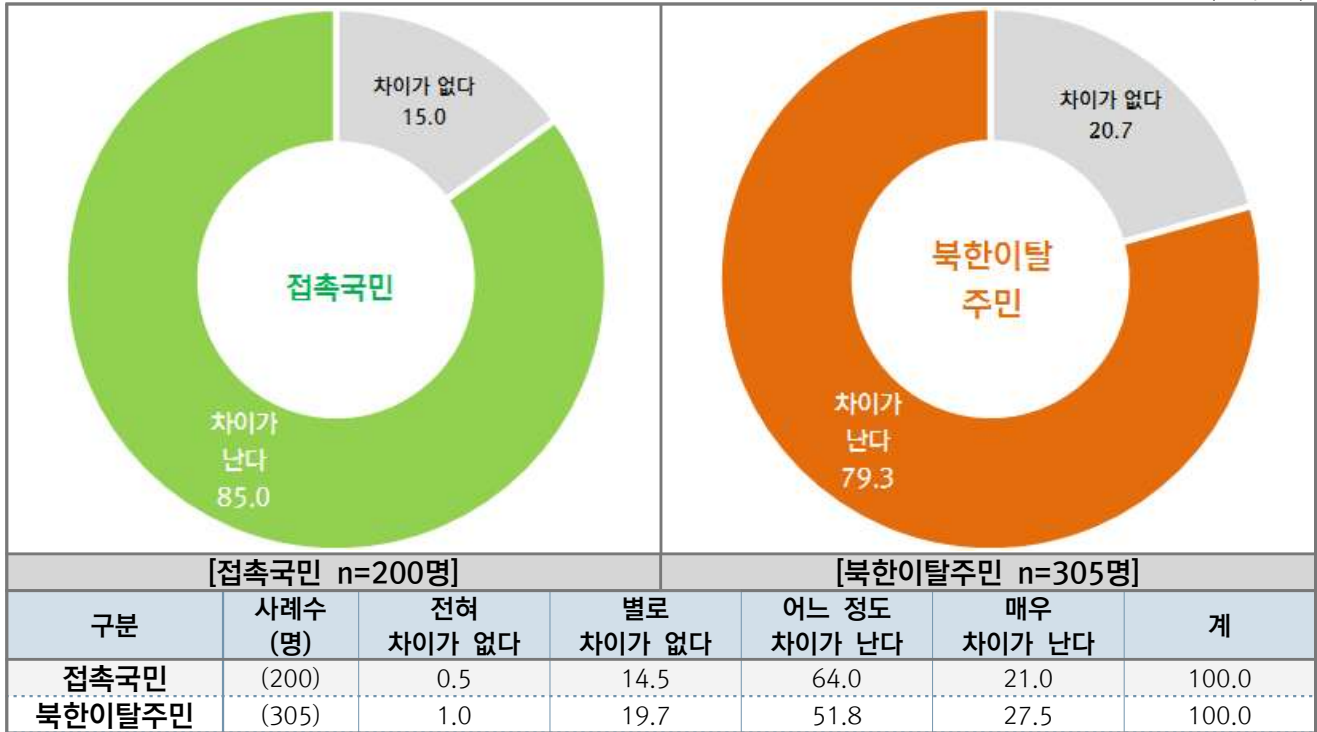
- ☑️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함.

접촉국민의 85.0%, 북한이탈주민의 79.3%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이 다르다고 응답함.

- 접촉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접촉국민의 경우 ‘차이가 난다’ (매우 21.0% + 어느 정도 64.0%)는 응답은 85.0%이고, ‘차이가 없다’ (전혀 0.5% + 별로 14.5%)는 15.0%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차이가 난다’ (매우 27.5% + 어느 정도 51.8%)는 응답은 79.3%이고, ‘차이가 없다’ (전혀 1.0% + 별로 19.7%)는 20.7%임.
 - ▶ 전문가 조사에서도 ‘차이가 난다’ (매우 20.0% + 어느 정도 72.0%)는 응답은 92.0%이고, ‘차이가 없다’ (전혀 0.0% + 별로 8.0%)는 8.0%임.

〈그림 4-2-27〉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한 방송인이 흥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의 차이

(단위: %)



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방송인이 흥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송에서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점은 ‘발음과 억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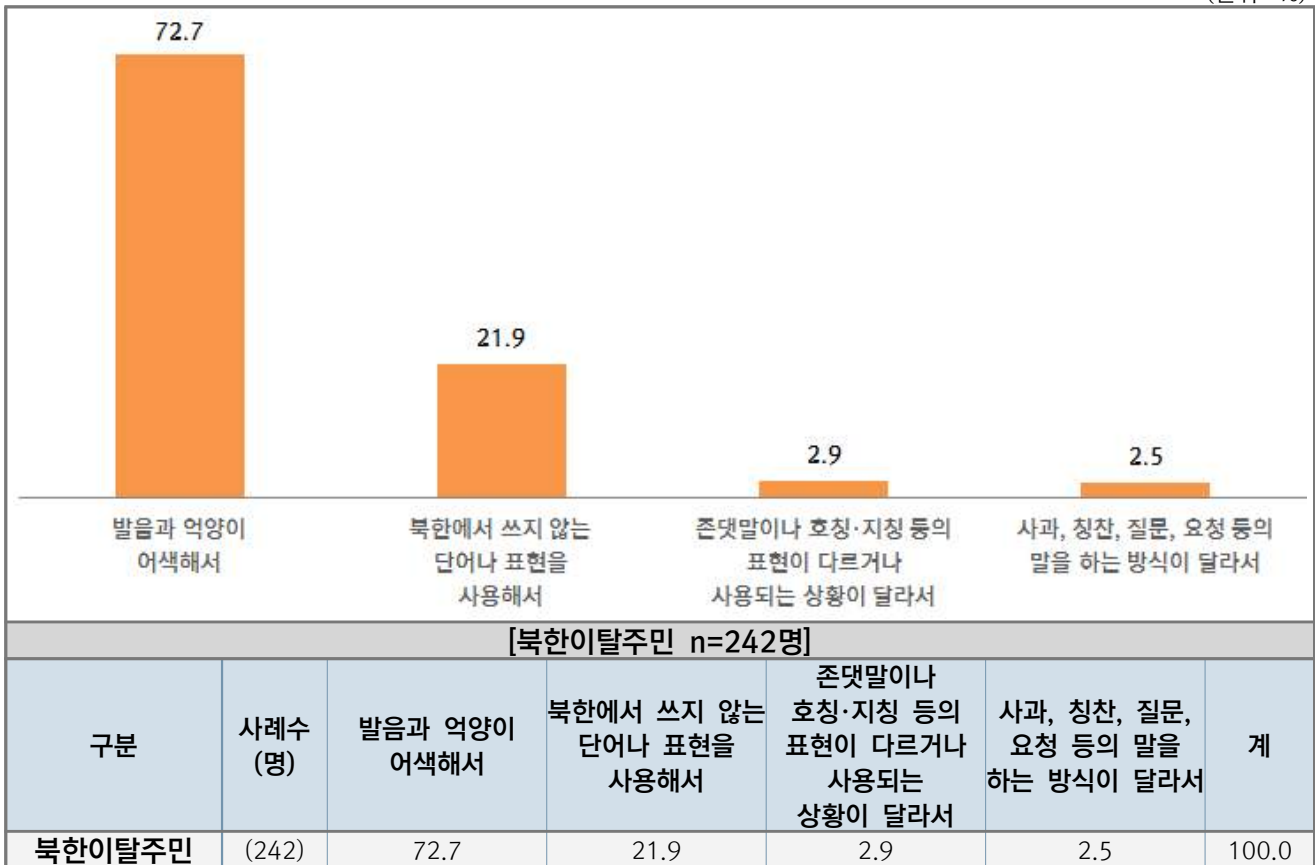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남한 방송에서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는 점으로 ‘발음과 억양’을 꼽음.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방송에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난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발음과 억양이 어색해서’ (72.7%), ‘북한에서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서’ (21.9%),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서’ (2.9%)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발음과 억양이 어색해서’ (65.2%), ‘북한에서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서’ (28.3%), ‘사과, 칭찬, 질문,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4.3%) 등의 순임.

〈그림 4-2-28〉 방송에서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점

(단위: %)



문] 남한 방송에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난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5.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 ☑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이 사용하는 북한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거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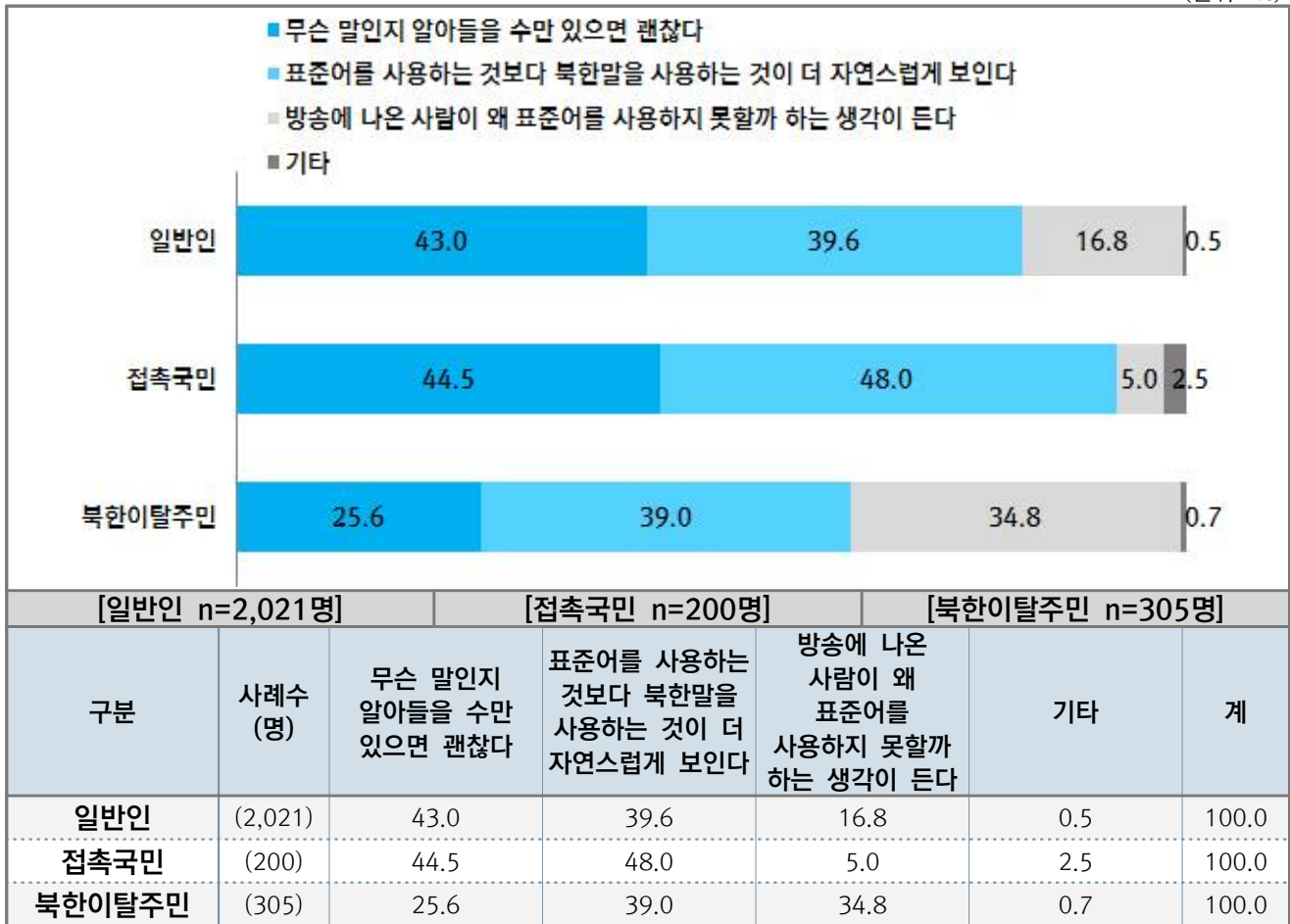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해 일반인의 43.0%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를, 접촉국민의 48.0%와 북한이탈주민의 39.0%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응답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43.0%),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39.6%), ‘방송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1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의 경우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48.0%),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44.5%), ‘방송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39.0%), ‘방송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34.8%),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25.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56.0%),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4.0%), ‘방송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6.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29〉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제재 필요성

☑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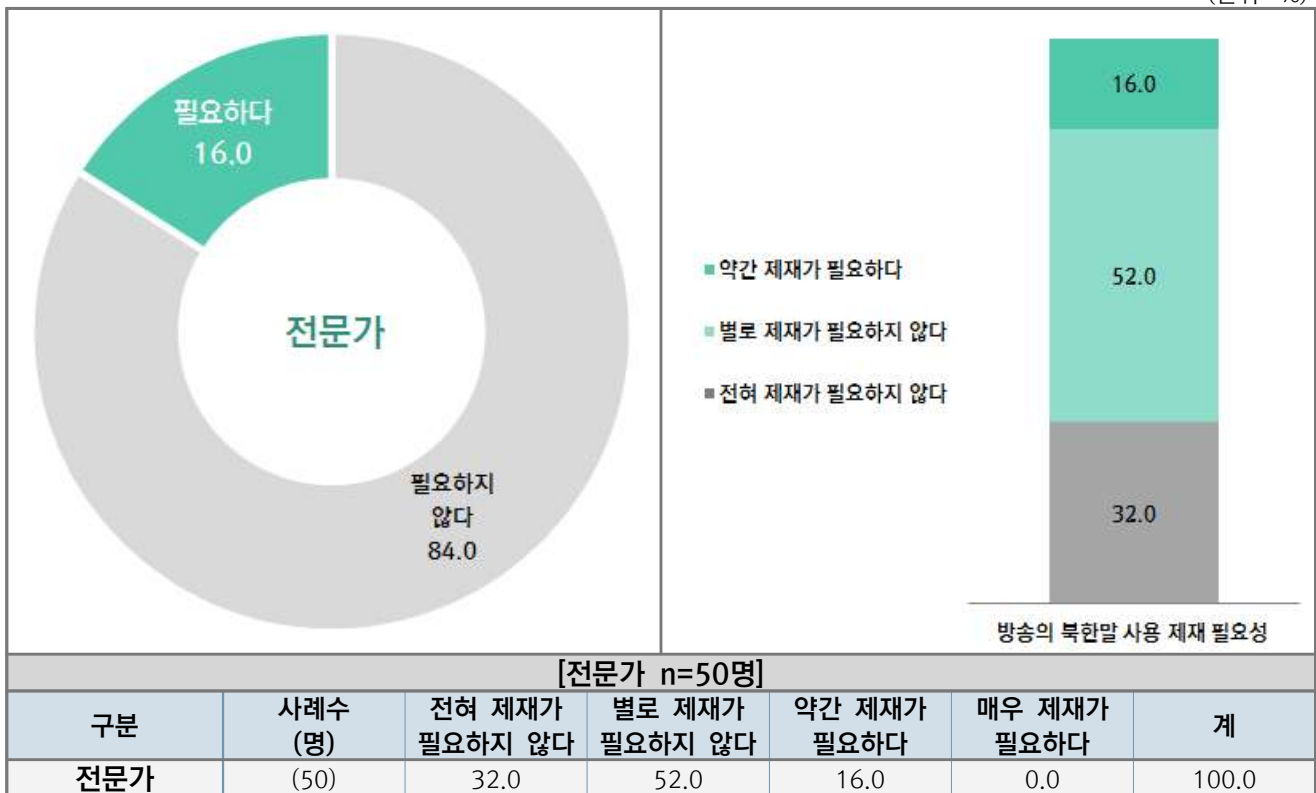
전문가의 84.0%는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를 대상으로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필요하다’ (매우 0.0% + 약간 16.0%)는 응답은 16.0%이고, ‘필요하지 않다’ (전혀 32.0% + 별로 52.0%)는 84.0%임.

〈그림 4-2-30〉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제재 필요성

(단위: %)



문]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방송 심의 등)

17. 남한의 방송 언어 이해 정도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방송 언어 이해도는 ‘드라마’ > 보도(뉴스) > 예능 > 시사·교양’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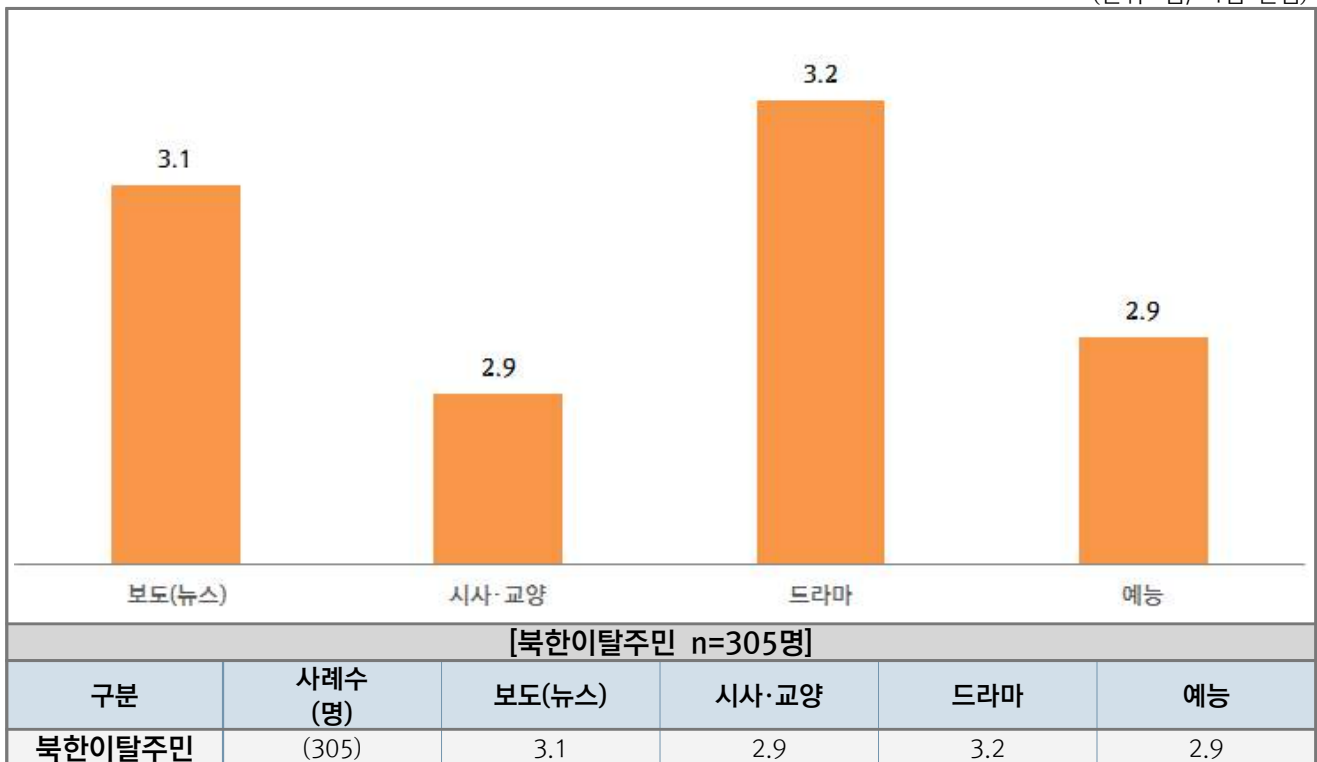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방송 언어 중 드라마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시사·교양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의 방송 언어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드라마’가 3.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보도(뉴스)’ (3.1점), ‘시사·교양’, ‘예능’(각 2.9 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31〉 남한의 방송 언어 이해 정도

(단위: 점/ 4점 만점)



문] 남한의 방송언어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18.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립적’이라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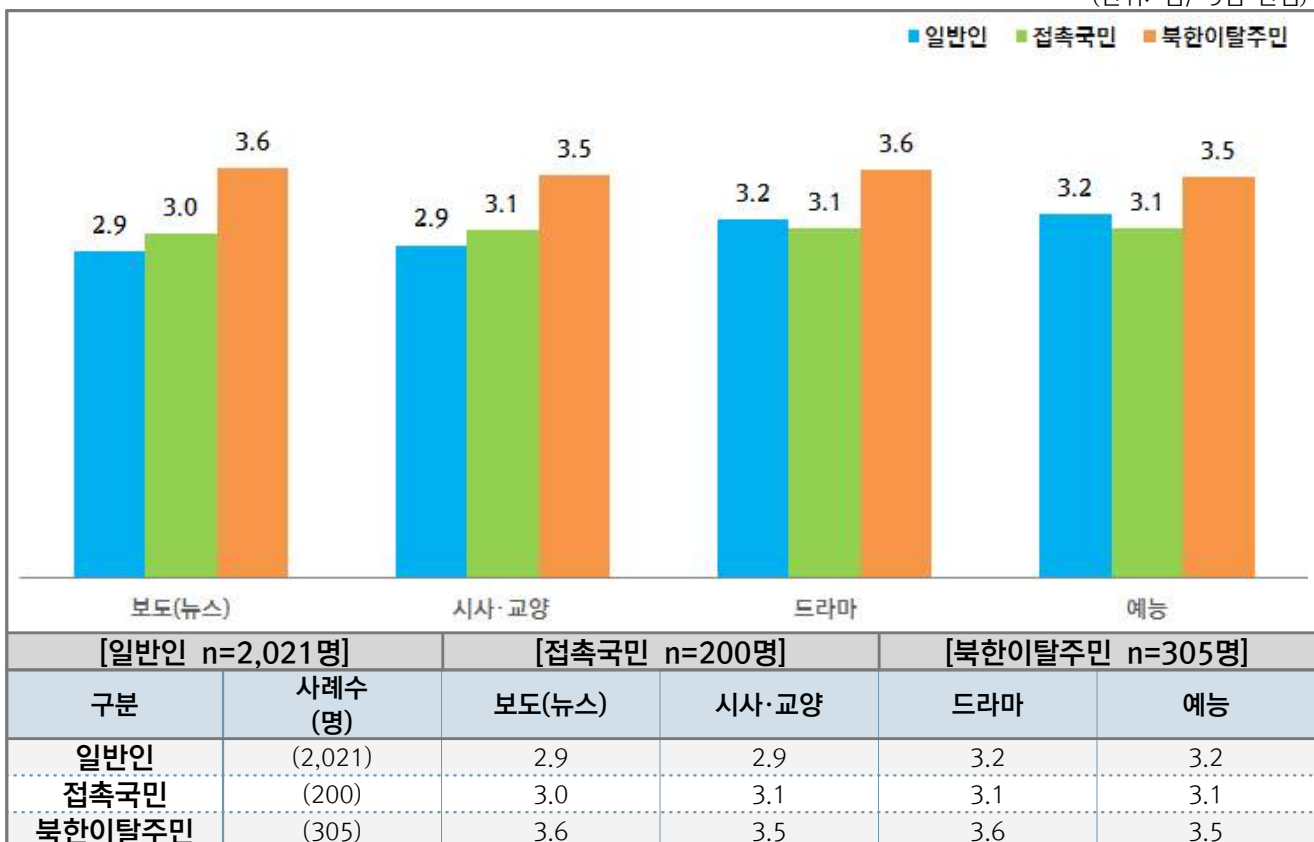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드라마’와 ‘예능’이 3.2점, ‘보도(뉴스)’와 ‘시사·교양’이 2.9점임.
- ▶ 접촉국민의 경우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이 3.1점, ‘보도(뉴스)’가 3.0점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도(뉴스)’와 ‘드라마’가 3.6점, ‘시사·교양’과 ‘예능’이 3.5점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보도(뉴스)’와 ‘시사·교양’ 2.5점, ‘드라마’와 ‘예능’이 2.2점임.

〈그림 4-2-32〉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단위: 점/ 5점 만점)



문]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 방송에서 사용되는 북한말은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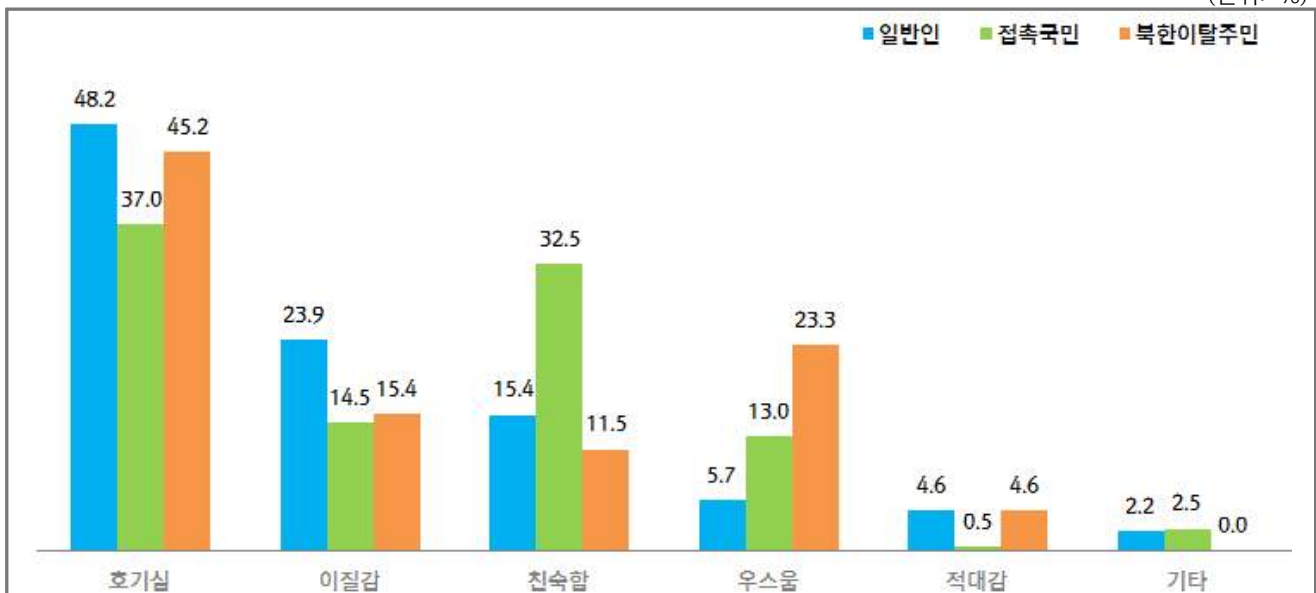
일반인의 48.2%, 접촉국민의 37.0%, 북한이탈주민의 45.2%는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한다고 생각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48.2%),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질감을 강화한다’ (23.9%) 등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37.0%),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한다’ (32.5%)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45.2%), ‘북한말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한다’ (23.3%)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질감을 강화한다’ (28.0%),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한다’ (26.0%), 등의 순임.

〈그림 4-2-33〉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단위: %)



[일반인 n=2,021명]		[접촉국민 n=200명]			[북한이탈주민 n=305명]			
구분	사례수 (명)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질감을 강화한다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한다	북한말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한다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한다	기타	계
일반인	(2,021)	48.2	23.9	15.4	5.7	4.6	2.2	100.0
접촉국민	(200)	37.0	14.5	32.5	13.0	0.5	2.5	100.0
북한이탈주민	(305)	45.2	15.4	11.5	23.3	4.6	0.0	100.0

문]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는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말씨 사용으로 인한 영향과 차별또는 무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며 또한 말씨로 인한 차별이나 무시를 극복하기 위해 말씨를 바꾸거나 이에 준하는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것임.

20. 남한에서의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

-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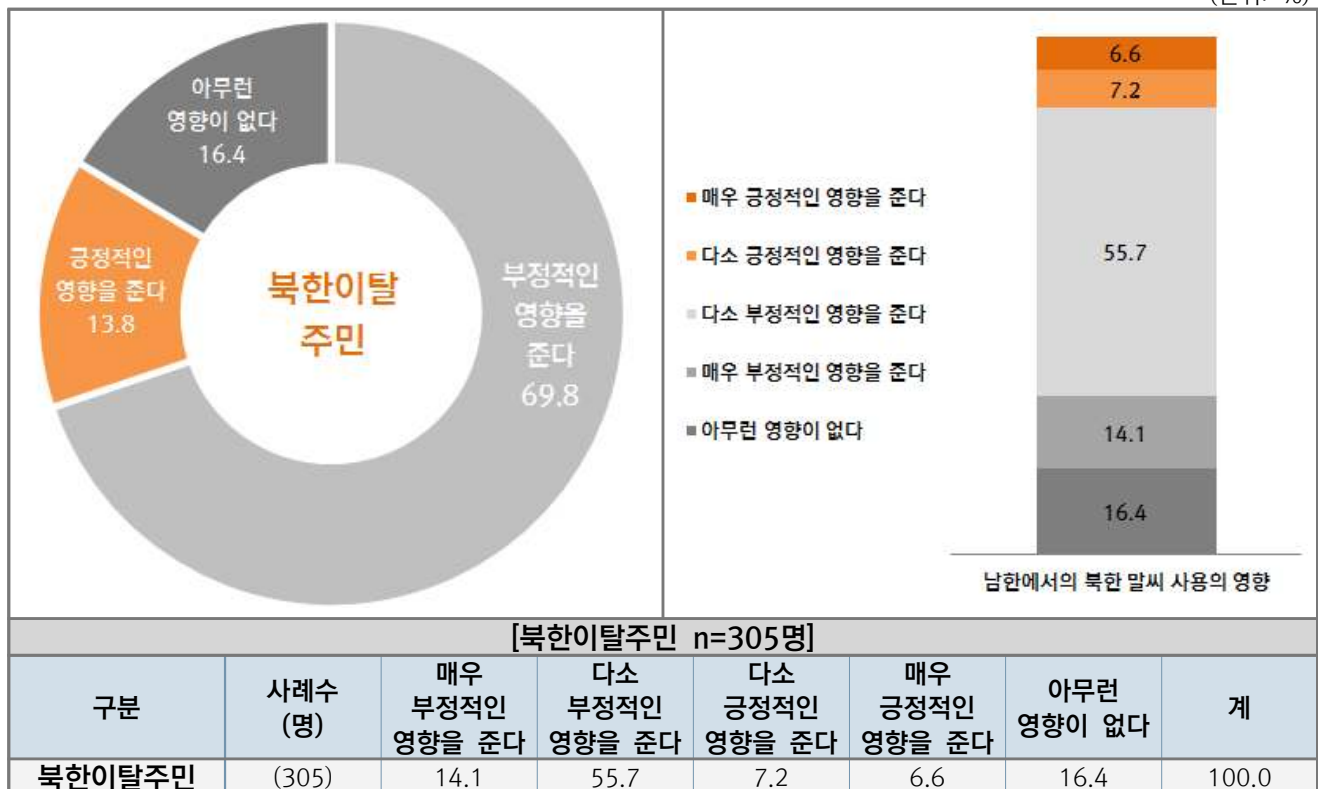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69.8%는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14.1% + 다소 55.7%)는 응답은 69.8%,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6.6% + 다소 7.2%)는 응답은 13.8%,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6.4%임.
- ▶ 전문가 조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38.0% + 다소 60.0%)는 응답은 98.0%,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매우 0.0% + 다소 2.0%)는 응답은 2.0%임.

〈그림 4-2-34〉 남한에서의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

(단위: %)



문]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 말씨 사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는 ‘구직 시 또는 업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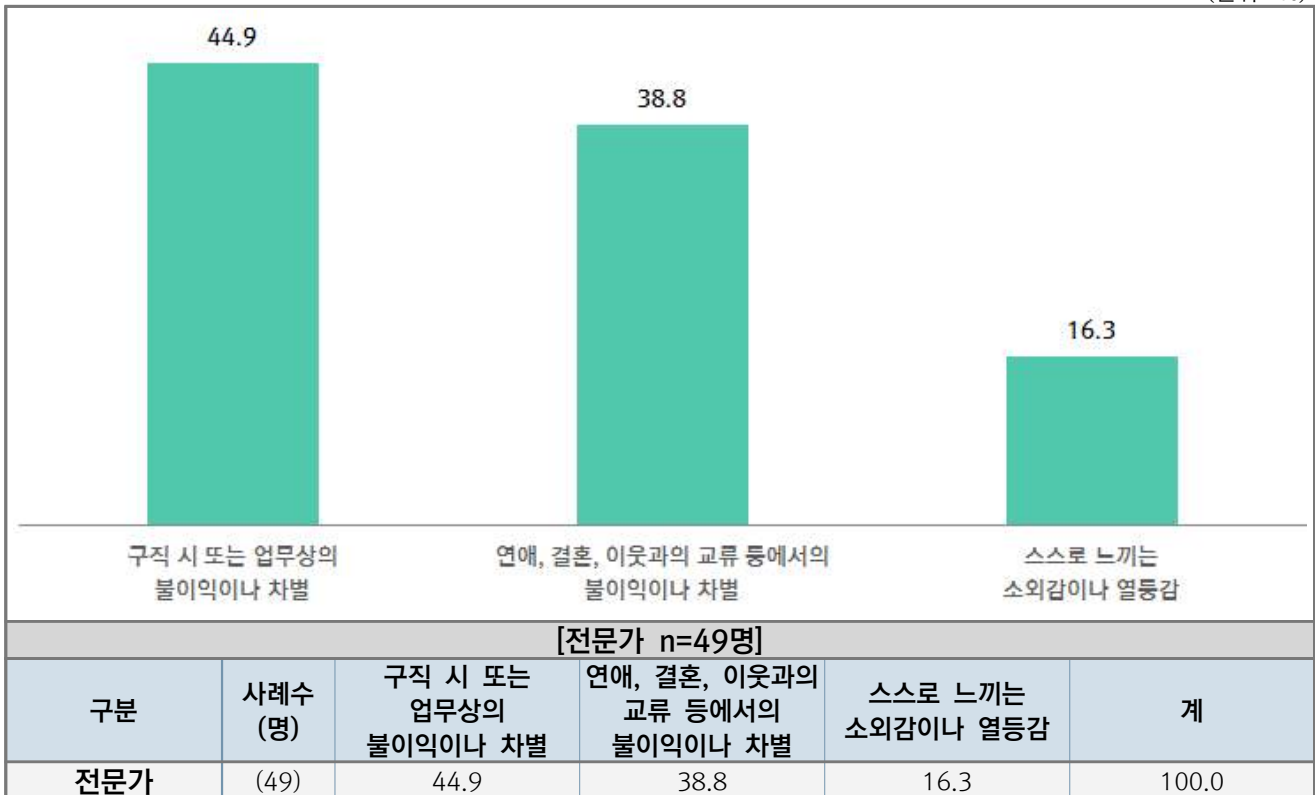
전문가의 44.9%는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사용하는 것이 구직 시 또는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게 한다고 응답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히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질문한 결과,

- ▶ ‘구직 시 또는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차별’ 이 44.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연애, 결혼, 이웃과의 교류 등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38.8%),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이나 열등감’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35〉 북한 말씨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

(단위: %)



문] 특히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 ☑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다른 방언 화자보다 북한 말씨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심하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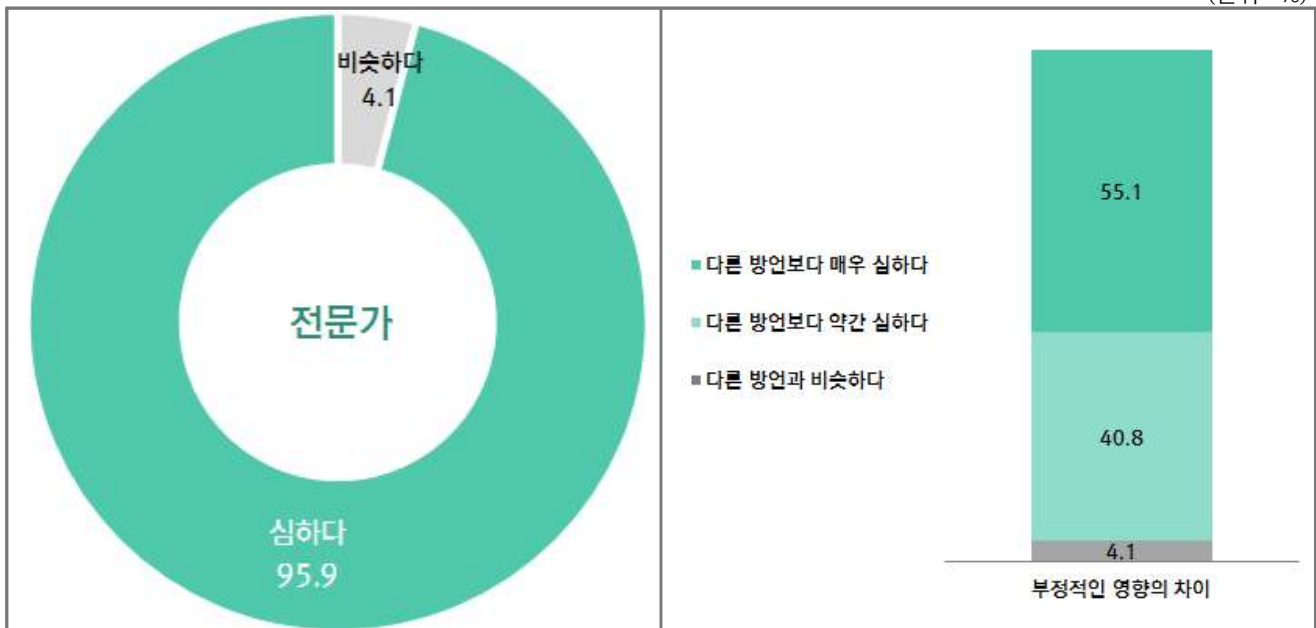
전문가의 95.9%는 북한 말씨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방언 화자에게 미치는 것보다 심하다고 생각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말씨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사회의 다른 방언 화자에게 미치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심하다' (매우 55.1% + 약간 40.8%)는 응답은 95.9%, '비슷하다'는 응답은 4.1%임.

〈그림 4-2-36〉 북한 말씨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과 다른 방언 화자에게 미치는 영향 비교

(단위: %)



[전문가 n=49명]

구분	사례수 (명)	다른 방언과 비슷하다	다른 방언보다 약간 심하다	다른 방언보다 매우 심하다	계
전문가	(49)	4.1	40.8	55.1	100.0

문]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사회의 다른 방언 화자에게 미치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21.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 ☑ 일반인 10명 중 5명, 접촉국민 10명 중 8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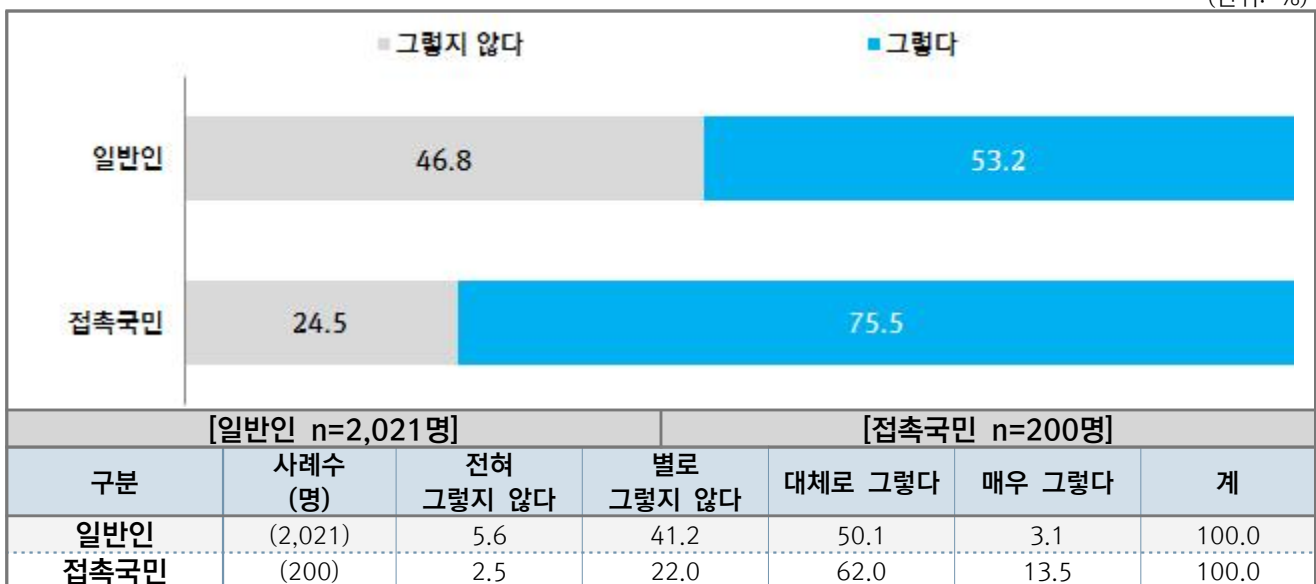
일반인은 53.2%, 접촉국민의 75.5%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일반인과 접촉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그렇다’ (매우 3.1% + 대체로 50.1%)는 응답은 53.2%, ‘그렇지 않다’ (전혀 5.6% + 별로 41.2%)는 응답은 46.8%임.
- ▶ 접촉국민의 경우 ‘그렇다’ (매우 13.5% + 대체로 62.0%)는 응답은 75.5%, ‘그렇지 않다’ (전혀 2.5% + 별로 22.0%)는 응답은 24.5%임.

〈그림 4-2-37〉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2.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경험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4명은 말씨 때문에 남한에서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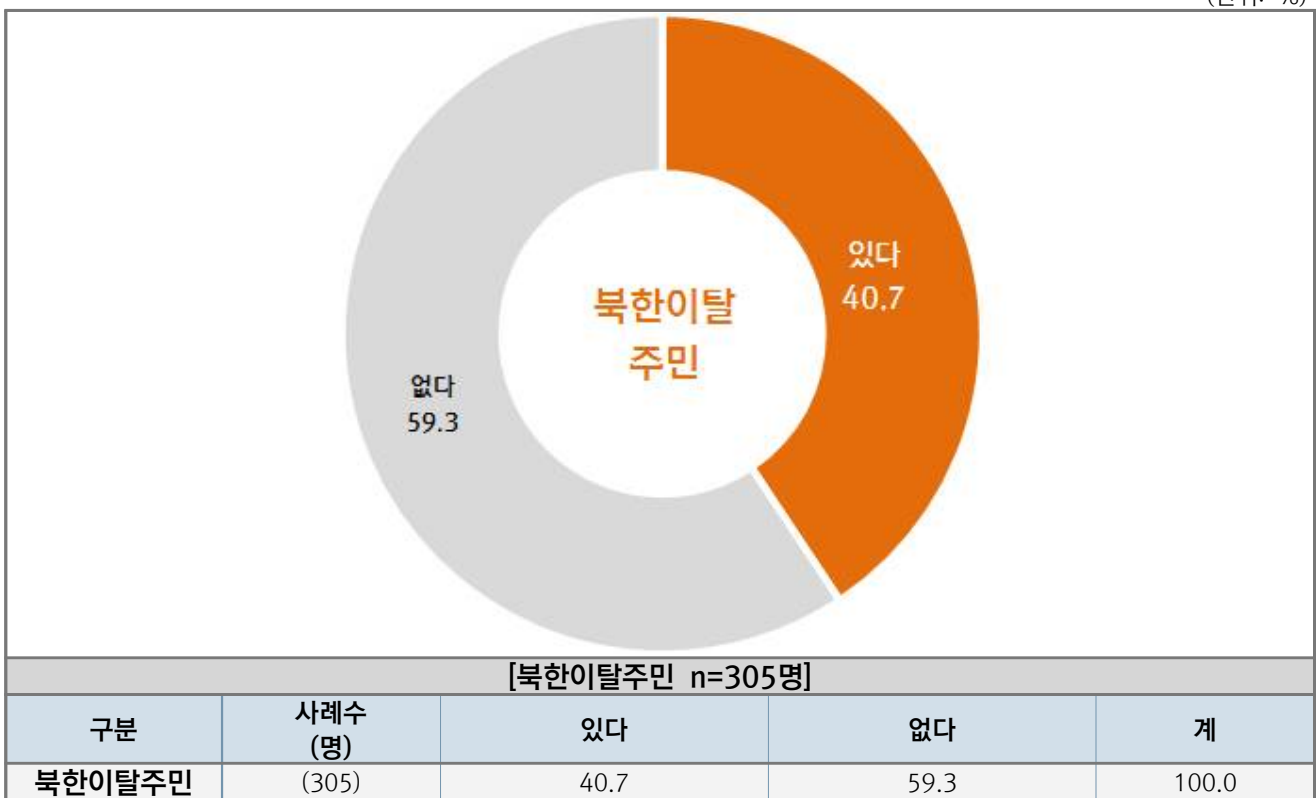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40.7%는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말씨 때문에 남한에서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 ‘있다’는 응답은 40.7%, ‘없다’는 응답은 59.3%임.

〈그림 4-2-38〉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경험

(단위: %)



문] 귀하의 말씨 때문에 남한에서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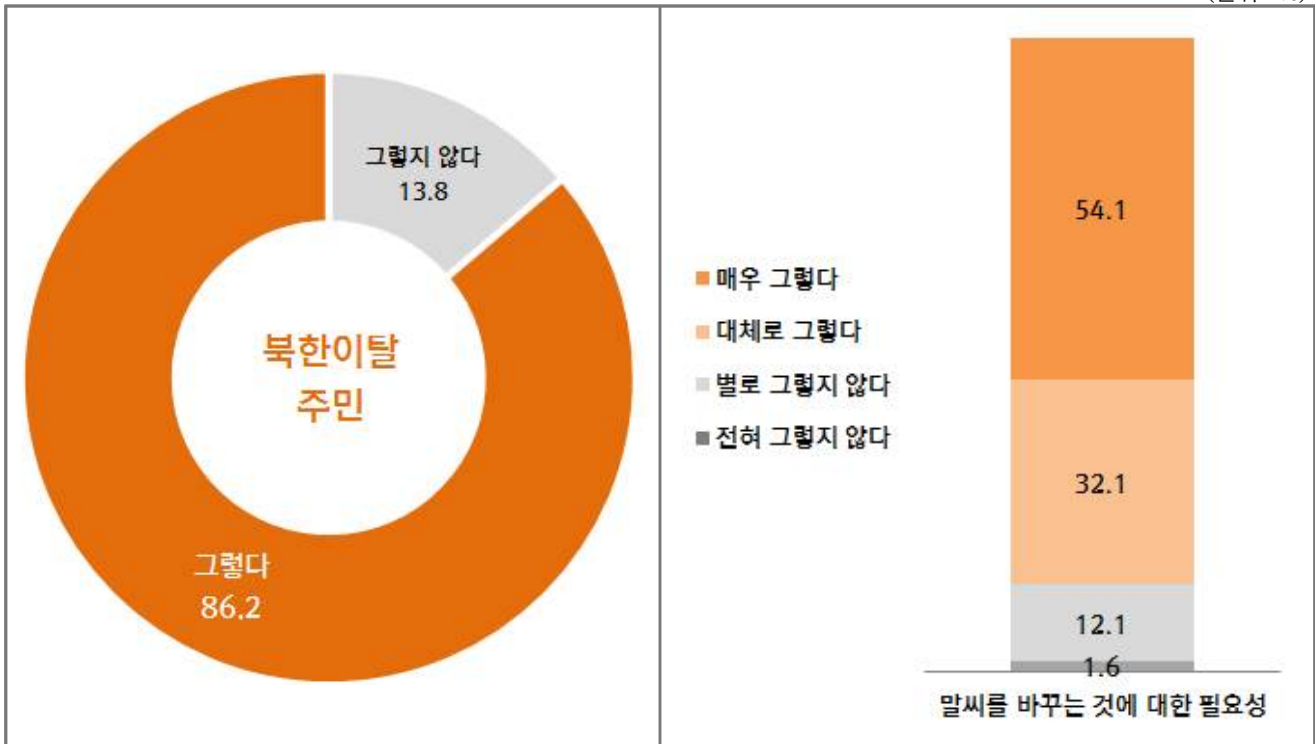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86.2%는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그렇다’ (매우 54.1% + 대체로 32.1%)는 응답은 86.2%, ‘그렇지 않다’ (전혀 1.6% + 별로 12.1%)는 응답은 13.8%임.

〈그림 4-2-39〉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에 대한 필요성

(단위: %)



[북한이탈주민 n=305명]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북한이탈주민	(305)	1.6	12.1	32.1	54.1	100.0

문]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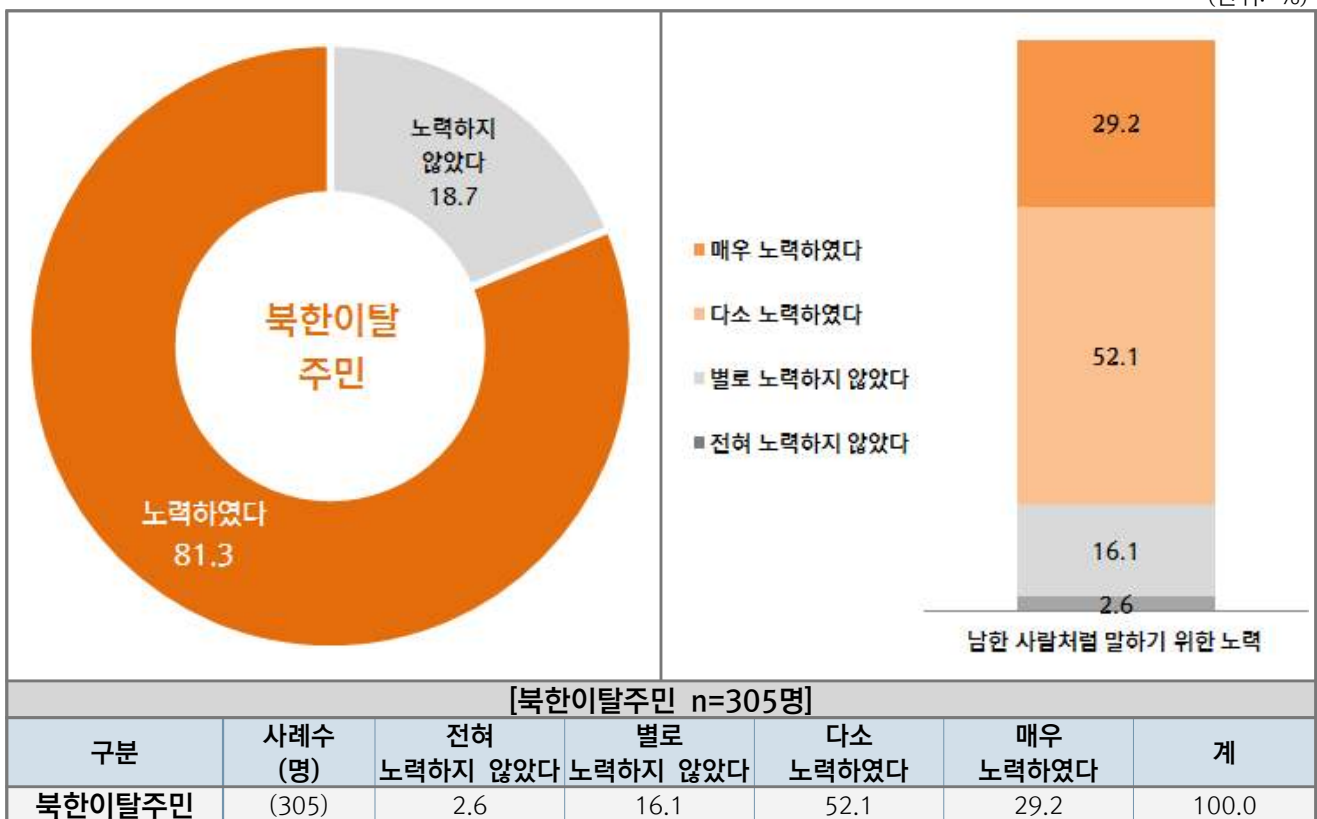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81.3%는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 ‘노력하였다’ (매우 29.2% + 다소 52.1%)는 응답은 81.3%, ‘노력하지 않았다’ (전혀 2.6% + 별로 16.1%)는 응답은 18.7%임.

〈그림 4-2-40〉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한 노력

(단위: %)



문]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가 ‘남한말’을 사용하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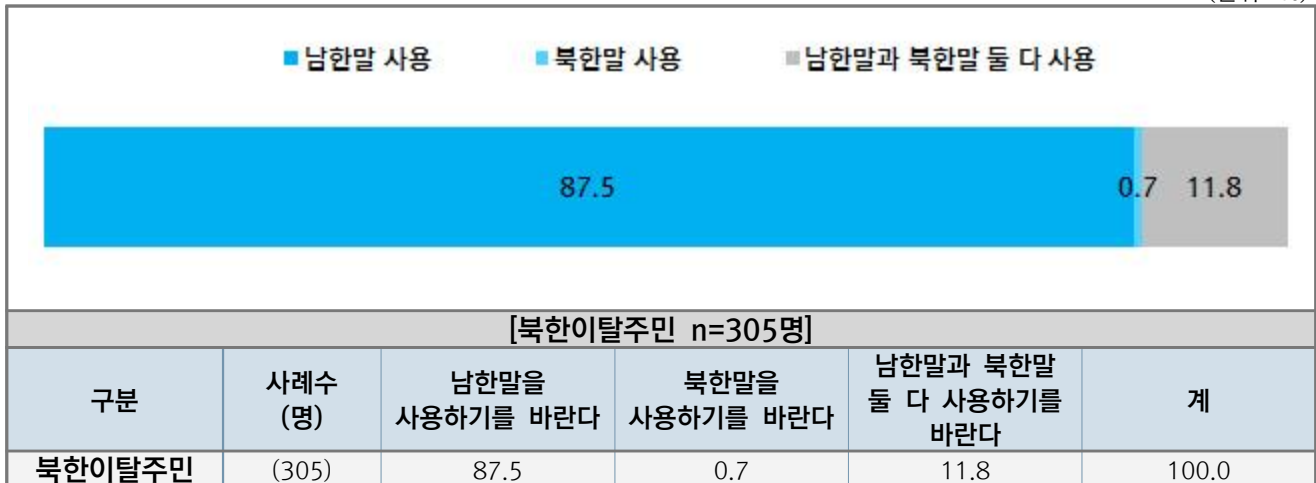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87.5%는 자녀가 남한말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녀가 남한말과 북한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길 바라는지를 질문한 결과,

▶ ‘남한말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라는 응답이 8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남한말과 북한말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 (11.8%), ‘북한말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0.7%)의 순임

〈그림 4-2-41〉 자녀의 남한말과 북한말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자녀가 남한말과 북한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길 바라십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해 주십시오.

[23~26]은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말씨 사용으로 인한 영향과 차별또는 무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며 또한 말씨로 인한 차별이나 무시를 극복하기 위해 말씨를 바꾸거나 이에 준하는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것임.

23.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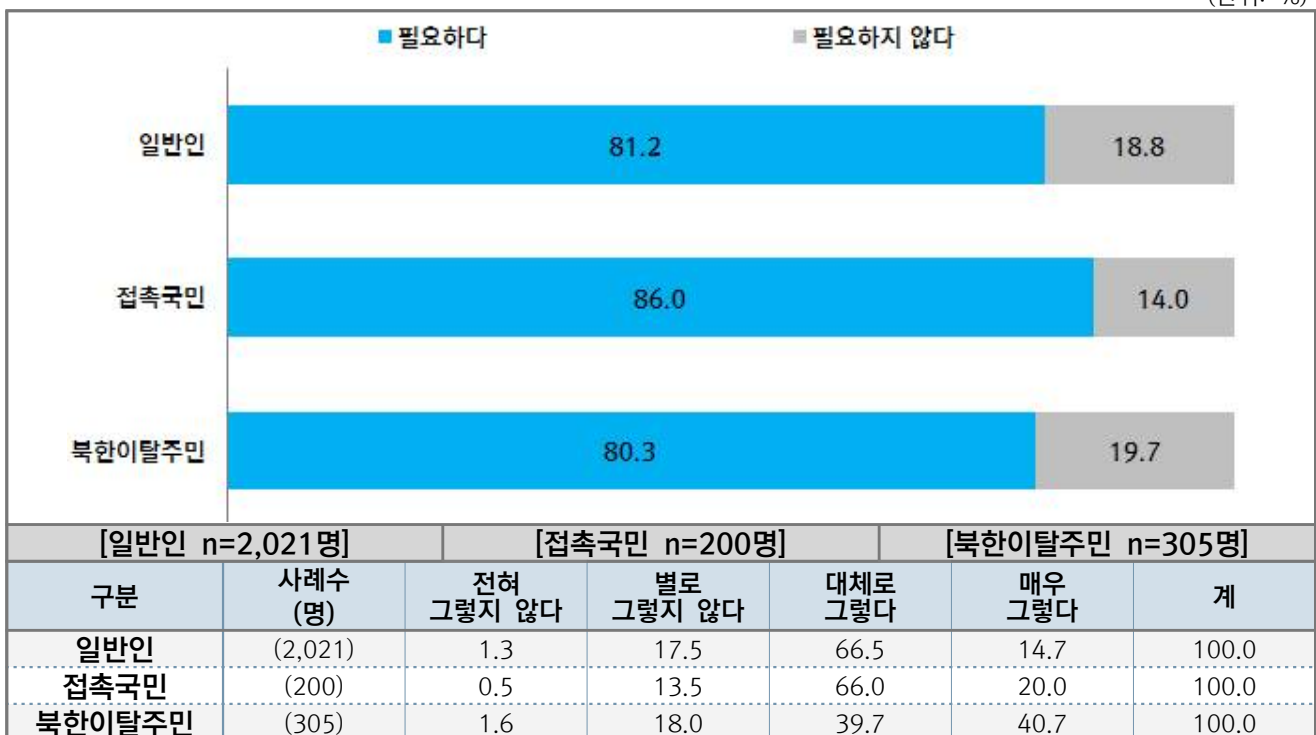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10명 중 8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필요하다’ (매우 14.7% + 대체로 66.5%)는 응답은 81.2%이고, ‘필요하지 않다’ (전혀 1.3% + 별로 17.5%)는 18.8%임.
 - ▶ 접촉국민의 경우 ‘필요하다’ (매우 20.0% + 대체로 66.0%)는 응답은 86.0%이고, ‘필요하지 않다’ (전혀 0.5% + 별로 13.5%)는 14.0%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필요하다’ (매우 40.7% + 대체로 39.7%)는 응답은 80.3%이고, ‘필요하지 않다’ (전혀 1.6% + 별로 18.0%)는 19.7%임.
 - ▶ 전문가 조사에서도 ‘필요하다’ (매우 38.0% + 어느 정도 56.0%)는 응답은 94.0%이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0%임.

〈그림 4-2-42〉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의 필요성

(단위: %)



문]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이 더 필요한 분야는 ‘발음과 억양’, ‘단어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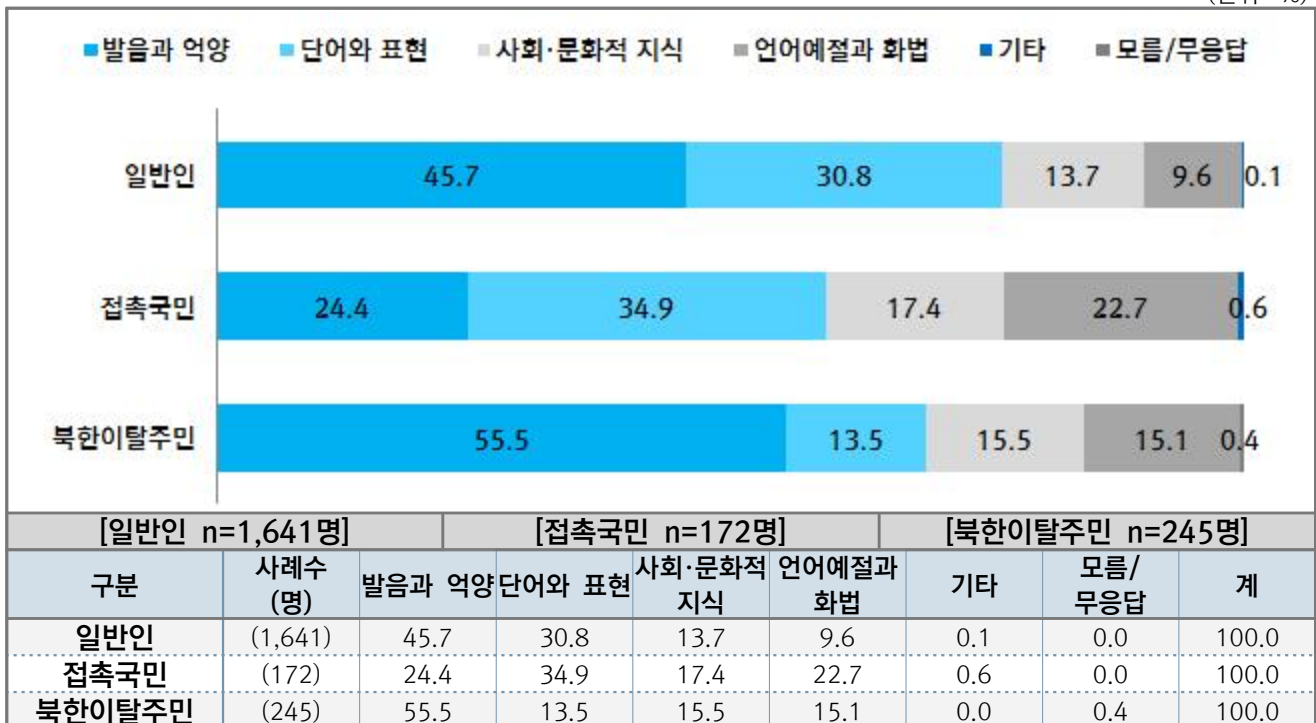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교육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은 ‘발음과 억양’을, 접촉국민은 ‘단어와 표현’ 이라고 응답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부분을 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발음과 억양’ (45.7%), ‘단어와 표현’ (30.8%), ‘사회·문화적 지식’ (13.7%) 등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단어와 표현’ (34.9%), ‘발음과 억양’ (24.4%), ‘언어예절과 화법’ (22.7%)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발음과 억양’ (55.5%), ‘사회·문화적 지식’ (15.5%), ‘언어예절과 화법’ (15.1%)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사회·문화적 지식’ (29.8%), ‘언어예절과 화법’ (27.7%), ‘발음과 억양’ (21.3%), ‘단어와 표현’ (19.1%) 등의 순임.

〈그림 4-2-43〉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이 필요한 분야

(단위: %)



문]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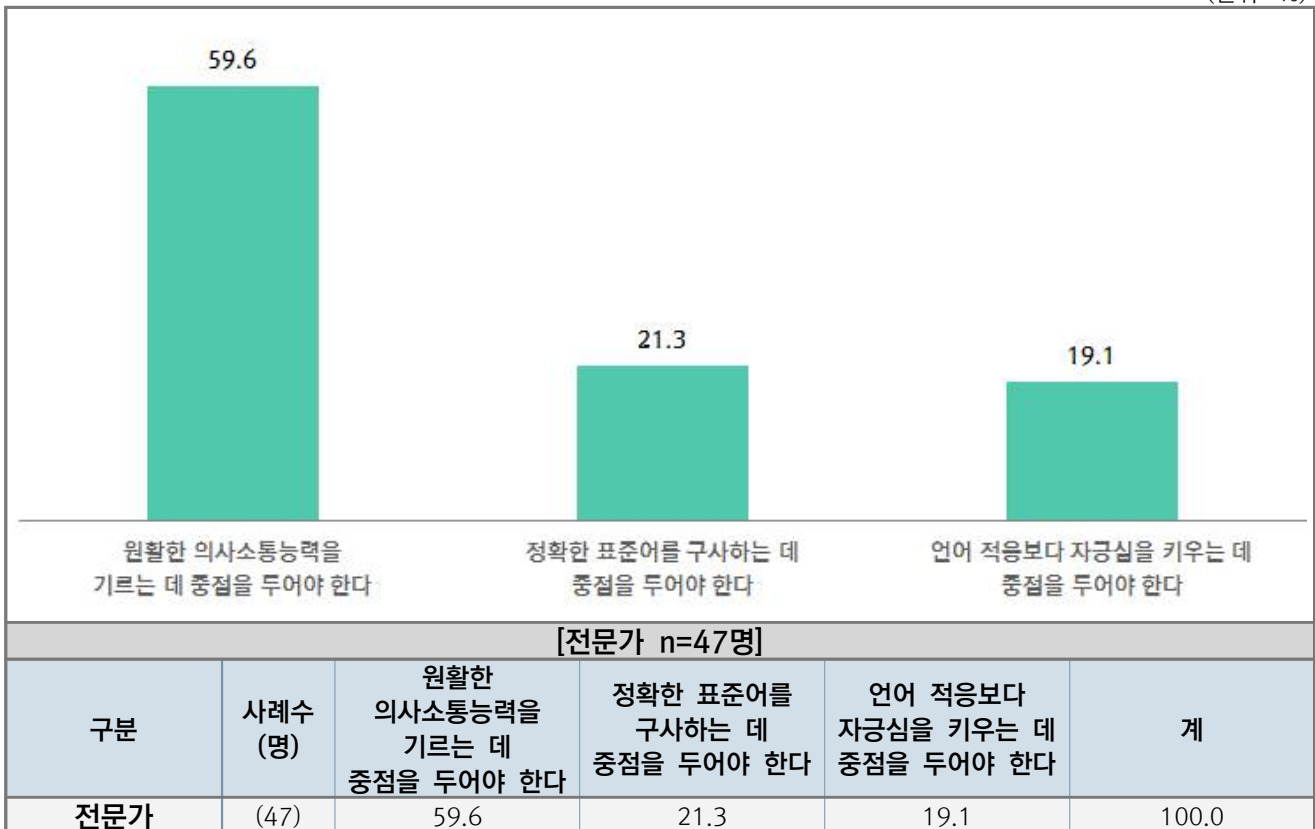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1.3%), ‘언어 적응보다 자긍심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19.1%)의 순임.

〈그림 4-2-4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

(단위: %)



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4.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필요한 시간

-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3명은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4~5년’, 10명 중 2명은 ‘10년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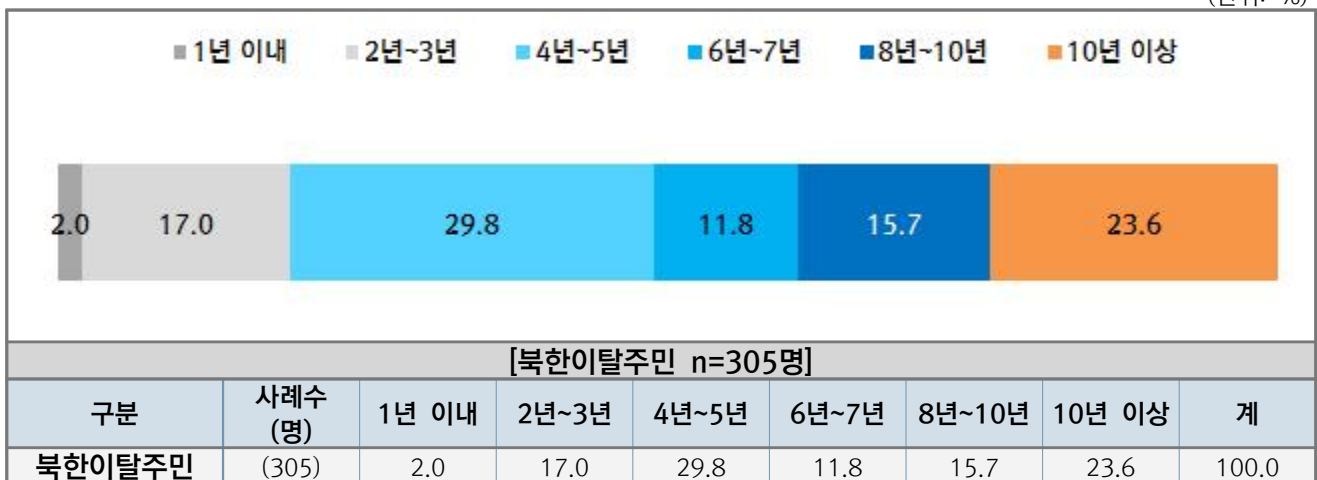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북한이탈주민의 29.8%는 ‘4~5년’, 23.6%는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4년~5년’ (29.8%), ‘10년 이상’ (23.6%), ‘2~3년’ (17.0%), ‘8년~10년’ (15.7%) 등의 순임.

〈그림 4-2-45〉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단위: %)



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육 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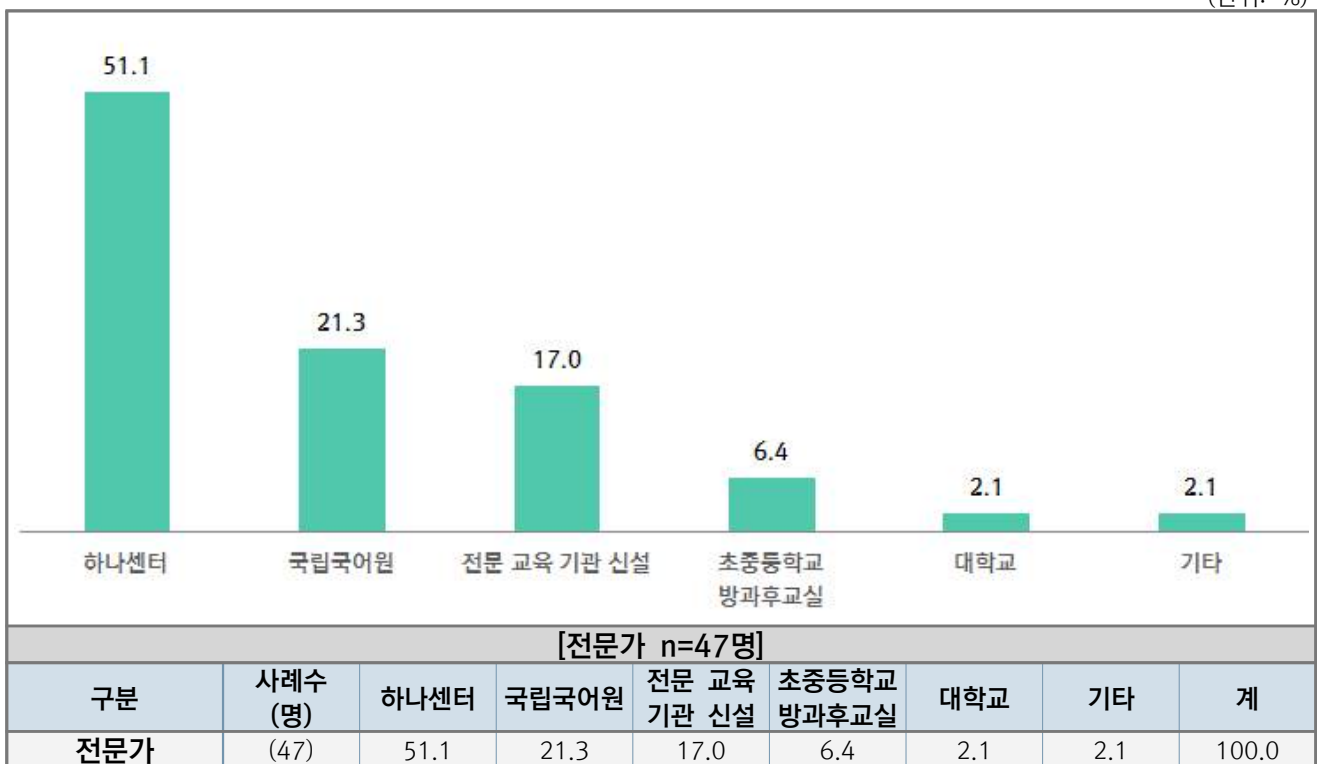
- ☑ 전문가 10명 중 5명은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전문가의 51.1%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은 ‘하나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하나센터’ 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국립국어원’ (21.3%), ‘전문 교육 기관 신설’ (17.0%), ‘초중등학교 방과후 교실’(6.4%) 등의 순임.

〈그림 4-2-46〉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육 주관기관

(단위: %)



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26.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 ☑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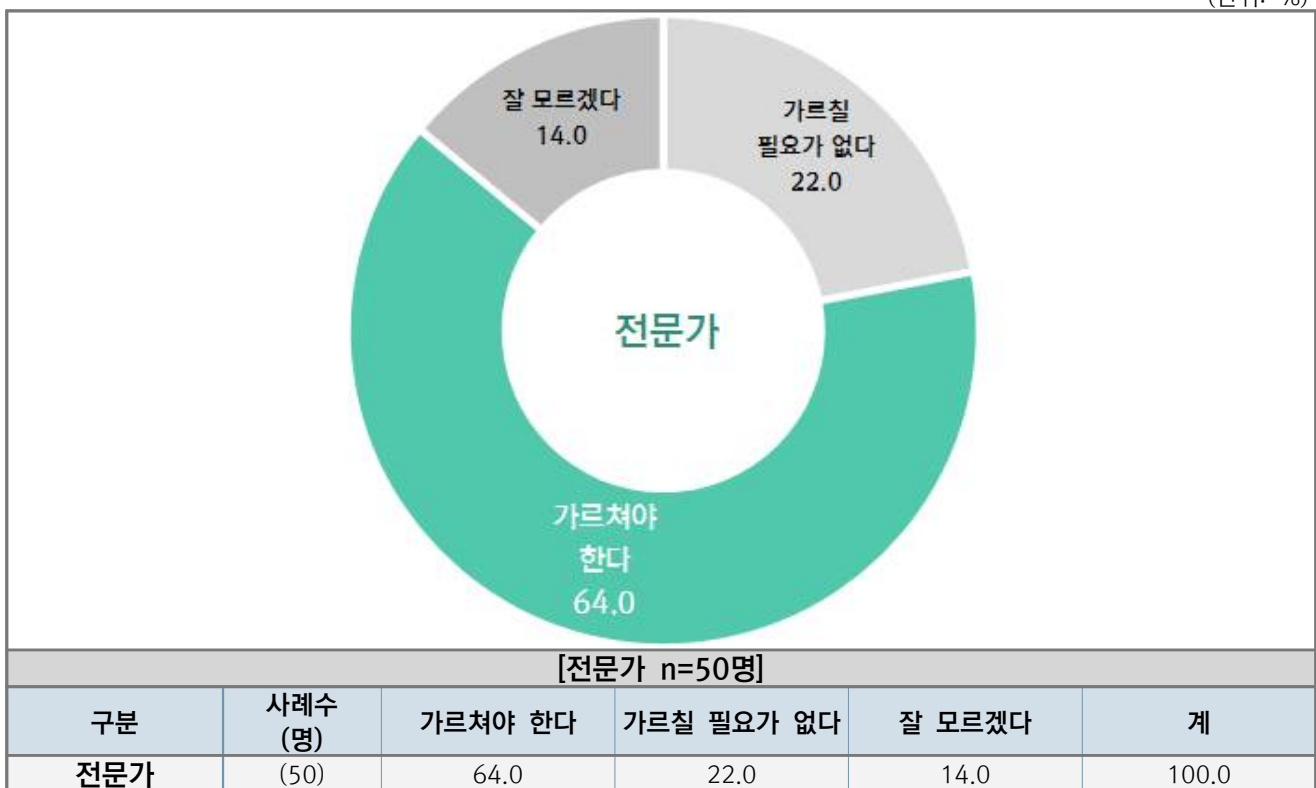
전문가의 64.0%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22.0%), ‘잘 모르겠다’ (14.0%)의 순임.

〈그림 4-2-47〉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북 언어 차이를 알리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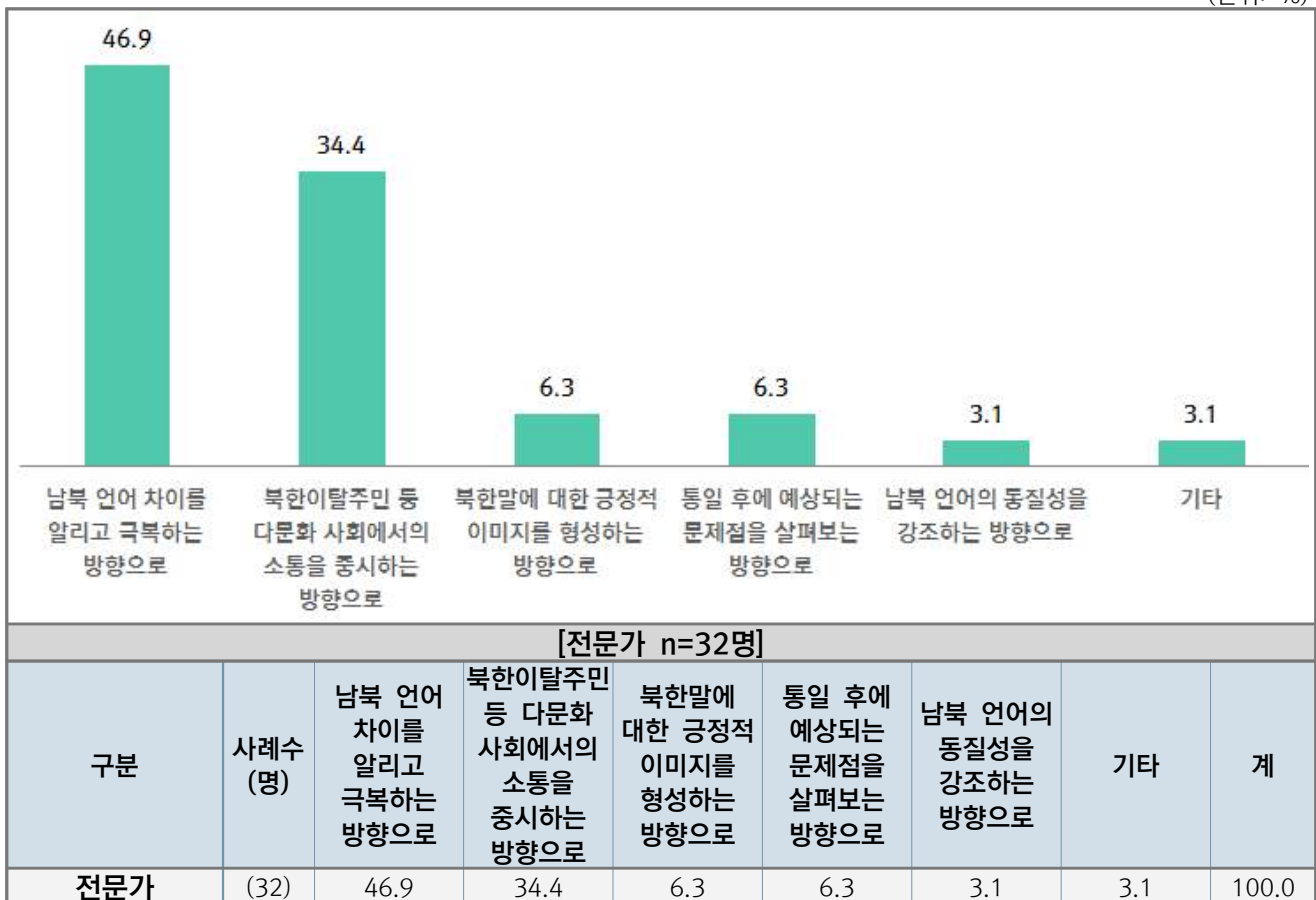
전문가 10명 중 5명은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치는 방향은 남북 언어 차이를 알리고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남북 언어 차이를 알리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 이탈주민 등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34.4%), ‘북한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6.3%), ‘통일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6.3%),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3.1%) 등의 순임.

〈그림 4-2-48〉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쳐야 하는 방향

(단위: %)



문]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며, 필요한 사람만 배우면 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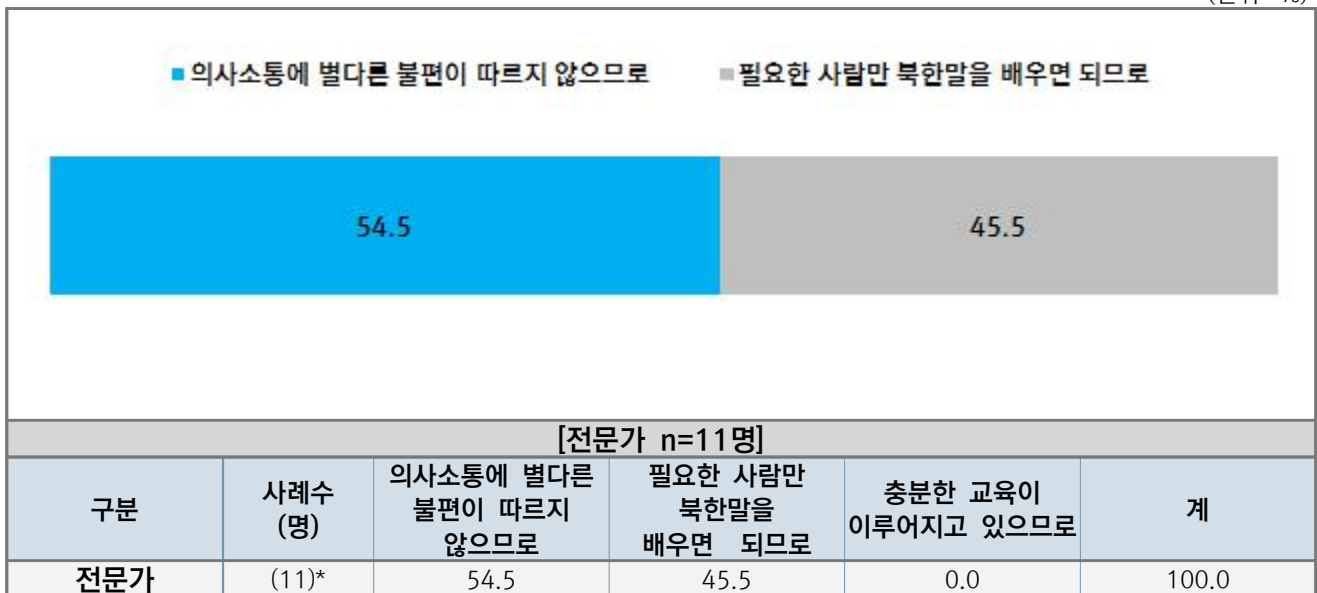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들은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고’, ‘필요한 사람만 북한말을 배우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 ▶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 라는 응답은 54.5%이고, ‘필요한 사람만 북한말을 배우면 되므로’ 라는 응답은 45.5%임.

〈그림 4-2-49〉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문]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Ⅲ. 통일 대비 언어 정책

1.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

남북의 언어의식 조사 중에서 통일 대비 언어 정책에 대하여 그 포괄적인 실상을 파악하고자 설정한 문항 내용임. ‘언어’ 분야의 경우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피조사자의 성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음.

☑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지 않는 분야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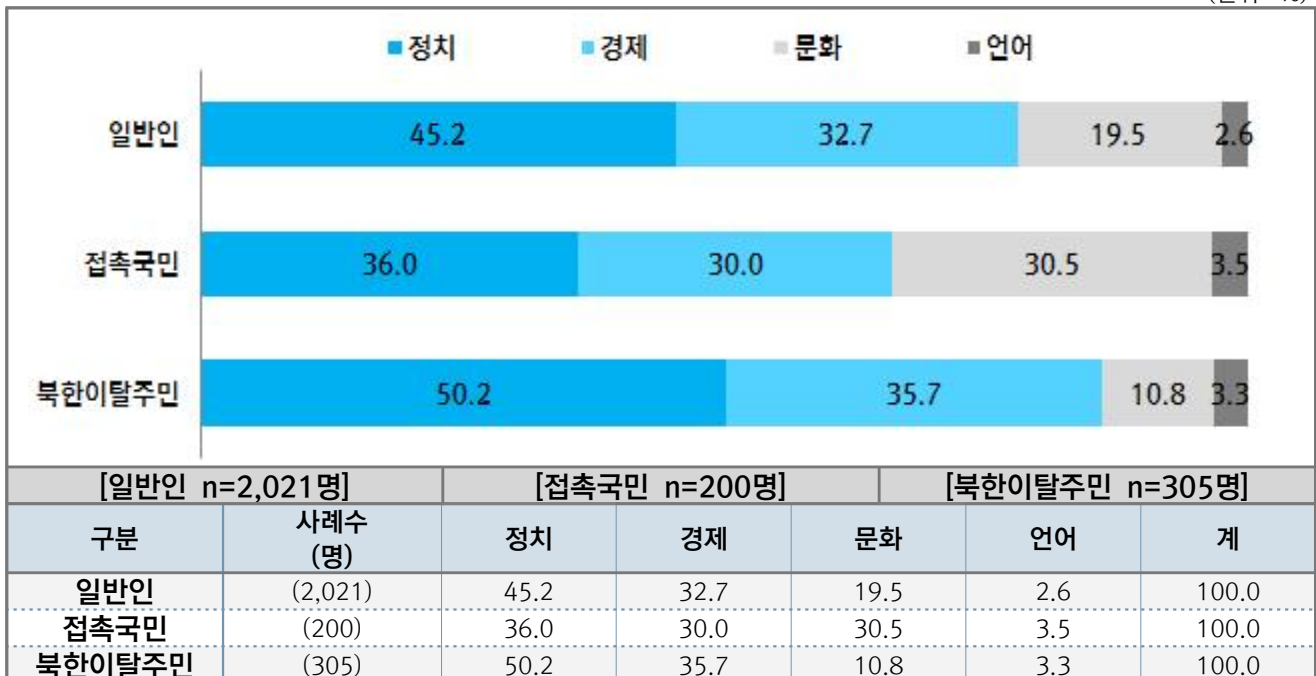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지 않는 분야는 ‘언어’ 라고 응답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정치’ (45.2%) > ‘경제’ (32.7%) > ‘문화’ (19.5%) > ‘언어’ (2.6%)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정치’ (36.0%) > ‘문화’ (30.5%) > ‘경제’ (30.0%) > ‘언어’ (3.5%)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치’ (50.2%) > ‘경제’ (35.7%) > ‘문화’ (10.8%) > ‘언어’ (3.3%)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정치’ (58.0%) > ‘문화’ (22.0%) > ‘경제’ (18.0%) > ‘언어’ (2.0%) 순임.

〈그림 4-3-1〉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

(단위: %)



문]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렵지 않은 분야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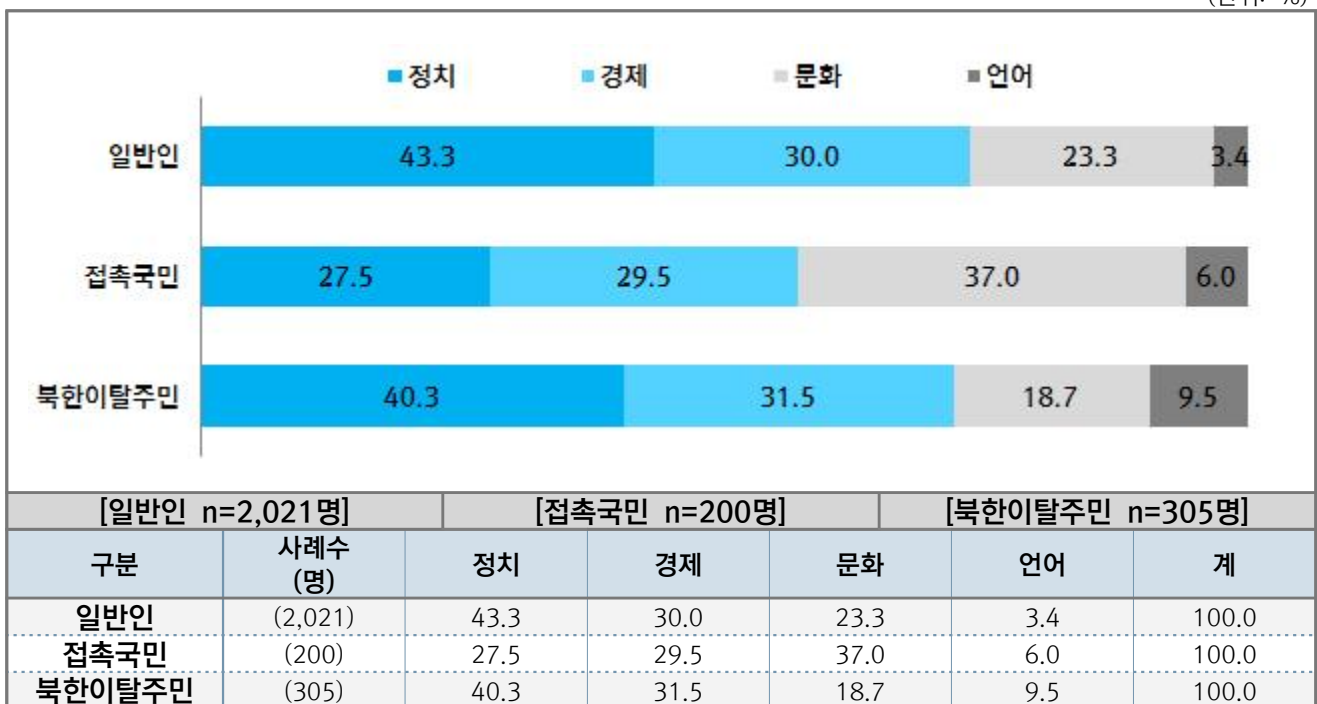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렵지 않은 분야는 ‘언어’ 라고 생각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정치’ (43.3%) > ‘경제’ (30.0%) > ‘문화’ (23.3%) > ‘언어’ (3.4%)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문화’ (37.0%) > ‘경제’ (29.5%) > ‘정치’ (27.5%) > ‘언어’ (6.0%)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치’ (40.3%) > ‘경제’ (31.5%) > ‘문화’ (18.7%) > ‘언어’ (9.5%)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정치’ (42.0%) > ‘문화’ (34.0%) > ‘경제’ (18.0%) > ‘언어’ (6.0%) 순임.

〈그림 4-3-2〉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

(단위: %)



문]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의 필요성

남북 언어 이질화는 그것을 인식하는 집단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각 집단에 그 필요성을 질문하고자 하였음. 그것과 아울러 통합 노력의 시작으로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그것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정책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의도임.

-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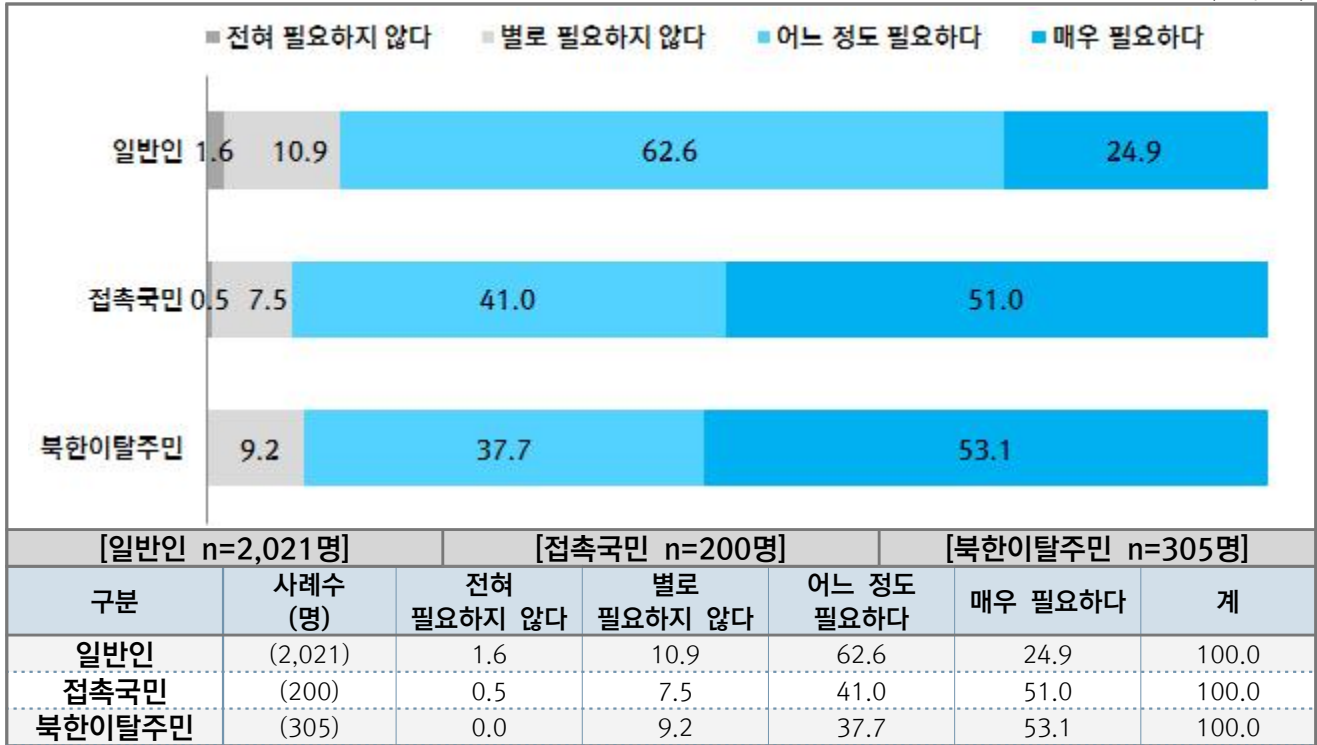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필요하다’ (매우 24.9% + 어느 정도 62.6%)는 응답은 87.5%이고, ‘필요하지 않다’ (전혀 1.6% + 별로 10.9%)는 응답은 12.5%임.
- ▶ 접촉국민의 경우 ‘필요하다’ (매우 51.0% + 어느 정도 41.0%)는 응답은 92.0%이고, ‘필요하지 않다’ (전혀 0.5% + 별로 7.5%)는 응답은 8.0%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필요하다’ (매우 53.1% + 어느 정도 37.7%)는 응답은 90.8%이고, ‘필요하지 않다’ (전혀 0.0% + 별로 9.2%)는 응답은 9.2%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필요하다’ (매우 56.0% + 어느 정도 40.0%)는 응답은 96.0%이고, ‘필요하지 않다’ (전혀 0.0% + 별로 4.0%)는 응답은 4.0%임.

〈그림 4-3-3〉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의 필요성

(단위: %)



문]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의 시작 시기는 ‘통일 전에 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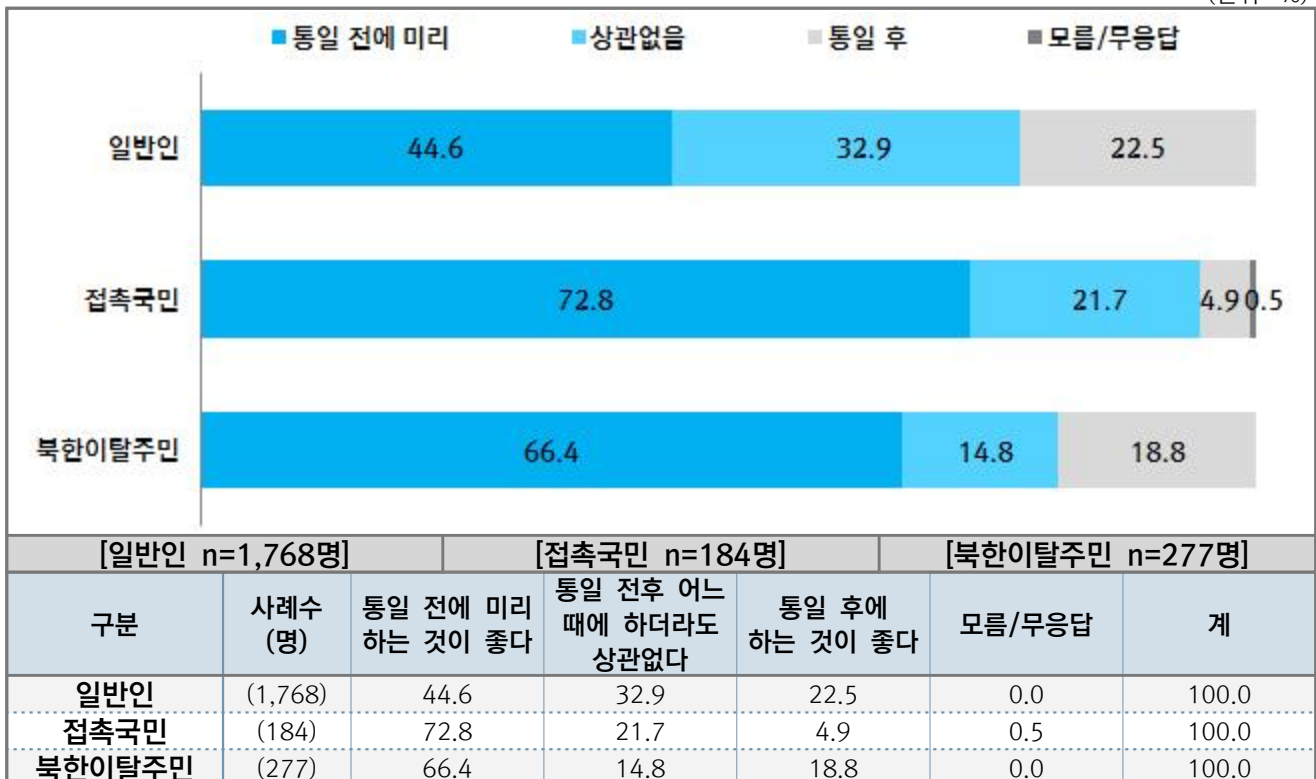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은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44.6%), ‘통일 전 후 어느 때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32.9%), ‘통일 후에 하는 것이 좋다’ (22.5%) 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72.8%), ‘통일 전 후 어느 때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21.7%), ‘통일 후에 하는 것이 좋다’ (4.9%) 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66.4%), ‘통일 후에 하는 것이 좋다’ (18.8%), ‘통일 전 후 어느 때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14.8%) 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89.6%), ‘통일 전 후 어느 때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6.3%) 등의 순임.

〈그림 4-3-4〉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의 시작 시기

(단위: %)



문] 그렇다면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통일 후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결정’되거나, ‘언어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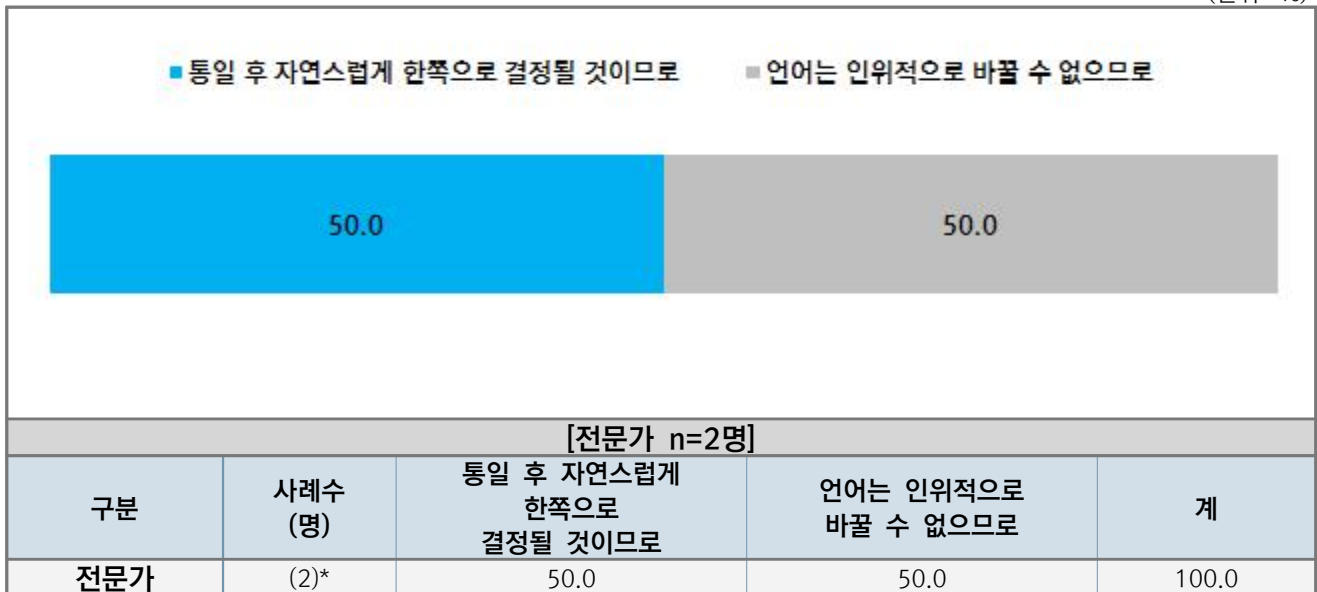
통일 후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결정 되거나 언어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 ▶ ‘통일 후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라는 응답은 50.0%이고, ‘언어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라는 응답은 50.0%임.

〈그림 4-3-5〉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문]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3.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 ☑ 일반인과 접촉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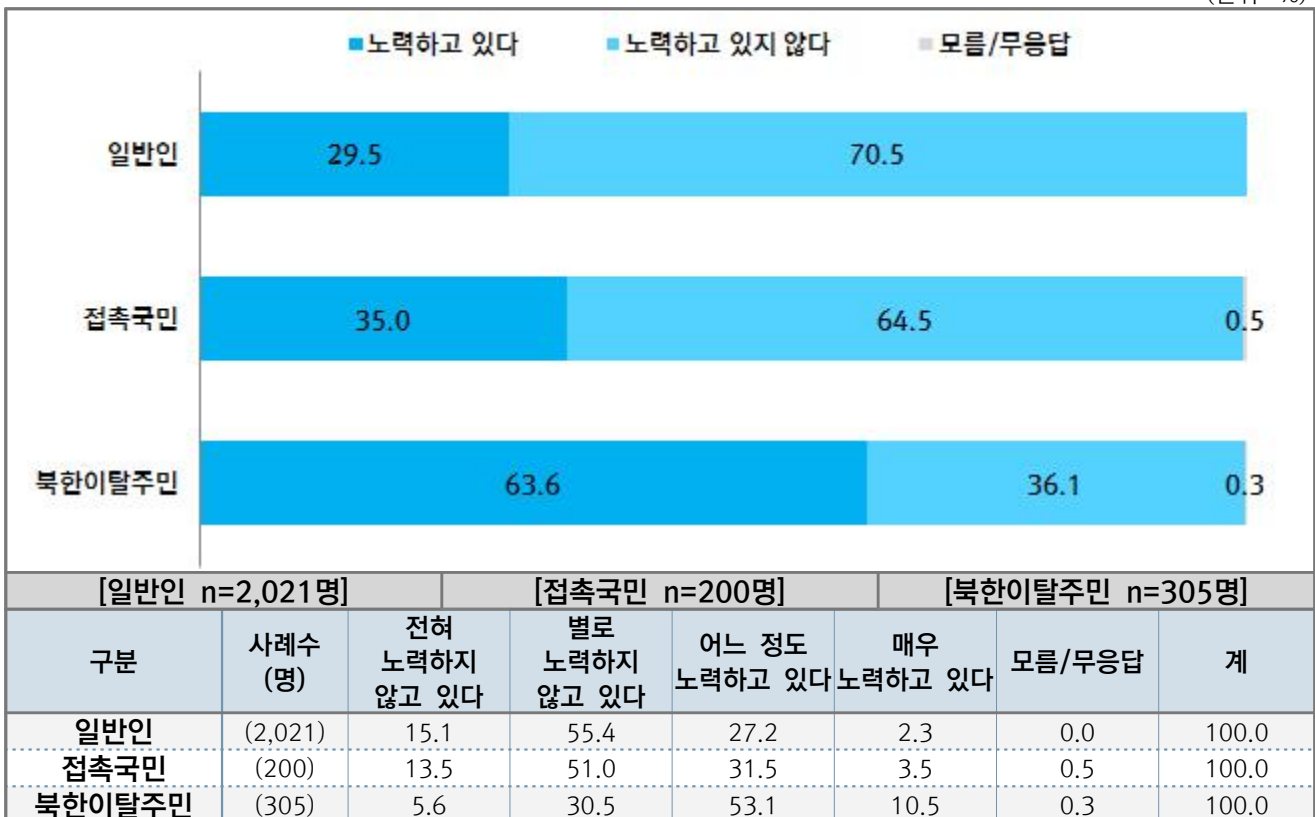
일반인과 접촉국민은 현재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노력하고 있지 않다’ (전혀 15.1% + 별로 55.4%)는 응답은 70.5%이고, ‘노력하고 있다’ (매우 2.3% + 어느 정도 27.2%)는 29.5%임.
- ▶ 접촉국민의 경우 ‘노력하고 있지 않다’ (전혀 13.5% + 별로 51.0%)는 응답은 64.5%이고, ‘노력하고 있다’ (매우 3.5% + 어느 정도 31.5%)는 35.0%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노력하고 있지 않다’ (전혀 5.6% + 별로 30.5%)는 응답은 36.1%이고, ‘노력하고 있다’ (매우 10.5% + 어느 정도 53.1%)는 63.6%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다’ (전혀 20.0% + 별로 54.0%)는 응답은 74.0%이고, ‘노력하고 있다’ (매우 0.0% + 어느 정도 26.0%)는 26.0%임

〈그림 4-3-6〉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

(단위: %)



문]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남북 언어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일반인들과 달리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남북 언어 사업과 관련된 제언을 듣고자 설정한 문항임. 언어 전문가와 기타 분야 전문가 사이의 인지도가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그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고자 설정하였음.

- ☑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 중 개선 또는 추가 수행되어야 할 사업은 ‘남북한 생활 언어 비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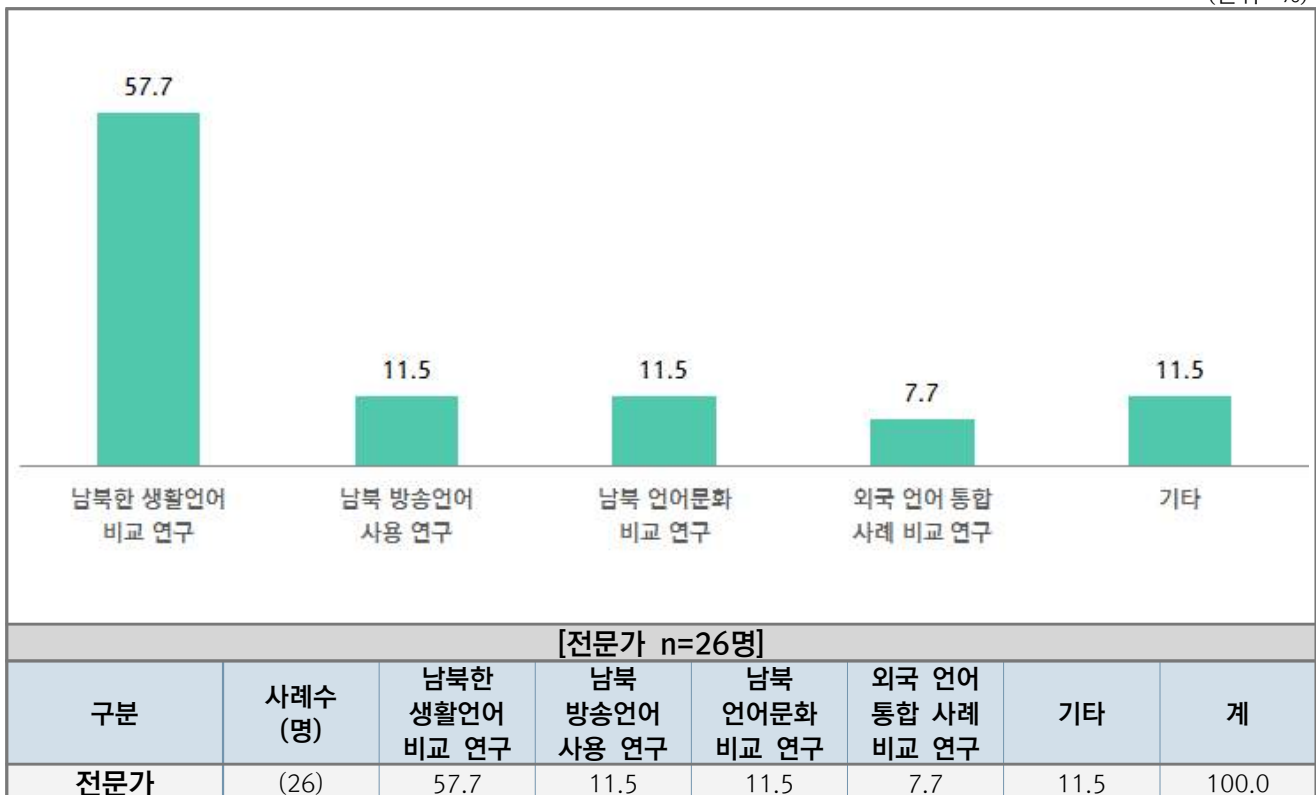
전문가의 57.7%는 최근까지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 중 ‘남북한 생활언어 비교 연구’를 개선,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응답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최근까지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 중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 ▶ ‘남북한 생활언어 비교 연구’가 5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북 방송언어 사용 연구’와 ‘남북 언어 문화 비교 연구’ (각 11.5%), ‘외국 언어 통합 사례 비교 연구’ (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3-7〉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최근까지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입니다. 각 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통일부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은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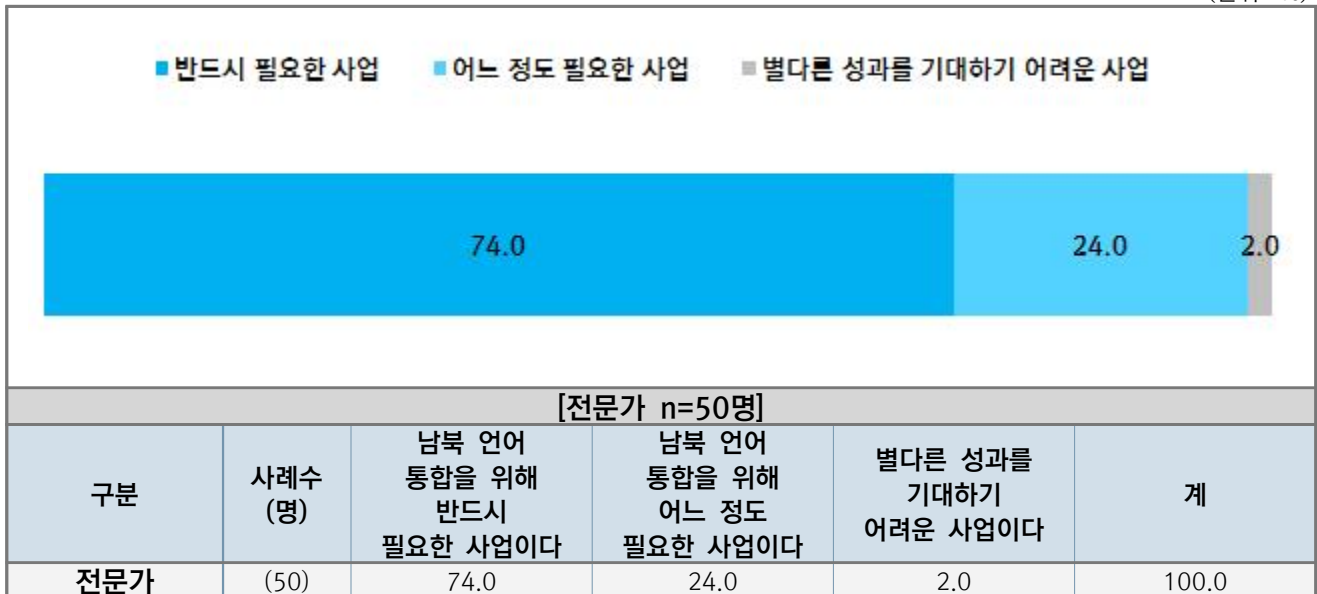
전문가의 74.0%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는 응답이 7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다’ (24.0%),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3-8> 통일부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 인지 여부

(단위: %)



문] 통일부에서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

남북의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항은 각 집단이 피부로 느끼는 시급한 언어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설정한 어문 규범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그 반면에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은 언어 정책 주체가 각 분야나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임.

☑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발음이나 억양’ 과 ‘단어 사용이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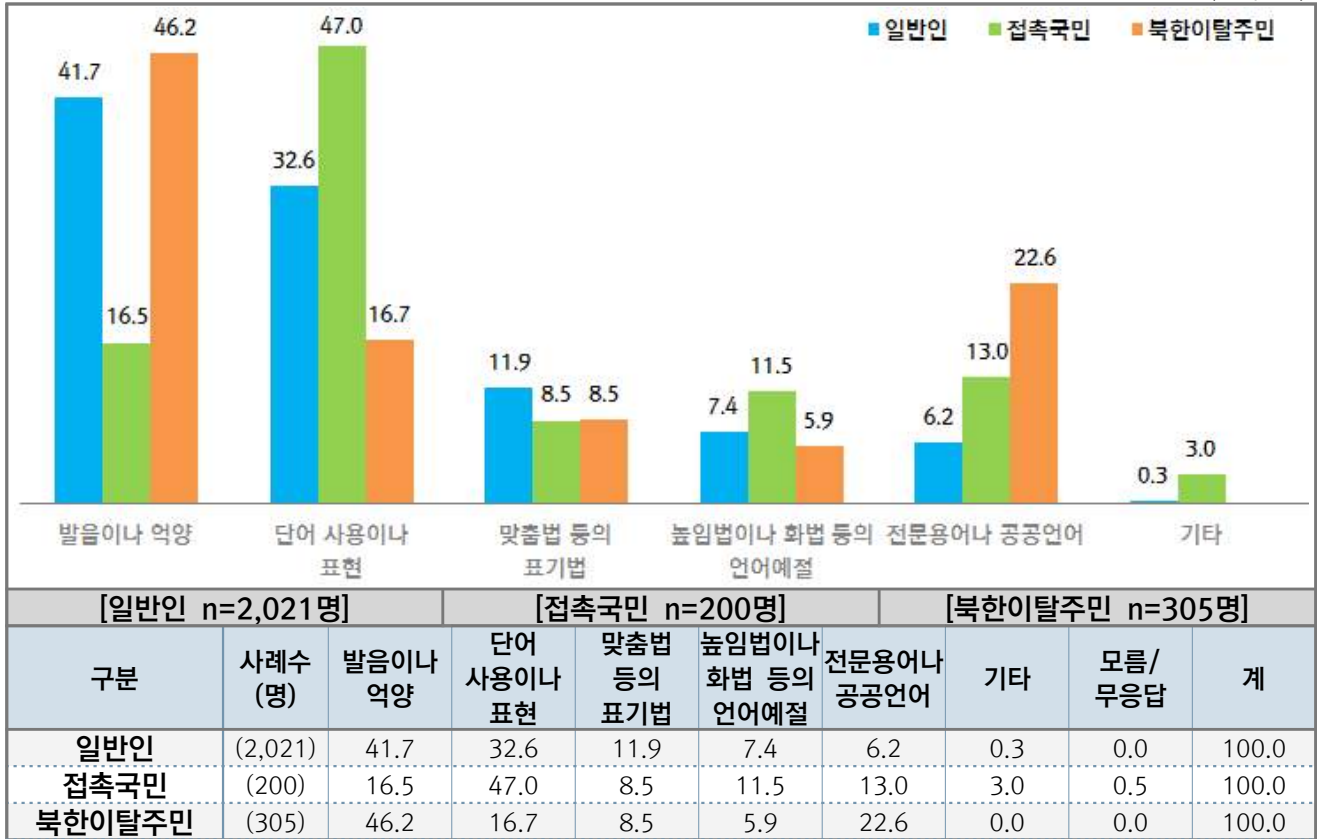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은 ‘발음이나 억양’을, 접촉국민은 ‘단어 사용이나 표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발음이나 억양’ (41.7%), ‘단어 사용이나 표현’ (32.6%), ‘맞춤법 등의 표기법’ (1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 경우 ‘단어 사용이나 표현’ (47.0%), ‘발음이나 억양’ (16.5%), ‘전문 용어나 공공언어’ (1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발음이나 억양’ (46.2%), ‘전문 용어나 공공언어’ (22.6%), ‘단어 사용이나 표현’ (1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사에서 남북통일 대비 언어 규범에서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점은 ‘맞춤법 등의 언어 규범 문제’ (56.0%),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언어 교육 문제’ (22.0%) 등의 순임.

〈그림 4-3-9〉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

(단위: %)



문]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남북한의 일상용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집 제작’과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할 사전 편찬’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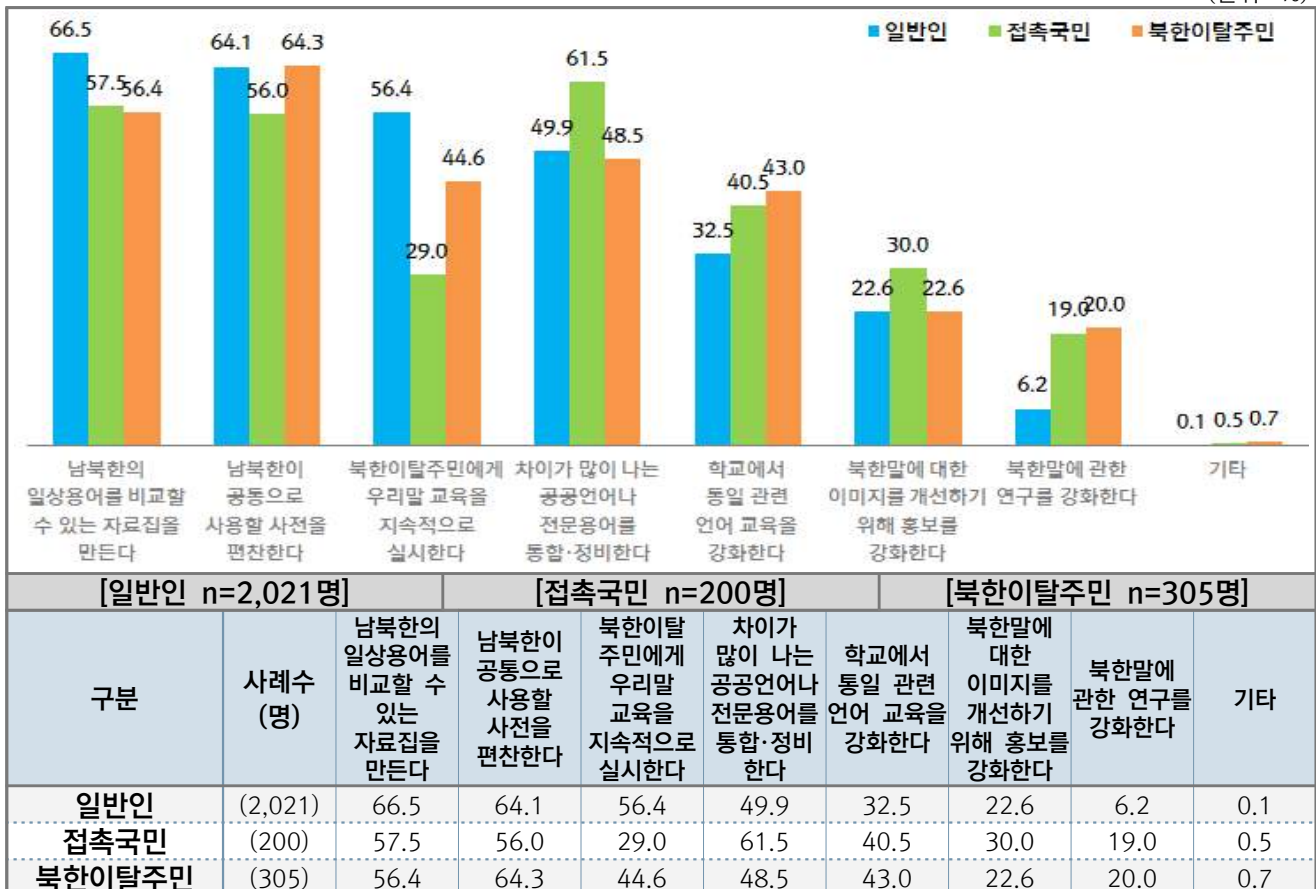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정책 중 남북한의 일상용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드는 것과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할 사전을 편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어떤 정책(1+2+3순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남북한의 일상용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든다’가 6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할 사전을 편찬한다’ (64.1%) 등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차이가 많이 나는 공공언어나 전문용어를 통합·정비한다’가 61.5%로 가장 높고, ‘남북한의 일상용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든다’ (57.5%)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할 사전을 편찬한다’가 64.3%로 가장 높고, ‘남북한의 일상용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든다’ (56.4%)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남북한 공통 사전 편찬(국어 사전, 방언 사전, 전문용어 사전)’가 72.0%로 가장 높고, ‘공공언어, 전문용어 대조 및 통합 방안 마련’ (66.0%), ‘남북한 생활 용어집 제작 및 배포’ (52.0%) 등의 순임.

〈그림 4-3-10〉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1+2+3순위)

(단위: %)



문)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정책은 ‘매체를 활용한 북한 또는 북한말 이해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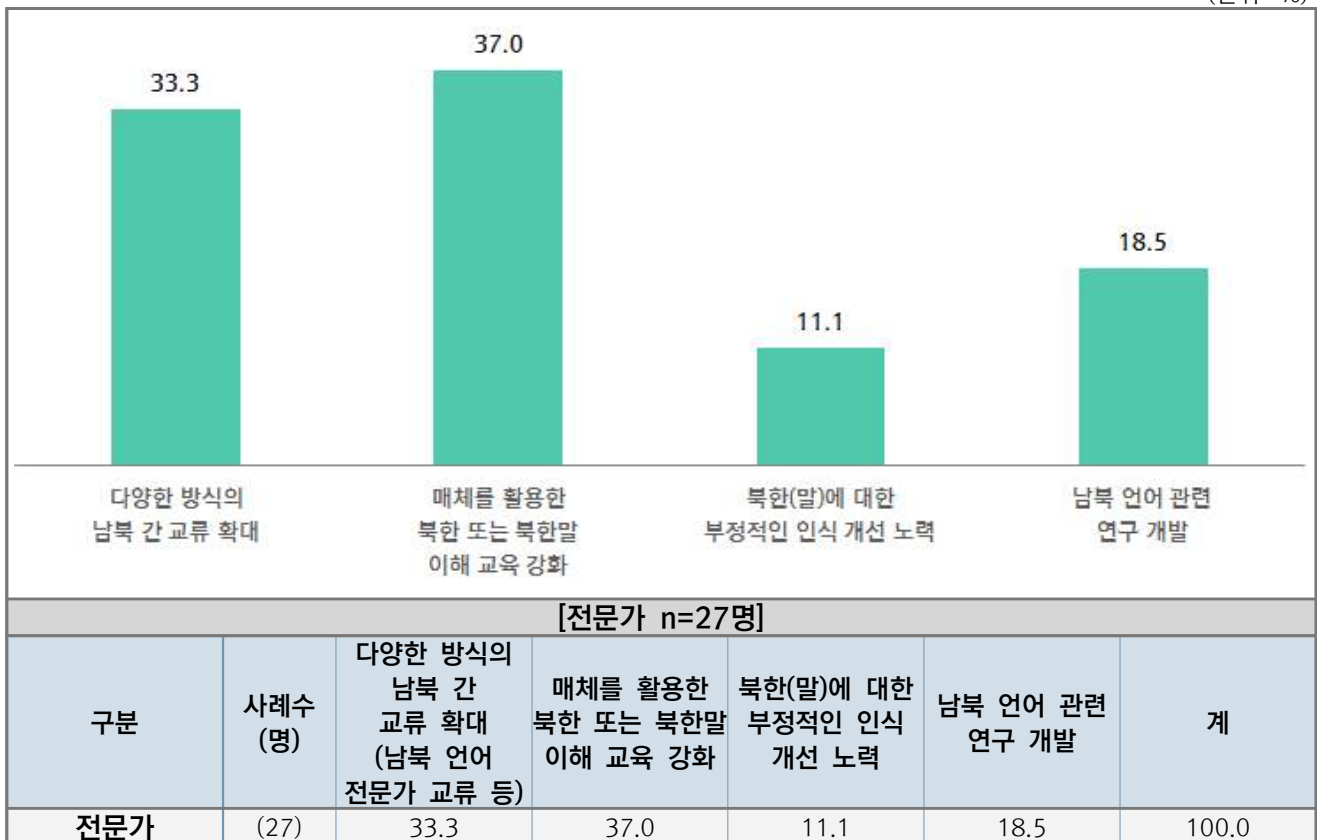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매체를 활용하여 북한(말) 이해 교육을 강화하거나, 남북 언어 전문가 교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 ▶ ‘매체를 활용한 북한 또는 북한말 이해 교육 강화’가 3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양한 방식의 남북 간 교류 확대(남북 언어 전문가 교류 등)’(33.0%), ‘남북 언어 관련 연구 개발’(18.5%), ‘북한(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노력’(11.1%)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3-11〉 추가적으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단위: %)



문] 문23에서 제시된 정책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6.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이 문항은 초등 및 중등 교육 기관에서 북한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피조사자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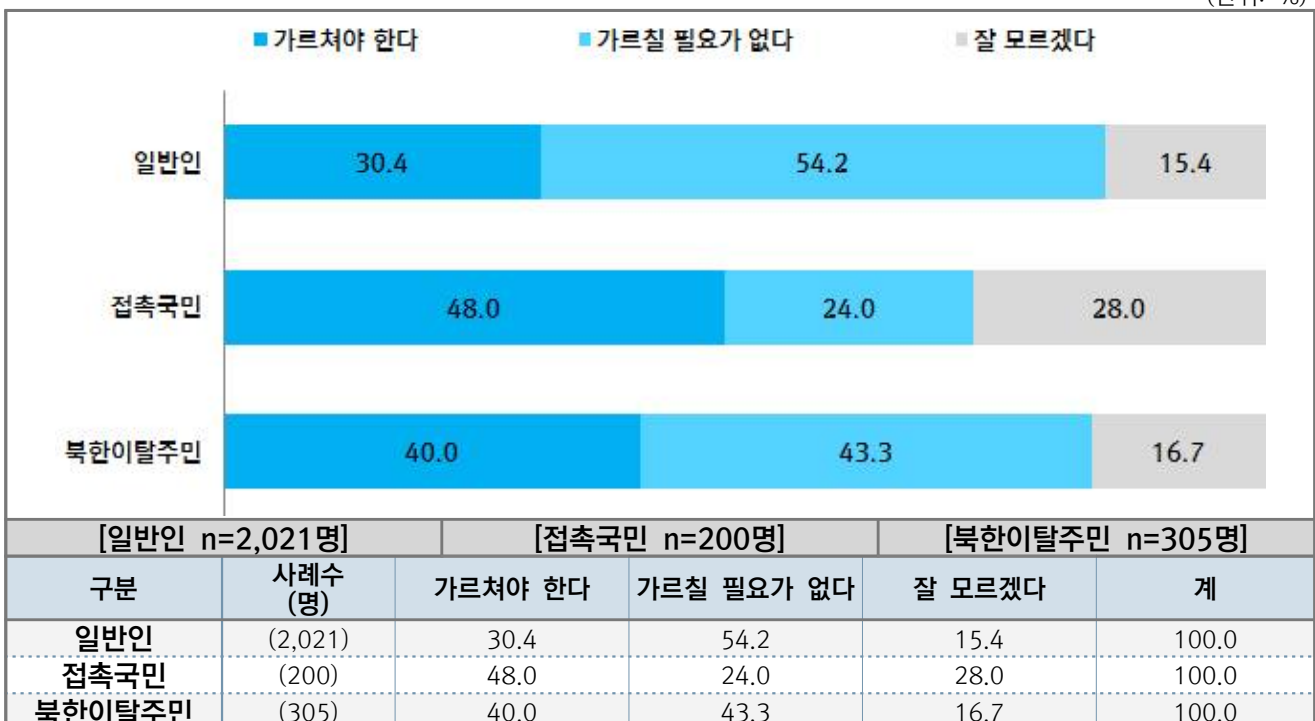
- ☒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은 찬반 의견이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접촉국민은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가르칠 필요가 없다’가 5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르쳐야 한다’ (30.4%), ‘잘 모르겠다’ (1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접촉국민 경우 ‘가르쳐야 한다’가 4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28.0%), ‘가르칠 필요가 없다’ (24.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르칠 필요가 없다’가 4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르쳐야 한다’ (40.0%), ‘가르칠 필요가 없다’ (1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3-12〉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에 따른 별다른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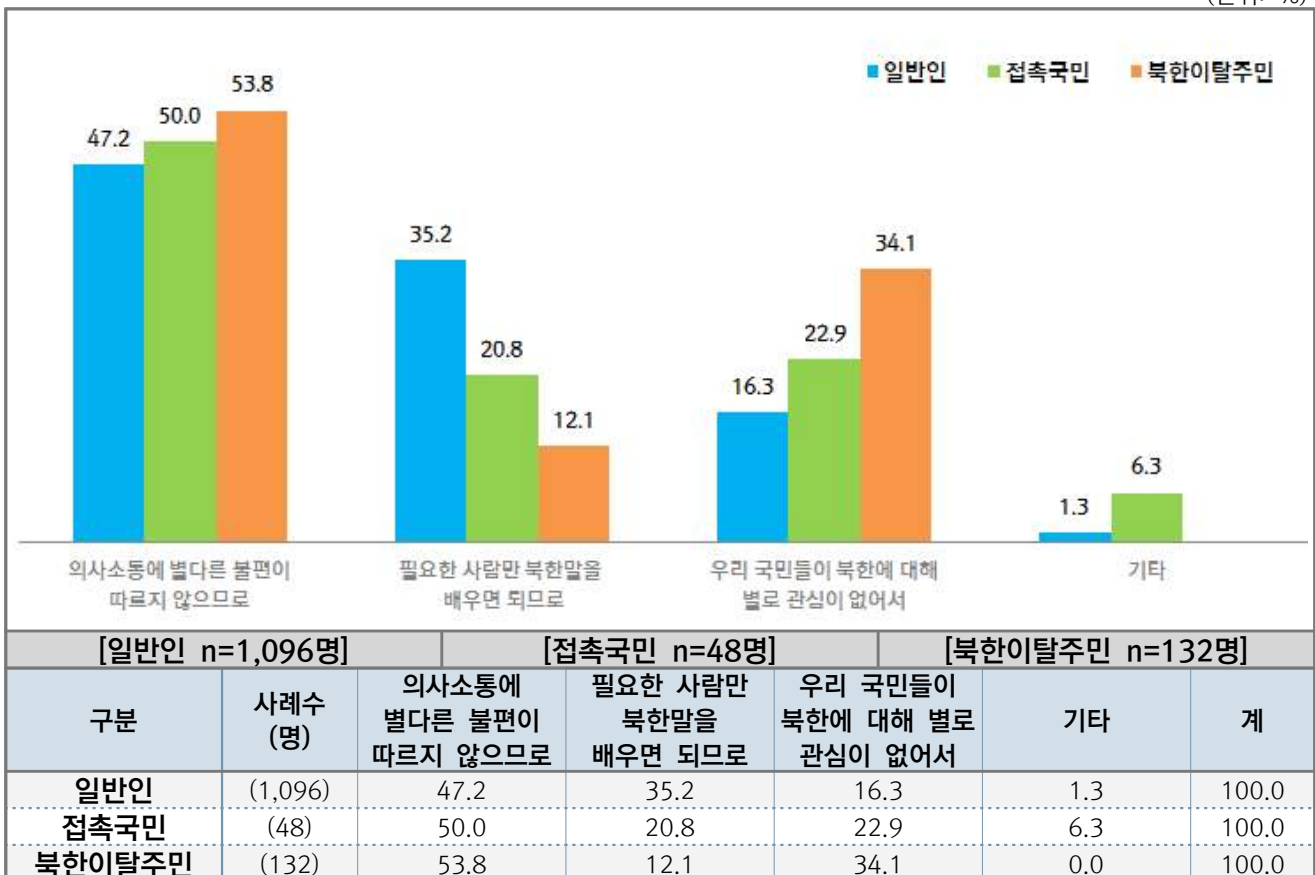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의사소통에 따른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따른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 (47.2%), ‘필요한 사람만 북한말을 배우면 되므로’ (35.2%),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16.3%)의 순임.
- ▶ 접촉국민 경우 ‘의사소통에 따른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 (50.0%),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22.9%), ‘필요한 사람만 북한말을 배우면 되므로’ (20.8%)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의사소통에 따른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 (53.8%),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34.1%), ‘필요한 사람만 북한말을 배우면 되므로’ (12.1%)의 순임.

〈그림 4-3-13〉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

(단위: %)



문]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7.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불가피하게 남북 언어는 통합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으나 그 통합의 방법과 기준을 쉽게 재단하기 어려움. 세 집단이 이에 대한 답변이 상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설정한 문항임.

☑ 남북 언어 통합 기준은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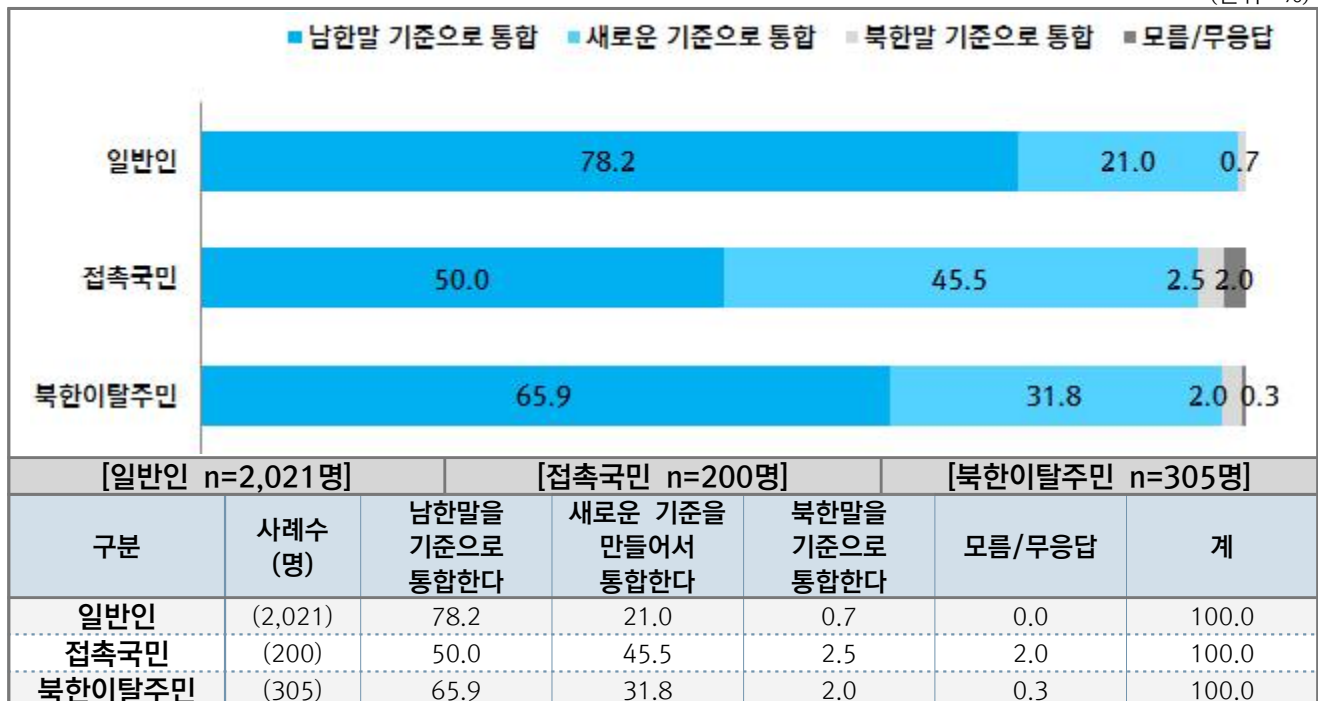
일반인의 78.2%, 접촉국민의 50.0%, 북한이탈주민의 65.9%는 ‘남한말’을 기준으로 남한말과 북한말을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말과 북한말을 통합한다면 통합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78.2%),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통합한다’ (21.0%) 등의 순임.
- ▶ 접촉국민 경우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50.0%),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통합한다’ (45.5%)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65.9%),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통합한다’ (31.8%)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통일한다’는 응답은 58.0%,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일한다’는 42.0%임.

〈그림 4-3-14〉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단위: %)



문) 남한말과 북한말을 통합한다면 통합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필요성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언어 정책 총괄 기구는 기존의 국립국어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과 새로운 독립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전문가 집단 중에서는 국어학 전공자와 북한 관련 정치학 전문가, 사회학자 등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견해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경향을 파악하고자 설계된 문항임.

☑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통일에 대비해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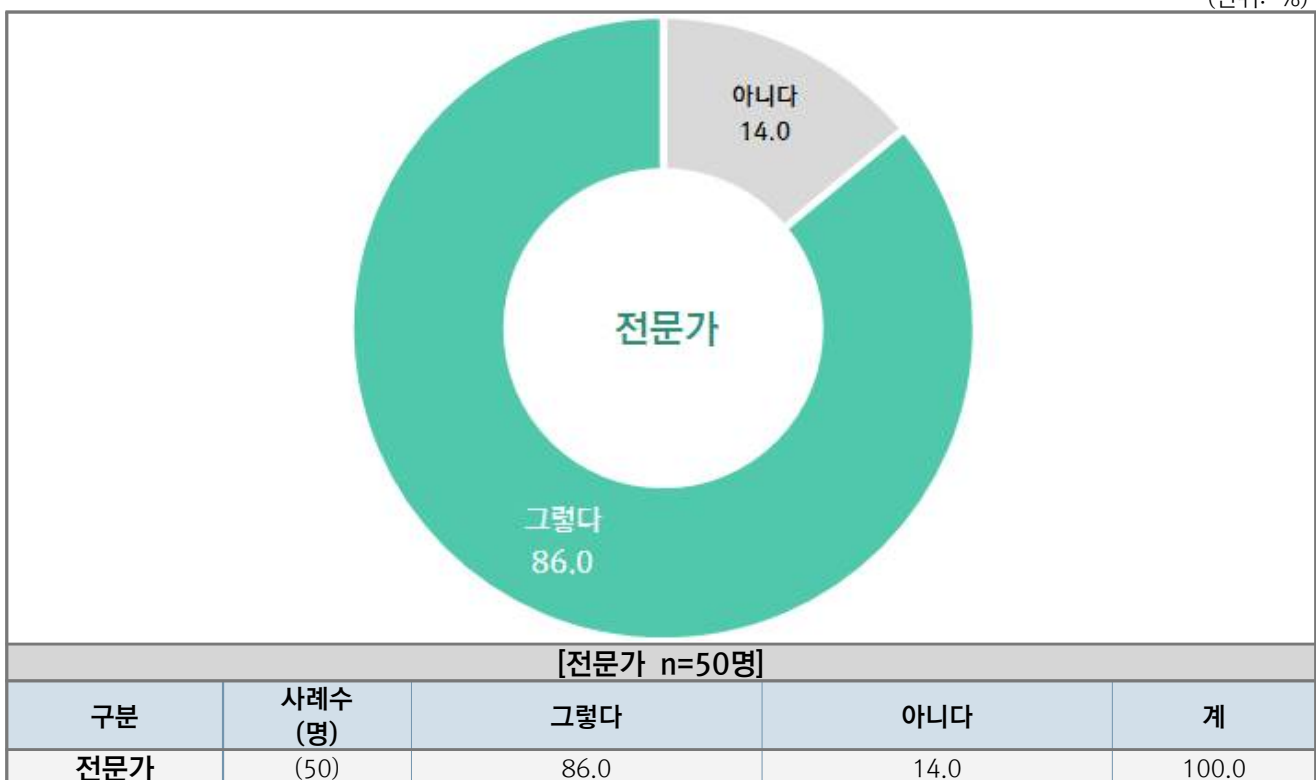
통일을 대비해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86.0%, ‘아니다’는 응답은 14.0%로 나타남.

○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일에 대비해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그렇다’는 응답은 86.0%이고, ‘아니다’는 응답은 14.0%임.

〈그림 4-3-15〉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필요성

(단위: %)



문] 통일에 대비해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위상은 현재의 '국립국어원의 역할 강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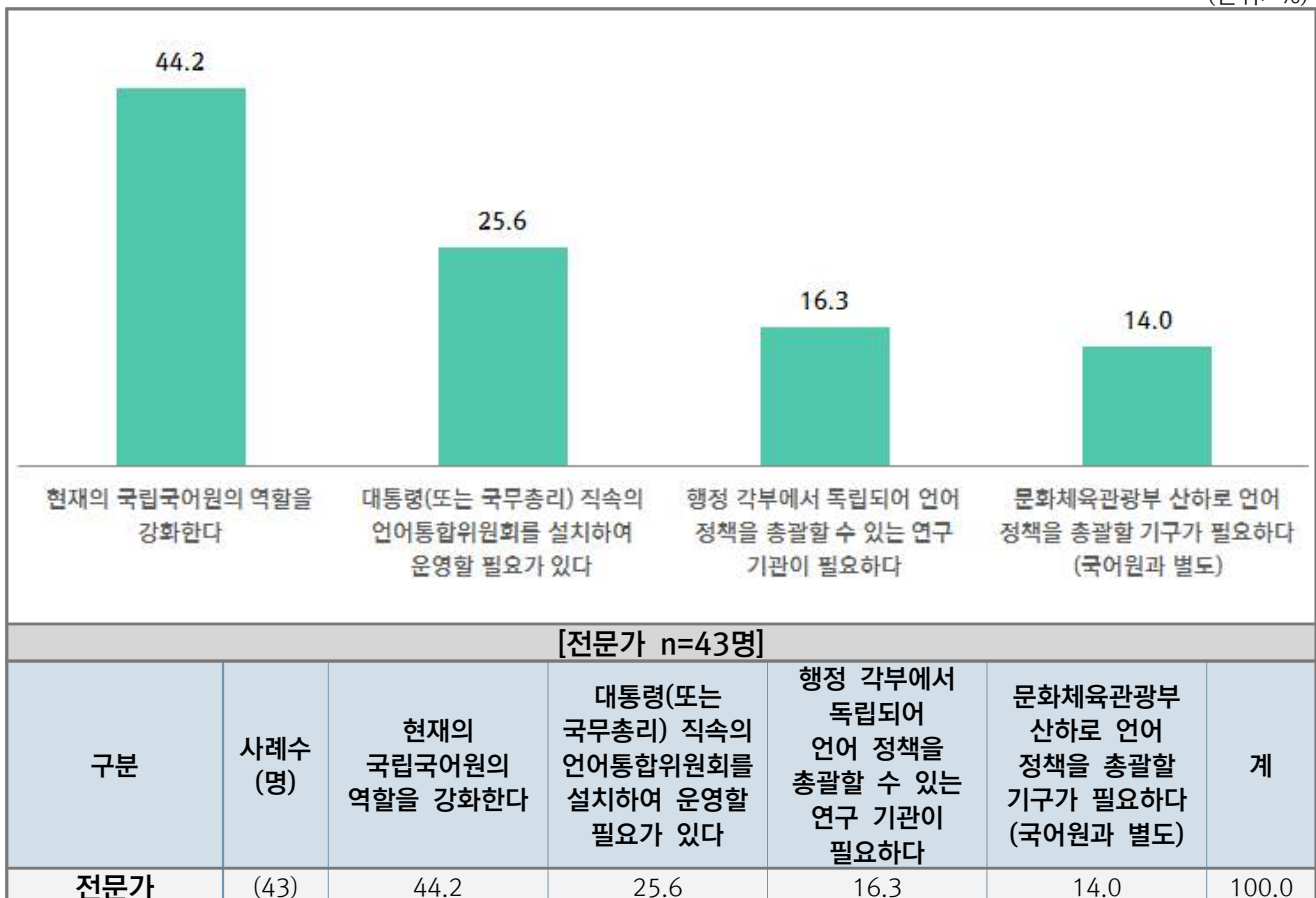
전문가의 44.2%는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는 현재의 국립국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위상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현재의 국립국어원의 역할을 강화한다'가 4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언어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5.6%), '행정 각부에서 독립되어 언어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16.3%), '국어원과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언어 정책을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 (14.0%) 순임.

〈그림 4-3-16〉 통일 대비 언어 정책 총괄 기구의 위상

(단위: %)



문]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위상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언어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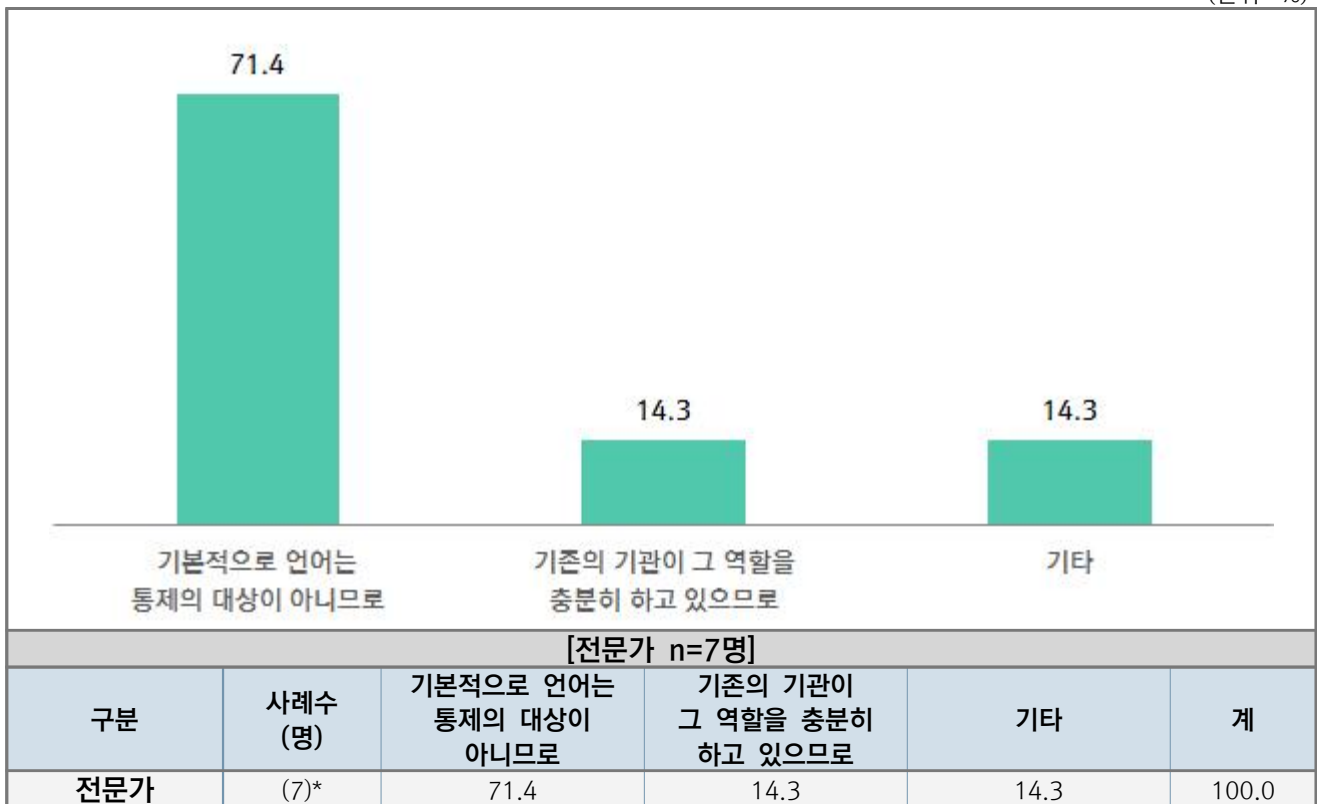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언어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전문가를 대상으로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 ▶ ‘기본적으로 언어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가 7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존의 기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14.3%) 등의 순임.

〈그림 4-3-17〉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문]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IV. 기타

1.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

☑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는 ‘북한이탈주민 > 접촉국민 > 일반인’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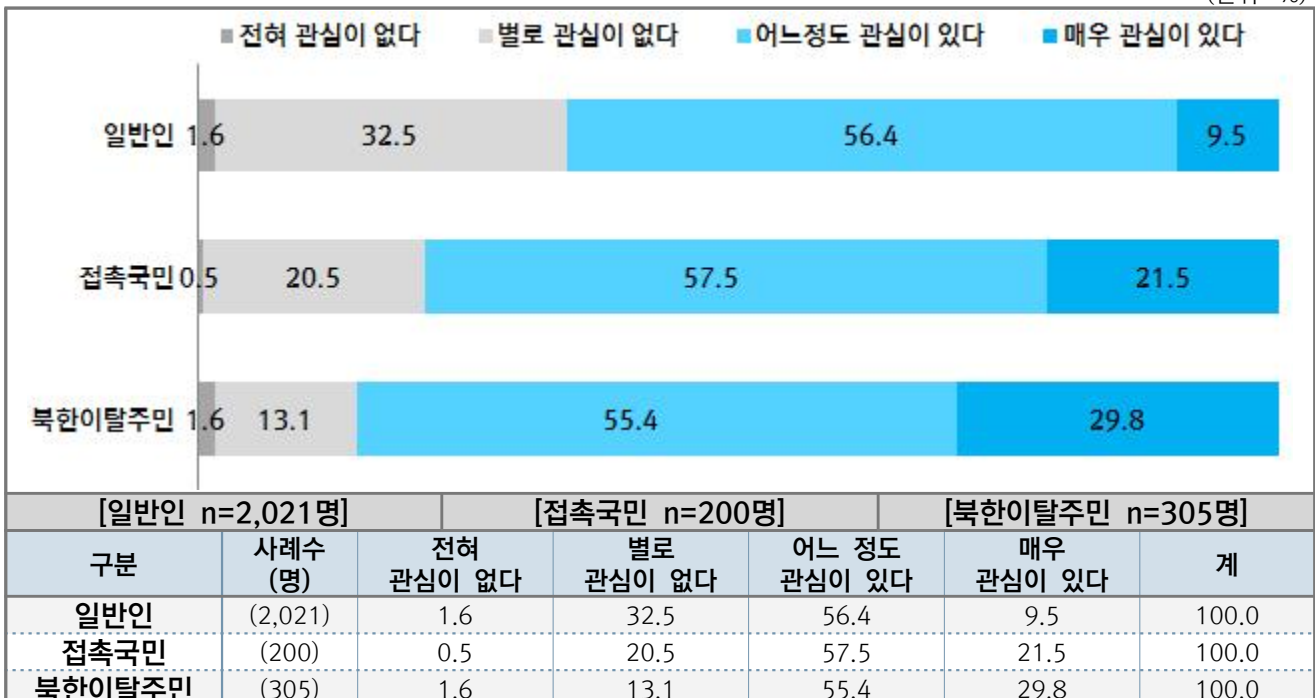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10명 중 6명은 평소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평소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관심이 있다’ (매우 9.5% + 어느 정도 56.4%)는 응답은 65.9%이고, ‘관심이 없다’ (전혀 1.6% + 별로 32.5%)는 응답은 34.1%임.
- ▶ 접촉국민 경우 ‘관심이 있다’ (매우 21.5% + 어느 정도 57.5%)는 응답은 79.0%이고, ‘관심이 없다’ (전혀 0.5% + 별로 20.5%)는 응답은 21.0%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관심이 있다’ (매우 29.8% + 어느 정도 55.4%)는 응답은 85.2%이고, ‘관심이 없다’ (전혀 1.6% + 별로 13.1%)는 응답은 14.8%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관심이 있다’ (매우 62.0% + 어느 정도 34.0%)는 응답은 96.0%이고, ‘관심이 없다’ (전혀 0.0% + 별로 4.0%)는 응답은 4.0%임.

〈그림 4-4-1〉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문) 귀하는 평소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2. 국민들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의견

-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5명은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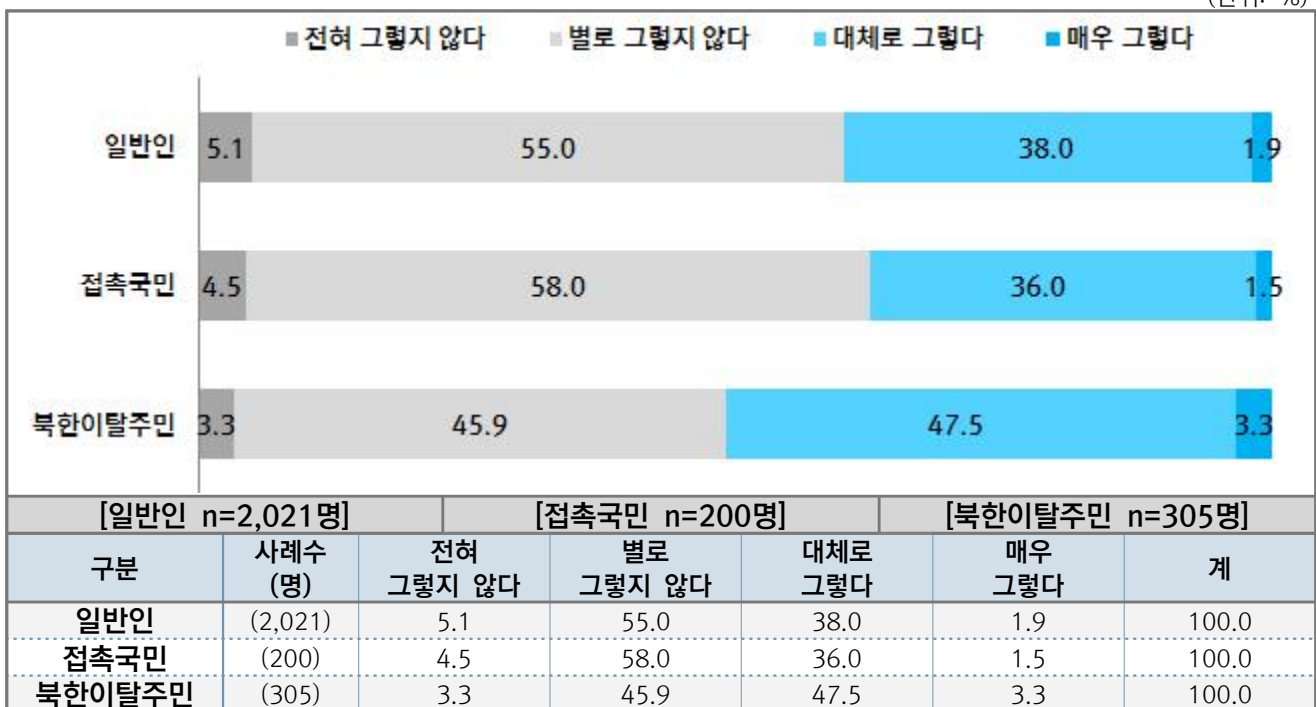
일반인의 55.0%, 접촉국민의 58.0%, 북한이탈주민의 45.9%는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그렇다’ (매우 1.9% + 대체로 38.0%)는 응답은 39.9%이고, ‘그렇지 않다’ (전혀 5.1% + 별로 55.0%)는 응답은 60.1%임.
- ▶ 접촉국민 경우 ‘그렇다’ (매우 1.5% + 대체로 36.0%)는 응답은 37.5%이고, ‘그렇지 않다’ (전혀 4.5% + 별로 58.0%)는 응답은 62.5%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그렇다’ (매우 3.3% + 대체로 47.5%)는 응답은 50.8%이고, ‘그렇지 않다’ (전혀 3.3% + 별로 45.9%)는 응답은 49.2%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그렇다’ (매우 0.0% + 대체로 30.0%)는 응답은 30.0%이고, ‘그렇지 않다’ (전혀 2.0% + 별로 68.0%)는 응답은 70.0%임.

〈그림 4-4-2〉 국민들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문]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는 ‘비속어,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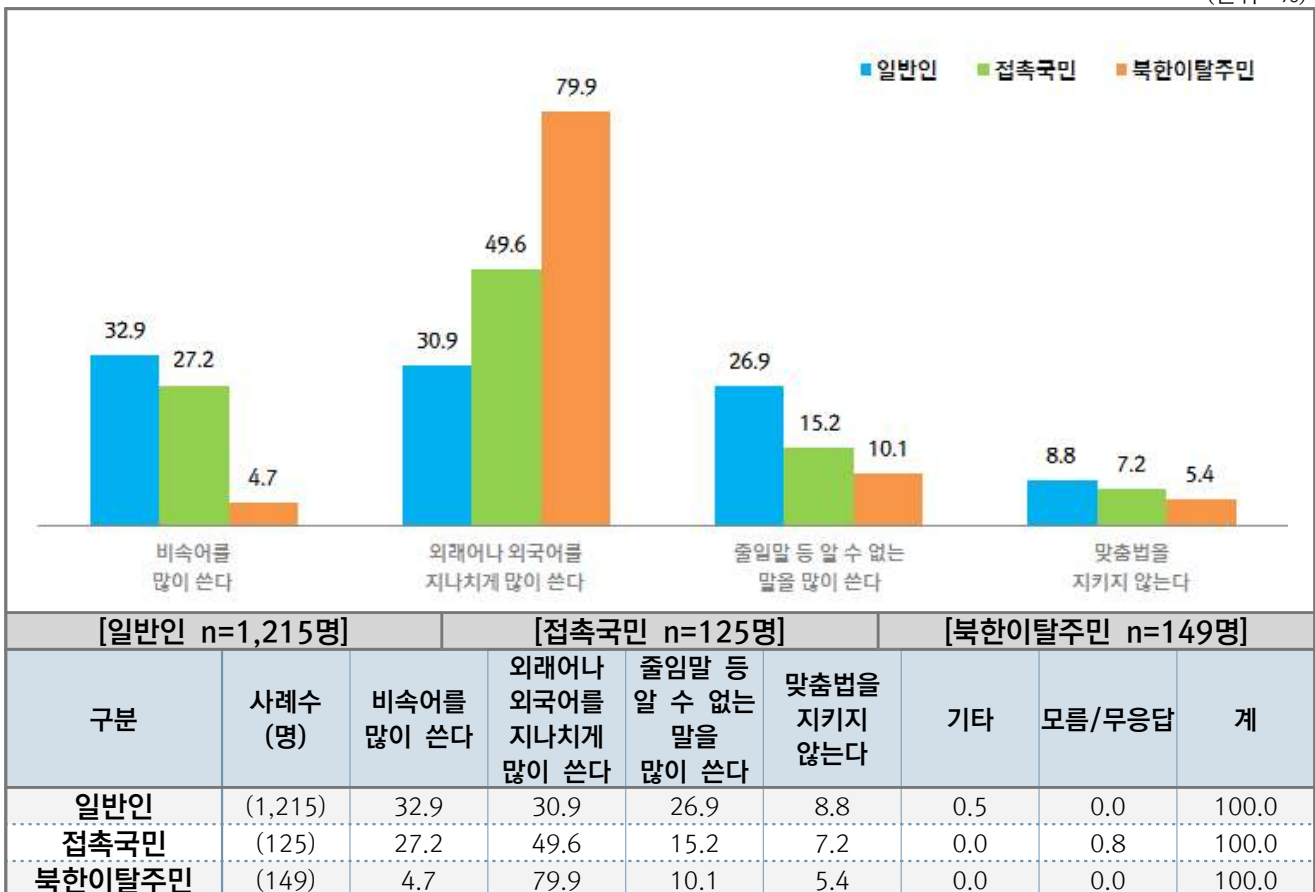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이 비속어와 외래어,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비속어를 많이 쓴다’ (32.9%),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 (30.9%) 등의 순임.
- ▶ 접촉국민 경우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 (49.6%), ‘비속어를 많이 쓴다’ (27.2%)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 (79.9%), ‘줄임말 등 알 수 없는 말을 많이 쓴다’ (10.1%)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 (54.3%), ‘줄임말 등 알 수 없는 말을 많이 쓴다’ (31.4%) 등의 순임.

〈그림 4-4-3〉 국민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

(단위: %)



문] 우리 국민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남한생활 만족도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76.1%는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반면, 2.0%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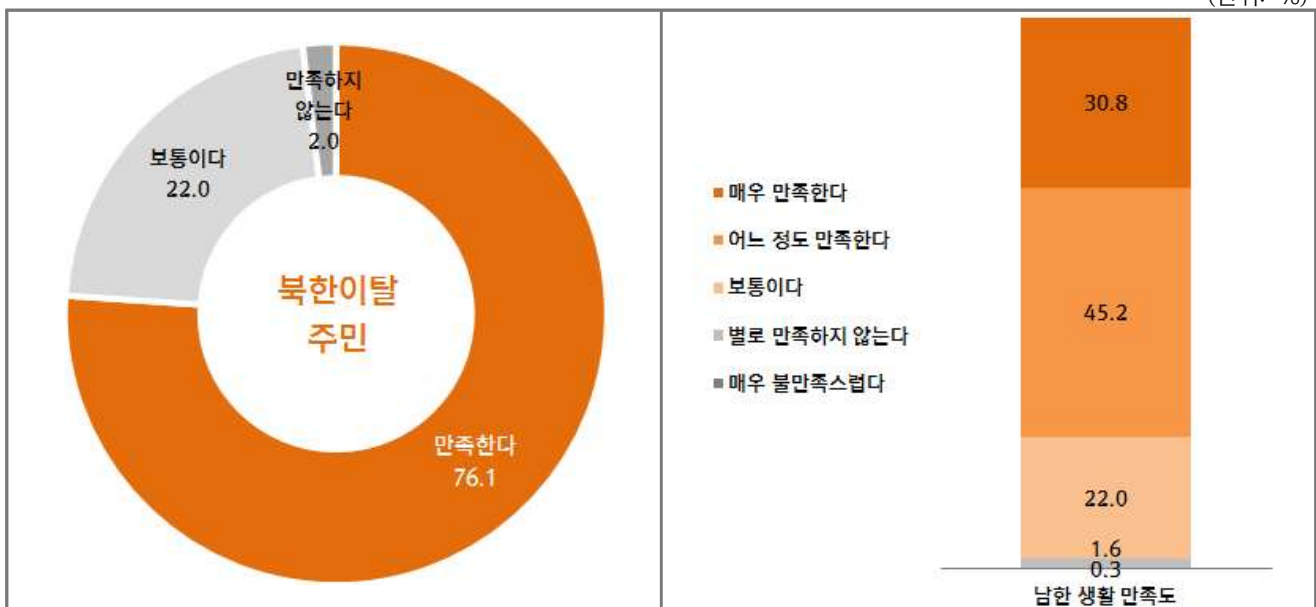
▶ ‘만족한다’ (매우 30.8% + 어느 정도 45.2%)는 응답은 76.1%이고,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0.3% + 별로 1.6%)는 응답은 2.0%임.

▶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남한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라는 응답이 100.0%임.

〈그림 4-4-4〉 남한생활 만족도

(단위: %)



[북한이탈주민 n=305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스럽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계
북한이탈주민	(305)	0.3	1.6	22.0	45.2	30.8	100.0

문] 남한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 그렇다면 남한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 통일에 대한 생각

☑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인과 접촉국민에 비해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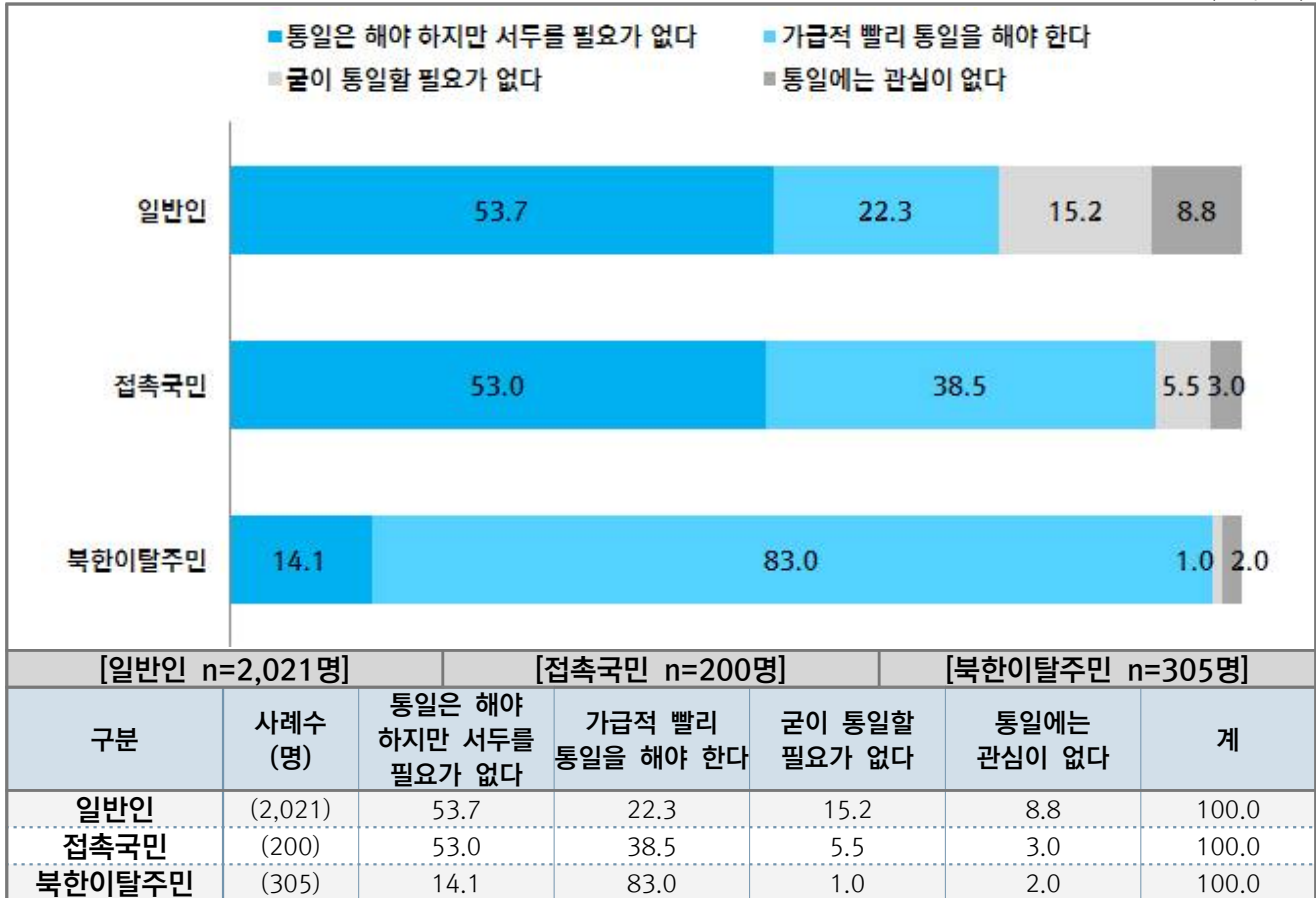
일반인과 접촉국민 10명 중 5명은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53.7%),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22.3%) 등의 순임.
- ▶ 접촉국민 경우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53.0%),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38.5%)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83.0%),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14.1%)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0.0%,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40.0%임

〈그림 4-4-5〉 통일에 대한 생각

(단위: %)



문]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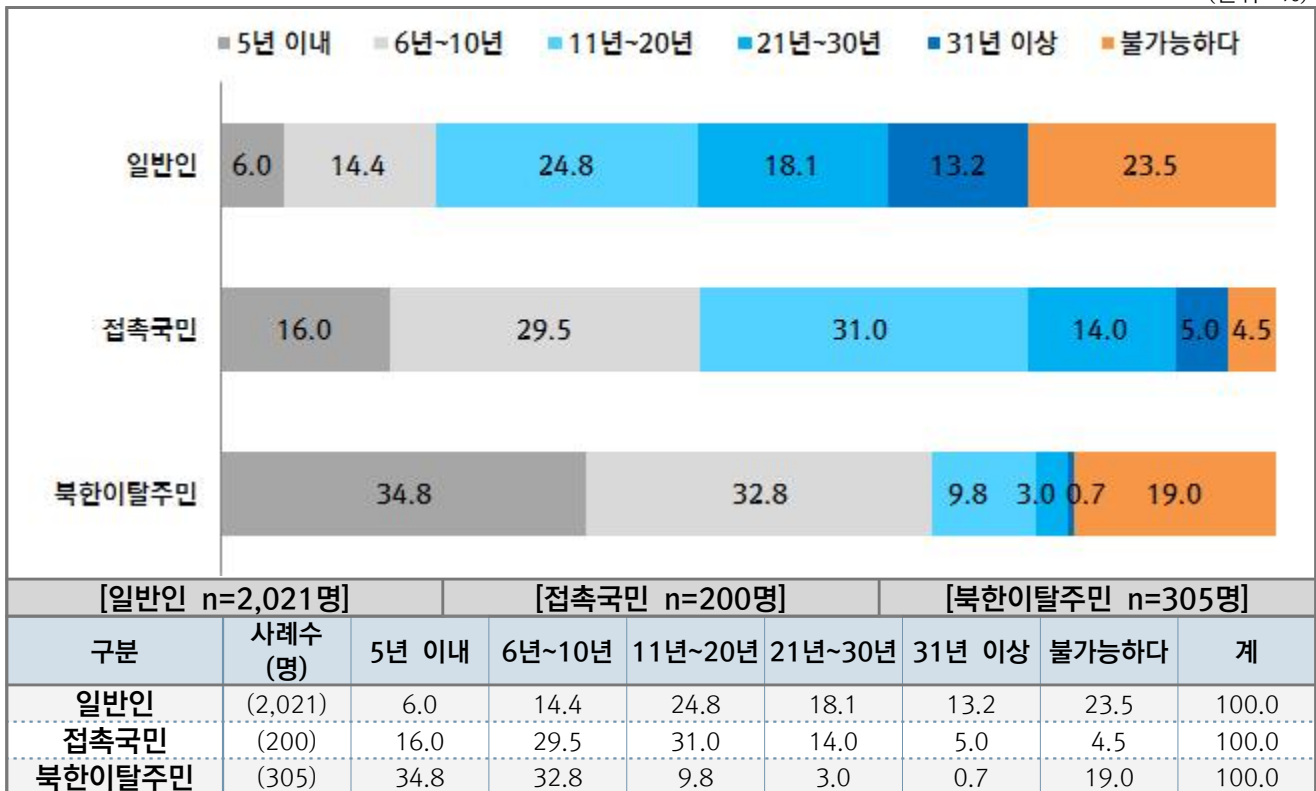
- ☑ 일반인과 접촉국민은 11년~20년, 북한이탈주민은 5년 이내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24.8%, 접촉국민의 31.0%는 11년~20년 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34.8%는 5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 일반인의 경우 ‘11년~20년’ (24.8%), ‘불가능하다’ (23.5%), ‘21년~30년’ (18.1%) 등의 순임.
 - ▶ 접촉국민의 경우 ‘11년~20년’ (31.0%), ‘6년~10년’ (29.5%), ‘5년 이내’ (16.0%) 등의 순임.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5년 이내’ (34.8%), ‘6년~10년’ (32.8%), ‘불가능하다’ (19.0%) 등의 순임.
 - ▶ 전문가 조사에서는 ‘11년~20년’ (30.0%), ‘6~10년’, ‘31년 이상’ (각 20.0%) 등의 순임.

〈그림 4-4-6〉 통일 가능 시점

(단위: %)



문]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V. 심층 면접 조사 결과

1. 남북 언어 차이

○ 대부분의 전문가가 남북 언어의 이질화를 인지함.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다르게 생각함.

- ▶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견해 차이를 보임. 이질화는 어휘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를 넘어서 화용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음. ‘북한어와 남한어의 논리적 구조가 정말 다르다. 문어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해서 책이나 논문들은 거의 번역이 필요한 수준이다’.
- ▶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어에 대한 남한의 연구 부족을 언급함. ‘얼음보숭이’와 같이 <조선말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순화어를 북한어로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함. 이는 북한어에 대한 기초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고, 부족한 연구도 문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 ▶ 언어규범에 대해서는 통일 후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남북한의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어문 규범이 아니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어휘, 특히 외국어 사용 문제.’

○ 이질화의 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 차이를 보임.

- ▶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임. 다소의 교육은 필요하지만 무리 없이 소통할 수 있음. ‘단어, 어휘의 차이는 일상생활, 미디어 노출, 교육 등에 의하여 비교적 빨리 해결될 것임’. ‘북한 학자들과 교류해 왔지만 소통이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 ‘일부 전문 용어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간단한 사전 교육으로 쉽게 소통할 수 있다.’
- ▶ 위와 달리 이질화가 매우 심각하여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전문 용어의 이질화로 남북한 의사가 공동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 ‘익숙한 언어적 논리가 아예 다른 것 같다’, ‘대략적인 의미는 알아듣고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거나 사투리가 섞인 말투를 알아듣는 것은 거의 하지 못한다.’

○ 통일 대비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해결 방안

- ▶ ‘차이’보다 ‘동일성’을 강조하는 방안, 또는 다문화 ‘공존’, ‘포용’에 대한 사회 인식 재고와 교육이 필요함.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 차별의 정도와 원인

- ▶ 심한 차별을 겪는다고 응답함. 차별의 원인으로 사회의 비관용적 태도나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인식을 꼽음. 즉,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어를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여러 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는 톨레랑스가 매우 부족한 사회로, 북한이탈주민은 소수자이며 정치적 난민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겪는다.’와 같이 응답함.
- ▶ 우리 사회의 방언 화자들도 언어 차별을 드물지 않게 경험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더 심하게 차별을 겪을 것으로 여김.
- ▶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본인의 출신을 조선족으로 가장하거나, 결혼이나 연애와 같은 사회관계에서도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음.

○ 차별 개선 방향

- ▶ 북한이탈주민 더 나아가 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인식 개선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여김. 구체적으로는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북한 이미지 왜곡 개선,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 운동이나 교육 등을 언급함.
- ▶ 북한어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함. 북한어 연구자가 극소수임.
- ▶ 미디어에서 북한 말씨를 사용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노출. 미디어에서 북한어를 재현하는 경우 북한어 전문가의 자문 필요. 통일 후 ‘공영 방송의 저녁 뉴스에 더블 앵커를 두고 그들을 각각 남북한 출신으로 구성하여 국가가 이제 통일을 이루어 이런 식으로 방송도 다루어진다는 식의 상징적 모습을 보이는 것’
- ▶ 이중 언어 교육과 같이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어(통일 이후의) 교육 및 지역어 교육을 공존할 수 있음.
- ▶ ‘초등 교과(3~4학년)에서의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포용을 포함한 다문화 교육 강화.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를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필요’, ‘인격 교육, 평등 교육이 필요함’, ‘차이보다 동질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
- ▶ ‘북한이탈주민과 접촉자는 탈북 지원 부서, 지원 센터에서 담당자에게 북한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과 재교육

○ 언어 적응의 중요성 및 북한이탈주민 소통 문제

-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언어 문제는 매우 중요함. 다만 소통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마다 온도 차가 있음.
- ▶ ‘남한어에서 외래어를 많이 쓴다’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부족 문제를 어휘 문제로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음. 북한어 역시 적지 않은 외래어가 사용되나 이를 외래어로 인지하지 못함.

○ 북한이탈주민 재교육의 필요성

- ▶ 대부분의 전문가가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외국어 외래어 등에 대해서는 특히 구체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재교육 방안

- ▶ 교육 주체: ‘현행 산발적 언어 교육을 대신할 구심점 있는 언어 정책 기관을 수립하여, 그곳에서 언어 교육 내용 및 방안을 마련할 것’, ‘대학 등이 구심점이 되고, 이를 거점화하여 재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 ‘북한이탈주민의 자체적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 등이 제시됨. ‘하나원에서 교육 내용이 추가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의 재교육이 필요함.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공교육 체계 내에서 이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함.’
- ▶ 교육 내용: 대부분의 전문가가 교육 내용의 세분화를 중시함. 또한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강사 교육을 통한 북한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강조함. ‘학습단계별(초·중·고급)’, ‘분야별(정치, 경제, 교육 등)’ 등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

4. 통일 대비 언어 정책

○ 정책 기관의 필요성

- ▶ ‘거시적인 언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구심점(컨트롤타워)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 없다. 국립국어원이나 대학 연구기관의 활용.

○ 언어 정책 수립 방향

- ▶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언어 정책 수립. 정치 상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또한 언어만의 정책이 아닌 언어문화 복합 정책이 필요함.
- ▶ ‘국립국어원의 연구원 기능 강화 및 위상 재정립, 북한어 연구 및 남북한 언어 조사 강화, 한민족 언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언어 정책 수립’
- ▶ ‘통일 시대의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통일 어문 규범, 통일 국어사전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남북의 어휘가 어떻게 다른지, 규범이 어떻게 다른지, 언어 통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언어 통일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남북 언어 규범 단일화, 순화어 협의 등
- ▶ 남북한 교류 증대, 관련 법안 정비
- ▶ 언어 관련 기초 자료 조사 강화. ‘실제로 사용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교육 자료들의 수준이나 내용들을 보면 기초 자료 조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국어학자들이 북한어를 한국어로 인식하지 않는다. 말뭉치 연구에서 북한어를 말뭉치에 함께 넣어 연구하지 않는 등 북한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북한어를 연구하는 연구 기관도 없다. 북한 문제 연구소는 많아도 대부분 정치 연구소.’
- ▶ 북한어 전문가 양성.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함. 학술적으로 북한어를 연구하는 연구자 및 북한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수자도 필요함.

부록 조사 설문지



ID				
----	--	--	--	--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설문지

설문-가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2016 남북 언어의식 조사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남북 언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향후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사에서 여쭙보는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무엇이 몇 %' 하는 식으로 집계될 뿐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조사기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Hankook Research

연 락 처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Tel: 02-3014-0099 / Fax: 02-3014-1050)

이 름		주 소	신주소:
전화번호	- -		구주소: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_____세 ※만 18세 미만 조사 종료
지 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거주지 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 도시 ③ 군		
면접 일시	월 일	면접 시작 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 종료 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원 ID		면접원	
검증 결과			



1. 남북 언어 인식

문1 북한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보셨습니까? 해당되는 경로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 [illegible]

문2 평소 ‘북한말’에 대해 어떤 느낌,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떠오르는 단어, 느낌 등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말’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라도 북한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느낌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3 평소 북한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중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중하다	①	②	③	④
2) 차분하다	①	②	③	④
3) 세련되다	①	②	③	④
4) 부드럽다	①	②	③	④
5) 듣기 좋다	①	②	③	④
6) 순박하다	①	②	③	④
7) 강하다	①	②	③	④
8) 느리다	①	②	③	④
9) 가볍다	①	②	③	④
10) 낯설다	①	②	③	④
11) 품위가 없다	①	②	③	④
12) 장황하다	①	②	③	④
13) 불친절하다	①	②	③	④

문4 평소 우리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중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중하다	①	②	③	④
2) 차분하다	①	②	③	④
3) 세련되다	①	②	③	④
4) 부드럽다	①	②	③	④
5) 듣기 좋다	①	②	③	④
6) 순박하다	①	②	③	④
7) 강하다	①	②	③	④
8) 느리다	①	②	③	④
9) 가볍다	①	②	③	④
10) 낯설다	①	②	③	④
11) 품위가 없다	①	②	③	④
12) 장황하다	①	②	③	④
13) 불친절하다	①	②	③	④

문5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5) 직설적으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문6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5) 직설적으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문7 북한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 ① 본질적으로 우리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②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 ③ 영어나 일본어처럼 외국어라고 생각한다

문8 남한말과 비교할 때 북한말이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
- ② 고유어(순우리말)를 많이 쓴다
- ③ 맞춤법 등 표기법이 다르다
- ④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쓴다
- ⑤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 ⑥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
- ⑦ 기타()

문9 아래에 제시된 단어 A와 단어 B 가운데 현재의 어문 규범에 상관없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A	①	②	단어 B
1) 이발소	①	②	리발소
2) 백분률	①	②	백분율
3) 연말연시	①	②	년말년시
4) 나무잎	①	②	나뭇잎
5) 귀가길	①	②	귀갓길
6) 최소값	①	②	최솟값
7) 커튼	①	②	카텐
8) 쇼파	①	②	소파
9) 로봇	①	②	로보트
10) 파리(Paris)	①	②	빠리(Paris)
11) 레스링	①	②	레슬링
12) 고마워요	①	②	고마와요
13) 먹을가요	①	②	먹을까요
14) (배우가) 되었습니다	①	②	(배우가) 되었습니다
15) 폐쇄	①	②	폐쇄
16) 부력	①	②	뜰힘
17) 광합성	①	②	빛합성
18) 야구 장갑	①	②	야구 글러브

문10 아래에 제시된 단어 A와 단어 B는 남북한에서 다르게 쓰는 한글 자모의 이름입니다. 현재의 어문 규범에 상관없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A	①	②	단어 B
1) 기억	①	②	기억
2) 시옷	①	②	시옷
3) 디읃	①	②	디글
4) 쌍비읍	①	②	뒸비읍

문11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차이가 있다
- ② 약간 차이가 있다
- ③ 별로 차이가 없다
- ④ 전혀 차이가 없다



II. 남북한 소통 문제

문12 다른 지역 방언(사투리)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①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②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③ 어느 정도 불편하고 낯설다 ④ 매우 불편하고 낯설다
⑤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문13 평소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이익이 된다 ②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
③ 어느 정도 불이익이 된다 ④ 매우 불이익이 된다
⑤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14 평소 말씨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15 표준어로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16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④ 기타()

문17 자녀가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길 바라십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해 주십시오.

- ①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 ② 지역 방언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 ③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
- ④ 기타()

문18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①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②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③ 어느 정도 불편하고 낯설다 ④ 매우 불편하고 낯설다
⑤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문19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북한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북한말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표준어든 북한말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④ 기타()

문20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방송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②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③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④ 기타()

문21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 야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매우 긍정적이다	약간 긍정적이다	중립적이다	약간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1) 보도(뉴스)	①	②	③	④	⑤
2) 시사교양	①	②	③	④	⑤
3) 드라마	①	②	③	④	⑤
4) 예능	①	②	③	④	⑤

문22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한다
- ②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 ③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질감을 강화한다
- ④ 북한말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한다
- ⑤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한다
- ⑥ 기타()

문23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24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문24-1**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문24-1**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문25**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25**

문24-1 (문24의 1, 2번 응답자만)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발음과 억양
- ② 단어와 표현
- ③ 언어예절과 화법
- ④ 사회·문화적 지식
- ⑤ 기타()



Ⅲ. 통일 대비 언어정책

문25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
- ② 경제
- ③ 문화
- ④ 언어

문26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
- ② 경제
- ③ 문화
- ④ 언어

문27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 | | |
|--------------|--|--------------|--|
| ① 매우 필요하다 |  문27-1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문27-1 |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문28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28 |

문27-1 (문27의 1, 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 ② 통일 후에 하는 것이 좋다
- ③ 통일 전후 어느 때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문28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노력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
| ③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 ④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

문29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발음이나 억양
- ② 단어 사용이나 표현
- ③ 맞춤법 등의 표기법
- ④ 높임법이나 화법 등의 언어예절
- ⑤ 전문용어나 공공언어
- ⑥ 기타()

문30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할 사전을 편찬한다
- ② 남북한의 일상용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든다
- ③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④ 학교에서 통일 관련 언어 교육을 강화한다
- ⑤ 차이가 많이 나는 공공언어나 전문용어를 통합 · 정비한다
- ⑥ 북한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 ⑦ 북한말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
- ⑧ 기타()

문31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르쳐야 한다 **문32**
- ② 가르칠 필요가 없다 **문31-1**
- ③ 잘 모르겠다 **문32**

문31-1 (문31의 2번 응답자만)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한 사람만 북한말을 배우면 되므로
- ②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
- ③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 ④ 기타()

문32 남한말과 북한말을 통합한다면 통합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 ② 북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 ③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통합한다



IV. 배경질문

배문1 태어난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 ⑰ 세종 | ⑱ 외국 | ⑲ 기타 | |





배문2 학교를 어느 과정까지 마치셨습니까?(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① 안 다녔음 | ② 초등학교 졸업 |
| ③ 중학교 졸업(재학) | ④ 고등학교 졸업(재학) |
| ⑤ 대학 졸업(재학) | ⑥ 대학원 재학 이상 |

배문3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 ② 자영업(종업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택시 기사 등)
- ③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판매원, 세일즈맨 등)
- ④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운전사, 선반, 목공 숙련공 등)
- ⑤ 단순 노무자(단순 노무, 수위 등)
- ⑥ 고위 공직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급 이상 공무원/교장/기업체 부장 이상)
- ⑦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언론인, 연구원 등)
- ⑧ 기술직 및 준전문직(기술직, 초/중/고 교사, 5급 공무원 등)
- ⑨ 일반 사무직(일반 회사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사무직 등)
- ⑩ 전업주부
- ⑪ 학생
- ⑫ 무직/퇴직/기타

배문4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배문5
- ② 기혼  배문4-1
- ③ 이혼  배문4-1
- ④ 사별(배우자 사망)  배문4-1

배문4-1 현재 자녀가 있습니까?

- | | |
|---------|---------|
| ① 자녀 있음 | ② 자녀 없음 |
|---------|---------|

배문5 현재 한 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
| ③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④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 ⑤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 ⑥ 500만 원 이상 |

배문6 귀하는 평소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배문7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배문8**
 ② 대체로 그렇다 **배문8**
 ③ 별로 그렇지 않다 **배문7-1**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배문7-1**

배문7-1 (배문7의 3, 4번 응답자만) 우리 국민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
 ②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
 ③ 비속어를 많이 쓴다
 ④ 줄임말 등 알 수 없는 말을 많이 쓴다
 ⑤ 기타()

배문8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②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③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④ 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배문9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5년 이내 | ② 6년~10년 |
| ③ 11년~20년 | ④ 21년~30년 |
| ⑤ 31년 이상 | ⑥ 불가능하다 |

ID				
----	--	--	--	--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설문지

설문-나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2016 남북 언어의식 조사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남북 언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향후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사에서 여쭙보는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무엇이 몇 %' 하는 식으로 집계될 뿐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조사기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Hankook Research

연락처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Tel : 02-3014-0099 / Fax : 02-3014-1050)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_____세 ※만 18세 미만 조사 종료		
지 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거주지 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 도시 ③ 군				
면접 일시	월 일	면접 시작 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 종료 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원 ID			면접원		
검증 결과					



1. 남북 언어 인식

문1 북한에서 남한말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접해 본 적이 있다  **문1-1** ② 접해 본 적이 없다  **문2**

문1-1 (문1의 1번 응답자만) 북한에서 남한말을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경로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TV, 라디오, 신문, 잡지 ② 한국 영화나 드라마
③ 대북 전단지(빠라) ④ 한국산 상품
⑤ 기타()

문1-2 북한에 계실 때 남한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말과 매우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다
- ② 북한말과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다
- ③ 북한말과 약간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 ④ 북한말과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문1-3 남한에 온 후에 남한말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① 매우 편하고 친근해졌다
- ② 조금 더 편하고 친근해졌다
- ③ 변화가 없다
- ④ 조금 더 불편하고 낯설어졌다
- ⑤ 매우 불편하고 낯설어졌다

문2 평소 남한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중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중하다	①	②	③	④
2) 차분하다	①	②	③	④
3) 세련되다	①	②	③	④
4) 부드럽다	①	②	③	④
5) 듣기 좋다	①	②	③	④
6) 순박하다	①	②	③	④
7) 강하다	①	②	③	④
8) 느리다	①	②	③	④
9) 가볍다	①	②	③	④
10) 낮설다	①	②	③	④
11) 품위가 없다	①	②	③	④
12) 장황하다	①	②	③	④
13) 불친절하다	①	②	③	④

문3 평소 북한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중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중하다	①	②	③	④
2) 차분하다	①	②	③	④
3) 세련되다	①	②	③	④
4) 부드럽다	①	②	③	④
5) 듣기 좋다	①	②	③	④
6) 순박하다	①	②	③	④
7) 강하다	①	②	③	④
8) 느리다	①	②	③	④
9) 가볍다	①	②	③	④
10) 낯설다	①	②	③	④
11) 품위가 없다	①	②	③	④
12) 장황하다	①	②	③	④
13) 불친절하다	①	②	③	④

문4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5) 직설적으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문5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5) 직설적으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문6 남한말과 비교할 때 북한말이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
- ② 고유어(순우리말)를 많이 쓴다
- ③ 맞춤법 등 표기법이 다르다
- ④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쓴다
- ⑤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 ⑥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
- ⑦ 기타()

문7 남한에서 지역 방언(사투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본 적이 있다 **문7-1** ② 들어본 적이 없다 **문8**

문7-1 (문7의 1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남한의 지역 방언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 ① 어느 지역 방언인지 구별할 수 있다
- ②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정도만 구별할 수 있다
- ③ 들어도 구별할 수 없다

문8 남한말과 북한말은 맞춤법 등 표기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문9 아래에 제시된 단어 A와 단어 B 가운데 현재의 어문 규범에 상관없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A	①	②	단어 B
1) 이발소	①	②	리발소
2) 백분률	①	②	백분율
3) 연말연시	①	②	년말년시
4) 나무잎	①	②	나뭇잎
5) 귀가길	①	②	귀갓길
6) 최소값	①	②	최솟값
7) 커튼	①	②	카텐
8) 쇼파	①	②	소파
9) 로봇	①	②	로보트
10) 파리(Paris)	①	②	빠리(Paris)
11) 레스링	①	②	레슬링
12) 고마워요	①	②	고마와요
13) 먹을가요	①	②	먹을까요
14) (배우가) 되었습니다	①	②	(배우가) 되었습니다
15) 폐쇄	①	②	폐쇄
16) 부력	①	②	뜰힘
17) 광합성	①	②	빛합성
18) 야구 장갑	①	②	야구 글러브

문10 아래에 제시된 단어 A와 단어 B는 남북한에서 다르게 쓰는 한글 자모의 이름입니다. 현재의 어문 규범에 상관없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A	①	②	단어 B
1) 기억	①	②	기억
2) 시웃	①	②	시웃
3) 디웃	①	②	디글
4) 쌍비읍	①	②	뒸비읍





문11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②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 ③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④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 ⑤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문12 자녀가 남한말과 북한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길 바라십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해 주십시오.

- ① 남한말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② 북한말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③ 남한말과 북한말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

문13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차이가 있다  **문13-1**
 ② 약간 차이가 있다  **문13-1**
 ③ 별로 차이가 없다  **문14**
 ④ 전혀 차이가 없다  **문14**





문13-1 (문13의 1, 2번 응답자만)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발음이나 억양
 ② 단어 사용이나 표현
 ③ 맞춤법 등의 표기법
 ④ 높임법이나 화법 등의 언어예절
 ⑤ 전문용어나 공공언어
 ⑥ 기타()



II. 남북한 소통 문제

문14 귀하는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문14-2**
 ② 대체로 그렇다  **문14-2**
 ③ 별로 그렇지 않다  **문14-1**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14-1**

문14-1 (문14의 3, 4번 응답자만)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 ② 북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
- ③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 ④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서
- ⑤ 대화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 ⑥ 기타()

문14-2 남한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 ①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이다
- ② 문맥 혹은 정황으로 대강 파악하고 넘어가는 편이다
- ③ 몰라도 아는 척하고 대강 넘어가는 편이다
- ④ 내용 파악을 위해 굳이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 ⑤ 기타()

문14-3 남한말 중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 ① 인터넷이나 사전을 검색해서 뜻을 알아본다
- ② 주변 남한 사람이나 먼저 온 이탈주민에게 물어본다
- ③ 뜻을 알기 위해 굳이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 ④ 기타()

문15 남한 사람들이 귀하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문15-2**
- ② 대체로 그렇다 **문15-2**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문15-1**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15-1**

문15-1 (문15의 3, 4번 응답자만)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골라 주십시오.

- ①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 ②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
- ③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 ④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서
- ⑤ 대화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 ⑥ 기타()

문15-2 남한 사람들이 귀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 ① 내용 파악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되물어 보는 편이다
- ② 되물어 보면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 ③ 상대방이 되물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 ④ 이해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 ⑤ 기타()

문16 남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골라 주십시오.

대화 상황	매우 많았다	어느 정도 있었다	별로 없었다	전혀 없었다
1) 내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였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마치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직접적으로 거절 했더니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불쾌해하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5) 사과를 직접적으로 바로 했더니 상대방이 당황해하였다	①	②	③	④
6) 상대방이 칭찬을 했는데 내가 칭찬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7) 상대방과 약속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약속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8)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문17 귀하의 말씨 때문에 남한에서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18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19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 ① 매우 노력하였다
- ② 다소 노력하였다
- ③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 ④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문23 다음의 말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목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1) 새롭게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	①	②	③	④
2) 줄여 쓰는 말	①	②	③	④

문24 방송에서 남한 방송인이 흥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주민이 쓰는 말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차이가 난다  **문24-1**
- ②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문24-1**
- ③ 별로 차이가 없다  **문25**
- ④ 전혀 차이가 없다  **문25**

문24-1 (문24의 1, 2번 응답자만) 남한 방송에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난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발음과 억양이 어색해서
- ② 북한에서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서
- ③ 사과, 칭찬, 질문,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 ④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서
- ⑤ 기타()

문25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방송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 ②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 ③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 ④ 기타()

문26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 야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매우 긍정적이다	약간 긍정적이다	중립적이다	약간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1) 보도(뉴스)	①	②	③	④	⑤
2) 시사교양	①	②	③	④	⑤
3) 드라마	①	②	③	④	⑤
4) 예능	①	②	③	④	⑤

문26-1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한다
- ②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 ③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질감을 강화한다
- ④ 북한말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한다
- ⑤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한다
- ⑥ 기타()

문27 남한말에 대한 교육을 더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문27-1**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문27-1**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문28**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28**

문27-1 (문27의 1, 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남한말의 어떤 부분을 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발음과 억양
- ② 단어와 표현
- ③ 언어예절과 화법
- ④ 사회·문화적 지식
- ⑤ 기타()

문28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년 이내
- ② 2년~3년
- ③ 4년~5년
- ④ 6년~7년
- ⑤ 8년~10년
- ⑥ 10년 이상

문29 남한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문30**
- ② 어느 정도 만족한다 **문30**
- ③ 보통이다 **문30**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문29-1**
-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29-1**

문29-1 (문29의 4, 5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남한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Ⅲ. 통일 대비 언어정책

문30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정치 | ② 경제 |
| ③ 문화 | ④ 언어 |

문31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정치 | ② 경제 |
| ③ 문화 | ④ 언어 |

문32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 | | |
|--------------|--------------|--------------|--------------|
| ① 매우 필요하다 | 문32-1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문32-1 |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문33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33 |

문32-1 (문32의 1, 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② 통일 후에 하는 것이 좋다
 ③ 통일 전후 어느 때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문33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노력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
| ③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 ④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

문34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발음이나 억양
 ② 단어 사용이나 표현
 ③ 맞춤법 등의 표기법
 ④ 높임법이나 화법 등의 언어예절
 ⑤ 전문용어나 공공언어
 ⑥ 기타()



IV. 배경질문

배문1 북한에서 태어난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① 함북도 | ② 함남도 | ③ 평양 | ④ 평남도 |
| ⑤ 평북도 | ⑥ 강원도 | ⑦ 양강도 | ⑧ 황남도 |
| ⑨ 황북도 | ⑩ 자강도 | ⑪ 기타 | |

배문2 주로 사용하는 말은 어느 지역의 말입니까?

- | | | | |
|---------|---------|---------|---------|
| ① 함북도 말 | ② 함남도 말 | ③ 평양 말 | ④ 평남도 말 |
| ⑤ 평북도 말 | ⑥ 강원도 말 | ⑦ 양강도 말 | ⑧ 황남도 말 |
| ⑨ 황북도 말 | ⑩ 자강도 말 | ⑪ 남한말 | ⑫ 기타 |

배문3 언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까?

입국 연도 ()년

배문4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 | | |
|----------------------|----------|
| ① 제3국에서 거주한 적 없음(직행) | ② 6개월 미만 |
| ③ 6개월~12개월 | ④ 1년~2년 |
| ⑤ 2년~3년 | ⑥ 3년~4년 |
| ⑦ 4년~5년 | ⑧ 5년~6년 |
| ⑨ 6년~7년 | ⑩ 7년~8년 |
| ⑪ 8년~9년 | ⑫ 10년 이상 |

배문5 북한에서 학교를 어느 과정까지 마치셨습니까?(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 ① 무학 | ② 인민학교 | ③ 고등중학교 |
| ④ 기능공학교 | ⑤ 전문학교 | ⑥ 대학교 |
| ⑦ 대학원(연구생) 이상 | | |

배문6 남한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어느 과정까지 마치셨습니까?(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① 안 다녔음 | ② 초등학교 졸업 |
| ③ 중학교 졸업(재학) | ④ 고등학교 졸업(재학) |
| ⑤ 대학 졸업(재학) | ⑥ 대학원 재학 이상 |

배문7 북한에서 가장 오래한 직업 또는 주로 한 직업은 무엇입니까?(1개만 선택)

- | | | |
|------------------|------------------|-----------|
| ① 농업 근로자 | ② 고기잡이 | ③ 광산 노동자 |
| ④ 기업소 노동자 | ⑤ 사무원 | ⑥ 교원 |
| ⑦ 의사/간호원/조산원/약사 | ⑧ 연구원/기술자 | ⑨ 봉사원 |
| ⑩ 군인 | ⑪ 문화 · 체육 · 예술부문 | ⑫ 지도원/당일꾼 |
| ⑬ 장마당 장사 | ⑭ 외화벌이 | ⑮ 주부 |
| ⑯ 학생 | ⑰ 은퇴/무직 | |
| ⑱ 그 외 (구체적으로 :) | | |

배문8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 ② 자영업(종업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택시 기사 등)
- ③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판매원, 세일즈맨 등)
- ④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운전사, 선반, 목공 숙련공 등)
- ⑤ 단순 노동자(단순 노동, 수위 등)
- ⑥ 고위 공직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급 이상 공무원/교장/기업체 부장 이상)
- ⑦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언론인, 연구원 등)
- ⑧ 기술직 및 준전문직(기술직, 초/중/고 교사, 5급 공무원 등)
- ⑨ 일반 사무직(일반회사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사무직 등)
- ⑩ 전업주부
- ⑪ 학생
- ⑫ 무직/퇴직/기타

배문9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미혼  **배문10**
- ② 기혼  **배문9-1**
- ③ 이혼  **배문9-1**
- ④ 사별(배우자 사망)  **배문9-1**

배문9-1 배우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 | | | | |
|------|------|------|-------|
| ① 남한 | ② 북한 | ③ 중국 | ④ 제3국 |
|------|------|------|-------|

배문9-2 현재 남한에 자녀가 있습니까?

- | | |
|---------|---------|
| ① 자녀 있음 | ② 자녀 없음 |
|---------|---------|


배문10 현재 한 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르바이트 수입, 정부 지원금 및 후원금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
| ③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④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 ⑤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 ⑥ 500만 원 이상 |

배문11 귀하는 평소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
|-------------|----------------|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 ②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
| ③ 별로 관심이 없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다 |

배문12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그렇다  배문13 | ② 대체로 그렇다  배문13 |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배문12-1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배문12-1 |

배문12-1 (배문12의 3, 4번 응답자만) 우리 국민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
- ②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
- ③ 비속어를 많이 쓴다
- ④ 줄임말 등 알 수 없는 말을 많이 쓴다
- ⑤ 기타()

배문13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 ②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 ③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 ④ 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배문14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5년 이내 | ② 6년~10년 |
| ③ 11년~20년 | ④ 21년~30년 |
| ⑤ 31년 이상 | ⑥ 불가능하다 |

배문15 북한에 거주하실 때 조선노동당 당원이셨습니까?

- | | |
|-----|-------|
| ① 예 | ② 아니오 |
|-----|-------|

ID				
----	--	--	--	--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설문지

설문-다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2016 남북 언어의식 조사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남북 언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향후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사에서 여쭙보는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무엇이 몇 %' 하는 식으로 집계될 뿐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조사기관



Hankook Research

연락처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Tel: 02-3014-0099 / Fax: 02-3014-1050)

이름			주소	신주소:
전화번호	- -			구주소: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_____세 ※만 18세 미만 조사 종료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거주지 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 도시 ③ 군			
북한이탈주민 주된 접촉 장소	① 이웃 및 주변 지인 ② 교회 등 종교 시설 ③ 학교나 직장 ④ 사회봉사 단체나 시민 단체 ⑤ 배우자 ⑥ 기타()			
면접 일시	월 일	면접 시작 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 종료 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원 ID	면접원			
검증 결과				



문1 북한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보셨습니까? 해당되는 경로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 문2** 평소 ‘북한말’에 대해 어떤 느낌,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떠오르는 단어, 느낌 등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말’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라도 북한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느낌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중하다	①	②	③	④
2) 차분하다	①	②	③	④
3) 세련되다	①	②	③	④
4) 부드럽다	①	②	③	④
5) 듣기 좋다	①	②	③	④
6) 순박하다	①	②	③	④
7) 강하다	①	②	③	④
8) 느리다	①	②	③	④
9) 가볍다	①	②	③	④
10) 낯설다	①	②	③	④
11) 품위가 없다	①	②	③	④
12) 장황하다	①	②	③	④
13) 불친절하다	①	②	③	④

문4 평소 우리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중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중하다	①	②	③	④
2) 차분하다	①	②	③	④
3) 세련되다	①	②	③	④
4) 부드럽다	①	②	③	④
5) 듣기 좋다	①	②	③	④
6) 순박하다	①	②	③	④
7) 강하다	①	②	③	④
8) 느리다	①	②	③	④
9) 가볍다	①	②	③	④
10) 낯설다	①	②	③	④
11) 품위가 없다	①	②	③	④
12) 장황하다	①	②	③	④
13) 불친절하다	①	②	③	④

문5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5) 직설적으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문10 남한말과 비교할 때 북한말이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
- ② 고유어(순우리말)를 많이 쓴다
- ③ 맞춤법 등 표기법이 다르다
- ④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쓴다
- ⑤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 ⑥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
- ⑦ 기타()





문11 아래에 제시된 단어 A와 단어 B 가운데 현재의 어문 규범에 상관없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A		①	②	단어 B
1)	이발소	①	②	리발소
2)	백분률	①	②	백분율
3)	연말연시	①	②	년말년시
4)	나무잎	①	②	나뭇잎
5)	귀가길	①	②	귀갓길
6)	최소값	①	②	최솟값
7)	커튼	①	②	카텐
8)	쇼파	①	②	소파
9)	로봇	①	②	로보트
10)	파리(Paris)	①	②	빠리(Paris)
11)	레스링	①	②	레슬링
12)	고마워요	①	②	고마와요
13)	먹을가요	①	②	먹을까요
14)	(배우가) 되었습니다	①	②	(배우가) 되었습니다
15)	폐쇄	①	②	폐쇄
16)	부력	①	②	뜰힘
17)	광합성	①	②	빛합성
18)	야구 장갑	①	②	야구 글러브

문12 아래에 제시된 단어 A와 단어 B는 남북한에서 다르게 쓰는 한글 자모의 이름입니다. 현재의 어문 규범에 상관없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A		①	②	단어 B
1)	기역	①	②	기억
2)	시옷	①	②	시웃
3)	디읃	①	②	디글
4)	쌍비읍	①	②	된비읍

문13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차이가 있다  **문13-1**
- ② 약간 차이가 있다  **문13-1**
- ③ 별로 차이가 없다  **문14**
- ④ 전혀 차이가 없다  **문14**

문13-1 (문13의 1, 2번 응답자만) 북한말과 재중 동포(조선족)의 말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발음이나 억양
- ② 단어 사용이나 표현
- ③ 맞춤법 등의 표기법
- ④ 높임법이나 화법 등의 언어예절
- ⑤ 전문용어나 공공언어
- ⑥ 기타()



II. 남북한 소통 문제

문14 다른 지역 방언(사투리)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①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②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③ 어느 정도 불편하고 낯설다 ④ 매우 불편하고 낯설다
⑤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문15 평소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이익이 된다 ②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
③ 어느 정도 불이익이 된다 ④ 매우 불이익이 된다
⑤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16 평소 말씨 때문에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17 표준어로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18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④ 기타()

문19 자녀가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어떤 말을 사용하길 바라십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해 주십시오.

- ①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 ② 지역 방언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 ③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
- ④ 기타()

문20 귀하를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문20-2** ② 대체로 그렇다 **문20-2**
 ③ 별로 그렇지 않다 **문20-1**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20-1**

문20-1 (문20의 3, 4번 응답자만)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골라 주십시오.

- ①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② 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
 ③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④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서
 ⑤ 대화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⑥ 기타()

문20-2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 ①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이다
 ② 문맥 혹은 정황으로 대강 파악하고 넘어가는 편이다
 ③ 몰라도 아는 척하고 대강 넘어가는 편이다
 ④ 내용 파악을 위해 굳이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⑤ 기타()

문21 귀하를 북한이탈주민들이 귀하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문21-2** ② 대체로 그렇다 **문21-2**
 ③ 별로 그렇지 않다 **문21-1**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21-1**

문21-1 (문21의 3, 4번 응답자만)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골라 주십시오.

- ①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② 북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
 ③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④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서
 ⑤ 대화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⑥ 기타()

문21-2 북한이탈주민이 귀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 ① 내용 파악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되물어 보는 편이다
- ② 되물어 보면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 ③ 상대방이 되물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 ④ 이해 못하는 것은 상대방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 ⑤ 기타()

문22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 상황	매우 많았다	어느 정도 있었다	별로 없었다	전혀 없었다
1) 내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였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마치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직접적으로 거절했더니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불쾌해하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5) 사과를 직접적으로 바로 했더니 상대방이 당황해하였다	①	②	③	④
6) 상대방이 칭찬을 했는데 내가 칭찬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7) 상대방과 약속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약속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8)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문23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생활에서 말씨 때문에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24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북한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북한말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표준어든 북한말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④ 기타()

문25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말(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문25-1**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문25-1**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문26**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26**

문25-1 (문25의 1, 2번 응답자만)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발음과 억양 ② 단어와 표현
 ③ 언어예절과 화법 ④ 사회·문화적 지식
 ⑤ 기타()

문26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말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차이가 난다 ②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③ 별로 차이가 없다 ④ 전혀 차이가 없다

문27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방송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②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③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④ 기타()

문28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 야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				
	매우 긍정적이다	약간 긍정적이다	중립적이다	약간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1) 보도(뉴스)	①	②	③	④	⑤
2) 시사교양	①	②	③	④	⑤
3) 드라마	①	②	③	④	⑤
4) 예능	①	②	③	④	⑤

문29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한다
 ②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③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질감을 강화한다
 ④ 북한말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한다
 ⑤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한다
 ⑥ 기타()



III. 통일 대비 언어정책

문30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 ② 경제
③ 문화 ④ 언어

문31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 ② 경제
③ 문화 ④ 언어

문32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문32-1**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문32-1**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문33**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33**

문32-1 (문32의 1, 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 ② 통일 후에 하는 것이 좋다
- ③ 통일 전후 어느 때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문33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노력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③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④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문34 남북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발음이나 억양
- ② 단어 사용이나 표현
- ③ 맞춤법 등의 표기법
- ④ 높임법이나 화법 등의 언어예절
- ⑤ 전문용어나 공공언어
- ⑥ 기타()

문35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할 사전을 편찬한다
- ② 남북한의 일상용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든다
- ③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④ 학교에서 통일 관련 언어 교육을 강화한다
- ⑤ 차이가 많이 나는 공공언어나 전문용어를 통합·정비한다
- ⑥ 북한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 ⑦ 북한말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
- ⑧ 기타()

문36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르쳐야 한다 **문37**
 ② 가르칠 필요가 없다 **문36-1**
 ③ 잘 모르겠다 **문37**

문36-1 (문36의 2번 응답자만) 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한 사람만 북한말을 배우면 되므로
- ②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
- ③ 우리 국민들이 북한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 ④ 기타()

문37 남한말과 북한말을 통합한다면 통합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 ② 북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 ③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통합한다



IV. 배경질문

배문1 태어난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 ⑰ 세종 | ⑱ 외국 | ⑲ 기타 | |





배문2 학교를 어느 과정까지 마치셨습니까?(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① 안 다녔음 | ② 초등학교 졸업 |
| ③ 중학교 졸업(재학) | ④ 고등학교 졸업(재학) |
| ⑤ 대학 졸업(재학) | ⑥ 대학원 재학 이상 |

배문3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 ② 자영업(종업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택시 기사 등)
- ③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판매원, 세일즈맨 등)
- ④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운전사, 선반, 목공 숙련공 등)
- ⑤ 단순 노무자(단순 노무, 수위 등)
- ⑥ 고위 공직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급 이상 공무원/교장/기업체 부장 이상)
- ⑦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언론인, 연구원 등)
- ⑧ 기술직 및 준전문직(기술직, 초/중/고 교사, 5급 공무원 등)
- ⑨ 일반 사무직(일반 회사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사무직 등)
- ⑩ 전업주부
- ⑪ 학생
- ⑫ 무직/퇴직/기타

배문4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배문5
- ② 기혼  배문4-1
- ③ 이혼  배문4-1
- ④ 사별(배우자 사망)  배문4-1

배문4-1 현재 자녀가 있습니까?

- | | |
|---------|---------|
| ① 자녀 있음 | ② 자녀 없음 |
|---------|---------|

배문5 현재 한 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
| ③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④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 ⑤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 ⑥ 500만 원 이상 |

배문6 귀하는 평소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배문7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배문8**
 ② 대체로 그렇다 **배문8**
 ③ 별로 그렇지 않다 **배문7-1**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배문7-1**

배문7-1 (배문7의 3, 4번 응답자만) 우리 국민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
 ②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
 ③ 비속어를 많이 쓴다
 ④ 줄임말 등 알 수 없는 말을 많이 쓴다
 ⑤ 기타()

배문8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②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③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④ 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배문9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5년 이내 | ② 6년~10년 |
| ③ 11년~20년 | ④ 21년~30년 |
| ⑤ 31년 이상 | ⑥ 불가능하다 |

ID				
----	--	--	--	--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설문지

설문-라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2016 남북 언어의식 조사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남북 언어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사에서 여쭙보는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무엇이 몇 %' 하는 식으로 집계될 뿐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조사기관



Hankook Research

연 락 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화: 02) 3290-1618)

이 름		소속 및 전공	소속(직위):
전화번호	- -		전공:
성 별	1. 남자 2. 여자	연 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소속 구분	1. 대학교 2. 연구원 3. 기타		



1. 남북 언어 인식

문1. 한국어의 틀 안에서 ‘북한말’ 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방언의 일종으로 본다
2. 북한 내의 규범어(문화어)로 본다
3. 남한어’ 에 대비되는 ‘북한어’ 라는 개념으로 본다
4. 이질화의 심화로 ‘남한어’ 와 전혀 다른 외국어가 되었다고 본다

문2. 남한말과 비교할 때 북한말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3	2	1
1. 정중하다				
2. 차분하다				
3. 세련되다				
4. 부드럽다				
5. 듣기 좋다				
6. 순박하다				
7. 강하다				
8. 느리다				
9. 가볍다				
10. 낯설다				
11. 품위가 없다				
12. 장황하다				
13. 불친절하다				

문3. 북한말과 비교할 때 남한말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3	2	1
1. 정중하다				
2. 차분하다				
3. 세련되다				
4. 부드럽다				
5. 듣기 좋다				
6. 순박하다				
7. 강하다				
8. 느리다				
9. 가볍다				
10. 낯설다				
11. 품위가 없다				
12. 장황하다				
13. 불친절하다				

문4.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3	2	1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5. 직설적으로 말한다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문5.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3	2	1
1.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2.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3. 한자어를 많이 쓴다				
4. 비속어를 많이 쓴다				
5. 직설적으로 말한다				
6.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7.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8.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문6. 남한말과 비교할 때 북한말이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
2. 고유어(순우리말)를 많이 쓴다
3. 맞춤법 등 표기법이 다르다
4.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쓴다
5.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6.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
7. 기타()

문7. 우리 사회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과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 문7-1
2. 아니다
3. 모름

문7-1. 어떤 점에서 그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외국에서 온 이주민처럼 대한다
2. 북한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자신의 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3. 북한말을 쓰는 사람과의 대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4.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5. 기타()



II. 남북한 소통 문제

문8.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중요하다
2. 약간 중요하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9. 다음 중 어떤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1. 가족, 친구, 지인과 일상 대화를 나눌 때
2. 은행, 병원,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서 업무를 볼 때
3.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 용어 중심 대화를 할 때
4.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을 보거나 들을 때
5. 기타()

문10.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문11
2.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문11
3.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문10-1, 문10-2
4.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문10-1, 문10-2
5.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문11

문10-1. 특히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1. 구직 시 또는 업무상의 불이익이나 차별
2. 연애, 결혼, 이웃과의 교류 등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
3.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이나 열등감
4. 기타()

문10-2.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사회의 다른 방언 화자에게 미치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다른 방언보다 매우 심하다
2. 다른 방언보다 약간 심하다
3. 다른 방언과 비슷하다
4. 다른 방언보다 약간 낮다
5. 다른 방언보다 매우 낮다

문11.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 문11-1, 문11-2, 문11-3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문11-1, 문11-2, 문11-3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문12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12

문1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언어 적응보다 자긍심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기타()

문11-2.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부분을 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발음과 억양
2. 단어와 표현
3. 언어예절과 화법
4. 사회·문화적 지식
5. 기타()

문1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1. 전문 교육 기관 신설
2. 국립국어원
3. 하나센터
4. 대학교
5.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실
6. 기타()

※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2009년부터 통일부 운영. 현재 전국에 31개의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여 4주간의 초기 집중교육과 취업, 상담 등 지원을 담당함. 일부 소통 관련 강의가 개설되어 있음.

문12.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르쳐야 한다 → 문12-1
2. 가르칠 필요가 없다 → 문12-2
3. 잘 모르겠다 → 문13

문12-1.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 언어 차이를 알리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2.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3. 북한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4. 통일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5.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6. 기타()

※ 현재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북한의 맞춤법, 자모 명칭, 남북의 어휘와 문법 차이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남북한 간 언어문화 차이, 발음과 억양 차이 등은 다루고 있지 않음.

문12-2. 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필요한 사람만 북한말을 배우면 되므로
2.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이 따르지 않으므로
3.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4. 기타()

문13.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 야	매우 긍정적이다	약간 긍정적이다	중립적이다	약간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5	4	3	2	1
1. 보도(뉴스)					
2. 시사교양					
3. 드라마					
4. 예능					

문14.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말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한다
2.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3.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질감을 강화한다
4. 북한말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한다
5. 북한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한다
6. 기타()

문15. 방송에서 남한 방송인이 흉내 내는 북한말과 실제 북한주민이 사용하는 말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차이가 난다 → 문15-1
2.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 문15-1
3. 별로 차이가 없다 → 문16
4. 전혀 차이가 없다 → 문16

문15-1. 남한 방송에 나오는 북한말이 실제와 차이가 난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발음과 억양이 어색해서
2. 북한에서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서
3. 사과, 칭찬, 질문,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4.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서
5. 기타()

문16. 텔레비전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방송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2. 표준어보다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4. 기타()

문17. 방송에서 북한말을 다루는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방송 심의 등)

1. 매우 제재가 필요하다
2. 약간 제재가 필요하다
3. 별로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



Ⅲ. 통일 대비 언어정책

문18.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
2. 경제
3. 문화
4. 언어

문19.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려운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
2. 경제
3. 문화
4. 언어

문20.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 문20-1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문20-1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문20-2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20-2

문20-1. 그렇다면 남북 언어 통합 노력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2. 통일 후에 하는 것이 좋다
3. 통일 전후 어느 때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문20-2.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통일 후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2. 언어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3. 기타()

문21.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노력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3.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4.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문22. 남북 통일 대비 언어 규범은 어느 부분이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맞춤법 등의 언어 규범 통합 문제
2. 특정 지역 중심의 공용어(표준어) 제정 문제
3.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언어 교육 문제
4. 외래어 등의 언어 순화 문제
5. 기타()

문23.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남북한 공통 사전 편찬(국어사전, 방언사전, 전문용어 사전)
2. 남북한 생활용어집 제작 및 배포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표준어 교육 상시화
4. 남한 교과서의 통일 관련 교육 강화
5. 공공언어, 전문용어 대조 및 통합 방안 마련
6. 북한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7. 북한어 관련 연구 강화

문24. 문23에서 제시된 정책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한 공통 사전 편찬(국어사전, 방언사전, 전문용어 사전)
- 남북한 생활용어집 제작 및 배포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표준어 교육 상시화
- 남한 교과서의 통일 관련 교육 강화
- 공공언어, 전문용어 대조 및 통합 방안 마련
- 북한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북한어 관련 연구 강화

문25. 남한말과 북한말을 통일한다면 통일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일한다
2. 북한말을 기준으로 통일한다
3.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통일한다

문26. 통일에 대비해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 문26-1
2. 아니다 → 문26-2
3. 모름 → 문27

문26-1.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위상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통일부 산하로 언어 정책을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언어 정책을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 (국어원과 별도)
3. 행정 각부에서 독립되어 언어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4. 현재의 국립국어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5.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언어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26-2. 언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기존의 기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2. 새로운 기관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으므로
3. 기본적으로 언어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4. 기타()

문27.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최근까지 수행한 남북 언어 관련 사업입니다. 각 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 연구(한중연 공동, 2007)
- 전문용어 분석 연구(2015)
-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2007, 2008)
-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2008)
-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2013)

※ 국립국어원은 국어 발전을 위한 어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연구 사업을 주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임(www.korean.go.kr)

문28. 통일부에서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2.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다
3.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4. 잘 모르겠다



IV. 배경질문

배문1. 귀하는 평소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관심이 있다
2.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배문2.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 배문3
2. 대체로 그렇다 → 배문3
3. 별로 그렇지 않다 → 배문2-1
4. 전혀 그렇지 않다 → 배문2-1

배문2-1. 우리 국민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
2.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
3. 비속어를 많이 쓴다
4. 줄임말 등 알 수 없는 말을 많이 쓴다
5. 기타()

배문3. 평소 표준어와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표준어든 지역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4. 기타()

배문4.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2.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3.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4. 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배문5.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5년 이내
2. 6년~10년
3. 11년~20년
4. 21년~30년
5. 31년 이상
6. 불가능하다

배문6.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만나 대화를 하십니까?

1. 거의 매일 대화를 한다
2.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3. 몇 번 대화한 적이 있다
4.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경험이 없다

배문7.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어떤 경로로 접하십니까? 또는 북한어는 어떤 경로로 주로 접하십니까?

1. 지인
2. 기관, 단체, 기타 모임
3. 연구 조사 대상
4. 학술 교류
5.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간접 대면
6. 기타 ()

연구 책임자 박종선(한국리서치 수석부장)

공동 연구원 도원영(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최경봉(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경봉(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정미(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수)

이상혁(한성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강진웅(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이대성(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보조 연구원 차준경(고려대학교), 노석은(고려대학교)

최광선(한국리서치), 송한나(한국리서치)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6 년 11 월 25 일

발행일: 2016 년 11 월 25 일

인 쇄: 한국리서치 인쇄소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